

나주학 총서 2집

2022

나주동학농민혁명의 재조명



〈집필〉(가나다순)

김봉곤(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연구교수)

김양식(청주대학교 조교수)

김희태(전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나천수(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장)

나카츠카 아키라(일본 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

박경중(전 나주문화원장)

박영수(원광대학교 총장)

야구 마코토(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연구교수)

이노우에 가츠오(일본 홋카이도대 명예교수)

이영기(나주학회 고문)

한규무(광주대학교 교수)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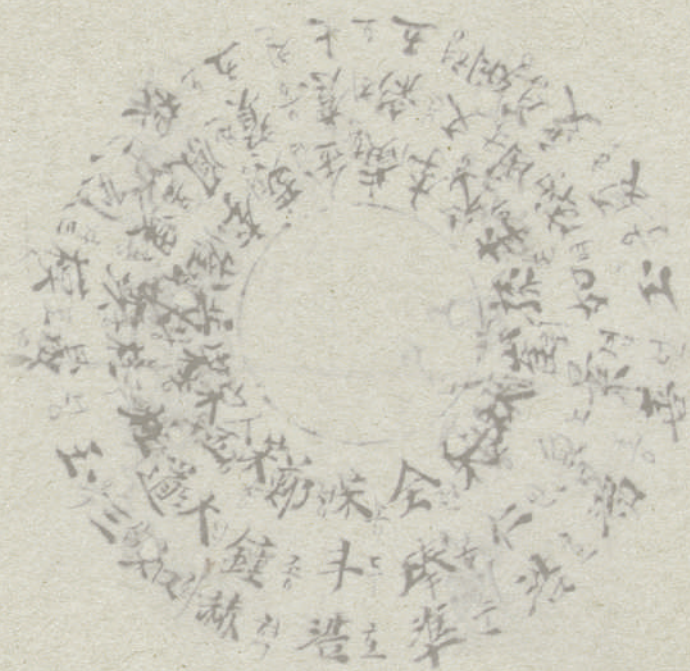
선영란(나주시 학예연구사)

〈표지설명〉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장(기084-2).

기사년(1893) 음력 11월 작성된 사발통문.

나주동학농민혁명의 재조명



[발간사]

역사의 우연과 필연 사이에서 나주동학을 봅니다



우리시는 1874년 동학농민전쟁의 과정에서 유일하게 집강소가 설치되지 못한 고장입니다.

농민군 지도자들이 총동원되어 나주성을 공략했지만 수성군이 철통같이 방어하였고, 11월 24일 전열을 정비한 농민군이 마지막으로 나주성 공략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한 고장입니다.

12월부터 나주에는 토벌군 총본영인 초토영이 설치되어 관군과 일본군이 주둔하였습니다. 전봉준은 순창에서, 최경선은 화순 동복에서, 손화중은 전북 흥덕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끌려왔다가 서울로 압송되었습니다. 전라도 각지에서 잡힌 많은 농민군 역시 이곳으로 압송되어 고문당하거나 희생되었습니다.

역사는 우연과 필연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나주에서 동학농민군과 수성군의 전투는 역사적 필연이었다고 봅니다. 나주읍성은 전라도의 행정중심이자 농민봉기의 발단을 제공했던 향리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주둔과 동학농민군의 압송과 포살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의 필연은 우연을 통해 관철되고, 우리의 삶은

술한 우연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반봉건, 반외세를 외치던 동학농민군 중 상당수가 의병이 되었고, 농민군을 진압했던 향리층도 상당수 나주의병을 주도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우연과 필연의 산물임을 다시금 실감합니다.

이 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최된 ‘나주동학 한일 학술대회’ 성과와 나주동학 관련 자료 해제와 참여자 현황을 추가하여 엮은 책입니다. 시민들이 나주동학의 전개과정과 선양 방향을 이해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발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나주시장 윤 병 태

[축간사]

인내천(人乃天)사상은 동학의 핵심사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주시의회 의장 이상만입니다.

나주동학농민혁명 재조명 책자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고자 이번에 책자 발간에 정성을 다하신 윤병태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동학의 참된 의미를 확산코자 열과 성을 다하신 박맹수 총장님과 원광대학교 관계자 여러분, 나천수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 회장님과 회원님들, 나주학회 회원 여러분, 시민단체 여러분, 그리고 아픔의 역사를 넘어 화해와 극복의 길로 나가기 위해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는 인내천(人乃天)사상은 동학의 핵심사상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이런 사상을 실현키 위해 분연히 일어난 민중의 위대한 함성이었습니다. 또한 부패한 봉건주의에 힘껏 맞서고 악랄한 제국주의에 맹렬히 저항하기 위한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함성과 행동은 3.1운동과 4.19혁명, 5.18민주항쟁으로 계승되어 역사의 고비마다 불의에 항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표출되었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탄압과 부조리한 억압을 스스로 허물고 역사의 위기마다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근간에는 모두 동학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나주동학농민혁명 재조명 발간 책자를 계기로 우리사회에 동학사상을 지속적으로 계승해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하나같이 존중받고 나아가 인류 모두가 하늘처럼 받아들여진다면 전 세계는 비로소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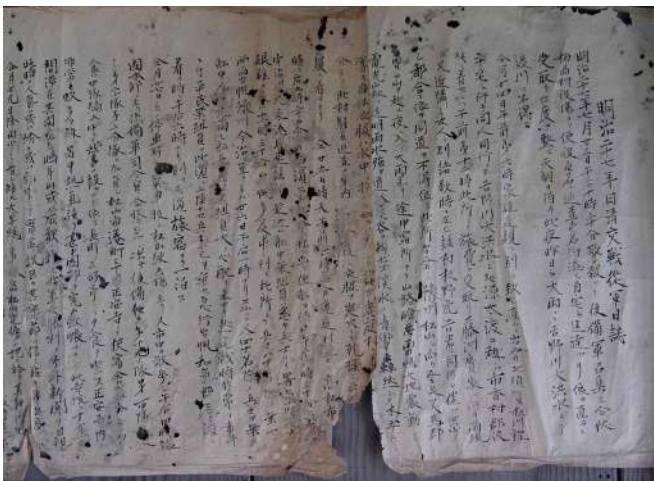
우리 가슴속에 동학정신을 다시금 새길 수 있도록 나주동학농민혁명 재조명 책자 발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 모두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가치를 기리고 화해와 극복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나주시의회 의장 이 상 만



나주동학농민혁명 한·일 학술대회(2019.10.30., 나주나빌레라문화센터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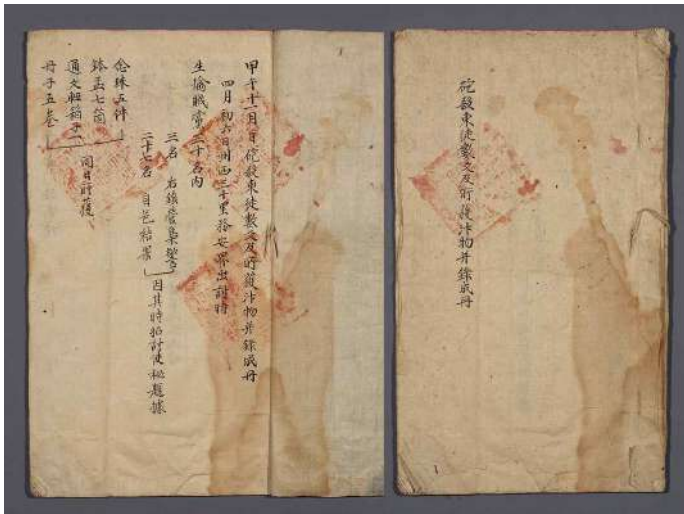
일본군 쿠스노키 비요키치(楠美代吉) 상등병이 남긴 종군일지(박맹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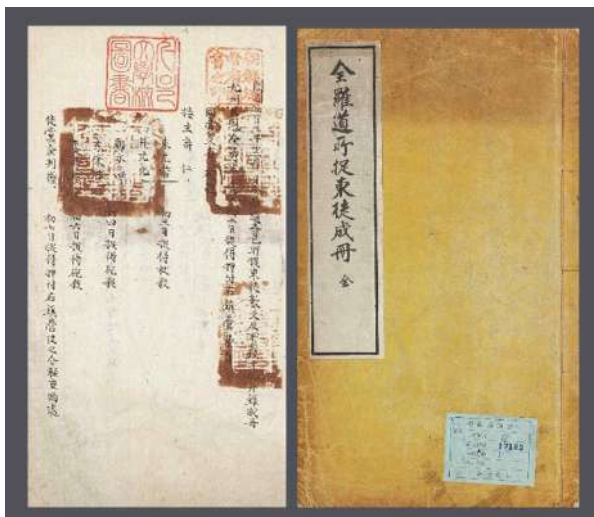
‘한·일 동학기행 시민교류회’의 나주 답사(2020.10.27.)



제17회 한·일 동학기행 시민교류회의 나주 방문(2022.10.1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구630) 호남초토사 보고문서,
『포살동도수효급소획즙물병록성책(砲殺東徒數文及所獲汁物并錄成冊)』(김희태 제공)



서울대 규장각 소장(奎17189) 호남초토사 보고문서,
『전라도소착동도성책(全羅道所捉東徒成冊)』

목 차

□ 발간사 / 나주시장 윤병태

□ 축간사 / 나주시의회 의장 이상만

책을 발간하면서 / 박맹수 11

1부. 동아시아와 나주동학농민혁명

東アジア史と東學農民革命 / 나카즈카 아키라 17

동학농민혁명기 나주동학농민군의 확산과 활동 / 김봉곤 29

동학농민군의 나주 공략과 호남초토영의 방어 전략 / 나천수 63

동학농민혁명기 나주 수성군의 조직과 활동 / 김봉곤 93

동학농민혁명군의 나주로의 압송과 처형 / 김희태 127

2부. 나주동학농민혁명, 한(恨)에서 흥(興)으로

日本軍と羅州東學農民革命 / 이노우에 가츠오 161

나주동학농민혁명, 한(恨)에서 흥(興)으로 / 박맹수 185

나주의 동학 관련 유적지 현황과 활용방안 / 한규무 209

나주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모색 / 김양식 237

나주동학농민혁명과 나주 정체성 / 박경중 269

3부. 나주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와 참여자 현황

나주지역 동학관련 구술자료 / 나천수·이영기 279

나주지역 동학농민혁명자료 해제 / 박맹수·김봉곤·야규 마코토 313

나주동학농민혁명군 관련 연표와 참여 인명록 / 김희태 347

나주동학농민혁명기 호남초토영군 출전장령성명질(出戰將領姓名秩) / 김희태
..... 369

인명색인 / 383

책을 발간하면서

박 맹 수

(원광대학교 총장, 동학 전공)

먼저, 나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실상과 그 세계사적 의의를 널리 드러내는 『나주동학농민혁명의 재조명』이라는 수준 높은 전문 연구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윤병태 현 나주시장님, 강인규 전 나주시장님,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 2021년 등 세 차례에 걸쳐 나주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에 기조강연자 및 발표자로 참여 하심으로써 나주동학농민혁명이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물론이려니와,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널리 드러내 주신 나카츠카 아키라(中塚 明) 나라여자대학(奈良女子大學) 명예교수님과 이노우에 가츠오(井上勝生) 홋카이도대학(北海道大學) 명예교수님을 비롯한 일본 측 발표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세 차례의 국제학술대회가 원만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실무 지원을 도맡아주신 나주시 윤지향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나주목향 토문화연구회장 나천수 박사님, 나주학회 회원 여러분, 원광대 원불교사상 연구원의 관계자(김봉곤 연구교수, 야규 마코토 연구교수, 이주연 책임연구원, 김태훈 행정실장) 여러분께도 각별히 감사 인사를 전한다.

끝으로 특별히 감사드려야 할 분은 서예가 강림 김재룡 선생님이다. 강림 선생께서는 동학농민혁명이 지향했던 혁명이념 ‘보국안민(輔國安民)’을 비롯하여 동학(東學)의 사상이 잘 드러나는 글귀를 서예 작품으로 표현하여 전시회를 준비해 주심으로써 학술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빛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18일 나주시 텃자리곰탕에서 진행된 ‘제 17회 한일 시민이 함께 하는 동학기행’에 참가한 일본 측 참가자 한 분

한 분께 귀중한 작품을 기증함으로써 한일 두 나라 시민들의 우호와 상생 협력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셨으니 그 공덕이 크다 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27년 전인 1895년 1월 5일, 동학농민군 진압 전담부대인 일본군 후비보병(後備步兵) 제 19대대 제 1중대와 본부대가 나주성에 들어왔다. 당시, 일본군 후비보병 제 19대대는 제 1중대, 제 2중대, 제 3중대 등 3개 중대와 본부대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병력은 약 7백여 명 규모였다. 후비보병 19대대는 대본영 직할인 남부병참감부 소속으로서 그 핵심 임무는 동학농민군을 전라도 서남부로 내몰아 ‘전원살육 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동학농민군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나주성에 입성한 제 19대대 본부대 및 제 1중대는 입성 직후 다시 부대를 3개 지대(枝隊)로 나누어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진도 등으로 남하하여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후에 2월 8일 나주성을 떠나 서울로 복상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 19대대 본부대 및 제 1중대가 나주성에 주둔한 기간은 무려 35일간이나 된다. 이 35일 동안 후비보병 제 1중대 및 본부대는 전라도 전역에서 체포, 압송되어 온 동학농민군을 참혹하게 ‘학살’했다. 그렇다면 35일간 나주성에서 학살(虐殺)당한 동학농민군의 숫자는 얼마나 되며, 학살된 동학농민군 시신들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동학농민혁명 당시, 나주성에서 학살당한 동학농민군의 진상은 1백 년 이상 까맣게 망각되어 왔다. 그런데 지난 2012년 3월, 마침내 나주에서 학살당한 동학농민군들의 참상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결정적인 사료가 일본에서 발견되기에 이른다. 후비보병 제 19대대 제 1중대 소속으로 나주성을 거쳐 장흥 ‘석대들 전투’까지 참전했던 쿠스노키 비요키치(楠美代吉) 상등병이 남긴 종군일지가 필자의 일본 유학시절 지도교수였던 이노우에 카츠오(井上勝生) 홋카이도대학 명예교수의 손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이 노우에 교수는 쿠스노키 상등병의 고향 도쿠시마현(徳島県)을 방문하여 현지 향토사가의 도움을 받아 종군일지를 찾아냈고, 곧바로 그 사본을 당시 초빙교수 자격으로 교토대학에 머물고 있던 필자에게 제공했다. 여기에 그 종군일지가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나주 동학농민군의 참상에 관

한 내용을 인용한다.

1895년 2월 4일

오전 8시 30분 영암을 출발하여 오후 5시에 나주부에 도착하였다. 행군 거리가 70리였다. 나주부는 옛날에 임나(任那)라고 부르던 곳이다. 성이 있는데, 서남쪽으로 산을 둘러싸고 30여 척의 석벽을 주위에 쌓고 4대문은 돌 터널을 만들었다. 요새가 견고한 곳으로 성안에는 4만 여 호가 있다. 당지(當地)에 도착하니 남문(南門)으로부터 4정(4백 미터-주)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산이 있었고, 그곳에는 사람의 시체가 쌓여서 실로 산을 이루고 있었다. 이는 지난 번 장흥부 전투(1895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주) 이후에 수색을 엄밀하게 하여 숨어 있을 곳이 곤란해 진 농민군이 민보군 또는 일본군에 포획되어 책문(責問; 고문-주)을 한 다음에 중죄인(重罪人)을 죽인 것이 매일 12명 이상으로 103명을 넘었으며, 그리하여 이곳에 시체를 버린 것이 680명에 달하여 그 근방에는 악취가 진동하고, 땅은 죽은 사람들의 기름이 하얀 은(白銀)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이렇게 많은 시체를 본 것은 전쟁 중에 일찍이 없던 일로써 농민군의 시체는 개나 새들의 밥이 되고 있었다.(고딕은 필자)

위 내용에 따르면, 1895년 2월 4일 당시 나주성 남문 근처에는 나주성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 후비보병 제 19대대에 의해 학살당한 농민군이 무려 680명에 이르고, 그 버려진 시신들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은처럼 얼어붙어 있었으며, 수많은 동학농민군 시신들이 개나 새들의 밥이 되고 있었다고 전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들 대부분이 ‘중죄인’ 즉 동학농민군 가운데 접주 이상의 간부급에 해당하는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이다. 일반 동학농민군은 전투 현장에서 즉시 ‘총살, 장살, 돌살, 소살’ 되었기 때문에 680명 속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주 일대에서 일본군에게 학살당한 동학농민군 수는 향후 더욱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나주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들이 일본군에게 가장 많이 학살당한 ‘한’(恨)의 땅이다. 우리는 이 ‘한’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승화시켜 가야 할까?

그 답을 찾고자 한일 두 나라 양심적 지식인과 시민들이 손을 잡았다.

‘일본의 양심’으로 불리는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님과 필자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한해도 빠짐없이 두 나라의 양심적 지식인들과 시민들이 참가하는 ‘한일 시민이 함께 하는 동학기행’(이하, 동학기행)이라는 답사여행을 계속해 왔다. ‘동학기행’을 계속하는 동안 일본인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과거 제국주의 일본이 자행한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로 인해 고통받은 한국인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고, 일본인들로부터 사죄의 말을 경청한 한국인 참가자들 역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어가기 시작했다. 수년 년 필자와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님이 이끄는 ‘동학기행’ 일행이 나주시를 찾은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나주학회 나천수 박사와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님, 이노우에 가츠오 교수님 사이에 역사적 화해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 대화의 핵심은 바로 일본군에 의해 다수의 동학농민군이 학살당한 ‘한’의 땅 나주를 ‘흥’(興)의 땅, 곧 동아시아의 평화와 상생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만들어 보자는 대화였다.

이번에 나오게 된 <나주동학농민혁명의 재조명>은 바로 일본 측의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님, 이노우에 가츠오 교수님 두 분 양심적 연구자가 이끈 일본 측 ‘동학기행’ 참가자들과, 나주학회 나천수 박사와 필자가 이끄는 한국 측 ‘동학기행’ 참가자들이 의기투합한 가운데, 나주시와 나주학회가 동참하고, ‘동학기행’을 주관하는 일본측 여행사인 후지국제여행사가 적극 지지한 가운데 2019년, 2020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개최된 ‘나주동학 한일 학술대회’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을 ‘동학기행’을 함께 한 한일 두 나라 양심적 지식인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보국안민’을 위해 싸우다 나주시에서 희생당한 동학농민군 영령께 바친다.

2022. 12.

1부
동아시아와
나주동학농민혁명

東アジア史と東学農民革命

中塚 明

(日本 奈良女子大学 名誉教授)

1. 東学農民戦争から100年をへて — 韓国・日本でのできごと
2. 軽視できない日本での「韓国・朝鮮への偏見」
3. 歴史の事実を学ぶ市民の交流こそ未来を切りひらく道

はじめに、125年前、日本軍の侵入に反対して立ち上がった東学農民軍をこの全羅南道の地に追いつめ、皆殺し作戦を繰り広げた日本の兵隊は、私の祖父の時代の日本人です。ここに日本人の一人としてあらためて心よりお詫び申し上げます。

1. 東学農民戦争から100年をへて — 韓国・日本でのできごと

19世から20世紀へこの時期の世界の歴史は、帝国主義の侵略とそれに反対する民族の独立・自主のたたかい、帝国主義国内での人民への抑圧とそれに反対する自由と民主主義をめざすたたかいの歴史でした。そして大局的に言って後者、民族の独立・自主のたたかい、自由と民主主義をめざすたたかいが勝利した時代でした。

東アジアのなかの「日本帝国」日本では、幕府と大名による分散割拠の政治体制から、1868年、天皇を頂点とする中央集権的な統一政権が実現しました。この政府は発足のはじめから欧米の帝国主義国と

同じ道をめざし、隣国、朝鮮(ここでいう「朝鮮」とは、現在の大韓民国・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を合わせた、北は鴨緑江・豆満江から南は済州島にいたる領域をさしています)への侵略をすすめました。

1875年、ソウルの玄関口にあたる江華島へ不法な攻撃をしかけ、翌年には朝鮮に不平等な条約を結ばせ、その19年後、日清戦争(1894~95)を、そしてその10年後には日露戦争(1904~05)を引き起こしました。この二つの戦争は、朝鮮を日本の支配下におくことをめざした侵略戦争でした。1910年には「大韓帝国」を滅ぼし日本の領土にしました。

「日本帝国」の崩壊日本帝国は、1931年、さらに中国への侵略戦争を始めましたが、中国の抗日運動に直面し、アメリカやイギリスなど帝国主義国との対立も深めることになりました。その結果、1945年に日本帝国は崩壊しました。韓国を植民地にしてから35年、日露戦争から40年、日清戦争から50年、明治維新から77年で、日本帝国は慌だしく勃興し、そして没落したのです。そして敗戦後74年の歳月をへて現在の日本があります。

歴史と伝統のある朝鮮 朝鮮半島に築かれた国家の歴史は、ドイツやフランスなどの国民国家にくらべても、はるかに古いものです。長い歴史と伝統・文化を育んできた国です。帝国主義国のすすめた植民地支配の歴史でも、このような古い歴史と伝統を持つ、しかも隣の国をまるごと植民地にした日本と朝鮮のような関係は世界に例がありません。

東学農民革命の抗日蜂起したがって、日本は朝鮮侵略のはじめから朝鮮人民の抗日闘争に出会います。日本による本格的な朝鮮侵略戦争であった日清戦争は、そのはじめから侵略に反対する朝鮮人民のたたかいに直面しました。東学の思想と組織に導かれた東学農民の抗日闘争は、日清戦争中の朝鮮の日本帝国主義に反対する朝鮮人民のたたかいの主力をなすものでした。

東学農民革命の抗日蜂起から100年東学農民の抗日闘争は、後に日本帝国が中国をはじめ東アジアで直面する抗日運動のさきがけとなった歴史的 position を占めていました。大韓民国では、1980年代の民主化運動のなかで東学農民の歴史についての事実解明と再評価が進み、東学農民革命の蜂起から110年目に当たる2004年には、韓国の国会で東学農民戦争参加者の名誉回復が実現したことはご承知のとおりです。

「帝国崩壊」後の日本世界の民族独立と反ファシズムの戦いに敗れて日本帝国は崩壊しました。そして主権在民の憲法の原則のもと、国会図書館をはじめ地方の図書館も充実し、資料の公開も進みました。日本帝国の時代には「国家の機密」として隠され続けてきた記録の公開も進みました。1994年、日清戦争100周年の年、福島県立図書館で、1894年の日清戦争が日本軍によるソウルの景福宮の占領、国王を擒にする作戦から始まったことを詳細に書いた旧日本陸軍参謀本部編纂の日清戦争の戦史の草案が見つかったのも、日本帝国崩壊後の学問・思想の自由が実現されたことによる一つの成果でした。

日本における東学農民革命の研究またほぼ時を同じくして、北海道大学文学部での「東学党指導者の遺骸」の発見、そして北海道大学文学部の碩学、井上勝生教授を中心とする歴史研究者による日清戦争当時の東学農民に対するジェノサイド作戦の真相究明が、朴孟洙先生(現、円光大学校総長)をはじめ韓国の諸先生との共同研究を重ねながら進むことになりました。日本における東学農民革命研究の画期的前進が実現したのです。

日韓の市民交流「日韓の市民が一緒に行く東学農民軍の歴史を訪ねる旅」が2006年から毎年行なわれています。今年も昨日、第14回目の旅を終えたところです。この日韓の市民交流の継続は、日本のジャーナリストにも注目され、昨年のこの旅に参加した『朝日新聞』の記者によって、今年、2019年1月、同紙上に「東学農民戦争をた

どって」と題する五日間にわたる連載記事が載りました。この記事は、日本の大新聞が、東学農民の抗日闘争について、その歴史的意味を肯定的に報道した、近代日本史上はじめての記事でした。

2. 軽視できない日本での「韓国・朝鮮への偏見」

軽視できない日本人の偏見最近の日韓関係を考えるにつけても、私たちがあらためて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日本人の韓国・朝鮮についての偏見」の問題です。1945年の日本帝国の敗戦は、この偏見を根本的に改める機会でしたが、日本政府は明治以来の朝鮮侵略政策について、いっさいの歴史的反省を拒否してきました。アメリカの対日政策に追随した日本政府は、この1945年の敗戦を一部の日本陸軍の指導者の誤りによるものとし、明治以後の朝鮮侵略に批判的なメスをふるうことを拒否したのです。

『古事記』『日本書紀』以来新羅蔑視を主とする古代からの朝鮮への蔑視観は、明治以後、日本政府主導の「韓国併合」にいたる侵略政策によって日本で国民的規模で増幅されました。それが1945年の敗戦後も清算されることなくつづきました。山辺健太郎や梶村秀樹などの日本人歴史家、また在日韓国人・朝鮮人の歴史家の努力にもかかわらず、日本の国民の間で日本の朝鮮侵略の事実認識が進まず、司馬遼太郎の『坂の上の雲』が拈げた「明るい明治」対「みじめな昭和前半」といういわゆる「明治栄光論」が、日本政府の公認の歴史観であるかのようにいまでも日本人の間にひろく流布しているのです。

安倍晋三による偏見の増幅こういう敗戦後の日本の傾向にさらに近年、輪をかけているのが安倍晋三と彼がひきいる日本政府です。安倍晋三は2015年、「戦後70年談話」で明治時代について、「百年以

上前の世界には、西洋諸国を中心とした国々の広大な植民地が、広がっていました。圧倒的な技術優位を背景に、植民地支配の波は、十九世紀、アジアにも押し寄せました。その危機感が、日本にとって、近代化の原動力となったことは間違いありません。アジアで最初に立憲政治を打ち立て、独立を守り抜きました。日露戦争は、植民地支配のもとにあった、多くのアジアやアフリカの人々を勇気づけました」と言い、日本による朝鮮の植民地支配に決定的な道を開いた日露戦争を、あたかも「植民地解放戦争」であったかのように公言したのです。

3. 歴史の事実を学ぶ市民の交流こそ未来を切りひらく道

日本人の朝鮮への偏見の新たなページを開いているのが安倍晋三と彼が率いている今日の日本政府です。それに少なくないマスコミが追従しているところに、現在の日本の韓国・朝鮮への偏見の新たな展開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しかし、このいまの日本政府やマスコミが煽り立てている韓国・朝鮮への偏見をひろげる動きは世界に通用しません。1945年の敗戦にいたる「日本帝国」が世界史のどういう展開のなかで崩壊したのか、そのことについて思いめぐらすこともなく、「歴史的無知」に陥っている現在の安倍晋三が率いる日本政府に未来はありません。

最近、韓国への偏見がまき散らしている日本でも、この日本の風潮は「おかしい」と考えている日本の市民が少なくないことを、韓国の皆さんにお伝えし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 東京大学名誉教授の和田春樹さんたちが呼びかけた日本政府に韓国政府との冷静な対話を呼びかけた声明「韓国は『敵』なのか」には9,500人の賛同者があり

ました。歴史の事実をしっかり知りたいと思っている日本人も少なくありません。このことを今日の機会に韓国の皆さまにもお伝えし、東北アジアの平和実現のため、日韓の市民交流の一層の発展を願って私の話を終わ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번역문]

동아시아 역사 속의 동학농민혁명

나카츠카 아키라(中塚 明)

(일본 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

1. 동학농민전쟁 이후 100년 : 한국과 일본에서 일어난 일
2. 경시할 수 없는 일본에서의 '한국·조선에 대한 편견'
3. 역사의 사실을 배우는 시민교류야말로 미래를 개척하는 길

125년 전에 일본군 침입에 반대하여 봉기한 동학농민군을 이곳 전라남도 지역까지 추격하여 몰살작전을 전개한 일본 군대는 제 할아버지 시대의 일본인입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써 마음 깊이 사죄드립니다.

1. 동학농민전쟁 이후 100년 : 한국과 일본에서 일어난 일

1) 19세기에서 20세기로

이 시기의 세계 역사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그것에 반대하는 민족의 독립·자주의 싸움, 제국주의 국가 안에서의 인민에 대한 억압과 그것에 반대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대국적으로 말하면 후자, 민족의 독립·자주의 싸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싸움이 승리한 시대였습니다.

2) 동아시아 안에서의 '일본제국'

일본에서는 막부와 다이묘(大名)에 의한 분산할거의 정치체제에서 천황

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통일정권으로의 전환이 1868년에 실현되었습니다. 이 정부는 발족 당시부터 서구 제국주의와 같은 길을 지향하고, 이웃나라 조선(여기에서 말하는 ‘조선’이란 현재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합친, 북으로는 압록강·두만강에서 남으로는 제주도에 이르는 영역을 가리킵니다)에 대한 침략을 진행했습니다.

1875년에 서울의 현관에 해당하는 강화도에서 불법적인 공격을 꾸미고, 다음 해에는 조선에 대해 불평등 조약을 맺게 하고, 그로부터 19년 뒤에는 청일전쟁(1894~1895)을, 그리고 10년 뒤에는 러일전쟁(1904~1905)을 일으켰습니다. 이 두 개의 전쟁은 조선을 일본의 지배하에 두려고 한 침략전쟁이었습니다. 1910년에는 ‘대한제국’을 멸망시키고 일본의 영토로 삼았습니다.

3) ‘일본제국’의 붕괴

일본제국은 1931년에는 중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시작했는데, 중국의 항일운동에 직면하여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제국주의와의 대립도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45년에 일본제국은 붕괴했습니다.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지 35년, 러일전쟁이 일어난 지 40년, 청일전쟁이 일어난 지 50년, 메이지유신이 일어난 지 77년만에 일본제국은 황급하게 발흥했다 몰락한 셈입니다. 그리고 패전하고 74년의 세월을 거쳐 현재의 일본이 있습니다.

4) 역사와 전통이 있는 조선

조선반도에 세워졌던 나라의 역사는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국민국가에 비해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기나긴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축적해온 나라입니다. 제국주의가 진행한 식민지 지배의 역사에서도 이렇게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게다가 이웃에 있는 나라를 통째로 식민지로 삼은 일본과 조선과 같은 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5) 동학농민혁명의 항일봉기

그래서 일본은 조선침략 시작부터 조선인민의 항일투쟁과 대면했습니다. 일본에 의한 본격적인 조선침략 전쟁이었던 청일전쟁은 그 시작부터 침략에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동학의 사상과 조직이 이끄는 동학농민의 항일투쟁은 청일전쟁 중에 일본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의 주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6) 동학농민혁명의 항일봉기로부터 100년

동학농민의 항일투쟁은 이후에 일본제국이 중국을 비롯하여 동아시아에서 직면하게 되는 항일운동의 선구가 된다는 역사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동학농민의 역사에 대한 사실해명과 재조명이 진행되었고, 동학농민혁명 봉기 110년째에 해당하는 2004년에 국회에서 동학농민전쟁 참가자의 명예회복이 실현된 것은 아시는 바대로입니다.

7) ‘제국붕괴’ 후의 일본

전 세계적인 민족독립과 반(反)파시즘의 투쟁에 패하여 일본제국은 붕괴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권재민의 헌법 원칙 하에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지방 도서관에서도 충실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제국 시대에는 ‘국가기밀’로 감추어져 온 기록의 공개도 추진되었습니다. 청일전쟁 100주년이 되는 1994년에 후쿠시마현립(福島県立) 도서관에서 1894년의 청일전쟁이 일본군에 의한 경복궁 점령, 국왕을 포로로 삼는 작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상세하게 쓰여진 구(舊) 일본육군참모본부가 편찬한 청일전쟁 전사(戰史) 초안이 발견된 것도 일본 제국 붕괴 후에 학문과 사상의 자유의 실현이 가져온 하나의 성과였습니다.

8) 일본에서의 동학농민혁명 연구

또한 거의 같은 시기에 홋카이도대학(北海道大學) 문학부에서 ‘동학당 지도자의 유해(遺骸)’가 발견되었고, 홋카이도대학 문학부의 석학 이노우에 가쓰오(井上勝生)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연구자에 의한 청일전쟁 당시의 동학농민에 대한 제노사이드(대량학살) 작전의 진상규명이 박맹수 선생(현 원광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한국의 여러 선생님들과의 공동연구를 거듭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획기적인 전진이 실현된 것입니다.

9) 한일시민교류

「한일시민이 함께 가는 동학농민군의 역사를 찾아가는 여행(日韓の市民が一緒に行く東学農民軍の歴史を訪ねる旅)」이 2006년부터 매년 행해져 왔습니다. 올해도 어제 제14회째의 여행을 막 끝냈습니다. 이 지속적인 한일시민교류는 일본의 저널리스트에게도 주목 받아 작년에 이 여행에 참가한 『아사히신문(朝日新聞)』기자에 의해 2019년1월에 「동학농민전쟁을 찾아서(東学農民戦争をたどって)」라는 제목으로 『아사히신문』에 5일 동안 연재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일본의 중앙 신문이 동학농민의 항일투쟁이 지니는 역사적인 의미를 긍정적으로 보도한 근대 일본 역사상 최초의 기사였습니다.

2. 경시할 수 없는 일본에서의 ‘한국·조선에 대한 편견’

1) 경시할 수 없는 일본인의 편견

최근의 한일관계를 생각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일본인의 한국·조선에 대한 편견’문제입니다. 1945년의 일본제국 패전은 이 편견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였

는데, 일본정부는 메이지 이래의 조선침략정책에 대해서 일체의 역사적인 반성을 거부해 왔습니다. 미국의 대일정책을 추종한 일본정부는 1945년의 패전을 일부 일본육군 지도자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메이지 이후의 조선침략에 비판적인 칼날을 들이대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2) 『고사기(古事記)』 『일본서기(日本書紀)』 이후

신라 멸시를 주로 하는 고대로부터의 조선에 대한 멸시관은 메이지 이후 일본정부 주도의 ‘한국병합’에 이르는 침략정책에 의해 일본에서 국민적 규모로 증폭되었습니다. 그것이 1945년의 패전 후에도 청산되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야마베 겐타로(山辺健太郎, 1905~1977)나 카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1935-1989)와 같은 일본인 역사가, 또는 재일 한국인·조선인 역사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 사이에서 일본의 조선침략의 사실인식이 진전되지 않고,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 1923~1996)의 『언덕 위의 구름(坂の上の雲)』(이송희 역, 명문각)이 확산시킨 ‘밝은 메이지(明治)’ 대 ‘비참한 쇼와(昭和) 전반’이라고 하는 이른바 ‘메이지 영광론’이 일본정부가 공인한 역사관인 것처럼 지금도 일본인 사이에서 널리 유포되고 있습니다.

3) 아베 신조에 의한 편견의 증폭

패전 후의 이러한 일본의 경향에 최근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아베 신조와 그가 이끌고 있는 일본정부입니다. 아베 신조는 2015년에 「전후(戰後) 70년 담화」에서 메이지 시대에 대해서, “100여년 전에 전 세계에는 서양 제국(諸国)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확장시킨 식민지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배경으로 식민지 지배의 파도는 19세기 아시아에도 밀어닥쳤습니다. 그 위기감이 일본에게 있어 근대화의 원동력이 된 것은 틀림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입헌정치를 수립하고 독립을 지켰습니다. 러일전쟁은 식민지 지배 하에 있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었습니다.”라고 하여, 일본

에 의한 조선의 식민지 지배에 결정적인 길을 연 러일전쟁을 마치 ‘식민지 해방전쟁’이었던 것처럼 공언한 것입니다.

3. 역사의 사실을 배우는 시민교류야말로 미래를 개척하는 길

일본인의 조선에 대한 편견에 새로운 막을 열고 있는 것이 아베 신조와 그가 이끌고 있는 오늘날의 일본정부입니다. 여기에 적지 않은 매스컴이 추종하고 있는 것에서 오늘날 일본의 한국·조선에 대한 편견의 새로운 전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일본정부나 매스컴이 부채질하고 있는 한국·조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움직임은 세계에 통용되지 않습니다. 1945년의 패전에 이르게 된 ‘일본제국’이 세계사의 어떤 전개 속에서 붕괴한 것인가, 이 점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역사적 무지’에 빠져 있는 현재의 아베 신조가 이끌고 있는 일본정부에 미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한국에 대한 편견이 확산되고 있는 일본에서도, 이런 풍조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일본 시민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한국인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동경대학 명예교수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씨 등이 중심이 되어 일본정부에 대해 한국정부와의 냉정한 대화를 촉구한 성명 “한국은 ‘적’인가?”에는 9,500명의 찬성자가 있었습니다. 역사의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싶어 하는 일본인도 적지 않습니다. 이 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인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실현을 위해 한일 시민교류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하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역 : 조성환(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동학농민혁명기 나주동학농민군의 확산과 활동

김 봉 곤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연구교수)

1. 머리말
2. 나주지역 동학전파와 나주동학농민군의 초기활동
3. 「나주명록(羅州名錄)」과 나주동학농민군의 확산
4. 제2차 동학농민혁명과 나주동학농민군의 활동
5. 맺음말

1. 머리말

1894년 나주 지역은 윤봉과 함께 흔히 동학농민혁명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1894년 5월 5일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과 전라감사 김학진 사이에 화약이 맺어졌으나, 나주목사 민종렬과 향리, 전라우영장 이원우와 군인들, 그리고 민보군의 활동 등에 의해 7차에 걸친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패배함에 따라 나주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나주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을 바라보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나주수성군의 활동이 활발하였던 나주읍성의 경우에 타당할 것이다.¹⁾ 나주지역은 영장(營將)과 하리(下吏)들의 부정으로 1889

1) 나주지역의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다룬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이상식, 박맹수, 홍영기, 「나주지방의 동학농민혁명」, 『전남동학농민혁명사』, 전라남도, 1996 ; 표영삼, 「나주지역 혁명운동」, 『교사교리연구』7, 2000 배항섭, 「나주지역 동학농민전쟁과 향리층의 동향」, 『동학연구』 19, 한국동학학회, 2005. 9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나주성 공방에 초점에 맞추어 있다. 나주읍성의 민종렬과 수성군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배항섭은 나주읍성의 경우에도 1894년 8월 13일 전봉준이 나주목사 민종렬과 담판을 지어 모종의 타협을 이루었

년부터 3년 동안 민란이 일어난 지역이었기 때문에²⁾ 나주지역의 정서가 부정부패 척결과 보국안민의 기치를 내세운 동학농민혁명의 이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나주지역은 임진왜란 이래 왜적의 침략에 맞서서 싸운 의병의 정신과 충혼을 기려온 곳이었기 때문에, 1894년 9월 이후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제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동조하는 인물들이 늘었다. 이에 비해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은 갑오개혁에 의해서 신분제가 타파되면서 나주성 외곽에서는 동학농민군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또한 집강소 설치를 거부했던 나주목사 민종렬이나 동학농민군과 전투를 벌인 나주우영장 이원우 역시 동학농민군의 항의에 의해 파직되기도 했다. 나주수성군과 동학농민군과의 전투 역시 주로 나주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공방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당시 나주성 외곽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나주동학농민군의 확산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된 나주동학의 직임을 적은 『나주명록(羅州名錄)』이다. 이 나주명록은 나주성 외곽에서 나주북쪽을 장악하였던 오권선의 동학군의 조직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주성 북쪽 외에도 금성산 자락과 영산강 지역 곳곳에서 동학농민군이 활동하였음이 포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이러한 『나주명록』과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나주지역 동학농민군의 실체를 최대한 찾아내고 이들의 활동상을 통해 나주 지역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하여 문혀져 버린 나주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복원하고 나주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다고 하였다(배항섭, 같은 글, 75쪽). 집강소를 설치하지는 못하였지만, 민종렬이 김학진의 관민상화의 원칙을 따르게 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2) 배항섭, 「나주지역 동학농민전쟁과 향리층의 동향」, 『동학연구』 19, 한국동학학회, 2005. 9, 66~68쪽.

2. 나주지역 동학전파와 동학농민군의 초기활동

나주에 동학이 최초로 전파된 것은 대체로 1885년 무렵으로 보인다. 표영삼은 『천도교창건록(天道敎創建錄)』을 검토하여 「정광조(鄭廣朝) 연원란(淵源欄)」에 나주 출신인 만암(滿菴) 강대열(姜大說)이 1885년에 입도하여 수접주(首接主)를 지냈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가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³⁾ 이후 1892년과 1893년 사이에 공주와 삼례 교조신원운동기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나주지역에서도 교도수가 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참가한 인물로 정정식(鄭正植)과 이정헌(李正憲)·강해원(姜海遠)이 있는데,⁴⁾ 이들은 1892년 이후에 입도한 사람들이다.

나주동학 교도들은 1893년 3월 척양척왜(斥洋斥倭)와 탐관오리 척결을 외치고 모인 충청도 보은집회에 70명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선무사 어윤중이 두 번째 올린 「선무사재차장계(宣撫使再次狀啓)」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나, 동면(東面) 관리(官里)의 장리들이 기록하여 보고한 내용에는 초 2일에 돌아간 사람은 전라도에는 함평(咸平)·남원(南原)·순창(淳昌)·무산(茂山)·태인(泰仁)·영광(靈光) 등의 지역 사람이 200여 명이고, 경상도에는 성주접(星州接)이 30여 명, 선산접(善山接)이 30여 명, 상주접(尙州接)이 90여 명이고, 충청도 도내에는 옥천접이 30여 명, 영동접(永同接)이 50여 명입니다. 초 3일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돌아간 사람은 전라도에는 장수접(長水接)이 230여 명, 영암접(靈巖接)이 40여 명, 나주접(羅州接)이 70여 명, 무안접(務安接)이 80여 명, 순천접(順天接)이 50여 명이고, 영남에는 하동접(河東接)이 50여 명, 상주접이 20여 명, 선산접이 60여 명, 김산접(金山接)이 18명, 진주접(晉州接)이 60여 명, 인동접(仁同接)이 4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⁵⁾

3) 표영삼, 「나주지역 혁명운동」, 『교사교리연구』7, 2000, 3쪽.

4) 같은 글.

5) 宣撫使再次狀啓 魚允中兼帶 (聚語)

선무사 어윤중은 4월 3일에 인근의 영암접 40여 명, 무안접 80여 명과 함께 나주접에서 70여 명이 참가하여 돌아갔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호남 전체를 놓고 볼 때에도 장수접 230여 명, 무안접 80여 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1893년에 이르면 나주지역에서도 척왜양의 민족적 운동과 탐관오리 척결이라는 정치사회적 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1894년 3월 제1차 동학농민혁명 발발하자, 나주지역에서도 3월 26일 나주 동학군을 이끌고 오중문(吳仲文, 勸善)과 전유창(全有昌), 강대열(姜大說), 전천옥(全天玉), 김진선(金鎭善), 김진옥(金鎭郁) 등이 백산창의에 참여하였다.⁶⁾ 이 중 오권선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졌다. 오권선은 자가 중문(重文)이며, 나주 삼가리 사람으로 “그의 조상 나성군(羅城君)이 나주에 봉해 지고 연이어 4대가 습봉(襲封)하여 수십 세의 구묘(邱墓)가 있다.”⁷⁾라고 하였듯이 나주의 명문거족 출신이다. 그는 1893년 3월 보은집회와 1894년 3월 백산창의에도 참가하였으며, 1894년 이른바 ‘구동학(舊東學)’ 대접주로서 따르는 무리가 수천명에 달하였다.⁸⁾

그러나 나주지역 동학농민군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나주성 공략이 쉽지 않았다. 나주목사 민종렬이 전라병영과 전라우영의 지원을 받아 강력한 수성전을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동학농민군들은 나주성을 거쳐 장성에 진출하고자 하였을 때에 동학농민군측은 4월 18일 나주 공형(公兪) 앞으로 글을 보내서⁹⁾ 나주목사 민종렬의 항복을 권유하였다. 보국안민을 위하여 일어난 동학농민군에 맞서면¹⁰⁾ 피의 보복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으름

6) 표영삼, 「나주지역 혁명운동」, 『교사교리연구』7, 2000. 3쪽.

7) 『금성정의록』갑편, 「동과 오권선」

8) 같은 글: 여기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른바 ‘구동학(舊東學)’이란 부분인데, 필자의 견해는 오권선이 전봉준이나 김개남의 연원이 아니라 그 최시형 - 김낙철, 김낙봉 형제의 연원이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9) 『오하기문』首筆, 4월 18일조, “賊黨通文于羅州公兪”

10) 동학농민군은 우리들이 금일에 일으킨 의거는 위로 나라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케 함이다.(『오하기문』首筆, 4월 18일조, 其略曰吾儕今日之義 上報國家下安黎民)라고 그 목적을 명시하였다)

장을 놓고, 다음과 같은 항복조건을 제시하였다.

- 1) 각 고을에서 징발한 병사들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 농사일에 전념하게 하라
- 2) 간혀 있는 동학교도들을 바로 풀어주면, 너희가 관할하는 지역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¹¹⁾

각 고을에서 징발한 군사를 집에 보내고, 나주성에 간혀 있는 동학교도를 풀어주면 싸우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이 글을 통해 나주성에는 이미 각 고을에서 징발된 병사들이 전투준비에 들어갔으며, 4월 18일 이전에 동학교도 즉 동학농민군을 체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호전기(兩湖電記)』 4월 11일자 전보에 따르면 나주목사 민종렬은 농민군 19명을 체포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때 동학농민군은 나주성을 결국 공격하지 않았다. 수비가 견고하여 쉽사리 함락시키기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나주성을 공격하는 대신 장성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라감영이 있었던 전주성을 공략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후 나주성에서도 나주진영에 파견된 200명의 병사들은 전라병영에 되돌아가게 되자, 민종렬은 4월 25일(양력 5월 29일) 나주우영, 이노작대, 민보군을 합한 1,000여 명의 수성군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1894년 4월 무안의 동학농민군 500명이 나주 서쪽 거평에 둔취하자 민종렬과 나주 영장 이원우가 수성군을 출동시켜 여춘(汝春) 등 30명을 죽였다.¹²⁾ 또한 동학농민군과 전라감사 김학진 사이에 5.5일 전주화약이 이루어진 이후로도, 나주목사 민종렬은 귀가하는 농민군 32명을 살해하였다. 이처럼 민종렬이 계속적으로 동학농민군에 적대적인 정책을 표방하자, 전봉준은 전주화약을 깨지 않기 위해 나주를 공격하는 대신 5월 11일 원정(原情)

11) 『오하기문』首筆, 4월 18일조, “各邑募軍 一併放送歸農 在囚道人 卽爲解散”

12) 「錦城平賊碑文」, “四月務安匪類 五百餘名 聚寇于州西居平 侯與營將 率軍追捕 得汝春等三十名殺之”

을 통해 전라감사에게 민종렬의 파직을 요청하였다.¹³⁾

그러나 전라감사 김학진의 미온적인 태도로 나주목사 민종렬은 파직되지 않았고, 여전히 동학농민군의 나주 입성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에 나주 지역 동학농민군은 말을 듣지 않은 민종렬이 이끄는 수성군을 격파하고, 나주성을 해방시켜 죄수를 석방하고, 신분제 해방 등 각종 폐정개혁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오권선은 나주성 북쪽의 동학농민군을 결속시키고 군사훈련을 시켰다.

(오권선은) 고부·장성·완산(完山) 등에서 3차례 접전이 있는 뒤부터 조걸(助槓)하여 합세한 자였다. 이때에 이르러 때를 다투어 나주로 들어오려고 온갖 계책으로 성을 함락하기 위해 5, 6월 두 달이 교차하는 시기에 하루하루 더욱 창궐(猖獗)함이 심해져서 나주의 북쪽 40리가 모두 형극(荊棘)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들이 행군을 할 때는 소리를 불고 포를 쏘고 큰 깃발을 세우고 좋은 말을 타고 평림(平林)과 신시(新市) 및 북창 등지를 오갔다. 백성들을 약탈하고 농사짓는 소를 죽이고 농가의 식량을 빼앗아 밤낮으로 배불리 먹어 대니 마을마다 먹이고 공양하느라 모두 빈 집이 되었다. 집집마다 곡식을 넣는 항아리가 모두 비어 백성들의 삶은 어육(魚肉)과 같으니 그 고통과 비참함의 실상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다.

전봉준이 파직을 요청한 이후, 오권선은 5,6월 사이에 더욱 절치부심하여 나주성을 공략하기 위하여 행군연습과 총쏘는 연습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당시 나주북부 40리를 망라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동학농민군에게 각종 식량과 물자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성에서는 나주동학농민군의 기세에 놀려 출성하지 못하고 성의 수비를 강화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처럼 나주 북부 지역이 오권선 등 동학농민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자, 교임(校任) 이원서(李源緒), 진사(進士) 김영대(金永大)는 나주경내의 사림들에게 통문을 발송하여 거의(擧義)를 모색하였으나, 민종렬이

13) 배항섭, 「나주지역 동학농민전쟁과 향리층의 동향」, 『동학연구』19, 한국동학학회, 2005. 9, 74~75쪽

“어찌 사림으로 하여금 그 흉봉(凶鋒)에 부딪쳐 그 화를 두루 입게 하겠는가”라고 만류하고, 대신 군교와 사졸을 독려하고 순찰을 강화하였다는 것이다.¹⁴⁾

수성군과 나주동학농민군과의 전투는 동학농민군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6월 말 경 나주의 오권선과 고부의 최경선의 연합부대가 결성되었다. 『금성정의록』에 따르면

7월 1일

적괴(賊魁) 최경선이 무리 수천을 이끌고 유린하여 멀리 몰아와 곤장 본주(本州)를 공격하였다. 오권선이 창귀(尙鬼)가 되어 그 무리를 이끌고 금안동(金安洞)에서 합진(合陣)하고 수삼 일을 침략하고는 금성산(錦城山)에 개미처럼 주둔하였다.¹⁵⁾

라고 하여 6월 말 최경선이 동학농민군 수천명을 이끌고 나주를 공격해 들어올 때 오권선 역시 기포하여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금안동에서 합진하여 3,4일 동안 이 지역을 평정하고 금성산 각처에 포진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전투는 7월 5일 시작되었다. 동학농민군은 금성산을 넘어 서성문을 공격해 들어갔으나, 7월 5일 관군의 대포와 천보총에 밀려 나주성 공략에 실패하게 되었고, 동학농민군이 1,000 여 명이 죽음을 당하였으며,¹⁶⁾ 붙잡힌 동학농민군도 100 명에 달하였다고 한다.¹⁷⁾

동학농민군은 7월 5일 나주성 공략에 실패함으로써 받은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또한 붙잡힌 동학농민군도 구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최경선은 재차 나주성을 공격하기 위해 당시 장성에 머물고 있었던 전봉준에게 군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전봉준은 전주화약 이후 조성된

14) 『금성정의록』갑편, 「동괴 오권선」

15) 『금성정의록』갑편, 7월 1일조.

16) 『오하기문』2필

17) 『금성정의록』을편, 초토사보군공별지[招討使報軍功別紙], “七月初五日 賊徒數萬名 直西門 聲勢甚危急 鄭台完嚴束吏民 分定行伍 不避矢石 大戰一場 捕捉賊徒百餘名 所獲軍器無數”

관민상화의 원칙을 깨지 않기 위해 최경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¹⁸⁾ 그리고 또 다시 전라감사 김학진에게 파직을 요청하였다. 전라감사 김학진도 이번에는 동학농민군 측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수 많은 동학농민군이 죽음을 당한 상태에서 전봉준의 의사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나주목사 민종렬과 영장 이원우의 파직을 조정에 요청하였다.¹⁹⁾ 조정에서도 결국 7월 18일 나주목사 민종렬을 동부승지로 전직시키고 공조참의였던 박세병(朴世秉)을 나주목사에 임명하였으며,²⁰⁾ 나주영장 이원우도 7월 27일 총어영 좌2번 기사장으로 옮기기로 했다.

그런데 1달이 채 못된 8월 17일 전라감사 김학진이 조정에 장계를 올려서 나주목사를 유임시킨다.²¹⁾ 전라감사 김학진이 다시 장계를 올려 유임시킨 것에 대해서 『오하기문』에서는 아전과 백성들이 가로 막았고, 나주영장 이원우 또한 파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비를 강화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월 13일 전봉준이 김학진의 서찰을 갖고 나주성을 방문하였던 것과 관련하여,²²⁾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금성정의록』에서는 8월 13일 나주관아에서 전봉준이 민종렬에게 동학농민군의 거역는 탐관오리를 쫓아내고 폐정개혁을 위함이었다고 하였으나, 민종렬은 동학농민군이 수령이나 관찰사를 쫓아내어 국가통치질서를 무너뜨리고 경군에 항거한 난군(亂軍)이니 빨리 죄를 뉘우치고 귀화하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전봉준은 부하들의 옷 몇 벌을 수성군에게 맡기고 서야 겨우 탈출에 성공하였다는 것이다.²³⁾ 그러나 이와는 달리 오지영의 동학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8) 『오하기문』2필

19) 나주목사 민종렬과 나주영장 이원우 등에 의해 동학도가 많이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전봉준이 두 사람을 파직시켜야만 도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고 김학진을 협박하였고, 김학진 역시 동학농민군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자신의 생각을 굽혔다는 것이다. 『오하기문』2필, 8월조.

20) 『오하기문』2필; 승정원일기 1894년 7월 19일.

21) 『승정원일기』1894. 8. 17 ; 양상형, 『백하유고』, 「錦城平賊碑文」, “是月 侯見遞 住民失色 如不欲生 道臣啓請因任 民歡喜相慶”

22) 『금성정의록』갑편, 8월 13일.

23) 같은 글.

이 消息을 드른 全大將은 羅州義軍에 通奇하야 崔景善으로 하여금 軍을 갖추워 도라 오게 하고 全大將이 스스로 從者 數人을 다리고 羅州邑에 이르니 四門의 守城이 오히려 懈惰치 않는지라 이와갓치 危險地임도 不拘하고 全大將은 바로 東門으로 달녀 드러 바로 官廬에 드러가 馬를 階下에 머므르고 卽時 牧使인는 官房으로 드러섰다 當 光景이 매우 唐荒하였섯다 이새 牧使는 어느 營門인지를 몰나 惶忙히 이러나며 무려曰 손님은 누구심닛가 말하였다 答曰 나는 倡義大將 全臻準이로다 牧使 그 말을 듯고 어간이 병병하야 엇지 할 줄을 몰났섯다 全大將曰 主官은 勿怪하쇼서 君도 朝鮮사람이오 나도 朝鮮사람이라 朝鮮사람으로써 朝鮮사람 對하기를 엇지 이와 갓치서 어이하나뇨 方今 우리 朝鮮에 東西의 外寇들이 저의 强暴함을 밋고 弱한 우리를 먹고저 무서운 맘을 버리고 독한 손을 나미나니 君은 아느냐 모르느냐 어서 밋비 꿈을 깨우라 君이 만일 나를 對抗할 힘이 잇거든 마음대로 하라 牧使- 全大將의 氣風을 보고 言語를 들음에 忽然肝膽이 서늘하고 語門이 막히여 敢히 一辭를 卽치 못하고 오죽 머리를 숙이여 前後事由를 들기를 請할 뿐이다 全大將이 다시 天下大勢며 洪啓薰과 講和하든 말이며 各郡에 執綱所를 設하고 國事を 해 가는일 等 前後首末을 낫낫치 말하니 事理堂堂하고 威風이 凜凜하야 牧使는 다만 一言으로써 唯唯할 자름이러라 이 날에 羅州獄에 갓쳐 잇는 罪囚들은 다 解放되고 一邊으로 執綱所를 設하야 政事를 보게 하나라²⁴⁾

이 자료에 따르면 최경선이 동학군 3천명을 거느리고 나주성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수 백명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전봉준이 직접 나주목사를 면담하여 조선을 집어 삼키려는 일본과 서양세력에 맞서 단결해야 할 필요성과 전주화약의 결과와 집강소를 설치하여 함께 국사를 해 나가게 되었다는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하자, 나주목사 역시 전봉준의 말에 따라 죄수를 석방하고 집강소를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과연 두 기사 중 어느 것이 타당할 것인가. 8월 17일 김학진이 민중렬의 유임을 조정에 건의한 것은 민중렬 역시 김학진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편지를 가지고 간 전봉준 역시 민중렬에게 김학

24) 오지영, 「義軍이 全羅各郡에 執綱所를 設立」, 『東學史(草稿本)』

진의 서찰을 전하고 관민상화의 원칙에 따라 담판을 벌인 결과. 나주목사 민종렬이 결국 김학진의 뜻을 수용하였으며, 전봉준이 이를 전라감사 김학진에게 보고함으로써 김학진이 민종렬의 유임을 건의하는 장계를 올렸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죄수가 간혀 있었다는 것은 4월 18일 동학농민군이 나주성을 공격하기 위해 내세운 명분이었으며, 7월 5일 서성문 전투에서도 100명의 동학농민군이 붙잡혔다는 기사를 통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봉준의 담판에 따라 죄수를 석방하였다는 것은 사실로 여겨진다. 다만, 집강소 설치 문제가 되는데, 1894년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작성된 「나주명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나주 지역에는 집강소와 유사한 동학조직이 설치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에 대해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집강소는 5월 5일 전주에서 물러날 때 관에 제시한 다음 내용에 따른 것이다.

1. 농민군은 전주성을 다시 관군에게 비워준다.
2. 농민군은 해산하여 본업으로 돌아간다.
3. 관군은 해산하는 농민군을 추격하여 체포하지 않는다.
4. 전라도 각지에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하여 동학교도와 농민들을 행정에 참여시킨다.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내어주는 대신 동학농민군은 안전한 철수를 보장받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각지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동학교도와 농민들을 지방행정에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이후 전라도 53개 주에는 관아에 집강소가 설치되고, 동학도들이 지방행정에 주체적으로 관여하기에 이른다. 전주에는 집강소의 총본부인 대도소(大都所)를 두어 전봉준이 수천명의 동학교도들을 거느리고 금구(金溝)·원평(院坪) 등지를 근거로 하여 전라우도를 호령하였고, 김개남(金開南)은 수만의 동학교도를 거느리고

남원을 근거로 하여 전라좌도를 호령하였다. 각 고을에서는 동학교도가 각 고을(邑)의 집강이 되어 지방의 치안질서는 그들에 의해 유지되기에 이르렀다. 집강소의 장(長)에는 집강 1인을 두고, 지방의 행정기관과 같은 분장 아래 서기·성찰(省察)·집사(執事)·동몽(童蒙) 등의 임원을 두어 행정사무를 맡아 보게 하였다. 군수나 현령·현감은 이름뿐으로 형식상 자리에 지나지 않았으며, 서리들은 모두 동학에 입적해야만 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다.²⁵⁾

그러나 나주성의 경우 동학농민군과 나주 수성군 사이에 대립이 컸고, 동학농민군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강해서 다른 군현과 같이 수령이나 향리들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강력한 집강소의 형태는 기대하기 어렵다. 나주읍성이 아닌 외곽지역에 집강소가 설치되어 나주지역에서도 동학농민군들에 의해 폐정이 감시되고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3. 「나주명록(羅州名錄)」과 나주동학농민군의 확산

1) 「나주명록(羅州名錄)」의 검토

전술하였듯이 나주에서는 전봉준이 8월 13일 민중렬을 직접 만나 담판한 이후 김학진은 민중렬의 유임을 바라는 장계를 올려 민중렬은 그대로 나주목사에 유임될 수 있었다. 이후 민중렬도 전주화약의 정신에 따라 관민상화의 원칙을 존중하게 되어, 동학농민군이 9월에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켜 북상하고, 1894년 9월 29일 민중렬이 호남소모사로 임명되어 동학농민군과 대립하기 전까지는 비교적 평화로운 분위기가 전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오권선 등 동학농민군측에서는 나주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을 위하여 군비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동학의 포교에

25) 신용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일조각, 1993, 209-213쪽

나섰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러한 증거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는 「나주명록(羅州名錄)」과 함평과 무안의 접경지대인 다시면 지역에서의 동학교도들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먼저 「나주명록」은 1894년 7월분과 1894년 9월분 두 개의 나주 동학도(東學徒)의 명단이다. 7월명록에는 45인의 성명과 자(字) 본관 거주지 그리고 나이가 기록되어 있다. 그 중 38명은 나주, 나머지 7명은 함평 거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비해 두 번째의 명록은 단순히 성명과 직임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총인원은 73명이다. 직임의 명칭이 도집(都執), 교수(教授), 집강(執綱)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동학의 육임(六任) 조직임을 알 수 있다.²⁶⁾ 9월 명록은 7월 명록에 기재된 나주출신 38명과 새롭게 추가된 36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맨 위의 전교장(前敎長) 겸(兼) 도금찰(都禁察) 김진선(金鎭善)과 전교수(前敎授) 겸(兼) 접주(接主) 김진욱(金鎭郁)은 백산대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²⁷⁾ 7월 명록에도 맨 앞에 기록되어 있다. 9월 명록의 경우는 7월 명록과는 달리 새롭게 참여한 인물은 본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본관이나 나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김씨 중에 鎭과 洛을 향렬로 쓰는 경우 부안김씨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부안김씨로 파악하면 24명에 이르고 있어서 9월 명록의 1/3에 해당되는 인물이 부안김씨가 된다.

이제 7월 명록에 기재된 인물들을 나주와 함평으로 구분하고 나주거주자에 대해서 본관을 파악하도록 하자.

위 표에서 9번 김맹종(金孟宗) 외 14명이 진(鎭)과 낙(洛)자 향렬이다. 9월 명록의 경우는 본관과 거주지,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표에서 2번 김진묵(金鎭默) 외에는 모두 9월 명록에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7월 명록에 수록된 인물이 거의 대부분 9월 명록에 수록되어 있으며, 진(鎭)과

26) 박맹수 역시 이 명록을 통해 갑오년 당시 六任制와 같은 동학조직 제도가 농민군 조직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박맹수, 『사료로 보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모시는 사람들, 2009. 129쪽.

27) 표영삼, 「나주지역 혁명운동」, 『교사교리연구』7, 2000. 3쪽.

(1) 나주거주자

① 부안김씨 15명(7월) +9명(9월)

연번	성명	자	본관	거주	나이	직책(9월)	비고(족보)	
							생몰연대	묘소 및 특이사항
1	金鎭善	君明	부안	나주		전교장겸도금찰	1846-1909	동림동 사자등
2	金鎭默	君伯	부안	나주		(없음)		김진옥과 동일인물
3	金世表	致道	부안	나주		도집	1854-1914	장성 북일면
4	金鎭邦	正萬	부안	나주		교수겸교수		
5	金鎭必	明吾	부안	나주		전점사겸교수	1860-?	북작등 뒤
6	金洛煥	道均			1866.12.29	집강점접사	1866-?	동림동 사자등
7	金洛允	應化	부안	나주	26세	집강점금찰		
8	金鎭大	景煥				집강점교수	1870-?	
9	金孟宗		부안	나주	17세	집강점교수		
10	金鎭煥	明煥			?	교수	1854-?	북동천상
11	金鎭佑	允天	부안	나주		교수	1858-?	
12	金鎭漢	成七	부안			집강		
13	金鎭相	景善				대정	1869-?	
14	金洛仲	敬仲	부안			대정점집강		
15	金洛雲	童蒙	부안	나주		대정 동몽	1877-1936	동림동 사자등
16	金鎭旭					전교수점접주		(2번 김진묵)
17	金鎭孝	效行				교수겸교수	1855~?	동림동 사자등
18	金鎭明					집강		
19	金鎭龜					집강점교수	1860-?	양산동 점복등
20	金鎭坤					집강점교수	1860-?	동림동 사자등
21	金鎭錫	(君瑞)				교장	1845-?	동림동 자등
22	金洛現	(植淑)				대정	1883-1902	동림동 사자등
23	金洛教					대정		
24	金洛種					봉도	1881-?	지산동 안산
25	金鎭學	(瑀玉)					1853-?	양산동

〈김진묵과 김진옥은 동일한 인물로 추정되므로, 부안김씨는 25명중 24명인데, 현재 16명이 파악되었다.〉²⁸⁾ 족보에는 연원일이 모두 기록되어 있으나, 편의상 월일은 생략했다. ()는 족보상의 자이다. 부안김씨는 구(丘,文貞公,1211~1278)의 후손이며, 직장공파조는 취(璣, 사온서 직장, 태종대)이다.〉

28) 『扶安金氏直長公派譜』(1993,계유) 및 『扶安金氏族譜』(2018,무술) 참조.

낙(洛)의 항렬을 따르는 인물은 부안김씨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9월 명록의 부안김씨 명단은 총 25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7월 명록에 등장하는 김진묵의 경우, 9월 명록에서 김진선, 김진옥, 김세표 순서로 되어 있고 김진선의 직임이 전교수겸 접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김진묵과 김진옥이 동일인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9월명록에는 부안김씨가 9명이 되며, 이렇게 해서 확정된 부안김씨는 24명이다.

이 중에서 족보를 통해 현재 16명이 파악되었다. 이들은 성명과 자(字), 생년(生年)이 일치하며, 묘소도 대부분 기재되어 있다. 묘소의 경우는 오늘날 광산구 본량동 일대이다. 동림동 사자등은 부안김씨 일족들이 모여살고 있는 양산동 신평마을 뒷산으로서 이곳에 부안김씨 선산이 밀집되어 있다.

② 평산신씨 5명

성명	자	본관	거주지	나이	직책	비고
申錫圭		평산	나주	35	前都執兼禁察	
申錫必	德中	평산	나주	36	教授	
申碩逢	德行	평산	나주	33	執綱	
申永謀	公盡	평산	나주	36	執綱	
申孝才	동몽	평산	나주	14	中正	

평산신씨는 7월 명록에 5인인데, 9월 명록에 기재되어 있는 신옥량(申玉郎)을 평산신씨로 추정하면 총 6인으로 늘어난다.

③ 밀양박씨5인

성명	자	본관	거주지	나이	직책(9월)	비고
朴宗擇	景文	밀양	나주	31	大正	
朴鳳玉	鳳來	밀양	나주	38	집강	
朴夢國	동몽	밀양	나주	21	증정	9월(金夢國)
朴夢實	동몽	밀양	나주	18	증정	
朴長龍	동몽	밀양	나주	17	증정	

밀양박씨는 7월 명록에 5인, 9월 명록에 5인 그대로이다.

④ 광산김씨 5명

성명	자	본관	거주지	나이	직책	비고
金明國	在元	광산	나주	34	교수	
金相業	明淑	광산	나주	47	教授	
金相悅	白賢	광산	나주	32	大正	烈 → 悅
金倉龍	동몽	광산	나주	17	대정	龍 → 用
金才鉉	동몽	광산	나주	23	대정	

광산김씨는 7월 명록에 5인, 9월 명록에 5인 그대로이다.

⑤ 전주이씨 2인

성명	자	본관	거주지	나이	직책	비고
李信守	明善	전주	나주	34	집강	
李永根	明淑	전주	나주	42	교수	

전주이씨는 7월 명록에 2인, 9월 명록에 2인 그대로이다.

⑥ 장수황씨 2명

성명	자	본관	거주지	나이	직책	비고
黃成龍	汝化	장수	나주	36	執綱兼教授	
黃丁郁	雲吾	장수	나주	36	大正	郁 → 默

장수황씨는 7월 명록에 2인, 9월 명록에 2인 그대로이다.

⑦ 장택고씨 1인

성명	자	본관	거주지	나이	직책	비고
高起學	景善	장택	나주	35	執綱	

장택고씨는 7월 명록에 1인, 9월 명록에 1인.

⑧ 진주하씨 1인

성명	자	본관	거주지	나이	직책	비고
河啓獻	道淑	진주	나주	31	執綱禁察	

진주하씨는 7월 명록에 1인, 9월 명록에 1인 그대로이다.

⑨ 평택임씨 1인

성명	자	본관	거주지	나이	직책	비고
林良書		평택	나주	37	집강	

평택임씨는 7월 명록에 1인. 9월 명록에 1인 그대로이다.

⑩ 김해김씨 1인

성명	자	본관	거주지	나이	직책	비고
金幕洞	童蒙	김해	나주			

김해김씨는 7월 명록에 1인이다.

2) 9월 나주명록 중 성(姓) 만을 알 수 있는 경우

金萬順, 金相秀, 申玉郎(大正), 宋在玉(大正), 金學成(奉道), 金萬葉, 金甲

秀, 金玆碣, 金華祚, 李斗星(中正), 張贊謀(都執), 白宗三(教授), 張良允(執綱), 金宗善(教授), 文永道(執綱), 宋正勸, 李永奎, 曹秉圭, 張丁永, 金南書, 金世福, 金逢書, 金在煥, 李相永(教長), 金世顯(前接司) 등 25명이다.

결론적으로 나주 거주자는 7월의 경우 총 38명 중 부안김씨 15명, 평산신씨 5명, 광산김씨 5명, 밀양박씨 5명, 진주이씨 2명, 장수황씨 2명, 장택고씨 1명, 진주하씨 1명, 김해김씨 1명, 평택임씨 1명순이다. 9월의 경우는 73명 중 본관을 확인할 수 있는 48명은 7월의 38명과 새롭게 추가된 부안김씨 9명, 그리고 본관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김(12), 송(2), 이(3), 장(3), 신(1), 백(1), 문(1), 조(1) 등의 성씨 25명 등 총 73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에서 총 73명의 명단 중 부안김씨가 25명이나 되는데, 나주지역에 부안김씨가 많이 살고 있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1894년 3월 말 교주 최시형이 부안대접주 김낙철, 김낙봉 형제에게 육임첩을 4,000장을 주었는데, 나주대접주 오권선이 김낙철, 김낙봉 연원이라는 것이다.

- 1) 대신사를 청산(靑山)의 문암리(文岩里, 현 충북 옥천군 청산면)에서 찾아 뵙고 그 사유를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대신사께서 분부하시기를, “이것도 시운(時運)이어서 금지할 수가 없다. 그러나 너는 형과 상의하여 접(接)의 내부를 정중히 단속하고 숨어지내는 것을 위주로 하라”고 하시며, 형(김낙철)에게 답장을 내려주시고, 6임의 첩지(牒紙) 4,000여 장을 내어 주셨다.²⁹⁾
- 2) 그 때에 나주(羅州)의 오권선(吳權善)이 나주목사 민종렬(閔種烈)씨와 다투다가 시국이 불리한 것을 보고 몸을 피했는데, 나주 진영(鎭營)의 포교(捕校)가 오권선의 뒤를 밟아 올라와서 형의 집에 들이닥쳐 문부(文簿)를 수색하였다. 이보다 앞서 도내 두령(頭領) 40여 명이, “전봉준과 손화중이 하는 일이 교리(敎理) 밖의 일이니 상관하지 말자”라고 하는 책자가 있었다.

29) 「김낙봉이력(金洛鳳履歷)」甲午春, 『동학농민혁명명종합정보시스템』(<http://www.e-donghak.or.kr>).

포교들이 이 책자를 찾아가지고 말하기를, “오권선의 두목이 김아무개 형제인데 벌써 잡혀 간혀 있으니 오권선은 찾을 것이 없다”고 하고, 바로 성안으로 들어가서 군수 윤시영씨와 말을 하였다. 30)

1)은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자 김낙봉이 형 김낙철의 편지를 갖고 1894년 3월 말 최시형을 방문하여 향후 불안점의 진로를 묻고 육임첩지 4,000장을 받았다는 것이며, 2)는 나주진영의 포교들이 오권선을 잡기 위해 오권선의 두목 김낙철, 김낙봉 형제를 부안에서 붙잡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안 지역의 대접주 김낙철, 김낙봉 형제와 나주대접주 오권선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천도교창건사』에 따르면 1894년 7월 부안에서 신명언(申明彦), 김낙철(金洛喆), 김낙봉(金洛封), 김석윤(金錫允)이 기포하였으며, 오권선도 이때 강대열(姜大說), 전천옥(全天玉), 김유창(金有昌)도 함께 기포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안에서 부안김씨와 평산신씨 등이 기포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7월 명록이 바로 이 때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즉 7월 5일 나주성 공략을 위해 연원관계에 있는 김낙철, 김낙봉에게 부안지역 동학 농민군의 파견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부안에 살고 있는 부안김씨와 평산신씨의 동학교도들이 나주 북부로 내려와서 전투에 참여하였는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왕래하였기 때문에, 나주 최북단의 본량면 일대의 부안김씨들이 대거 동학조직에 가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타 성씨들도 대부분 광주와 장성 접경지대인 인물들로 보인다. 이들 역시 최시형→김낙철, 김낙봉 형제→오권선에게 전해진 육임첩지를 받고 나주동학농민군에 합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함평의 갈동 지역에서도 『나주명록』에 참여하고 있는데, 갈동 지역 역시 나주성 공략에 참여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갈동은 오늘날 월야면 갈동길 일대로서 나주 대접주 오권선이 활동하였던 나주 북부의 본량과 산길로 연결되어 있다. 표영삼은 7월 5일 나주성 공략에 함평도

30) 같은 책, 甲午十月.

참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함평 북부지역인 불갑면, 월야면, 해보면, 나산면, 대동면, 신광면 동학군들이 대부분 동원되었다는 것이다.³¹⁾ 이 때문에 7월 5일 나주성 공격에 참여한 인물들이 나주동학농민군과 관련을 맺고 『나주명록』에 기재된 것으로 이해된다.

나주명록 7월분과 9월분을 비교해보면, 부안김씨가 7월 명록에서 15명/38명으로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9월 명록의 경우에도 24명/73명으로 33%나 되어 부안김씨의 비중이 1/3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9월 명록의 경우 부안김씨 외에 다른 성씨들이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평산신씨, 광산김씨, 밀양박씨 등도 7월 명록에 5명씩 참가하고 있는데, 9월 명록에서 이들 역시 모두 직임을 맡고 있어서 이들 성씨도 나주동학조직에서 그 위상과 역할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7월 명록에서 10개의 성씨에서 9월에 이르면 성씨가 훨씬 다양해진다. 부안, 광산, 김해 김씨 외에도 본관이 다른 여러 김씨가 12명이나 참여하고 있고, 장씨, 이씨, 송씨, 백씨, 조씨 등도 참여하고 있어서, 20여개의 성씨가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7월에 비해 9월에 동족마을이 발달했던 나주 여러 지역에 동학농민군이 크게 늘었으며, 직임에 임명된 자들이 늘어나서 동학 농민군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나주 서남부 지역으로의 확산

1894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나주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했음은 나주명록에서 보이는 나주 북부 지역 외에도 나주 서남부 지역에서도 동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음이 주목된다. 이러한 사실은 『금성정의록』 11월 17일 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적해 볼 수 있다.

31) 표영삼, 앞의 글.

서면의 정탐이 급히 고하기를 “적의 무리가 무안(務安)의 경계에 있는 고막포(古幕浦) 등지에 모여 있는데 그 수가 5, 6만이다”라고 하였다. 서쪽 5면을 겁락하여 장등참(長燈站)까지 침박하기에 이르렀다. 소리 높여 말하기를 “나주로 들어가 성호(城壕)를 공격하여 뺏을 것이다”라고 하니 형세가 매우 예측하기 어려웠다.

즉 나주성을 쳐들어가기 위해 고막포에 집결한 무안과 함평 동학농민군이 5,6만에 이르렀는데, 서쪽 5면을 겁락하여 장등참까지 이르렀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서쪽 5개 면의 위치는 동학농민군이 집결한 고막포로부터 장등참까지 연결되는 곳의 5개 면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 현지와 구술 조사 결과 동학을 믿었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789년 작성된 호구총수에는 나주는 총 36개 면, 38개의 섬, 769개의 리(里)로 구성되어 있다. 그 면은 다음과 같다.

枝竹面	元井面	細花面	非音面	空樹面	芴洞面	吾山面	馬山面
郁谷面	東部面	西部面	坪里面	伊老面	新村面	知良面	田王面
終南面	三鄉面	竹浦面	鯨鯢面	三加面	大化面	獐本面	赤良面
島山面	上谷面	伏巖面	道林面	官洞面	金鞍面	金磨面	潘南面
曲江面	用文面	水多面	侍郎面	芽溪面	居平面		

이 중 고막포가 위치한 면은 아계면이며, 북동쪽으로 용문면, 고막천을 따라 남쪽 영산강과 합류하는 곳까지 수다면, 다시 동쪽으로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죽포면, 시랑면, 신촌면으로 연결된다. 이 중 전선 초기에 언급된 나주 서쪽의 5개 면은 아계면, 용문면, 수다면, 죽포면, 시랑면이며, 11월 15일 전선이 확대되면서 신촌면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나주서부 지역 6개 면 중에서 수다면, 죽포면, 용문면, 신촌면 5개 면에서 1894년 10월 동학농민군이 결성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먼저 수다면과 용문면에 동학농민군이 결성된 사실은 『신안주씨대동보

『新安朱氏大同譜』를 통해서 살필 수 있다.³²⁾ 족보에 따르면 주성달(朱聖達)과 주기달(朱奇達)이 각각 나주의 죽포두령(竹浦頭嶺), 수다두령(水多頭嶺)이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주정표의 아들 선달(善達), 성달(聖達), 경달(京達), 기달(奇達) 중 둘째인 성달과 넷째인 기달이 각각 죽포두령과 수다두령을 맡았다. 성달은 자가 경노(京老), 도호가 청암(靑菴)이며 1830년 생으로 죽포두령으로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1894년 11월 고막포 전투에 참여하여 19일 장등참에서 죽었다. 기달은 1855년 생으로 수다두령으로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고막포, 장등참 전투에 참여하였으나 전투가 불리하자 피신하여 1913년 타계하였다. 이들은 현재 모두 부친과 함께 나주 거마산에 묻혀 있다. 주성달의 증손자인 동학유족회장 주영채씨는 증조부가 맺돌을 짊어지고 냇가를 건너될 정도로 몸이 날래고 힘이 장사였으며, 동학농민군을 지휘하다가 장등참 전투에서 죽었으며, 이후 주성달의 아들 주영일(朱寧一)은 숙부 기달의 집에서 사촌 형제들과 함께 자랐다고 전하고 있다.

용문면에서도 동학농민군이 결성되었는데, 다시면 신광리 신기마을에 있는 조석계(趙錫溪)의 묘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광리 신기마을은 1894년 당시 용문면에 속해 있었고, 바로 아래로는 사랑면과 접해 있었다.³³⁾

신기마을 뒷산에 있는 조석계의 비문에 따르면,

憲宗癸卯七月에 公(조석계)을 낳으시니... 高宗甲午年에 農民궐기에 참여하였다. 聞乙巳之變하고 民衆蜂起于時에 公與同志糾合하여 아드님 德承과 함께 擧義하여 不義에 抗戰하다 官軍의 來到와 日軍의 無慈悲한 충격으로 中丸而卒하니 隆熙三年己酉 西紀一九〇九年 八月十二日이다.

라고 하여, 1843년생인 조석계가 1894년 이 일대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

32) 『신안주씨대동보(新安朱氏大同譜)』권3, 2000년, 1145~1146쪽.

33) 다시면향토지편찬위원회, 『영산강의 한복판 나주 다시-다시면향토지』, 1997. 632~633쪽.

명에 참여하였으며, 1905년 을사늑약에 항거하여 아들 조덕승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서 일제에 항거하다가 1909년 8월 12일 총살형을 당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이 비석은 측면 음기에,

一九九年 三月上澣

全南史料研究會副會長尹在振謹識

昌寧曹氏光州全南宗會總務趙圭鴻 謹書

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1999년 3월 상순에 전남사료연구회의 조사를 토대로 창녕조씨전남광주종회에서 세웠음을 밝히고 있다. 나주 봉황면에 거주하는 조기태씨에 따르면 고조부(조석계) 윗대에 영암 금정면에서 나주 신광리로 옮겨 왔으며, 고조부는 신광리 신기리에서 태어났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를 통해 신기마을이 위치한 용문면이나 바로 밑의 시랑면 일대에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나주성 바로 밑 신촌면에도 동학농민군이 결성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나주 삼영동 택촌에 거주했던 나동환(羅東煥, 1849-1937)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택촌은 당시 나주 서쪽의 신촌면 내영산촌이며, 택촌 밑 영산강 유역에는 1890년부터 1951년까지 전개된 궁삼면 토지소유투쟁이 전개된 새끼내가 있다. 이 새끼내는 1894년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택촌에서 태어난 나동환은 자가 도경(道卿), 호가 일암(日菴)으로 1894년 1월 교수 겸 교장 직책을 받았으며, 접주로서 활동하였다. 그는 나성군 나공언(羅公彦)의 후손이며 금남 최부(崔溥)의 외손인 양반유생 출신으로서, 나주 북부의 오권선과 함께 나주 서남부 일대에서 크게 활약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는 1차,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으며, 전봉준이 체포된 이후 부인 진주정씨와 함께 함평군 월야면 연암리 다라실에 있는 나동환의 처가로 피신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진주정씨는 관군에

붙잡혔는데, 남편과 아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가를 캐기 위해 관군에 의해 모진 고문을 당하였는데, 끝내 말하지 않고 죽어갔다고 한다. 이러한 나동환과 진주정씨의 행적에 대해서는 손자 나도산(羅燾山) 등이 1972년과 1974년 사이에 의열각(義烈閣)을 짓고 그 안에 「나주나공동환의적비(羅州羅公東煥義蹟碑)」와 「효열부진주정씨행적비(孝烈婦晉州鄭氏行蹟碑)」를 건립하여 추앙하였다.³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주 서부 지역은 수다면, 죽포면, 용문면, 시랑면. 신촌면 일대에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4. 제2차 동학농민혁명과 나주동학농민군의 활동

나주지역의 동학농민군은 9월 이후 전개된 제2차 동학농민혁명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금성정의록』을 토대로 7월 이후 전개된 동학농민군과의 전투를 <표 1>로 작성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³⁵⁾

다음 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7월 5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9월 이후로는 동학농민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군과 맞서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운이 감돌게 되었다. 전술하였듯이, 이 시기 동안 동학농민군은 나주 북부 지역은 『나주명록』 등을 통해 동학의 신앙과 조직을 강화하였고, 나주 서남부 지역에서는 동학포접이 늘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군을 격퇴하기 위해 제2차 동학농민전쟁을 시작함으로써 상황이 달라졌다. 전봉준은 9월 10일 삼례에 대도소를 설치하여 군사를 일으켰다.

34) 나천수·이영기, 「나주지역 동학관련 구술자료 수집과 그 의의-나주시, 세계적 동학 명소를 위한 試論-,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86,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20, 379-394쪽.

35) 노성태, 「동학농민군과 나주 수성군의 전투 현장과 동학농민혁명 유적이해」, 『동학농민혁명과 나주』, 나주학회 제3회 월례집담회, 2021.5.1, 21쪽, <표>를 주로 참조함.

〈표 1〉 나주수성군과 나주동학농민군과의 전투

연번	일시	전투명(전투지)	동학농민군	비고
1	7.5	서성문 전투	광주의 최경선과 나주의 오권선, 함평 이화진 부대, 1,000명 죽고, 100명은 포로가 됨.	전주화약(6.6) 민중렬해임(7.18)과 유임(8.17) 9.14. 전봉준이 삼례에 대도호소 설치
2	10.21	침산, 선암전투	침산(700명), 선암(수만명)	9.26. 손화중이 광주에 도호개최 민중렬 호남소모사(9.29)
3	11.9	동창전투(출격)		민중렬, 호남초토사임영, 호남초도영 설치(10.28)
3	11.13	북창, 용진산전투	나주 북쪽 40리 북창에서 농민군 활동 → 용진산에서 물리침	공주우금치 전투패배(11.11) 손화중 부대 나주진격(11.12)
4	11.18	장등참, 고막포 전투 ³⁶⁾	무안 농민군이 고막포에 주둔하자 나주를 넘어가 의병과 함께 공격하여 물리침	논산에서 김개남과 전봉준 부대 합류(11.13).
5	11.24	금암면 남산촌 전투	금암면 남산촌에서 농민군 350명 포살	오권선 피신
6	12.4	남평전투(출격)	농민군의 남평 습격으로 남평출병	
7	12.8	영암전투(출격)	장흥, 영암, 무안으로 출병하여 농민군과 대치	

김개남은 남원에서 전라도 각지에서 군수물자를 징수하여 전투준비를 하고 있었다. 무장 대접주 손화중도 1894년 9월 26일 광주에서 동학농민군 도회를 열어 일대의 동학농민군의 결속을 강화시켰다.

나주 일대를 살펴보면, 오권선이 3천명을 군사를 일으켰고, 김병태는 해남에서 3천군, 배규인(裴圭仁)은 무안에서 2천군, 기우선(奇宇善)은 장

36) 민중렬은 장등참과 고막포에서 벌어진 전투에 대해 ‘十一月十七日州西水多面虎藏村出戰’이라고 하여 수다면 호장촌 전투로 규정하고 있다. 甲午軍政實記.

성에서 3천군, 이화진은 함평에서 3천군, 고영숙(高永叔)은 흥덕에서 2천군, 강경중(姜敬重)은 청송에서 3천군, 김중혁(金重革)은 담양에서 3천군을 일으켰다. 이렇게 기포한 동학농민군은 손화중, 김덕명이 총지휘가 되고 전봉준이 대장이 되어 삼례 대도소에서 지휘를 하였다.³⁷⁾ 당시 동학농민군은 동학농민군의 서남부 지역의 근거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에 따라 손화중이 전봉준을 따라 복상하지 않았다. 이에 나주 일대의 동학농민군은 손화중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동학농민군이 복상하여 일본군과 친일정권의 타도를 외침에 따라 조정에서도 9월 29일 민종렬을 호남소모사로 임명하여 동학농민군을 격퇴할 것을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나주성을 둘러싸고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2차 동학농민혁명기 첫 번째 전투는 10월 21일부터 광주의 침산과 선암 일대에서 시작되었다. 추수가 끝난 뒤, 호남소모사로서 나주지역을 벗어나 인근 지역에 출동한 첫 번째 전투였다. 이때 손화중은 광주 침산에서 1만여 명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조석으로 나주성을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하자, 민종렬이 정태완과 김창균에게 포사(砲士) 300명을 주어 진압하게 하였다. 나주성을 벗어나서 출격한 첫 번째 전투였다. 동학농민군이 침산 뒷 봉우리와 평야지대에 무수히 포진하자, 정태완이 포수를 거느리고 침산쪽으로 사격을 가하고 진격하자 침산의 동학농민군이 무너지면서 평야지대에 있는 동학농민군도 그 기세에 밀려 도망갔는데, 수성군은 선암 일대의 사창까지 추격하여 동학농민군의 군수물자를 거두어들였다는 것이다.

셋째, 10월 28일 민종렬이 호남초토사에 임명되고, 호남초토영을 나주에 세우게 되었다. 이 무렵부터 나주성 외곽에 향약이 다시 작성되고 민보군이 결성되었다. 민종렬은 나주향교에 지시하여 다시 향약을 보수하여 성책(成冊)하고 또 각 면 약장(約長)에게 각 리(里)의 민호(民戶)를 수정하여 성책하게 한 다음 모두 향교에 모아 등본(謄本)을 한 부 만들게 하였다.

37) 오지영, 『동학사』3, 再度學義

이 때 도약장(都約長)은 진사(進士) 나동륜(羅東綸)이 맡고, 사인(士人) 기동관(奇東觀)·나경집(羅景集)·이병수(李炳壽) 등은 실무를 맡았다. 이러한 향약의 설치에 대해서 『금성정의록』에서는 “왕사(王師)가 남하한 날에 옥석구분(玉石俱焚)의 탄식이 있을까 염려하여 귀화한 자는 스스로 새롭게 하게 했는데 또한 협종망치(脅從罔治)의 뜻이었다”고 하여 동학농민군을 찾아내어 가담하지 않은 양반 유생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 단위 향약 작성은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작성이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³⁸⁾ 호남초토사가 된 민종렬의 명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넷째, 11월에서 동학농민군과 나주 수성군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졌다. 11월이 되면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우금치, 판교, 이인 등지에서 일본군과 관군에 맞서 총력을 다해 전투를 벌였고, 김개남 군도 전주에서 북상하여 11월 13일 청주에서 격돌하였다.

나주지역에서도 11월 초부터 나주성을 탈환하기 위해 동학농민군들이 사방에서 공세를 취하였다. 먼저 11월 8일 동학농민군이 영암과 나주지역 동쪽 방면을 공격하자, 11월 9일 수성군은 포군 300명이 동창에 출격하였다. 또한 10일 밤에는 나주 북면에 오권선, 손화중, 최경선이 거느린 나주, 부안, 고창, 태인, 장성, 광주의 동학농민군이 나주성을 치기 위해 모여 들었다. 이에 나주 수성군은 11일 주엽정을 거쳐 12일 북창에 이르렀다. 이 때 나주 수성군은 동창에 출격한 포군 300명, 5면(面)의 집강(執綱)인 홍봉현(洪鳳鉉)·이민상(李敏相)·유영관(柳永觀)·김대규(金大圭)·김경환(金京煥) 등이 거느리고 온 민보군, 그리고 후응장(後應將) 손상문(孫商文)·최성순(崔成純)·김창균(金蒼均)이 거느리고 온 군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38) 민종렬은 호남초토사로서 작성한 「동오면 의거소 좌목」(1895년)에서 나주 지역 유생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돌아보면 유생들이 침체되어 고개를 움츠리고 기가 죽어 모두 달아나 숨을 생각을 품고 있었으니, 비록 혹 의병을 규합하는 데에 뜻을 두더라도 또한 힘이 미치지 못하는 탄식이 있었다. 그리하여 한창 이것을 근심하고 있었는데....”

전투는 13일 동학농민군이 용진산 위에 진을 치자 수성군과 민보군이 사면을 에워싸고 대완포와 천보총을 쏘고 들어가면서 시작되었는데, 동학농민군이 견디지 못하고 용진산을 내려와 북쪽 길을 향해 도망치면서 끝났다. 이 용진산 전투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나주지역 동학농민군과 민보군이 최초로 맞섰다는 점이다. 수천 명에 달하는 오권선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이제부터는 나주 북쪽에 형성되기 시작한 민보군과도 맞서 싸우게 된 것이다.

다섯째,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는 나주 서부 지역 동학농민군이 무안, 함평 지역 동학농민군과 합세하여 고막포, 장등참 등지에서 전투를 벌였다. 전술하였듯이, 이 지역에는 수다면과 죽포면, 용문면, 신촌면 등지에 접주를 배출할 정도로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대단하였는데, 무안지역에서는 대접주 배규인(裴奎仁)을 비롯해서 배규찬(裴奎璨), 오덕민(吳德敏), 조광오(趙光五), 김문일(金文日), 박경지(朴京之), 박기운(朴沂雲), 김효문(金孝文), 양대숙(梁大淑), 서여칠(徐汝七), 박기연(朴淇年), 최문빈(崔文彬), 배정규(裴正圭), 박순서(朴順西), 김응문(金應文), 김자문(金子文), 정여삼(鄭汝三), 김여옥(金汝玉), 장용진(張用辰), 조덕근(趙德根), 박치경(朴致京), 박채현(朴采玄), 임학(林鶴) 등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참여하였고, 함평에서도 대접주 이화진(李化辰)을 비롯해서 김경오(金京五), 이춘익(李春益), 노덕휘(魯德輝), 이자면(李滋面), 이명진(李明辰), 이은중(李殷仲)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참여하였다. 또한 멀리 진도에서도 의신면 만길리에서 나봉익(羅奉益), 양순달(梁順達), 허영재(許英才), 조도면에서 김광윤(金光允) 등이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아,³⁹⁾ 남해안의 여러 섬에서도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무안·함평 동학군은 11월 15일 나주 서쪽 30리 지점인 고막포(古幕浦,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와 고막원(古幕院,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일대에 집결하였고, 나주 서쪽의 동학농민군과 합세하여 서쪽 5개면을 함락하고

39) 진도동학농민기념사업회, 「진도동학농민혁명군 후손을 찾습니다」호소문, 2019.6.12.

수다면의 장등참에 이르러 나주성을 빼앗겠다고 기세를 올렸다.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나주목사 민종렬은 급히 용진산에 출동한 수성군을 불러 들여, 17일 도통장·부통장·중군장으로 하여금 포군 300명을 영솔하고 물리치게 하였다. 이에 수성군은 20리 떨어진 자지현(紫芝峴)을 넘어갔는데, 날이 저물자 초동시(草洞市) 3면에 진을 쳤다. 이 때 의거통령(義舉統領) 박훈양(朴薰陽)·나사집(羅史集)·임노규(林魯圭)가 이끄는 민병 수천 명이 관군의 뒤에 포진하였다.

18일에는 장등(長嶺)에서 진을 마주하고 수성군과 동학군이 격돌하였다. 포군 300명과 3,000명의 민보군이 포진하고, 대포군(大砲軍)과 천보총을 쏘면서 진격해 들어가고, 중군이 동학농민군의 왼쪽을 기습하자, 동학농민군의 대열이 흩어지며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이에 수성군이 동학농민군을 추격하여 죽이면서 10리가 넘는 별판을 가로질러 고막포에 이르렀다. 이때 들판에는 죽은 시체가 즐비했고, 고막포에서는 사람이 많고 다리는 좁아 동학농민군이 물에 떨어지는 자를 헤아릴 수 없었다고 한다.

이어 수성군은 나주 북쪽의 전장이 위태롭다는 보고를 받고, 호장산(虎壯山)에서부터 밤에 철수하였다. 이를 알게 된 나주지역 동학농민군은 무안과 함평의 동학농민군을 불러 들여 죽포면에 있는 서창의 창고를 공격하여 세곡을 징발하고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새끼내로 진출하였다. 이에 동학농민군의 나주성에 진격해 올 것을 우려한 수성군측에서 정석진, 손상문 등이 포군 300명을 이끌고 민병통령 조맹균(曹孟均)과 합세하여 동학농민군을 공격하였다. 이에 동학농민군은 견디지 못하고 고막산 쪽으로 도망갔고, 다시 20리를 추격하자 동학농민군이 결국 흩어지게 되었다.

당시 18일 수다면 장등참에서 전개된 치열한 전투는 오늘날에도 진등과 가까운 문동리 반계 뜰 인근의 가장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들판에 가득한 시신은 일일이 다 물어줄 수 없어서 한꺼번에 묻었던 흔적인데, 대략 200구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여섯째, 나주지역 동학농민군은 11월 24일 금안면 남산촌 전투를 끝으로 활동이 거의 끝나게 된다. 금안면 남산촌은 현재 나주시 노안면 남산마을이며, 동학농민군이 진격했던 함박산은 나주 읍성의 북문 바로 앞에 있다. 당시 나주북쪽을 장악하고 있었던 오권선의 나주 동학농민군은 손화중, 최경선 등과 함께 인근의 5,6개 고을의 도움을 받아 11월 23일 노안면 금안리와 남산리 일대로 진출하였다. 밤에는 동학농민군이 함박산까지 진출하였는데, 날씨가 몹시 춥고 수성군의 매복과 포군의 공격을 우려하여 다시 남산촌으로 후퇴하였다.

다음날에는 수성군이 아침에 기습작전을 펼쳐서 도위장(都衛將) 손상문이 포군과 천보대를 이끌고 정면으로 나아가고, 초관(哨官) 박성로(朴成老)가 포군 1백명을 이끌고 산길을 따라 그 왼쪽을 막아서 끊었으며, 별장(別將) 전학권(錢鶴權)이 포군 1백명을 이끌고 그 오른쪽을 끊었다. 아직 전투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던 동학농민군을 향해 중앙의 천보대가 포를 쏘고 쳐들어가고 양 옆에서 포군이 총을 쏘아대자, 동학농민군이 크게 무너져 시체가 들에 가득하고 흐르는 피가 도랑을 이루었다. 오권선도 겨우 몸을 빼내어 한 마리 노새를 타고 멀리 피하자, 추격하였으나 행방이 묘연하였다고 한다.⁴⁰⁾

이후 나주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거의 보이지 않고, 대신 나주 수성군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동학농민군은 패색이 짙어져, 11월 25일에는 남쪽으로 밀려난 전봉준의 동학농민군이 일본 서로군에 의해서 태인에서 다시 패배하였고, 관군의 좌선봉장 이규태는 삼례를 점거하였다. 또한 광주를 점거하였던 손화중과 최경선은 12월 1일 광주의 동학농민군을 해산시켰다. 김개남도 12월 1일 태인에서 붙잡혔고, 12월 2일에는 전봉준이 체포되었다. 12월 4일 남평전투는 최경선을 따르던 동학농민군들이 남평을 거쳐 능주로 후퇴하면서 남평군을 습격하여 남평의 수령 이희하(李熙夏) 등이 부상을 당한 전투이다. 이때 급보를 받고 나주 수성군이

40) 양상형, 앞의 글, “二十四日 侯使台完在煥等發五百砲軍 分作三路 奇兵先向北門外 南山村權善所屯處 與民兵七百 並進襲擊 賊不暇按鋒 應丸輒斃 積尸相枕 二吳棄砲馬”

출격하였으나 최경선 등 동학농민군이 능주로 이미 옮겨가서 실제로는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월 8일 영암전투도 12월 5일 장흥의 동학농민군이 장흥을 함락하고 12월 7일에는 강진을 함락시켰다고 하는 급보가 들어와서 나주 수성군이 영암성에 들어가서 수비한 사실을 가리킨다. 나주 수성군은 영암을 수비하면서도 무안 일대에도 출격하였으나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다.

6. 맺음말

지금까지 나주동학농민군의 실체를 찾아내고, 이들의 활동상을 통해 나주 지역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나주명록(羅州名錄)」을 검토하였으며, 구술자료를 토대로 나주지역에 동학농민군이 어떻게 확산되었으며, 나주동학농민군의 활동을 분석해보았다.

나주지역은 호남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1880년대에 동학이 전파되어 1892년에는 삼례나 공주 집회에 참가하였으며, 1893년 보은집회에도 나주접이라는 이름으로 70명이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척왜양의 민족적 운동과 탐관오리 척결이라는 정치사회적 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때문에 1894년 초에는 삼가리의 나주대접주 오권선의 경우 나주 북부 지역 3,000명의 동학농민군을 거느리고 있었다.

1894년 3월부터 제1차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되자 동학농민군은 나주를 탈환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나주목사 민종렬과 나주영장 이원우가 이끄는 수성군의 활동에 의해 번번히 좌절되었다. 이에 동학농민군 측에서는 나주목사와 나주영장을 파직을 요구하게 되었으나, 결국 전라감사 김학진의 타협책에 의해 전봉준과 김학진이 회동하고, 이에 따라 나주에서도 부분적으로 관민상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나주성을 제외한 나주외곽지역에서는 동학농민군이 크게 확

산되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1894년 7월과 1894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된 나주명록이라고 할 수 있다. 나주명록이 작성된 7월에는 나주 외곽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이 점거하여 폐정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동학농민군 측에서도 관민상화 원칙에 따라 나주목사 민종렬과 나주영장 이원우와 대립하기 보다는 동학농민군의 조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을 것이다. 때문에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나주동학의 직임을 맡은 인물 80명이 기록된 나주명록이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주명록에서 부안김씨가 많은 것은 나주대접주 오권선이 부안의 대접주 김낙철, 김낙봉 형제 연원이기 때문이다. 김낙철, 김낙봉 형제는 7월 5일 나주성 공격을 위해 오권선과 연락을 취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왕래하였기 때문에, 나주 본량면 일대의 부안김씨들이 대거 동학조직에 가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타 성씨들도 대부분 광주와 장성 접경지대인 인물들로 보인다. 이들 역시 최시형 → 김낙철, 김낙봉 형제 → 오권선에게 전해진 육임첩지를 받고 나주동학농민군에 합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함평의 갈동 명록이 나주명록에 포함된 것도 나주 본량면과 이웃한 함평 월야면 출신의 동학조직으로서 나주지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나주명록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 집강소 시기인 1894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나주 지역은 북부 지역 외에도 나주 서부 지역에 동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나주 죽포두령인 주성달, 수다두령인 주기달, 용문면의 조석계, 신촌면의 나동환 나주접주 등이 바로 그들인데, 이들의 동학내에서의 직책과 활동지역을 분석해 볼 때 나주 서부 지역인 수다면, 죽포면, 용문면, 시랑면, 신촌면 일대에 동학농민군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나동환의 경우는 나주 북부에서 활약한 오권선과 마찬가지로 나주의 명문거족 출신으로서 나주접주로 일컬어질 정도로 많은 동학농민군을 거느렸다.

그러나 9월 이후 동학농민군이 2차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켜 일본군을 무찌르고 친일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북상하려고 하였다. 이에 조정에서

는 민종렬을 호남 소모사로 임명하게 되어 동학농민군과 나주수성군 사이에 본격적으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1894년 10월 21일 벌어진 침산, 선암전투는 나주 수성군이 나주성을 벗어나 출격한 최초의 전투로서 동학농민군이 수성군의 대포와 소총에 밀린 전투였다. 이후 민종렬은 호남초토사에 임명되면서 나주에 향약을 복구하고 민보군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당시 신분제와 과거제가 철폐된 상황에서 지배층의 위상을 상실한 양반유생층이 동학농민군의 위세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동학농민군 세력이 치성한 곳에서는 향약이나 민보군 조직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1월에는 나주와 인근지역이 합세한 동학농민군과 나주 수성군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졌다. 나주 동쪽에서 산발적인 전투가 벌어지다가 13일에는 오권선, 손화중, 최경선이 거느린 나주, 부안, 고창, 태인, 장성, 광주의 동학농민군 연합부대가 용진산에서 나주 수성군과 민보군에 맞서 전쟁을 치루었다. 17일에서 22일 사이에는 나주 서쪽 고막포와 장등참 등지에서 나주 서쪽 동학농민군과 합세한 무안, 함평, 진도 동학농민군이 전투를 벌였으나 화력에 밀려 수 많은 동학농민군이 장등참과 고막원 일대, 고막포에서 죽음을 당하였으며, 가매장한 동학농민군도 상당수에 달했다. 이후로도 동학농민군은 서창을 거쳐 새끼내까지 산발적으로 전투가 전개되었다. 이후 오권선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11월 23일과 24일 함박산과 남산촌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추위와 수성군의 기습작전으로 나주성 공략에 실패하였고, 이후 동학농민군의 패색이 짙어지면서 나주지역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종식되게 되었다.

본고의 이러한 결론은 실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추론의 성격이 강하다. 1893년 보은집회에서 나주점으로 참여한 70명이 누구인지, 나주대접주 오권선이 거느린 나주 북부 지역의 동학교도 3,000명이 누구인지, 『나주명록』에 나주거주지로 기재된 38명은 누구이며, 어디서 살았는지를 밝히지를 못하였다. 또한 구술자료와 비문, 족보 등을 통해 나주 서남부 쪽인 수다면, 죽포면, 용문면, 시랑면, 신촌면 일대에 활약한 나주동학농민군의 활동을 논증하였으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막포, 장등참 전투에 참여한 나주동학농민군과 가장피에 묻힌 인물들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고증이 필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증 없이 나주동학농민군 활동을 조명하였음을 밝힌다. 향후 보다 깊은 실증이 필요하며, 아울러 나주동학농민군이 무엇 때문에 목숨을 바쳐 투쟁을 전개하였는지 그 이념과 지향하는 세계도 분명히 조명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승정원일기』, 『兩湖電記』(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장)
李炳壽, 『錦城正義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黃玪, 『梧下記聞』(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梁相衡, 『柏下遺稿』(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吳知泳, 『東學史』, 영창서관, 1940.
『聚語』(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장) 「宣撫使再次狀啓 魚允中兼帶」
「甲午軍政實記」(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김낙봉이력(金洛鳳履歷)」甲午春, 『동학농민혁명종합정보시스템』.
『羅州名錄』(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扶安金氏直長公派譜』(1993년 간행) 및 『扶安金氏族譜』(2018년 간행)
『新安朱氏大同譜』卷3(2000년 간행)

2. 단행본

- 다시면향토지편찬위원회, 『영산강의 한복판 나주다시-다시면향토지』, 1997.
박맹수, 『사료로 보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모시는 사람들, 2009.
신용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일조각, 1993.

이상식·박맹수·홍영기, 「나주지방의 동학농민혁명」, 『전남동학농민혁명사』, 전라남도, 1996.

3. 논문

나천수·이영기, 「나주지역 동학관련 구술자료 수집과 그 의의 - 나주시, 세계적 동학 명소를 위한 試論 -」,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86,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2020.

노성태, 「동학농민군과 나주 수성군의 전투 현장과 동학농민혁명 유적이해」, 『동학농민혁명과 나주』, 나주학회 제3회 월례집담회, 2021.5.1.

배항섭, 「나주지역 동학농민전쟁과 향리층의 동향」, 『동학연구』 19, 한국동학학회, 2005. 9.

표영삼, 「나주지역 혁명운동」, 『교사교리연구』7, 2000.

동학농민군의 나주 공략과 호남초토영의 방어 전략*

- <금성정의록>과 《난파유고》를 중심으로 -

나 천 수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장)

1. 머리말
2. 이병수의 <금성정의록> 저술과 그 의의
3. 동학농민군의 나주 공략과 수성(守城)이 지닌 의의
4. 나주지역 일자별 동학농민군의 공수(攻守) 유적지 탐방
5. 맺음말

1. 머리말

1894년 동학농민 운동이 조선조 말에 끼친 영향은 대단하다. 단적으로 말하면 백성이 폐정개혁을 직접 몸으로 체험해보는 계기가 되어 이때 민주의 싹이 트는 효과가 있었으나, 조선의 패망을 앞당기는 역효과도 가져왔다고 본다.

최근 동학 농민운동을 우리 학계에서 재조명하는 가운데 일본 측에서도 1894년 당시 동학군 타도에 나선 어느 일본 군인이 쓴 《진중일지(陣中日誌)》가 발견됨으로 인해 학술적 재조명이 시작되어 한일 간에는 동학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학술적 교류와 조사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전봉준이 이끈 고부의 민란은 탐관오리의 수탈에 대한 민란으로 시작되어 농민운동으로 폐정개혁(弊政改革)과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기치를 높이

* 이 글은 나주시·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이 주관하는 “나주동학농민혁명 한·일 국제 학술대회 (2019.10.30., 나주나빌레라문화센터 소극장)에서 ‘동학의 나주 침공과 나주인의 방어를 다시 보다’는 제목으로 발표되고,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제82집(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9, 317~354쪽)에 게재된 바 있다. 본 책의 발간취지에 따라 제목을 약간 바꿔 여기에 전재하였음을 밝힌다.

들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반란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오로지 지방 수령의 농민 수탈이라는 잘못된 행태를 개선해 달라는 집단 몸짓의 시위[데모/Demo]를 하였다.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아달라고 한 당시 농민들의 집단호소에 대해 역사적으로 이를 반란군이나 역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 1894년 동학농민군 활동 이전이나 이후에도 이러한 농민의 집단행동의 몸짓을 정부는 오로지 농민반란이라 규정하고 타도하기에 급급하였다. 군이 동학농민군의 집단행동 중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라면, 손에 죽창(竹槍)을 든 점과, 고부 관아의 관곡을 농민들로부터 빼앗아간 곡식으로 보고 집단으로 이를 출고하여 억울한 농민에게 배분한 것뿐이다.

만약 고부지역의 농민집단 행동이 임금에게 알려져 임금이 이를 계기로 지방수령의 수탈을 막는 제도를 마련하였다면 농민운동은 전국적으로 번지지도 않았다. 농민수탈이라는 패정이 개선되지 않으니 임금을 더욱 자극하도록 농민운동의 범위를 넓혀갔다. 그 과정에 전라도 곡창지대의 중심인 나주 읍성을 전봉준은 점거하려고 활동하였고, 나주목을 책임지고 있는 민종열 나주목사는 농민군으로부터 성을 빼앗길 수 없는 처지에서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였다.

당시 농민 수탈이 고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의 전국적 농촌지역에는 수탈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이처럼 시달렸다고 생각한 농민들은 직접 동학농민군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였기에, 가담 또는 동조의 위세가 엄청나게 커져 그 힘으로 전국 50여개 고을을 점거하게 된 것이다. 오직 죽창만을 든 농민군과 화포를 가진 관군이 무기로 맞붙어 싸우면 농민군이 이길 수 있었겠는가? 이점으로 보면 농민군의 전국 확산 때 지방에서 이를 무력으로 막는 활동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주지역에서 동학농민군과 8번의 싸움을 하는 접전이 있었으나, 《금성정의록》의 기록으로 보면 서성문 전투 한곳을 빼면 전투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상기해야 한다. 즉 관군은 관군의 군성(軍聲)을 먼저 알려, 농민군이 미리 도주하도록 하였고, 농민군은 관군이 온다고 하면 미리 흩어지거나 도주하여 버렸다.

참으로 다행하게도 1894년부터 1896년까지의 나주 지역 격동기 역사를 비교적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겸산 이병수의 《겸산유고》와 동학농민군을 직접 물리치는 도통장 정석진의 《난파유고》가 있어 비록 사찬의 기록이지만 관찬에 못지않은 역사기록이란 점에서, 기록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과 나주 관군의 모습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특히 겸산 이병수는 자신의 문집인 《겸산유고》의 말미에 〈금성정의록〉이란 제목으로 1894년부터 1896년까지의 나주 격동기 역사를 등장인물 모두 거명하며 자세히 언급하였다.

여기서 〈정의록〉이란 단어가 등장하기에 농민군 공략에 대한 방어가 정의인지, 아니면 그 무엇을 정의라 하는지를 밝혀 볼 일이다. 그래서 필자는 더욱 패정개혁을 요구하는 농민군의 정의는 무엇이고, 나주 읍성을 방어하는 나주목사 민종열의 정의는 무엇인지 궁금하였다. 얼핏 생각하면 나주 공략과 나주 방어라는 점에서 보면 피아(彼我)가 구분되어 피(彼)는 정의가 아니고, 아(我)는 정의처럼 느껴진다. 나주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我)가 나주 쪽이고, 피(彼)가 동학 농민군 쪽이겠지만, 패정개혁을 요구하는 농민군 측에서 보면 아(我)가 동학농민군 쪽이고, 피(彼)가 나주 관군 쪽이 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봉준과 민종열 두 사람 간에는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맞상대하는지 살펴볼 일이다.

〈금성정의록〉에 보면 관찰사가 있는 전라도 동학농민군에게 점거되고 전국 50여개 고을이 점거되었지만 오로지 나주만을 굳게 지켰기에 나라의 체면과 나주목의 체면을 살렸다는 점에서 「나주가 없다면 호남이 없을 것이며, 호남이 없다면 온 국가가 몹시 흔들리게 될 것이다(無羅州 無湖南 無湖南則學國將震盪)」라고 겸산 이병수(謙山 李炳壽)는 일갈하였던 것이다.

필자는 동학군의 나주 공략과 방어의 역사가 어언 125년이 지난 오늘날 시점에서 1894년의 치열했던 공략과 방어의 접점이 되었던 나주지역 현장을 125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1894년부터 1896년까지의 나주 지역 역사 격동기에 집필된 이병

수의 <금성정의록>과 정석진의 《난파유고(蘭坡遺稿)》의 기록을 중심으로 나주에서의 공략과 방어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아울러 전봉준을 체포하여 심문하고 진술했던 <공초록(供草錄)>¹⁾을 살펴봄으로 전봉준의 인물됨을 살펴보고자 한다.

<금성정의록>은 1894년부터 1896년까지 나주 지역의 격동기에 활동했던 모든 역사적 사건을 연도별로 기록하고 아울러 역사의 전면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의 활동내용까지 자세하게 언급하였기에, 후세에 동학 관련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나주목사 민종열은 동학을 물리치는 모든 군무(軍務)를 정석진(鄭錫珍)에게 위임하고 도통장(都統將)을 삼았는데, 정석진은 도통장으로 활동한 그러한 내역을 자신의 문집인 《난파유고(蘭坡遺稿)》에 수록하여 동학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금성정의록>과 《난파유고》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동학 관련하여 대표되는 인물로 초토사 나주목사 민종열, 도통장 정석진, 그리고 나주 향약의 도약소(都約所) 직월(直月/幹事)이었던 이병수(李炳壽)를 들어 본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끝으로 동학의 일자별 나주 공략의 현장을 탐방하고자 한다. 일자별로 농민군의 전투유적 현장을 찾아보고 나주 공략과 수성의 현장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2. 이병수의 <금성정의록> 저술과 그 의의

겸산 이병수의 문집인 《겸산유고(謙山遺稿)》는 총 20권 10책으로 구성된 방대한 작품으로 시(詩), 서(書), 서(序), 기(記), 상량문(上樑文), 축문(祝文), 비문(碑文), 묘갈명(墓碣銘), 묘표(墓表), 행장(行狀), 행록(行錄), 발문

1) 전봉준의 <공초록(供草錄)>은 1991년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에서 <금성정의록>을 번역 발간하였다.

(跋文), 전(傳), 잡저(雜著), 그리고 마지막에 《금성정의록(錦城正義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산유고》는 1941년 점산 사후 1년만인 1942년도 봄에 간행을 논의하여 1946년 9월에 20권 10책의 석인본을 발간하였는데, 제10책이 바로 <금성정의록>으로 1991년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에서 이를 번역하여 발간하였고, 2006년 12월 27일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68호로 지정되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금성정의록>은 갑편, 을편, 병편로 구성되어 있는데, 갑편은 1894년 동학농민군의 나주 공략과 수성에 관한 활동 상황이 기록되었으며, 을편에는 동학농민으로부터 수성의 논공과 1895년 개화파로 알려진 안종수(安宗洙)가 나주 참서관으로 부임한 상황이 기록되었으며, 병편에는 1896년 나주 단발령 의거(斷髮令 義擧)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금성정의록>의 특징은 이병수 자신도 역사 무대에 등장하면서 직접 기록한 작품이지만 자신의 호칭을 ‘내가’라 하지 않고, 항상 삼인칭의 호칭인 ‘이병수가’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면 기록에 사적(私的)인 감정을 배제한 매우 객관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병수가 이러한 기록을 하게 된 배경에는 1893년 12월경에 남원부사에서 나주목사로 부임해온 민종열(閔鍾烈) 목사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금성정의록>의 첫 도입부분의 기록이 1893년 말경 민종열 목사가 나주로 부임하는 상황을 기록한 것부터 시작된다.

1893년 12월경에 나주로 부임해온 민종열은 백성들을 향약(鄉約)의 규약²⁾으로 교화 시키고자 목사 밑에 도향약소(都鄉約所)를 개설하고 나동륜(羅東綸)³⁾을 도향약장(都鄉約長)으로, 이병수를 도약소 직월(直月/간사역할)로 위촉하면서 이병수가 민종열 목사와의 첫 만남의 계기가

2) 향약의 규약 :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환난상휼(患難相恤) 예속상교(禮俗相交)를 도모

3) 나동륜(羅東綸) : 1833-, 1873년 생원시 합격, 저서로 《荷村遺稿》가 있다. 이 문집 속에 동학 관련기록으로 동학도들이 자수하도록 회유하는 글이 있다.

되었다.⁴⁾

향약의 규약으로 교화하고자 각 면리에 선악(善惡)을 가리는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매월 1일 각리 리정(里正)→면약정(面約正)→도향약장(都鄕約長)에게 보고하는 채널을 통해, 그에 따라 상벌의 규정을 1894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그런데 이를 시행한지 4개월 만인 4월에 동학농민군이 나주를 공략하자, 도향약장과 직월 등은 민종열 목사가 동학군 물리치는 일을 보좌하는 역할로 전환되었다. 이때 초토사(招討使)가 된 민종열 목사의 측근에 있었기에 당대의 문장가인 이병수는 스스로 동학 관련 공략과 수성에 대한 활동 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에 민종열 목사가 직월 이병수에게 일기를 쓰도록 명하였다면 1895년 9월 19일 민종열 목사가 담양부사로 전임되었기에 1895년 9월 이후부터 1896년의 나주 단발령 의거의 과정을 기록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금성정의록>은 1894년부터 1896년까지의 사건이 <갑편>, <을편>, <병편>으로 구분하여 연이어 기록되었으니, 이병수 스스로 일련의 사건을 누가기록(累加記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병수의 기록 정신에 의해 비록 관군 측의 입장이지만 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금성정의록>은 1894년 1월부터 1896년 나주 단발령 의거까지의 나주 역사를 기록한 사찬(私撰)의 문서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거의 관찬(官撰)에 버금가는 역사 사실[팩트]이 기록되어 있다. <금성정의록>이 역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 받는 이유는 비록 사찬(私撰)의 기록이지만 당시 격동기의 역사를 연도별 월별 순서로 기록해 놓았기에 관찬(官撰)의 역사기록의 부족한 부분을 <금성정의록>이 보완해 주기 때문이다.

먼저 논자가 <금성정의록>에 서술된 1894년부터 3년간의 동학관련 나주 역사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화 해 보았다.

4) 이병수를 도약소 직월(直月/간사역할)로 위촉하면서……계기가 되었다 : 이 말은 이병수의 문장력과 활동성이 남달랐기에 목사에게 추천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1〉 1894~1895년 간의 나주지역 역사 흐름도

1894년/음력기록														
1월	4월	4월	4월	7월 5일	8월 13일	10월 21일	11월 10일	11월 12일	11월 17일	11월 24일	12월 13일	12월 8일		
고부 민란	동학군 함평 출몰	나주목사에게 편지	전주 함락	나주 수성 대비	나주 서성문 전투	전봉준 비무장 입성	민종열과 담판	침산전투	영암전투	북창전투	고막포·진등참 전투	금안리 남산촌 전투	남평전투	병영함락 영암출격

1895년/음력기록						1896년/양력 기록 ⁵⁾										
1월 ~ 3월	3월 30일	6월 18일	8월 20일	10월 15일	11월 17일	1월 9일	1월 9일	2월 11일	3월 10일	8월 4일						
청일전쟁	전봉준 처형	안종수 나주참서관	부임	명성왕후 시해	명성왕후 국장 발표	1896년 1월 1일	양력 시행	정석진 해남군수로	출발	나주 단발령 의거	발생	고종 아관파천	정석진 나주로 압송	정석진 처형	나주 관찰부 폐지	광주 관찰부 이전 (칙령 36호 1조)

〈표 1〉을 일별해 보면 1894년부터 1896년까지의 나주와 우리나라의 격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고부민란이 나주에 미치는 것은 1894년 4월부터이다. 4월경에 전봉준

5) 승정원일기에 양·음력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다. 즉 정석진이 해남군수로 임용된 날이 양력 1896년 1월 13일[음력 1895년 11월 29일]이었다. 그래서 부임 5일 전인 1896년 1월 9일에 나주에서 해남으로 출발한 것이다. 〈금성정의록〉도 양력으로 기록되어 있다.

은 함평지역으로 출몰하여 함평에서 나주 관아에 편지를 보낸 것은 나주의 의향을 떠본 듯하다. 이 서신을 받은 민종열 목사는 서신 뒷면에 “명분 없는 거사는 법에 의해 처참되어야 하며, 부도덕한 말은 듣고 싶지 않다”⁶⁾라고 써서 보냈다. 그러자 전봉준은 나주로 향하지 못하고 함평에서 장성을 경유하여 전주로 가서 전주성을 함락하게 된 것이다.

동학농민군이 나주를 공략한 것은 동년 7월 5일이다. 이들은 퇴로가 확보된 서성문으로 공략하였으나 관군에게 패하고 말았다. 견고한 나주 읍성을 가지고 싶은 전봉준은 8월 13일 비무장으로 서성문을 통해 나주목사의 면담을 요청하자, 마침내 성안으로 들어와, 민종열 나주목사를 면담하고 담판을 하였지만, 나주목사는 전봉준의 뜻을 받아 주지 않았다.

동학군의 우두머리가 제 발로 성안으로 들어오자,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을 부하들이 하였지만 나주목사는 살려서 성 밖을 나가게 해준다. 이 부분은 제3편에서 다시한번 언급코자 한다. 그리고 동년 10월부터 나주지역에서도 동학군의 침투가 발생하는데, 10월 21일 침산(砦山)전투, 11월 10일 영암(靈巖)전투, 11월 12일 북창(北倉) 전투, 11월 17일 고막포(古幕浦)전투, 11월 24일 금안리 남산촌(南山村) 전투, 12월 13일 남평(南平)전투, 12월 8일 병영(兵營)함락으로 영암(靈巖)출격으로 진행 되었다.

1895년은 3월 30일 전봉준이 처형되고, 6월 18일 일제 앞잡이인 안종수(安宗洙)가 나주 참서관(參書官)으로 부임하였다. 그가 공을 쌓기 위해 상투를 자르는 일(斷髮)을 직접 강제로 시행하니 유림들의 원성을 사고, 마침내 나주에서는 안종수를 처단해야 한다는 10조목⁷⁾이 작성되기도 하였다.

6) 한자 원문 : 無名之舉在法當戮 不道之言非所願聞

7) 안종수를 처단해야하는 10조목 : ① 1895년 8월에 명성왕후가 시해(弑害)되었는데 안종수는 6월에 있어야 할 행동이 오늘까지 끌어 왔다고 말한 점. ② 각 군에 비치한 印章은 바로 임금의 명부인데 제멋대로 거두어 들인 점. ③ 저 스스로 관찰사 대리라 하여 문서에 함부로 사용한 점. ④ 명성왕후 국상에 朝夕땀도 하지 않고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國服을 마음대로 변경시킨 점. ⑤ 삭발령이 내려올 때 상관에게 칼을 대고 위협한 점. ⑥ 백성들이 억울한 사정을 보고하기 위해 모여 호소하려하니 민란을 일으킨다고 한 점. ⑦ 역적을 충신이 되었다고 한 점. ⑧ 고을 세금은 국가의 공물인데도 제멋대로 왜인들에게 주고 쌀을 사서 돈으로 바꾸어 버린 점. ⑨ 삭발을 독촉하며 향교를 헐어버려야 한다는 점. ⑩ 삭발을 하고 문묘 대성전을 배알하려고 한 점

1896년 동학을 물리친 공으로 도통장 정석진이 해남군수라는 벼슬을 받아 부임하여 출발하는 날에 환송 나온 군교(軍校)들이 환송 후 되돌아가서 관아를 습격하여 안중수를 처단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병수는 <금성정의록>에 낱낱이 기록해 놓았다. 이병수는 당대에 대문장가요 수많은 제자를 길러낸 지방 스승이었다. 그의 기록 정신이 당시의 역사를 기록케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하나의 의문점은 남아 있다. 그것은 나주 지역의 동학관련 사항을 대체로 살살이 기록한 <금성정의록>인데 1894년 일본 군인이 동학을 진압하러 나주에 와서 전라우영 터에서 잔인하게 살육을 행하였던 사항은 일체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학문적 접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동학의 나주 공략과 나주인의 수성(守城)이 지닌 의의

정석진, 이병수는 나주에 사는 호남인이요, 전봉준은 고부에 사는 호남인이며 민종열은 비록 출생지가 호남이 아니지만 공직 말년 즈음에 호남에서 지방수령을 역임하여 호남인의 기질을 알고 또한 호남인의 기질에 감화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논자가 호남인을 거론한 것은 호남인의 기질로 보면 정석진, 이병수, 전봉준도 같은 기질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의병장 김천일과 호남 의병을 주축으로 하는 1593년 진주성 제2차 혈전 때 중과부적의 진주성을 지킨 것은 진주와 호남은 순치의 형세이기에 진주가 무너지면 호남도 무너지니, 죽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명분(名分)을 주장하였다.⁸⁾ 호남인은 나

8) ① 《건재집》, 연보, 만력21년 계사. 「國家湖南爲根本. 湖於晉密邇. 無晉無湖南. 空城避賊. 以快其心. 非計也.」/우리나라에서는 호남이 근본이 되고 호남은 진주에 매우 가까우니 진주가 없으면 호남이 없다. 진주성을 비우로 적을 피하여 왜적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계책이 아니다」 ② 《건재집》 권5 안방준의 晉州敘事에 보면 「晉州密邇湖南. 迭爲唇齒. 若棄之去. 縱賊長驅. 則禍必中於湖南. 莫若並力堅守.」/진주는 호남과 매우 가까워 서로 唇齒의 형세요

라를 위하는 명분이 있으면 죽음을 불사하고 항전 한다는 것이다. 호남인은 눈앞의 실리(實利)보다는 명분(名分)을 앞세우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면 전봉준도 호남인이요, 민종열은 말년 벼슬이 모두 호남지역 수령을 하였기에 호남인의 성향을 보여 주었고, 정석진도, 이병수도 모두 호남인이다. 이런 호남인의 성향을 잣대로 동학의 나주 공략과 나주 수성을 살펴보자.

동학농민군과 나주목사 민종열 간에 나주를 중심으로 공수(攻守)가 있었으니, 읍성을 기준으로 하면 공(攻)은 동학농민군 측이요, 수(守)는 나주목사 민종열 측이다. 그러나 당시의 민의(民意)를 기준으로 지방 수령의 농민수탈이라는 폐정을 집단민원으로 표출하는 바른 정치의 나라를 지키는 수(守)의 입장이요, 나주목사 민종열은 폐정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지적하면서 집단 표출하는 농민군을 공략하였으니 공(攻)측에 해당한다고 보겠다.

고부군수의 농민수탈에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이게 나라냐?”하며 원민(冤民)들이 수탈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시위(示威)하는 집단 몸짓이 어찌 반란(叛亂)의 몸짓이겠는가? 역사는 이와 같은 농민의 집단 민원의 반발을 진주민란이니, 임술민란이니, 고부민란이니 하는 표현을 하며 왕권시대에 왕권에 반발하는 모든 집단행동을 민란으로 단정해버리고, 집단 민원의 해결책 강구보다는 우선 집단민원 측을 진압하는 것이 우선이었으니, 왕권 정치의 한계점을 노출한 것이다.

나주 측도 동학농민군이 나주를 공략했을 때, “이게 나라냐?”하며 동학군으로부터 나주읍성을 지켜내었다. 동학농민군은 강력한 무기를 가진 외적(外敵)이 아닌 조선의 백성인 하층 농민이다. 그들 손에는 겨우 축창만 들렸을 뿐 병법(兵法)도 모르고 군율(軍律)도 없는 단순 시위꾼이다. 그런 농민군이 전라도 관찰사가 있는 전주를 함락하고 크게는 50여 고을을 점거하였다. 축창을 든 농민군이 대체로 성벽이 튼튼한 나주읍성마저 공략하였으니 “이게 무슨 나라꼴이냐?”하였을 것이다.

만일 진주를 버리고 가서 적을 놓아주어 기리 말을 물게 해주면 화가 반드시 호남에 미칠 것이니 힘을 합하여 진주를 굳게 지키는 지켜 적을 막는 것만 못한다.」

더더욱 진주와 나주에서 따온 글자로 전라도(全羅道)라는 명칭이 생길 정도의 목(牧)이라는 고을로 정3품 목사가 다스리고 있는데 오합지졸의 농민군이 나주 서성문을 공략한 것이다.

당시 나주목사 민종열이 탐관오리의 수탈을 몰랐겠는가? 나주인이라고 탐관오리의 폐정을 몰랐겠는가? 나주라고 과거 탐관오리에게 수탈당한 자가 없었겠는가? 분명 많았을 것이다.⁹⁾ 농민군이 호남 50여 고을을 순식간에 점거할 수 있었던 것은 농민군이 전투를 잘해서가 아니라,¹⁰⁾ 수탈을 당하는 농민들이 동학농민군을 지지하거나 직접 가담한자가 많았기 때문에 시위의 위세로 점거가 가능했었다고 보아야 맞다.

더더욱 농민군 측의 기본 철학이 나라의 정권을 뒤엎자는 것이 아니고 다만 폐정개혁을 요구하는 농민의 저항운동인 만큼 반역(叛逆)과는 다른 점이란 것이다. 임금에게 폐정의 실상을 알리고 폐정을 개혁해 달라는 몸짓이 거의 죽음을 던지는 몸짓이었으니 농민군 측에서 보면 어찌 의로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외부에서 침입한 적이 아닌 조선의 백성인 농민들이 수탈에 대한 항거의 몸짓을 당시 정부는 정부 자체의 권력으로 다스리지

9) 나주지역 동학농민군 지지층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은 전봉준의 供招錄에 나타나 있다. 나주목향 토문화연구회, 《금정정의록》, 아가페문화, 1991년. 291쪽. 「問 : 무엇 때문에 광주 나주로 향하였는가? 答 : 起包의 일 때문이다. 答 : 나주지방에는 많은 친지가 있어 起包하는데 용이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起包란 농민 등이 동학의 包의 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봉기하던 일.

10) 나주 수성군과 나주를 공략한 동학농민군의 위세(威勢) 비교

요목	수성군	동학농민군
要塞기능의 城 유무	나주읍성	없음
組織	招討使, 都統長, 副統長, 都衛長, 中軍將, 統察, 別將, 別哨, 參謀, 書記, 偵探, 都訓導, 千總, 把總	接主, 接司, 教長, 教授, 執綱, 都執, 大正, 中正,
武器	旗鼓, 槍劍, 弓弩, 彈丸, 大碗砲, 將大砲, 造砲車, 千步銃, 片箭, 長箭	竹槍, 鳥銃, 官軍으로부터 탈취한 武器 ⇒ 농민군으로부터 찾아낸 무기류 - 대완포 10자루 미만, - 조총 40자루 미만 - 화약 70근 내외
運糧기능	있음	없음
戰術 운영	精銳軍	烏合之卒

※ 출처: 금정정의록 기록을 바탕으로 필자가 도표로 재구성함.

못하고 일본군에게 진압을 의뢰한 것은 역사적으로 큰 실수를 한 것이다.

농민의 폐정개혁 요구에 정부가 이를 들어 줄 것인지의 여부는 우리 내부의 문제이다. 그런 우리 내부의 문제를 일본이라는 외부의 세력에게 진압을 의뢰하였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 같다. 폐정개혁을 요구하는 농민 저항운동이 일본이라는 외세가 조선 정부를 간섭하자 동학농민군은 반일운동을 전개한 것을 보면 농민군이 주장하는 보국안민(輔國安民)의 맥락과도 같다. 일본군은 그 당시 살상력이 무서운 최신 무기로 무장을 하고 동학농민군을 무차별 학살하였다.

이 부분을 더욱 확실히 알게 하는 것은 전봉준을 심문하고 진술했던 공초록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95년 2월 9일자 전봉준 제1차 공초록에 동학농민군의 뜻이 표출된바, 전봉준은 이렇게 심문에 답하였다.

답 : “귀국[日本]이 개화를 한답시고 처음엔 민간에게 일언반사의 알림도 없었고, 또 격서(檄書)도 없이 술병하여 도성에 들어와 야반에 왕궁을 격파,¹¹⁾ 주상을 경동케 하였다는 말이 들리는 고로 시골선비 등은 충국에 국의 마음으로 분개를 이기지 못하여 의병을 규합 일일(日人)과 더불어 접전하였다”라 하였다.¹²⁾

1895년 2월 11일자 제2차 공초의 기록을 보면,¹³⁾

問 : 재차 기포(起包/起軍과 같은 말)는 일병(日兵)이 왕궁을 침범한 연고로 재기하였다고 하는데, 재기 후에 일병에게 어떤 행동거지를 하려 했는가?

답 : 왕궁을 침범한 연유를 따져 물으려 하였다.

問 : 그런즉 일병과 더불어 각국인이 경성(京城)에 주재하여 있는데 모두 쫓아내려 하는가?

11) 일본군의 경복궁 점거는 일본측인 나카즈카 아키라(中塚明)의 《1894, 경복궁을 점거하라!》란 책에서도 수록되어 있다. 2015년 박맹수가 번역하여, ‘푸른역사’에서 발간하였다.

12)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 국역 《금정정의록》, 아가페문화, 1991년. 251쪽.

13) 위의 책, 265쪽.

답 : 그렇지 않다. 각국인은 통상(通商)만을 할 뿐인데, 일인(日人)은 병사를 거느리고 경성에 주재하면서 우리나라 국토를 침략하려하니 의심스럽다. 이상의 공초록에서 본바 전봉준이 당초 폐정개혁의 민란으로 시작하여, 외세인 일본군이 들어오자 반일운동으로 하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다.

이상의 기록만 보아도 동학농민군은 처음부터 반역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임금이 임금답게 해야 할 일인 폐정개혁을 조속히 해 달라는 소박한 저항운동이란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오로지 나라를 위한 행동이기에 곧 의(義)의 표출이라 본 논자가 주장하는 것이다.

호남인의 기질로 전봉준과 민종열을 그리고 이병수를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이 있다. 그것은 전봉준이 비무장으로 스스로 나주읍성에 들어와 민종열 목사와 담판을 벌인 사건이다. 어찌 보면 농민군의 총 대장으로서 체포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지 나주 읍성 안으로 스스로 들어온 전봉준은 민종열 목사를 설득하여 나주에 집강소를 설치하고자 하였다. 스스로 의(義)라고 생각하면 죽음을 불사하는 호남인의 기질에서 나온 행동이라 볼 수 있다.

서성문으로 입성한 전봉준은 민종열 목사를 만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전봉준이 첫 대면한 민(閔) 목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들어보자.

“소생은 불행하게도 근년에 탐관오리(貪官汚吏)의 학정(虐政)으로 생활을 할 수 없고 가난이 극심한 지경에 이르게 됨에 군중들과 머리를 맞대고 행동을 같이 한 것은 깊은 원성(怨聲)과 규탄으로 민폐를 구제하려는 것이었습니다.(중략) 바라옵건대 명공께서는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 하였다.”

그러나 민(閔)목사가 말하기를 “내 마땅히 너를 죽여 군중에다 돌릴 것이나 특별히 너의 한 오라기 목숨만 용서해 주노니 돌아가서 너희 무리들을 타일러 즉시 귀화하면 천벌을 면할 것이라고 이르라” 하였다.

논자가 생각하기에는 전봉준은 민종열 목사의 사람됨을 이미 알았기에

관군의 지휘소인 나주 읍성으로 들어 왔다고 생각되며, 민종열 목사는 전봉준이 농민을 위하는 위민 철학(爲民哲學)에 감동하여 체포하지 않고 성문을 나가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만약에 민(閔)목사가 당시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농민군 우두머리를 체포하였다면 그 공으로 더욱 높은 벼슬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도, 부하들이 체포해 버리자는 의견을 제지하고 성 밖으로 나가게 한 것이다. 그래서 본 논자는 민종열을 호남인의 성향이 있다고 분류한 것이다.

위와 같은 기록은 <금성정의록>에 있다. <금성정의록>에는 전봉준이 나주 읍성안의 여관에서 하룻밤 묵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나주인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말에 의하면 객사(客舍)에서 하룻밤 묵게 했다는 말도 있다. 이것은 문장가 겸산 이병수의 기막힌 문장 서술 「테크닉」으로 보아야 한다. 나라의 죄인을 나주목사가 객사에서 하룻밤 재워주었다는 것은 직무유기(職務遺棄)이다. 그래서 ‘여관에서 잤다’라고 민(閔)목사의 직무유기 부분을 순화시킨 표현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민(閔)목사가 체포하거나 죽이지 말라 했지만 전봉준이 성문을 빠져 나가려는데 병사들이 체포하려는 기미를 미리 알아차리고 전봉준이 더러운 옷을 벗어 주면서 빨래를 부탁하고 며칠사이 영암(靈巖)을 다녔다가 오는 길에 옷을 찾으러 오겠다는 말을 하자, 그때 체포해도 될 것 같아, 성문을 나가게 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겸산 이병수가 민(閔)목사의 직무유기 부분을 조금이라도 순화시키고자 이런 문장으로 표현한 것인지는 정확히 간파할 수는 없으나 전봉준의 인간됨을 알고 살려 보내준 점은 민종열 목사의 인격을 다시 보게 된다.

호남인의 기질로 도통장 정석진(都統將 鄭錫珍)를 살펴보자.

민종열 목사가 동학의 나주지역 공략에 따른 대응책으로 정석진을 군무를 지휘할 수 있는 도통장(都統將)으로 위촉하면서 동학농민군 진압이라는 악역(惡役)을 민(閔)목사 대신에 한 사람이다.

《난파유고》의 오계수(吳繼洙)가 지은 정석진의 묘갈명에는 6전 6승이라

하였고, 《난파유고》의 기우만(奇宇萬)이 지은 정장군전(鄭將軍傳)에서는 7전 무패라 하였다. 그런데 《난파유고》 토평일기에는 8전 무패라 하였다.

기록으로 보면 살상을 크게 저지른 접전 같아 보이나, 서로 직접 맞붙은 전투는 오로지 서성문 전투인데, 서성문도 성문을 굳게 닫고 해자(垓子)에도 가시나무를 깔아 놓아 서성문 가까이 올 수 없는 상황에서 화포를 쏘고 서로간의 함성 지르는 싸움에 불과하였다. 농민군을 몇 명 죽였다는 기록도 없고, 관군 측도 몇 명 죽였다는 기록도 없다.

나주목 관아를 중심으로 변두리 지역에서도 동학농민군이 몇 차례 시위하였다는 점은 그들도 농민수탈을 당한 경험이 있기에 집단 반발의 몸짓을 한 것으로 보이나, 관군이 온다고 하면 미리 도망가거나, 흩어져 버렸다. 육박전의 전투를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일본군이 진압에 참여 하면서 수많은 농민 살상자를 냈으니, 이 분야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얼핏 보기에 따라서는 나주 관군이 동학농민군을 무찌른 것 같지만 싸워서 무찌른 기록이 전혀 없고, 또한 농민군이 나주 지역을 무력으로 공략한 기록도 없다. 있다면 단순한 농민수탈의 폐정개혁을 주장하는 몸짓만 있었다.

〈금성정의록〉에서 말하는 「정의(正義)」는 농민군을 무찌른 것이 아니었다. 겸산 이병수가 말하는 「금성의 정의」는 관군이 동학농민군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1894년부터 1896년까지의 역사가 동학농민 봉기, 을미사변과 일본의 경복궁 습격 사건, 단발령과 양력 시행, 나주 단발령 의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보여준 조선인이 「조선 편」에 선 것, 「임금 편」 또는 「나라 편」에 선 것을 정의(正義)라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학농민운동을 평가한다면 탐관오리의 학정을 「임금에게 하소연」하는 몸짓으로 시작하여, 일본이라는 외세가 개입하자 「임금 편/또는 나라 편」에 서서 반일운동을 하였으니, 이것도 「정의」의 맥락이 아니겠는가.

지금까지 〈금성정의록〉을 통해 민종열, 전봉준, 정석진, 이병수라는 인물을 당시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호남인은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언제나 뜻을 같이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나주지역 일자별 농민군의 전투 유적지 탐방

〈금성정의록〉과 《난파유고》에는 동학농민군과 나주목사 민종열 간에 공수(攻守)의 과정을 일정별로 서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를 ‘몇전 몇승’이란 표현의 기록이 없는데, 그런데 《난파유고》에서는 오계수(吳繼洙)는 6전6승이라 표현하였고, 기우만(奇宇萬)은 7전무패라 표현하였다. 그런데 《난파유고》의 토평일기에는 여덟 번 출전하여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은 1894년경의 지명(地名)을 중심으로 기록 되었기에, 오늘날 지명과 달라, 동학 관련 학문적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구체적으로 전투장면을 해설코자 한다.

〈1단계〉

일자별	금성정의록(錦城正義錄)	난파유고(蘭坡遺稿)
1894년 4월	정수루를 성 수비 사무 개시 전봉준이 홍덕, 고창, 장수, 무장, 영광 등 군을 점거하고, 함평을 유린하면서 나주 아전들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면에 답장을 써서 다시 보냄	먼저 고부성(古阜城)부터 함락이 되자, 군수는 도망쳐 달아났으며 전라감영이 함락되자, 관찰사는 도주하여 숨어버렸다.
4월	- 나주목사 : 금성이 함락되면 강희(江淮)의 보장(保障) ¹⁴⁾ 이 영원히 의지할 땅이 없어지게 되는데 어찌 조정을 욕되게 하겠는가? 無名之學,枉法當戮,不道之言,非所願聞(무명지거왕법당육부도지언비소원문)/“명분도 없는 거사는 법에 어긋나니 죽어 마땅하고 도(道)에 맞지 않는 말은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 농민군은 나주로 공략하지 못하고 장성으로 이동	동학 괴수 전봉준은 연달아 홍덕, 고창, 장수, 무장, 영광 등 군을 점거하였고, 함평읍을 만약 유린하게 되면 말을 멀리 달려서 장차 나주로 들어갈 기세로 나주 아전(公兪)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말의 뜻이 매우 오만불손하였다. 전봉준 적괴가 보낸바 편지를 취하여 이면에 쓰기를 “명분도 없는 거사는 법에 어긋나니 죽어 마땅하고 도(道)에 맞지 않는 말은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열여섯 글자를 써서 적진에 되돌려 보냈다.

일자별	금성정의록(錦城正義錄)	난파유고(蘭坡遺稿)
4월 22일		임금이 파견한 홍재희 초토사는 영광에 있으면서 농민군과 전투 결과 대장 이도승(李道承) 순절, 관군 대패했다는 소식을 나주목사 전해 들음. ⇒ 4월27일 전주함락

〈2단계〉 나주 서성문 전투

7월 1일	최경선 등 수천 명이 금안동에 진을 치	
7월 5일	금성산을 통해 최경선, 오권선 등 일당 수천 명이 서성문으로 와 전투 ⇒大碗砲, 將大砲 발포 ⇒농민군은 서북쪽 산으로 도망	최경선 등 농민군 수천 명이 서문 공략. 금안동으로 부터 산비탈을 따라 서문을 급습 ⇒대포와 천보총으로 격퇴

당시 동학농민군은 관군을 피해 다녀야 하기 때문에 대로(大路)보다는 대체로 산록의 길을 택했다. 나주 서성문 공략도 금성산 산록을 통해 진군 하고, 혹여 후퇴할 때로 곧 바로 금성산 속으로 피해 달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성문은 웅성이 있는 석성이기에 동학군이 쉽게 점거할 수 없고, 성 밖으로 해자가 있는데 가시나무를 깔아 놓았으며, 성위에서는 대완포 등을 쏘고, 아이들을 시켜 성안에서 밖으로 돌팔매질을 하였기에 농민군은

14) 강회(江淮)의 보장(保障) : 당 현종(唐玄宗) 천보(天寶) 연간에 안록산(安祿山)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당시 원군(援軍)이 단절된 수양성(睢陽城)에 적병(賊兵)이 물밀듯이 쳐들어오자, 수양성을 지키고 있던 여러 군중이 모두 동쪽으로 달아날 것을 의논했으나, 이때 진원 영(眞源令) 장순(張巡)이 수양 태수(睢陽太守) 허원(許遠)과 함께 의논하기를 “수양성은 강회 지역의 보루가 되는 곳이니, 만일 이곳을 버리고 떠난다면 적이 승승장구하여 남쪽으로 내려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강회 지역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睢陽江淮保障也 若棄之 賊乘勝鼓而南 江淮必亡]”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전하여 강회는 한 지방의 중요한 요새를 의미한다. 그 당시 장순과 허원은 끝까지 수양성을 굳게 지키다가 끝내는 적에게 성이 함락되어 모두 전사하고 말았다. 《新唐書 卷192 忠義列傳 張巡》. 강회(江淮)는 양자강(揚子江)과 회수(淮水)를 말하니, 여기서는 영산강과 그 지류로 봄이 타당하다.

적어도 서성문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대치하였을 것이니, 사실상 치열한 접전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상황임을 전봉준은 이미 알고 농민군의 위세(威勢)를 민종열 목사에게 보여 주기 위해 서성문에 접근했다고 보아야 한다.

전봉준이 나주를 점거해야 할 이유를 <금성정의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적[동학군]들이 꼭 나주에만 호기심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의 성첩(城堞)이 완고하고 병기가 튼튼하기 때문인데 만약에 점거당하거나 빼앗기에 된다면 저들이 소굴로 삼고 장차 세력을 굳힐 수 있는 곳」이라 하였다. 그래서 전투에 진 전봉준은 목숨을 걸고 나주 읍성 안으로 스스로 들어와 민종열 목사와 담판을 한 것이다.

〈3단계〉 전봉준 비무장으로 서성문 입성/나주목사와 담판

8월 13일	전봉준 등 10여명, 비무장으로 서성문으로 입성, 민종열 목사와 담판 전봉준 왈 : ‘지금 도내의 모든 군들은 거의 다 직무를 태만하고 경쟁을 하지 않는데, 오직 공계서는 홀로 외로운 성을 지키면서 -중략- 정력소모를 어찌 이같이 하십니까?’ 민목사 왈 : ‘전략- 하물며 나는 국가의 중진인데 성을 지키지 않겠느냐? -하략-’ ⇒ 전봉준 성안의 여관에서 1박 ⇒ 옷 빨래를 빌미로 성을 빠져 나옴	
-----------	---	--

전봉준은 전라도 관찰사의 편지를 전한다는 이유로 민종열에게 면담 요청을 하였다. 이를 수락하여 서성으로 입성하여 전봉준과 민종열이 만났다. 두 사람의 대화가 <금성정의록>에 수록된 내용의 말 이외에도 많았을 것이다.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 서로의 사람됨을 알아보고, 민종열은

전봉준을 체포치 않았다. 아마 전봉준이 농민군 우두머리 된 명분에 감동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를 체포하지 않고 성 밖으로 나가게 해주었기에 논자는 민종열을 호남인의 성향으로 본 것이다.

민종열은 담양부사로 전임된 후 1896년 나주 단발령 의거 이후 서울로 압송되었다. 일제 앞잡이를 처단한 사건 때문에 중앙에서 취조를 한 듯하다. 그리고 그 이후 민종열이 벼슬한 기록이 없다. 그렇다면 민종열은 친일파는 아닌 듯하다.

〈4단계〉 침산(砦山)¹⁵⁾전투

10월 21일	大碗砲, 將大砲가 너무 무거워 造砲車로 제작 - 좌우회전 작동 가능 농민군 7백여명이 砦山에 진을 치 대완포와 천보총으로 격퇴함. ⇒ 농민군은 멀리 仙巖(광산구 선암동)에 주둔	적의 무리 7백여 명과 침산 전투 - 대완포 천보총으로 격퇴 멀리 광주 仙巖 등지를 바라보니 적 수만 명이 진을 치
------------	---	--

침산은 나주 관아에서 약 4km 떨어진 오늘날 광주시 광산구에 있다. 농민군 무리 7백여명을 대완포로 물리쳤다. 대완포를 수레에 싣고 다녔으니, 멀리서 대완포만 보아도 농민군을 겁에 질려 도망갔을 것이니, 농민군의 출몰은 있었으나, 실제 접전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15) 침산(砦山) : 오늘날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곡동으로 꽃계탕이 유명한 지역의 옛 지명이다. 한국학 자료 포탈에 光州牧 砦山을 보면 “1903년(광무7) 11월에 민영순(閔泳純)과 민기식(閔基植)이 전라도 나주목 관동면 북룡산에 있는 선산(先山)의 소유권 분쟁을 바로잡아 달라고 나주목사(羅州牧使)에게 청원한 문서이다.”란 기록으로 보아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내기리(內基里), 연동, 도림면(道林面) 신촌리(新村里) 등의 일부를 합하여 평동면(平洞面) 동산리가 되었다가 1949년 8월 광산군(光山郡)에 편입되었다.

〈5단계〉 농민군 동창(東倉)¹⁶⁾으로 침투

11월 8일	영암으로부터 시급한 보고	영암의 동면에서 위급함을 보고
11월 9일	도통장, 부통장, 중군장 등 포군 3백명 東倉으로 이동 ⇒ 영암으로 가니 농민군은 이미 도주	도통장 정석진 부통장 김재환 중군 김성진 서기 최문협 포군 3백명 東倉 출진 - 적들이 이미 도주
11월 10일	北面 정탐보고에 吳權先이 재산을 약탈한 다 하였다.	
11월	북면을 향해 관군이 행군하여 朱葉亭 ¹⁷⁾ 에 숙박하다	행군을 멈추고 竹葉亭에서 숙박

영암지역에 농민군 출몰이 11월 8일인데 9일날 영암 인근 나주 동창으로 출격하니 이미 영암 농민군은 도주해 버렸다 이어서 광주 북면에 오권선의 농민군이 출몰하였다. 이처럼 각 지역 농민들이 농민군이 되어 시위하다가 관군이 오면 흩어지거나 도망가 버린 것이다.

〈6단계〉 북창(北倉)¹⁸⁾ 전투

11월 12일	주엽정에서 40리를 더 가, 北倉站에 도착, 竹山 앞 봉우리로 이동 농민군은 斗洞에 주둔 簞珍山 중봉에서 전투에서 대승	용진산 중봉에 적 수천 명 주둔 관군을 보고 먼저 공격 관군은 대완포와 천보조총으로 격퇴 - 적들은 용진산 속으로 후퇴
------------	---	---

11일 영암과 나주 경계에 있는 주엽정(朱葉亭)에서 관군은 1박을 하고 다시 도보로 16km를 북상하여 북창점(北倉站)에 도착하였다. 관군은 죽

16) 동창(東倉) : 오늘날 나주 세지면으로 영암군과 경계하고 있다.

17) 주엽정 : 羅州牧 金磨面 朱葉亭이니 오늘날 영암 금정면이다. 일명 竹葉亭, 周葉亭이라 한다.

18) 북창(北倉) : 오늘날 광주 광산구 본량동 용수, 용강마을을 말한다.

산(竹山) 앞 봉우리에 주둔하고 관군은 두동(斗洞)에 주둔하였다가 용진산 쪽으로 도주하는 농민군을 향해 대완포를 쏘니 아마 농민군은 용진산(聳珍山) 속으로 숨어들어 버렸다. 그래서 <금정정의록>기록이나 전투에 직접 참여한 정석진의 <토평일기>에서 농민군과의 접전상황에서 싸우지도 못하고 도주하는 결과를 대승(大勝)이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접전 지나 결과는 관군의 승리로 기록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본 논문 각주10)의 <표>에서 본바, 관군의 우수한 무기에 비해 농민군의 죽창(竹槍)은 싸울만한 무기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로서 빈약하다. 그러므로 농민군의 출몰은 시위(示威)의 모습인데, 관군 측은 이를 싸우러 오는 적(敵)의 모습으로 보고 항상 출동하였던 것이다. 지방 여기저기 출몰하는 장면이 마치 전봉준이 이끈 고부 농민들이 출몰하는 것으로 오해되는데, 거의 모두 해당 지역 농민들이 농민군이 되어 고부 농민처럼 시위를 하였던 것이다.

<7단계> 고막포 및 장등참 전투

11월 17일	무안군 경계 고막포에 적이 진을 침(5-6만 명) - 長嶮站 ¹⁹⁾ 까지 침박	농민군 고막포에 진을 침 - 관군은 자지현 ²⁰⁾ 으로 나아가 초동리 ²¹⁾ 진등참에 포군 매복 작전
11월 18일	포군300명, 대포군이 대완포를 쏘고, 장등참에서는 관군과 민병 총 3천여 명이 천보총을 연발하여 격퇴하였다.	관군이 서부 장등에 진을 침 농민군은 세곡이 있는 서창으로 출발 적들이 아군을 보고 고막산으로 도주 관군이 호장산 ²²⁾ 으로 옮겨 주둔

북창 전투 5일 후에 고막포로 출몰한 농민군은 아마 무안, 함평, 나주 일부 지역 농민들이 대거 모였던 것 같다. <금성정의록>에도 농민군은

19) 장등참(長嶮站, 진등참) : 나주시 다시면 동곡리, 문동리를 말한다[다시 버스터미널-고막원역 사이]
20) 자지현(紫芝峴) : 나주시 다시면 가운데리, 신길산과 여마산 사이의 고갯길.
21) 초동(草洞) : 나주시 다시면 영동리 초동마을(갯골)을 말한다.
22) 호장산(虎壯山) : 나주 다시면 松村里

5~6만명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이는 지역 농민군 출몰에서 적지 않은 숫자이다. 농민 수탈에 대한 반발의 농민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여 준다, 관군이 대완포와 천보총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니 농민군은 결국 도주한 것이다.

〈8단계〉 금안면 남산촌 전투

11월 23일	적의 무리 수만 명이 금안면 남산촌 ²³⁾ 에 주둔 - 염탐군이 咸朴山 ²⁴⁾ 까지 몰래옴	용진산에서 패배한 농민군 수만명이 금안면 남산촌 진주 - 밤에 咸朴山에 올라가 염탐
11월 24일	도통장 정석진, 도위장 손상문, 초관 박성로, 별장 전학권, -포를 쏘며 남산촌으로 전진하여 격퇴	포군을 3路로 나누어 진격 금안면 남산촌 전투 민목사 왈: “적을 부수는 것은 가히 기쁘는데 사람의 목숨을 많이 상하였으니 가히 불쌍하구나.”라고 하였다. ⇒ 민목사의 好生之德

고막포 전투 5일 후인 11월 23일 나주 금안면 남산촌에 출몰한 농민은 아마 나주, 함평, 광산 일부 지역농민들의 시위로 보인다. 3개 지역 농민들이니 그 숫자도 셀 수 없어서 수만 명이라 기록하고 있다. 남산촌은 평야지 마을인데 이곳으로 집결했다는 것은 퇴로가 되는 높은 산과의 거리가 멀어 관군에게 쫓길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대체로 나주 관아와 가까운 지역이라 도통장 정석진이 이끈 정예군이 출격하여 대완포를 쏘니 비록 조준하지 않고 마구 쏘았지만 어찌 농민이 살상되지 않겠는가? 포군을 세 방면으로 나누어 남산촌을 진격하므로 농민군의 피해가 있었기에 나주목사 민종열도 ‘적을 부수는 것은 가히 기쁘는데 사람의 목숨을 많이 상하였으니 가히 불쌍하구나.’라고 하였다. 이병수는 민(閔)목사의 이러한

23) 金安面 南山村 : 오늘날 나주시 노안면 용산리 남산마을을 지칭한다.

24) 함박산(咸朴山) : 현 나주 동신대 앞의 싸이클 경기장이 있는 작은 산을 말한다.

성향을 호생지덕(好生之德)에서 나온 말이라 기록하고 있다. 사실 당시 남산촌으로 출몰했던 농민의 거주지는 나주, 함평, 광산으로 모두 나주목사 관할 구역이니 나주목사의 백성들이다. 그런데 그 백성을 적(敵)이라 표현하였다. 이는 농민들의 폐정개혁에 몸부림하는 모습에 동조치 못하는, 또는 동조할 수 없는 민중열의 행동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민중열이 이미 전봉준의 사람됨을 알았고 농민군이 외부로부터 침략해온 적(敵)이 아닌 조선의 백성이란 것을 알아도 당시 왕권시대 체제에서는 정부가 임명한 목사의 자격으로 농민군 편에 설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9단계〉 남평(南平) 출격

12월 3일	崔敬善이 남평에 쳐 들어와 관가의 符金을 수탈해가고, 현감은 총상을 입었음.	최경선이 남평을 함락하고 사포의 符節과 金印을 빼앗음. 사포는 탄환을 맞고 생사 위험
12월 4일	도통장 등 포군300명 남평으로 급파하니 농민군은 능주로 도주 농민군은 능주에서 해산	날랜 포군 3백명을 파견하여 月延臺 뒷산에 진을 치니 적들은 소문을 듣고 능주로 도주

남산촌 전투 9일 후에 남평현에 출몰한 농민군 대표는 최경선이다. 최경선(崔景善, 1859~1895)은 나주 서성문 전투에 참여했던 인물로 동학농민군 영솔장((領率將)으로 활동한 농민 운동가이다. 이 사람이 거느린 농민군은 다른 농민군과는 달리 남평 관아를 습격하여 남평현감²⁵⁾의 부절(符節)과 금인(金印)을 빼앗는 과정에서 현감이 탄환을 맞은 듯하다. 농민군도 재래식 화승총이 있었고 또한 관군으로부터 빼앗은 무기가 있었으니 1894년 말경의 농민군 무기는 관군을 넘어설 수는 없으나 화약의 무기를 썼던 것 같다.

이러한 급한 통문을 받고 도통장 정석진 등 포군 300명을 남평으로

25) 남평현감 : 이때 현감은 李載亮이었다. 출처: 정윤국, 《나주목지》, 제일문화사, 1989.

급과 했는데, 관군이 온다는 소식에 농민군은 능주 쪽으로 흩어져 해산해 버렸다. 그렇다면 여기에 참여한 농민은 화순 지역 농민과 나주 남평, 봉황지역 농민이었을 것이다. 다만 지휘자가 농민군 우두머리격인 최경선이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10단계〉 병영(兵營)이 위급하다는 첩보로 영암(靈巖) 출격²⁶⁾

12월 8일	강진 등지에 농민군이 창궐한다는 첩보 도착 영암과 병영에 군령을 내리고 다섯 개 면의 의병 통령 유기연(柳紀淵)으로 하여금 병사 1천명을 거느리고 신안원(新安院)²⁷⁾에서 기다렸다가 도통장과 합세하여 가서 구원하기로 함. ⇒ 햇불을 켜고 곧바로 영암 화수원(火燄院)을 향하였는데, 강진(康津) 관청의 이규하(李奎夏)가 달려와 군문에 도착성 함락의 경위 설명 ⇒ 대월루(待月樓)에 진을 쳤는데, 병영이 함락되었다고 보고가 올. ⇒ 영암을 수비하여 농민군이 무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월출산 누릿재[黃峙]와 영암 덕진(德津)으로 가는 중요한 길을 막음.	초8일 강진에 적 창궐 급보 도달 천보조총군 3백명, 창군 2백명을 영암으로 파견 적 정세 파악 지시 • 의병 통령 유기연(柳紀淵)으로 하여금 병사 1천명을 거느리고 신안원(新安院)에서 기다렸다가 도통장과 합세하여 가서 구원키로 함. • 영암 대월루(待月樓)에 진을 치니 병영(兵營)이 함락되었다 보고가 올. • 병영(兵營)은 이미 함락되었고 영암(靈巖)은 급한 상황에 있어 급한 상황을 버리고 함락된 곳을 구원하는 것은 형세가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영암의 월출산 누릿재[黃峙]로 가는 험준한 입구와 영암 덕진(德津)으로 가는 중요한 길을 막아 지켰다. - 수비하기 10여일이 되니 경군(京軍)과 일군(日軍)이 이어서 또 내려왔기 때문에 즉시 회군하였다.
-----------	---	---

남평 전투 4일 후에 첩보가 나주 관아에 도착했는데 강진 농민군이

26) 정석진의 토평일기 말미에 보면 ‘대저 정석진(鄭錫珍)을 도통으로 삼아 전후로 모두 여덟 차례 출전하여 완전무결하게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大抵鄭錫珍之爲都統也, 前後出戰凡八次, 而十全而無一敗.’라 하였다.

27) 신안원(新安院) : 신증동국여지승람 제 35권, 전라도/나주목 【역원】 편에 ‘신안원(新安院) 주의 남쪽 35리에 있다’란 기록이 있다.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 봉학마을이 옛 신안원이다.

창궐한다는 소식이었다. 강진은 전라병영성이 있는데 조선왕조 500년간 전라도와 제주도를 포함한 53주 6진을 총괄한 육군의 총 지휘부였다. 그러한 여건인데도 강진 병영성이 농민군에게 함락 되었다는 것은 나라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오히려 군사력이 나주측 보다 훨씬 많은 강진에서 농민군을 제압하지 못하였다는 말에 나주 관군측도 영암까지만 출격하여 강진을 관망한 것 같다.

나주 관아에서 나간 천보조총군 3백명, 창군 2백명으로 어찌 전라 병영성을 함락한 농민군을 제압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강진의 농민군이 영암 쪽으로 넘어오거나 무안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월출산 누릿재[黃峙]와 영암 덕진(德津)으로 가는 중요한 길을 막고만 있었다. 물론 나주 관아의 병력이 부족하자 의병 통령 유기연(柳紀淵)으로 하여금 병사 1천명을 거느리고 신안원(新安院)에서 기다렸다가 도통장과 합세시킨 점이 특이하다. 유기연에 대한 인물은 갑오군공록에 '나주유학 柳紀淵 募民5백 捉魁 수십명'²⁸⁾이란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금성정의록>의 기록은 1천명 의 병이라 했는데, 군공록 기록에는 5백 명이라 하였다. <금성정의록>의 저자 이병수는 실제로 현장에 출격을 하지 않고 사후에 전해들은 것을 집필하다보니 숫자가 부풀려 기록 된 점이 있다. 영암 출격한 나주 관군은 이렇게 10여 일간 영암에 주둔하다가 서울에서 관군과 일군(日軍)이 오자 즉시 귀대하였다.

<금성정의록>의 동학관련 기록은 이것으로 끝났다. 그러나 본 논자가 동학관련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거론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점이지만 적어도 장차 나주지역 동학관련 연구를 위해 지명을 열거코자 한다. 지금이 지명과 과거의 지명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성정의록>과 《난파유고》에서 언급된 동학관련 지명은 학술적 재조명의 참고자료가 되도록 여기에 언급하니 금후 관심 있는 학자들의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28) 출처 : 갑오군공록, 奎17185, 군부편, 1책

- ① 월명(月坪) :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를 말한다.
- ② 작천(鵲川) :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5권 나주목편을 보면 작천(鵲川)은 주의 북쪽 35리에 있다. 주의 용진산(湧珍山) 및 장성군 연산(隨緣山)에서 나와 남쪽으로 흘러 광탄(영산강)으로 들어간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장성의 수연산과 광주의 용진산(湧珍山)을 지나 흐르는 강물은 영산강의 상류인 황룡강의 일부 지천인 듯하다. 나주목지에는 영광군 수연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성군 수연산이다.
- ③ 북면(北面) : 수연산 북쪽으로 장성군에 북일면, 북이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을 지칭한 듯하다.
- ④ 두동(斗洞) : 광주 두동(光州 斗洞)으로 광주 광산구 두정동을 말한 듯하다.
- ⑤ 평리(平里) : 원래 나주 평리면인데 관동면과 병합하여 오늘날의 광주 광산구 평동면이 되었다. 三加는 三加里 즉 오늘날 삼도동(광주 광산구 삼도동) 같고, 官洞은 원래 나주 관동면인데 평리와 합병하여 오늘날 광산구 평동면을 말한다. 伊老는 伊老面으로 오늘날 나주시 老安面을 말한다.
- ⑥ 영광삼남(靈光森南) : 영광군 삼남면을 지칭한다. 그러나 1914년 영광군의 外東面, 內東面, 縣內面, 森南面, 三北面, 外西面을 분리하여 장성군에 넣었다. 오늘날 장성군 森西面이 森南面과 外西面이 통합된 느낌이 든다.
- ⑦ 홍정(紅亭) : 장성군의 紅亭里를 지칭한 듯하다.
- ⑧ 죽산(竹山) : 簞珍山 인근으로 추정되는 죽산은 광주 광산구 본량동 죽산 마을을 지칭한 듯하다.
- ⑨ 북창(北倉) : 簞珍山 아래에 있다.
- ⑩ 호장산(虎壯山) : 나주 다시면 松村里
- ⑪ 월연대(月延臺) : 남평읍 동사리에 있다. 관아 터가 月延臺(해발 120m) 북쪽 산기슭에 있다하였으니 관아 터 뒷산인 듯하다. 일명 虎山이라고 부른다.

- ⑫ 황치애구(黃峙隘口) : 영암의 월출산 누릿재(黃峙)로 가는 험준한 입구
- ⑬ 덕진요로(德津要路) : 영암 덕진(德津)으로 가는 중요한 길
- ⑭ 영평(永平) : 오늘날 남평

5. 맺음말

지금까지 필자는 1894년부터 1896년까지의 역사 격변기에 기록된 <금성정의록>과 <토평일기>를 통해 동학농민의 나주 지역 공략과 나주목사 민종열의 수성 또는 방어 과정에서 보여준 사람의 성향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살펴 살펴보았다.

1894년부터 1896년까지는 보수와 진보라는 문화의 충돌이 매우 심하였다. 갑작스런 서양의 배가 조선의 해변에 오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대가 다가오고 일본에 의해 개화라는 빌미로 조선을 잠식해 오는 상황에 대처한 조선의 백성들은 신구(新舊) 문화의 충돌에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대체로 <금성정의록>에 등장하는 인물은 보수성이 강한 측에 속해 조선의 갑작스런 변화를 원치 않은 듯하다, 농민군의 우두머리 전봉준도 처음에는 농민수탈이라는 폐정개혁을 주장하다가 일본의 야욕을 깨닫고 부터는 일본의 개화에 반기를 들었다. 민종열도 보수성향이 강해 개화파가 되지 않은 듯하다. 나주인도 1896년 소위 나주 단발령 의거를 일으켜 일제 앞잡이를 죽이는 사건을 벌였지만, 신무기로 조선을 제압하는 일본을 이기기 못하였다. 유교적 학문이 깊어도 무력 앞에서는 힘센 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그로부터 125년이 지난 오늘날 역사에서는 1894년 격동기 농민운동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게 되니, 당시의 농민정신이 조선의 미래를 예언하는 행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왕권시대는 가고 민주의 시대를 여는 단초가 된 것이다.

그러한 시각에서 동학농민군의 나주목사 민종열간의 공수(攻守) 그리고 역사의 변화를 도표화하여 결론을 내고자 한다.

〈표 2〉 동학농민군의 공격과 나주인의 방어 역사적 모습

동학농민군[전봉준]		공통 점	나주인[민종열과 정석진]	
공격 측 〈슬로건〉 弊政改革 輔國安民	〈공략의 이유〉 이게 나라냐? 임금이 해야 할 일을 백 성의 하소연으로 자극	조선인의 혼 호남인의 혼	〈방어의 이유〉 이게 나라냐? 죽창 든 농민군이 나라의 체 면인 전주성까지 함락한 것 이 무슨 나라꼴인가? 임금의 체면이 무엇인가? 호남의 자존심인 나주를 지 키자.	방어 측 〈슬로건〉 無羅州無湖南 無 湖南則學國將震 盪
외전상 공격측 敗	7戰7敗 ⇒여러 번 싸워 많이 죽어야 임금이 느낀다	호남인의 名分	7戰7勝 ⇒공격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방어	외전상 방어측 勝
전봉준 비무장 단독 나주 입성	폐정개혁 동참 요구	호남인끼리 名分 노출	無名之舉, 枉法當戮, 不道之 言, 非所願聞/명분 없는 거 사는 법에 어긋나니 죽어 마 평하고 도(道)에 맞지 않는 말은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주목사는 폐정에 불구하고 임금편임을 주장
민종열의 사람됨 을 알고 단독입성 하다	전봉준 적진지인 나주를 살아서 나오다	상호인격 존중	민종열 적진지에 들어온 전봉준을 살려 보내다	전봉준의 품격과 그 나름의 애국심 을 파악하고 체포 지 않다
역사적 관점 공격측 勝	7戰7勝 ⇒實戰에서는 졌지만, 역사의 평가에서는 이겼 다		7戰7無 ⇒7승 결과 얻은 것 무엇인 가? 관찰부만 있었다	역사적 관점 방어측 敗
폐정개혁 직접추진	집강소 설치	민주화의 씨앗		
	반일운동 전개	일본 외세 간섭 조선 점거의 야욕을 깨달음 名分이 갈아졌음	반일운동 나주단발령의거	
금후 할 일 : 나주 동학, 한(恨)에서 흥(興)으로 살어나다				

이상의 <표 2>에서 본 바와 같이 동학군의 나주 공략과 나주인의 방어는 적게 보면 호남인의 혼이요, 크게 보면 조선인의 혼이다. 한쪽이 7천7백하고 다른 한쪽이 칠천 무백 한 것도 호남인의 명분에서 나온 것이다. 전봉준의 비무장 나주 읍성 입성도, 민종열 목사가 이를 체포치 않은 것도, 이미 서로 간에 사람됨을 알아보고, 인격을 존중한 것도 서로 간에 명분을 노출하였기 때문이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동학농민군이 7천7백 하였지만 역사는 이를 동학운동으로, 나아가 민주화의 씨앗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니 동학이 마침내 승리한 것이요, 나주도 나라의 체면을 살렸으니 승자가 되었다.

다만 우리 내부의 갈등으로 잠시 공략과 방어를 하였지만, 일본이라는 외세가 간섭하자, 즉각 양측은 반일운동으로 전개 하였다는 것도 크게 보면 호남인의 혼이라 보여진다. 고로 동학과 나주인은 의(義)의 맥락이 같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끝으로, 동학농민군의 나주 공략이 있는지 2019년 현재 어언 125년의 세월이 흘렀다. 학계에서도 이제야 근세사인 동학관련 역사를 학술적으로 재조명하고 있다. 때를 같이하여 나주는 서성문 등 4대문이 복원되고, 서문 일대의 읍성도 복원될 전망이다. 금성관의 객사도 복원되고 동헌(東軒)을 발굴 조사 중이다. 이때를 맞아 일본의 학계에서도 《진중일지(陣中日誌)》가 발견되고, 일본학계에서도 동학의 학술적 재조명을 추진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일본이 동학농민군을 살상한 가해자 측인데도 이를 학자적 양심으로 파헤쳐 그 진실을 밝히고 위령탑을 세우려고 한다. 이러한 지방의 민간차원 한일교류가 단초가 되어 한일 국가차원의 선린우호의 교류로 발전되어, 장차 22세기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참고문헌>

이병수, 《금성정의록》 1946년 간행.

정석진, 《난파유고》 1913년 간행.

김천일, 《건재집》 1893년 간행.

나동륜, 《하촌유고》, 필사본.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 《국역 금성정의록》, 아가페문화, 1991.

權乃鉉, 「18·19세기 晋州地方의 鄉村勢力變動과 壬戌農民抗爭」, 『韓國史研究』89, 한국사연구회, 117~144쪽.

고석규, 「19세기 농민항쟁의 전개와 변혁주체의 성장」, 『1894년 농민전쟁연구 1』, 역사비평사, 1991.

나천수, 『譯註 謙山遺稿』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박맹수,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 관련 신자료 「東學推考」 解題」, 『한국근현대사연구 2』, 한국근현대사학회, 1995.

망원한국사연구실, 『1862년 농민항쟁 : 중세말기 전국 농민들의 반봉건 투쟁』, 동녘, 1988.

나카츠카 아키라(中塚 明), 박맹수 옮김, 『1894, 景福宮을 점거하라!』, 푸른역사, 2015.

조원래, 『임란의병장 김천일 연구』, 학문사, 1982.

정윤국, 『羅州牧志』, 제일문화사, 1989.

동학농민혁명 종합지식정보시스템 : <http://www.e-donghak.or.kr/index.jsp>

승정원일기 : <http://sjw.history.go.kr/main.do>

한국고전종합DB : <http://db.itkc.or.kr/>

국사편찬위원회 : <http://www.history.go.kr/>

일본 포털사이트 <https://www.goo.ne.jp/>

동학농민혁명기 나주 수성군의 조직과 활동

김 봉 곤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연구교수)

- | | |
|-----------------------|------------------|
| 1. 머리말 | 2. 사료 검토 및 시기 구분 |
| 3. 나주 수성군 조직과 전투 | 4. 호남초토영 설치와 역할 |
| 5. 일본군의 나주점령과 수성군의 위축 | |
| 6. 맺음말 | |

1. 머리말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이 유일하게 점령하지 못한 지역은 수성군과 민보군이 막강한 나주와 운봉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나주는 나주목사 민중렬과 향리, 관노, 민보군이 중심이 되어 동학농민군의 여러 차례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 호남지역 동학농민군의 진압과 회유의 중심지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일본군 정토군 본부가 설치되어 호남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종식시킨 곳이다.

이러한 나주지역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1994년 광주·전남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나주 수성군의 공방, 초토영이나 일본군 교도영 설치, 나동환의 처 등을 언급하였고,¹⁾ 1995년 이상찬이 나주목사 민중렬과 도통장 정석진 등 이교층의 역할, 향약조직 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²⁾ 이후 1996년에는 이상식, 박맹수, 홍영기에 의해 나주지

1)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동학농민혁명과 광주·나주』, 광주·전남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1994.02, 125-130쪽.

2) 이상찬, 「乙未義兵 지도부의 1894년 反東學軍 활동」, 『규장각』1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5.

방의 동학농민혁명, 최경선과 오권선, 전봉준 등의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활동, 2차봉기 때의 나주지역의 전투상황과 동학농민군 피해상황이 개략적으로 분석되었다.³⁾ 이후 배항섭은 동학농민혁명과 그 이전에 전개된 민란과의 상관관계, 1894년 4월 나주 수성시 전라감영의 역할, 「갑오군공록」 분석을 통한 향리층의 역할을 규명하였으며,⁴⁾ 동학농민군과 나주수성군과의 합평 고막포 전투의 과정과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⁵⁾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주 수성군은 어떻게 조직되고 구성되었으며, 나주 수성에 성공한 다음 호남초토영과 일본군 진출기에 어떠한 활동 양상을 보였는가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관군이나 일본군이 남긴 자료 외에도 나주 유생들이 남긴 기록들을 좀 더 상세히 검토하여 수성군의 조직과 활동 양상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연대기 지료를 중심으로 나주목사 민종렬의 관력을 검토한 다음, 양상형(梁相衡)의 『백하유고(柏下遺稿)』, 박기현(朴冀鉉)의 『강재일사(剛齋日史)』, 변만기(邊萬基)의 『봉남일기(鳳南日記)』 등을 통해 동학농민혁명기의 수성군의 조직과 활동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주수성군의 실체와 면모가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한다.

2. 사료 검토 및 시기 구분

나주지역 동학혁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사료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 가장 많은 동학농민혁명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곳은 동학농민

3) 이상식, 박맹수, 홍영기, 「나주지방의 동학농민혁명」, 『전남동학농민혁명사』, 전라남도, 1996.

4) 배항섭, 「나주지역 동학농민전쟁과 향리층의 동향」, 『동학연구』 19, 한국동학학회, 2005년 9월.

5) 배항섭, 「1894년 무안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古幕浦 전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혁명기념재단의 『동학농민혁명종합정보시스템』(<http://www.e-donghak.or.kr>)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동학농민자료를 주제와 일자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표 1〉 나주관련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료

구분	서명	내용	비고
관찬 (연대기)	조선왕조실록	목사 민종렬, 영장 이원우 관련.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목사 민종렬 관련	국사편찬위원회
	일성록	목사 민종렬, 영장 이원우 관련.	서울대규장각연구원
관찬 (진압 부대)	갑오군정실기 권10	민종렬의 전공자 보고	동학농민혁명정보시스템
	일본사관함등	좌선봉 이규태가 주고 받은 문서	동학농민혁명정보시스템
	선봉진일기	이규태가 기록한 군중일기	동학농민혁명정보시스템
	양호우선봉일기	이두황이 기록한 군중일기	동학농민혁명정보시스템
	고문서	전라도 동학도 체포자 및 획득한 집물	동학농민혁명정보시스템
	갑오군공록	나주수성군의 군공 기록	서울대 규장각
개인 기록	오하기문	민종렬과 이원우 등 수성군, 최경선 등 동학농민군.	황현(구례)
	강재일사	전라병영과 나주관련	박기현(강진)
	봉남일기	11월 12월 나주지역 동학관련 기록	변만기(장성)
	겸산유고	『금성정의록』 상, 중, 하	이병수(나주)
	난파유고3,4	초토사가 보고한 군공별단, 토평(討平) 일기, 행상(行賞)	정석진(나주)
	송사집	「나주평적비」	기우만(나주)
	백하유고	「금성평적비문」	양상형(나주)
	하촌유고 1책	「금성산의거일기」, 「하첩」, 「고유동학문」	나동륜(나주)
	난와집	민종렬에게 보낸 편지 및 서문	오계수(나주)
	동해록	나주지역 동학관련 시	김훈(함평)
	김낙봉 이력	일본군, 나주 초토영 관련	부안 동학접주
	김낙철 역사	나주 초토영 관련	부안 동학접주
일본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藏文書(1)	1895.2.26朝鮮南道東徒削滅ノ件ニ付報告	동학농민혁명정보시스템
	일본공사관기록	全羅民擾報告(1권), 東學黨 征討略記(6권)	동학농민혁명정보시스템
	신문	大阪朝日新聞, 大阪毎日新聞 등	동학농민혁명정보시스템
	南小四郎文書[미나미 고시로 문서]	東學黨征討經歷書, 羅州牧公兄文, 閔種烈書狀 외 다수	동학농민혁명정보시스템

주제로는 일반자료(정부자료, 개인자료), 지역사례(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기타지역), 진압기록(1차진압, 2차진압), 일본자료(외무성자료, 신문, 기타), 중국자료(청정부자료), 동학관련자료(경전, 교단)로 구분하고 있다. 일자별로는 1862년 3월부터 1917년 12월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동학농민혁명종합정보시스템』(<http://www.e-donghak.or.kr>)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와 문집, 고문서를 중심으로 나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면 대략 앞의 <표 1>을 얻을 수 있다.

관찬사서로는 연대기 자료인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에 나주목사 민종렬과 나주영장 이원우에 대한 관력이 기재되어 있고, 진압군측의 자료인 『갑오군정실기』 권10에 호남초토사 민종렬이 양호도 순무영에 보고한 군공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개인기록으로는 일기 등 기록류와 문집 등이 있다. 먼저 기록류로는 『오하기문(梧下記聞)』은 나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전체 진행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강재일사』는 전라병영과 나주와의 관계, 『봉남일기』는 1894년 11월과 12월의 나주와 광주, 장성 지역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둘째로는 나주지역 동학농민혁명을 전하는 많은 유생들의 문집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병수(李炳壽, 1855~1941)의 『겸산유고(謙山遺稿)』 권19·20에 수록되어 있는 『금성정의록』 상중하 3권은 가장 귀중한 자료가 된다. 나주목사 민종렬의 부임과 향약실시, 동학농민군과의 7차의 전투, 각종 보고서와 밀지, 1896년 1월 의병운동이 일어나기까지 많은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 이 밖에도 정석진, 기우만, 오계수, 양상형, 나동륜, 김훈 등의 글도 관군이나 유생의 입장에서 동학농민군을 격퇴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양상형의 「금성평적비문(錦城平賊碑文)」에는 6월에 있었던 동학농민군과의 전투, 나주영장 이원우의 활약, 순화중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알려주고 있다.

일본측 자료로는 일본외무성외교사료관 소장문서(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藏文書)(1) 일본공사관기록(1권, 6권), 일본신문, 미나미 고시로 문서(南小四郎文書)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자료에는 동학농민군과 관련된 일

본군의 동향과 활동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나미 고시로 문서는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장 미나미 고시로가 일본군을 이끌고서 나주에 머물며 우선봉 이두항군, 좌선봉 이규태군, 나주군병들을 지시하여 작전을 수행한 상황을 낱낱이 기록한 매우 중요한 문서이다. 이 자료는 박맹수 교수와 훗가이도대 이노우에 가쓰오(井上勝生) 교수와의 장장 15년에 걸친 노력 끝에 일반인에게도 공개되었다.⁶⁾

이들 자료를 검토하면 자료를 검토하면 나주지역 동학농민혁명은 수성군의 조직과 동학농민군 격퇴, 호남초토영 설치, 일본군의 나주 점령 등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모두 나주목사 민종렬의 활동과 관계가 깊다. 먼저, 나주목사 민종렬이 수성군을 결성하여 나주성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자, 이어 조정에서 민종렬을 호남초토사에 임명하여 호남지역 전체에서 동학농민군을 막아내고자 하였고, 마지막으로는 나주성에 일본군 정토군 본부를 설치하여 동학농민군을 섬멸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나주지역의 동학농민군 진압 과정에서 민종렬의 관력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될 필요가 있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민종렬의 관력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에 기재되어 있다.

먼저 『조선왕조실록』에는 민종렬이 다음과 같은 관직이 제수받았음을 알 수 있다.

- 1) 1893년 10월 18일 나주목사 제수
- 2) 1894년 8월 17일 나주목사 유임(나주수성 공로, 전라감사 김학진의 장계)
- 3) 1894년 9월 9일/1894년 9월 19일 인근지역 토벌 지시
- 4) 1894년 9월 29일 호남소모사 차하
- 5) 1894년 10월 28일 호남초토사 차하
- 6) 1895년 5월 29일 한기동(韓耆東)을 나주부관찰사(종2품)에 임용
- 7) 1895년 7월 2일 채규상(蔡奎常)을 나주부 관찰사(羅州府觀察使)에 임용

6) 이 자료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박맹수, 「南小四郎文書[미나미 고시로 문서] 해제」(동학농민혁명종합정보시스템, <http://www.e-donghak.or.kr>)를 참조할 것

민종렬은 1893년 10월 18일 나주목사에 제수된 이후 1894년에 교체 대상자에 들었으나 1894년 8월 17일 나주목사에 유임되고 있고, 동학농민군 토벌로 인하여 호남소모사와 호남초토사에 제수되었으나 1895년 5월과 7월 인사에서 나주부 관찰사에 모두 다른 인물이 임용되고 있는 것이다. 나주의 행정구역은 1895년 6월 23일(음력 윤5월 1일) 나주군을 두고 나주부를 설치하여 전남 일원을 관할하였는데, 행정구역 개편시 민종렬은 군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민종렬이 아닌 한기동과 채규상이 나주부 관찰사에 임용되고, 그대로 나주군수로 머물렀던 것이다. 1899년 편찬된 『나주군읍지』에서도 민종렬이 1893년 11월 25일 부임하여 1895년 9월 21일 담양군수로 옮겨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민종렬이 행정구역 개편시 승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일성록』이나 『승정원일기』에서도 민종렬의 나주목사 제수와 호남소모사, 호남초토사로 제수된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승정원일기』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일성록보다 훨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승정원일기』에서는 나주목사 민종렬이 1894년 8월 17일 유임되기 직전 승지를 제수받았다고 하였던 사실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민종렬의 관직은 거의 호남 지역에서 동학농민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사실과 관련하여 동학농민군이나 일본군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먼저 승지에 제수된 사실을 살펴보자.

- 1) 1894. 7. 18 나주목사 민종렬에게 승지로 낙점하고 동부승지를 제수하였다.
- 2) 1894. 8. 17 전 나주목사 민종렬을 유임시킴

조정에서 1894년 7월 18일 민종렬을 동부승지로 제수하고 서울로 오도록 하였는데, 다시 전라도 관찰사의 장계로 8월 17일 유임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민종렬이 최소한 1달 이상 교체 대상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례의 황현은 『오하기문』에서 민종렬의 관직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즉 전라감사 김학진이

동학농민군 측의 협박을 받아서 나주목사 민종렬과 영장 이원우의 파직을 요청하였다는 것이다.⁷⁾ 나주목사 민종렬과 나주영장 이원우 등에 의해 나주에서 동학도가 많이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두 사람을 파직시켜야만 도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고 전봉준이 김학진에게 강요하였고, 김학진 역시 동학농민군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자신의 생각을 굽혔다는 것이다. 또한 『오하기문』에서는 민종렬이 조정의 명에 따라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자, 아전들과 백성들이 길을 막고 떠나지 못하게 하였고 나주성이 동학농민군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길을 나설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다는 것이다. 나주목사 민종렬과 함께 교체 대상이 되었던 영장 이원우도 ‘자신들을 파직시킨 것은 조정의 뜻이 아니라 불충한 신하가 동학농민군의 사주를 받은 것이니 떠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수비를 강화했던 사실을 전하고 있다.

당시 조정에서도 나주목사를 민종렬 대신 공조참의였던 박세병(朴世秉)으로 교체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실은 승정원일기에도 기록되어 있다.

1894. 7. 19. 4차 정사에서 박세병(朴世秉)을 나주 목사(羅州牧使)로 삼았다.

1894. 9. 21. 의정부의 건의로 박세병을 충주목사로 제수하였다.

박세병은 나주목사로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못하자 박세병이 충주목사로 제수되기에 이른 것이다. 나주 출신의 유학자 양상형(梁相衡)은 「금성평적비문(錦城平賊碑文)」에서도,

이 달 나주목사가 교체되자 주민들이 실색하여 살고 싶지 않은 듯 했으나, 전라감사가 계문을 올려 유입되니 백성들이 기뻐하고 경하였다.⁸⁾

라고 하여 나주목에서 민종렬의 교체를 원하지 않았던 사실을 전하고 있다.

7) 『오하기문』 2筆, 8월조.

8) 양상형, 『백하유고』, 「錦城平賊碑文」, “是月 侯見遞 住民失色 如不欲生 道臣啓請因任 民歡喜相慶”

1895년에도 민종렬은 전술하였듯이 나주부관찰사 승진대상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9월 19일 담양군수에 임명되어 나주를 떠난다. 이러한 사실을 『승정원일기』를 통해 살펴보면,

- 1) 1895. 9. 19 민종렬을 담양군수에 임용하였다.
- 2) 1895. 11. 29 민종렬 담양군수를 의원면직하였다.

라고 하여 9월 19일 담양군수에 임용된 이후 민종렬이 두 달만에 의원면직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그가 친일개화파가 득세하는 상황에서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끝내 관직을 그만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3. 나주 수성군 조직과 전투

1894년 4월 7일 황토현전투를 승리로 이끈 동학농민군은 정읍, 흥덕, 고창, 무장, 영광을 거쳐 4월 16일 함평을 점령하였다.⁹⁾ 이어 동학농민군들은 나주성을 거쳐 장성에 진출하고자 하여 동학농민군측은 4월 18일 나주 공형(公兄)에게 글을 보내¹⁰⁾ 나주목사 민종렬의 항복을 권유하였다. 보국안민을 위하여 일어난 동학농민군에 맞서면¹¹⁾ 피의 보복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다음과 같은 항복조건을 제시하였다.

- 1) 각 고을에서 징발한 병사들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 농사일에 전념하게 하라
- 2) 간혀 있는 동학교도들을 바로 풀어주면, 너희가 관할하는 지역에 들어가지

9) 이상식·박맹수·홍영기, 『전남동학농민혁명사』, 전라남도, 1996, 174쪽.

10) 『오하기문』首筆, 4월 18일조, “賊黨通文于羅州公兄

11) 동학농민군은 우리들이 금일에 일으킨 의거는 위로 나라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케 함이다.(『오하기문』首筆, 4월 18일조, “其略曰吾儕今日之義 上報國家下安黎民”)라고 그 목적을 명시하였다)

않을 것이다.¹²⁾

각 고을에서 징발한 군사를 집에 보내고, 간혀 있는 동학교도를 풀어주면 싸우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나주성에는 이미 각 고을에서 징발된 병사들이 전투준비에 들어갔으며, 4월 18일 이전에 동학교도 즉 동학농민군을 체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각 고을에서 징발된 군사는 전라병영에서 나주목의 방어를 위해 파견한 군사들을 말한다. 『강재일사』 1894년 4월 14일 기사에 의하면 전라병영에서 강진 및 영암, 해남, 장흥, 보성에서 병사들을 모아 200명을 나주로 보냈다고 하였다.¹³⁾

『오하기문』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즉 나주목사 민종렬은 본래 복인 출신이지만, 민종렬의 형제와 아들, 조카들이 모두 민비에 의해 출세하여 조정에서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었고, 나주는 전라우도의 포구와 연결되는 군사요충지였기 때문에 나주성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들을 파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¹⁴⁾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나주를 공략하지 않고 장성으로 비켜 올라가서 4월 23일 황룡강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이어 정읍을 거쳐 전주 쪽으로 진격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전라병사가 이문영에서 서병무(徐丙懋)로 교체되면서, 전라병영 군사들도 강진으로 되돌아갔다.¹⁵⁾ 서병무는 4월 12일 수원중군에서 전라병사로 옮겨 제수되었고,¹⁶⁾ 4월 30일 전라병영 포청(捕廳)에서 서병무와 이문영의 교대가 이루어졌는데,¹⁷⁾ 나주진영에 파견된 병사들 역시 서병무의 뜻에 따라 모두 되돌아간 것이다.¹⁸⁾

12) 『오하기문』首筆, 4월 18일조, “各邑募軍 一併放送歸農 在囚道人 卽爲解散”

13) 『국역 강재일사』, 132쪽.: 당시 전라병영에서는 나주에 200 명을 보낸 것 외에도 50명의 포수를 병영에 머물게 하고, 4개 면의 민병 수백명을 징발하여 교대로 성을 지키도록 하였다.

14) 『오하기문』2필, 1894년 5월; 『오하기문』1필, 1894년 4월 17일자에서도 4월 12일 전라병영에서 나주에 200명을 보냈다고 하였다.

15) 『오하기문』 2필, 5월조.

16) 『승정원일기』 1894년 4월 12일.

17) 『강재일사』 4월 30일.

이에 민종렬은 앞으로 전개될 동학농민군의 공격에 맞서 나주성의 수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⁹⁾ 『금성정의록』 갑에는 음력 4월 25일(양력 5월 29일)에 나주목사 민종렬이 성의 문루(門樓)인 정수루(正綏樓)에서 아전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수성군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고 한다. 명교(名敎)에 죄를 짓고 국가에 반역한 도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관의 고을이요 호남 50주의 보장이 되는 나주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였다.²⁰⁾ 이에 대중들은 목사 민종렬의 뜻에 감복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성을 지키겠다고 결의하였으며, 민종렬은 나주영장 이원우에게 그 일을 맡겨 수성군을 결성했다는 것이다.²¹⁾

마침내 이원우에게 청하여 계획을 세우고 전투하고 수비하는 일을 이원우에게 맡겼다. 민종렬이 그 가운데에서 조정 역할을 하니 열흘이 못 되어 물자와 기계가 대략 완비되었다. 원우 역시 용맹 과감하니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였다.²²⁾

수성군의 조직과 전투, 수비를 나주영장 이원우에게 맡기니, 10일이 못되어 수성군의 조직과 무기가 갖추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나주수성군이 빠르게 결성된 것은 첫째, 나주가 전라 5영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나주에서 수성군의 결성이 빨리 이루어지게 된 것은 나주가 전라 5영 중 전라우영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전라도의 육군은 전임병사 1인과 감사가 점입하는 점병사 1인이 있었고, 예하에 순천의 전영, 운봉의 좌영, 나주의 우영, 여산의 후영 등 전형적인 5영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그 중 순천전영과 전주중영, 나주우영은 전임영장이 임명되고 여산후영과 운봉좌영은 수령이 영장의 임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이들 진영은 유사시

18) 『오하기문』2필, 5월조.

19) 『오하기문』2필, 5월조.

20) 『강제일사』, 4월 30일.

21) 『금성정의록』 갑편, 1894년 4월 25일.

22) 『오하기문』2필, 5월조, “遂請李源佑 定計戰守 皆屬源佑 種烈居中調度 不十日 資儲器械略備 源佑亦勇果爲衆所服”

에 병력을 동원하여 영장을 중심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독자적인 단위였는데, 토포사를 겸하면서 지역의 치안업무도 함께 담당하였다.²³⁾ 강진병영의 경우에도 친병, 이노작대(吏奴作隊), 군관,²⁴⁾ 우후 등의 역종이 있었고, 19세기까지도 이 전통이 유지되고 있었다.²⁵⁾

나주성 남문 밖 3리에 토포청과 함께 위치해 있었던 전라우영의 경우도²⁶⁾, 군관, 아전, 일반병사들이 19세기까지 존재하였다. 전라우영은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따르면 영장겸 토포사(營將兼討捕使, 종2품) 1명, 대변군관(待變軍官) 50명, 토포군관(討捕軍官) 80명, 천총(千總) 1명, 파총(把總) 2명, 초관(哨官) 15명, 기패관(旗牌官) 29명, 지구관(知穀官) 1명, 기고관(旗鼓官) 1명, 아전(衙前) 6명, 지인(知印) 15명, 군병(軍兵, 군퇴) 60명, 취수(吹手) 35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영장 휘하에 군관 179명, 아전과 지인이 21명, 군병과 취수 95명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주목읍지』(1815년 간행)에 따르면 우영의 소속읍은 나주(羅州) 광주(光州) 능주(綾州) 영암(靈岩) 영광(靈光) 남평(南平) 함평(咸平) 무안(務安), 화순(和順), 무장(茂長) 등 10개 읍이며, 속오군은 7,854명이다. 별장(別將) 2인, 천총(千總) 3인, 파총(把總) 9인, 초관(哨官) 56인, 지교관(知敎官) 1인, 기고관(旗鼓官) 84인, 화포교사(火砲敎師) 2인, 별대(別隊) 568명, 보군(步軍) 6,909명, 기군(旗軍) 93명, 군뇌(軍牢) 60명, 취수(吹手) 35명, 별포수(別砲手) 23명이다.²⁷⁾ 이에 전라우영은 별장-천총-파총-초관의 군사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지교관(知敎官), 화포교사(火砲敎師)

23) 송양섭, 「조선후기 강진병영의 지휘체제와 군수조달」, 『역사학연구』52, 호남사학회, 2013, 35-36쪽.

24) 1894년 4월 20일 강진병영에서 실시한 군사훈련의 경우 군관이 1백 수 명이었고, 포수는 324명이었다. (『국역 강재일사』, 133쪽)

25) 송양섭, 위의 글, 56쪽.

26) 『1872년 지방도』(전라도 나주)

27) 『나주목읍지』(1815년 간행), 우영진(右營鎭) 10개 읍이 소속되며 편성된 속오군은 7,854명이다. 별장(別將) 2인, 천총(千總) 3인, 파총(把總) 9인, 초관(哨官) 56인, 지교관(知敎官) 1인, 기고관(旗鼓官) 84인, 화포교사(火砲敎師) 2인, 별대(別隊) 568명, 보군(步軍) 6,909명, 기군(旗軍) 93명, 군뇌(軍牢) 60명, 취수(吹手) 35명, 별포수(別砲手) 23명이다 /여지도서는 고창과 흥덕이 추가되어 있다. 12읍에 해당된다.

등이 배치되어 군사훈련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나주 수성군은 전라우영에 속한 군사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민중렬은 나주영장의 도움을 받아 수성군을 편성하면서 전라우영에 속한 군사 외에 새롭게 군사들이 편입되었다. 양상형(梁相衡, 1833~1907)이 기록한 「금성평적비문(錦城平賊碑文)」에 따르면,

“성에 사는 백성 및 아전과 군교, 관노와 사령을 뽑아 대오를 편성하니 그 수가 천 명에 가까워서 24초로 편성하고 장령(將領)으로 하여금 거느리게 하였다.”²⁸⁾

라고 하여 성에 사는 백성과 나주목 관아의 아전들과 군교, 사령을 뽑아 수성군을 편성하게 되니, 대략 그 규모가 1천명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나주지역은 전라병영처럼 1710년(숙종 30)부터 군현의 향리와 관노로 구성된 수령의 수하친병(手下親兵)인 이노작대군이 존재하고 있었다.²⁹⁾ 이노작대는 전란이 일어났을 경우 수령이 직접 지휘하며 군현을 방위할 수 있는 긴요한 부대였다. 이노작대에는 향리가 장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향리층의 관심이 특별하여,³⁰⁾ 19세기까지도 존재하고 있었고, 1894년 나주목사 민중렬에 의해 아전과 군교, 관노와 사령으로 구성된 이노작대가 다시 편성되었던 것이다.

당시 이노작대의 편성은 1889년부터 1891년까지 민란에 이어 곧바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나주성의 긴박한 사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나주지역에서는 1889년 나주영장 정동현(鄭東顯)이 가혹하게 공납을 징수한 이후 후임 영장 남석린(南錫麟)이 해결하지 못하고, 하리(下吏) 고제운(高濟雲)이 포획한 쌀이 5,6만 석에 달하게 되자 3년간이나 민란이 계속되었다. 이 민란으로 농민 주모자가 죽음을 당하였으며, 후일 수성군의 주축

28) 『栢下遺稿』卷2, 「錦城平賊碑文」, “選城舍民及吏校奴令 編於部位 數幾滿千 爲二十四哨 使將領統”

29) 나선아, 「19세기 초 나주 향리층의 제조직과 읍권의 동향」, 『한국사연구』130, 한국사연구회, 2005, 203-205쪽.

30) 같은 글, 204-205쪽.

을 이루었던 정태완(鄭泰完), 김창균(金蒼均), 최윤룡(崔允龍) 역시奸(奸)향(奸)으로 지목되어 처벌받았다.³¹⁾ 동학농민군과 나주 향리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1894년에도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오하기문』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민종렬이 ‘아전과 군교를 불러 동학농민군이 쉽게 평정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자신은 직무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니 모두 떠나라’고 하였으며, 아전과 군교들이 자신들도 고을을 지킬 직무가 있고 지금 사방에 동학농민군이 가득차 있으니 어디로 피하겠는가라고 하여,³²⁾ 아전과 군교들이 어디로 피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수성군 결성에 적극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당시 나주목사 민종렬은 1894년 1월부터 향약을 실시하여 나주읍과 각 면의 유생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³³⁾ 경저리 전성창(全聖暢)이 침탈한 공삼면 일대의 토지 13,000두락을 농민들에게 돌려주어 백성들에게서도 상당한 신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생들이나 농민들에게도 지지를 받고 있었던 목사 민종렬에 의탁하여 나주수성을 도모해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때 조직된 나주 수성군의 지휘부는 『금성정의록』 「토평비명 병서(討平碑銘 并序)」에 따르면 총 68명이며, 모두 3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째는 지휘부이다. 여기에는 도통장(都統將) 정태완(鄭台完), 부통장(副統將) 김재환(金在煥), 도위장(都衛將) 손상문(孫商文), 중군(中軍) 김성진(金聲振), 통찰(統察) 김창균(金蒼均) 등 5명이다. 이 중 정태완은 나주호장, 손상문은 나주이방, 김창균은 나주퇴교로서 후일 군공록에 오른다.

둘째는 4대문을 수비하는 별장으로서 모두 5명이다. 별장(別將) 전학권(錢鶴權)은 포군을 거느리고 파수를 담당하였고, 별장(別將) 박근옥(朴根

31) 배향섭, 「나주지역 동학농민전쟁과 향리층의 동향」, 『동학연구』19, 2002, 66-68쪽.

32) 『오하기문』2필, 5월조.

33) 『금성정의록』 갑편, “나주목사 민종렬은 진사(進士) 나동륜(羅東綸)을 도약장(都約長)으로 삼고, 사인(士人) 임병간(林柄幹)과 기주현(奇周鉉)을 부약장(副約長)으로 삼고, 이병수(李炳壽)를 도약소(都約所)의 직월(直月)로 삼고 그 나머지 각 면의 약정과 직월은 모두 문학을 근심하게 갖춘 선비를 가려서 임무를 맡겼다. 다음 해인 갑오(甲午)년 정월부터 시작하여 명령이 시행된 지 2~3개월 만에 관리와 백성이 서로 기뻐하니 옛날로 돌아갈 희망이 조금 생겨나게 되었다.”

郁)은 서문, 별장 문락삼(文洛三)은 북문, 별장(別將) 박윤칠(朴允七)은 동문, 별장 문관후(文寬厚)와 별장 박경옥(朴京郁)은 남문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 중 전학권과 문관후가 군공록에 올랐다.

셋째는 별장·별초(別哨)·참모(參謀)·서기(書記)·정탐(偵探)·도훈(都訓)·도천총(導千總)·파총(把總) 등 등 57명의 분야별 담당자이다. 그 중 별초군관(別抄軍官) 최윤룡(崔允龍), 군물(軍物) 담당 구유술(具有述), 첩부(牒簿) 담당 장길한(張吉翰), 이돈기(李敦祺), 서기(書記) 양인환(梁仁煥)과 최문섭(崔文燮), 병방색(兵房色) 김근환(金根煥), 도훈도(都訓導) 기학연(奇學衍) 등 8명은 나주리(羅州吏)로서 군공록에 올랐고, 최성순(崔成純)은 천총(千總)으로서 군공록에 올랐다.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후 포상을 요청한 군공록에 오른 인물들이 모두 25명인데, 그 중 수성군 편성 당시 군공록에 오른 인물은 총 14명, 그 중에서도 11명이 향리출신이다. 군공록 전체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이 중에서 호장과 좌수, 리(吏)는 나주목의 향직이고, 별장, 천총, 대장 등은 전라우영 소속, 유학은 각 면에서 일어난 민병 즉 민보군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다. 이노작대군의 향리총과 전라우영, 그리고 민보군의 책임자를 망라하여 나주수성이 이루어졌으며, 수성군 편성 당시에는 나주 향리들과 전라우영 군인들이 핵심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성군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 위의 수성군의 편제에서 별초군관이 18명이었고, 이들은 각각 소속부대가 있었다. 속오법에 의하면 1초는 지휘관을 합하면 103명이다.³⁴⁾ 따라서 18초의 병력은 1,800여 명 정도 된다. 그러나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산술적인 계산으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전술한대로 양상형(梁相衡, 1833~1907)은 「금성

34) 조선후기 지방군은 속오군 체제인 대(隊)·기(旗)·초·사(司)·영의 방식으로 편성되었다. 즉 최말단 조직인 대는 10명으로 구성되며, 3대가 1기, 3기가 1초, 5초가 1사, 5사가 1영으로 편제되며, 대에는 대총(隊總), 기에는 기총(旗總), 초에는 초관(哨官), 사에는 파총(把總), 영에는 영장(營將) 등의 지휘관을 두었다를 두었다. 따라서 1초는 3기 9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초의 병력은 병사 90명+지휘관 13명(대총 9명, 기총 3명, 초관1명)=103명이 된다. 이렇게 헤아려보면 25초의 병력은 2,575명이 된다.

평적비문(錦城平賊碑文)」에서 성에 사는 백성, 나주목 관아의 아전들과 군교, 사령을 뽑아 1천명으로 구성된 수성군을 24초로 편성하였다고 하였던 바, 이 숫자가 보다 사실에 가깝다고 추정된다.

순서	신분	이름	공적	수성군 직위
1	호장	鄭台完	八朔戰守 屢出奇功	도통장(都統將)
2	좌수	朴祥壽	一次出戰 多有效勞	
3	별장	錢鶴權	五次出戰 多有效勞	별장(別將)
4	리(吏)	李敦祺	前後戰守 多有效勞	첩부(牒簿) 담당
5	퇴교(退校)	金蒼均	戰守之際 多有勤勞	통찰(統察)
6	이방	孫商文	前後戰守 多有效勞	도위장(都衛將)
7	유학	金景煥	出義領衆 禦寇有功	
8	유학	廉有鎭	領衆州西 出戰有勞	
9	유학	洪佑鉉	出義領衆 禦寇州北	
10	유학	柳紀淵	募民五百 捉魁數十	
11	리(吏)	金根煥	二次出戰 頗有效勞	병방색(兵房色)
12	대장(隊長)	金基玉	二次出戰 頗有效勞	
13	리(吏)	張吉翰	二次從軍 頗有戰勞	첩부(牒簿) 담당
14	리(吏)	崔允龍	二次從軍 頗有戰勞	
15	리(吏)	崔文燮	三次從軍 頗有戰勞	서기(書記)
16	리(吏)	崔一鳳	三次從軍 頗有效勞	
17	천총(千總)	崔聖純	戰守之際 多有效勞	별군관(別軍官)
18	집사	高德鳳	二次出戰 勞苦多有	도집사(都執事)
19	집사	孫致洪	二次出戰 勞苦多有	
20	군관	錢公瑞	三次從軍 多有戰勞	별군관(別軍官)
21	리(吏)	梁仁煥	三次從軍 多有戰勞	서기(書記)
22	리(吏)	具有述	三次從軍 多有戰勞	군물(軍物) 담당
23	군교	文寬厚	二次出戰 勞苦多有	별장
24	리(吏)	奇鶴衍	二次從軍 效勞可尙	도훈도(都訓導)
25	부통장	金在煥	八朔守城 屢挫敵鋒	부통장(副統長)

나주 수성군이 24초로 구성된 것은 『금성정의록』을 통해서도 대략 짐작이 간다. 『금성정의록』에 따르면 7월 5일 서성문에 쳐들어온 동학농민군을 격퇴한 다음날 민종렬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도통장, 4문의 수문장, 16초(哨)의 군병, 그 나머지 별장(別將)과 별초(別哨)를 모두 불렀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무렵에는 도통장, 수문장, 16초의 군병을 비롯해서 별장과 별초가 갖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양상형의 「錦城平賊碑文」에 나오는 24초는 『금성정의록』에서 제시한 16초와 별초 8초가 합해진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성군의 핵심 전력은 포군에 있었다. 『금성정의록』에 따르면 “힘이 좋고 튼튼한 자는 포군(砲軍)으로 편성하였다”³⁵⁾고 하였다. 포군의 숫자는 대체로 500명에서 600명 정도였다. 10월 20일 나주 수성군이 성 밖 석현리에 출전할 때에 모두 600명이었다.

“김창균(金蒼均)을 선봉으로 삼고, 김성진(金聲振)을 중군(中軍)으로 삼고, 정석진을 후군(後軍)으로 삼아 각각 포군(砲軍) 200명을 거느리고 대오(隊伍)를 엄정하게 하여 주에서 5리 떨어진 석현리(石峴里)에 출진(出陣)하였다.”³⁶⁾

선봉과 중군, 후군 각각 200명씩 포군이 600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양상형은 수성군을 편성할 때, 무기고를 열고 병기를 점검하였는데, 대포가 500, 창검이 300이라고 하였다.³⁷⁾ 따라서 무기를 갖춘 포군의 규모가 500명에서 600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수성군의 포군은 전투 때마다 큰 역할을 하였다. 『금성정의록』을 토대로 7월 이후 전개된 동학농민군과의 전투를 <표>로 작성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³⁸⁾

35) 『금성정의록』 갑편, “別抄膂力勇健者爲砲軍 村閭閑丁亦皆募入分作十六哨”

36) 『금성정의록』 갑편,

37) 「錦城平賊碑文」, “開軍庫 點兵器 大砲五百 槍劍三百”

38) 배항섭, 앞의 논문, 75-76쪽.

일시	내용	비고
7월 5일	최경선과 오권선이 합세하여 서문공격 → 농민군 100여 명 체포	대완포와 장대포 사용
10월 21일	광주 침산에서 손화중 등 1만명 나주공격 → 정태완이 도통장으로 군민을 이끌고 공격	포군 600명 대완포와 천보총 사용
11월 11일	나주 북쪽 40리 북창에서 농민군 활동 → 용진산에서 물리침	포군 300명 대완포와 천보총
11월 17일	무안 농민군이 고막포에 주둔하자 나주를 넘어가 의병과 함께 공격하여 물리침	대포군, 포군 300명 대완포, 천보총
11월 24일	금안면 남산촌에서 농민군 350명 포살	포군 500명,
12월 4일	농민군의 남평 습격으로 남평출병	
12월 8일	장흥, 영암, 무안으로 출병하여 농민군과 대치	천보대 3백명, 창군 2백명

먼저 동학농민군이 7월 5일 서문을 공격했을 때 대완포와 장대포를 쏘아 화염과 포성으로 위력을 보이고, 각 초소에서 함성을 질러 적을 격퇴하였다. 또한 10월 경에는 부통장(副統將) 김재환(金在煥)이 좌우로 돌면서 가고자 하는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포차(砲車)를 개발함으로써 대완포(大碗砲)와 장대포(將臺砲)의 기동성을 크게 높였다. 그 결과 10월 20일에는 포군(砲軍) 600명을 거느리고 출전하였고, 10월 21일에는 광주(光州) 침산(砦山)에서 대완포와 천보총을 앞세워 동학농민군을 격퇴하였다.

11월 9일에는 포군(砲軍) 300명을 거느리고 동창(東倉)으로 달려가자 동학농민군이 놀라서 달아났다. 11월 13일 용진산(簞珍山) 전투에서는 동학농민군이 숫자도 훨씬 많고 산 위에 있어서 지형상 유리하였으나, 중봉에서 대완포와 천보총을 연달아 쏘아 기선을 제압하였고 동학농민군의 주둔한 곳의 좌, 우측 산에 병력을 배치하고 동학농민군이 주둔한 산 밑에서 민병들이 불을 지르자 결국 동학농민군이 패퇴하였던 것이다.

11월 17일부터 전개된 함평 고막포 전투에서도 포군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17일 포군 300명을 이끌고 출동하였는데, 다음날 아침에 포군(砲軍) 300명과 대포군(大砲軍)이 늘어서 대완포를 쏘았다. 다음날에도 도

통장과 부통장이 앞장서서 독려하고 앞에서 대완포를 쏘고 천보총으로 연속 쏘아대면서, 중군의 포수들이 왼쪽에 기습사격을 가하자 동학농민군이 결국 패배한 것이다. 11월 21일에도 포군 300명을 이끌고 진격하니 동학농민군이 흩어졌다.

11월 24일의 금안면 남산촌 전투 역시 포군의 승리였다. 도위장(都衛將) 손상문이 포군과 천보대를 이끌고 앞에 나아가 대적하고, 초관(哨官) 박성로(朴成老)가 포군 1백명을 이끌고 산길을 따라 그 왼쪽을 막아서 끊고, 별장(別將) 전학권(錢鶴權)이 포군 1백명을 이끌고 그 오른쪽을 끊고 공격해 들어가니, 동학농민군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양상형의 「금성평적비문(錦城平賊碑文)」에서는 당시 출동한 포군의 규모가 모두 500명에 달하며, 민병 700명과 함께 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였다.³⁹⁾

나주 수성군의 조직과 활동에 있어서 전라우영의 역할이 또한 컸다. 전라우영은 전술하였듯이 나주 수성군 편성에 직접 관여하였고, 전투시에도 함께 참여하였다. 『오하기문』에 따르면 최경선이 이끄는 1만명에 달하는 동학농민군이 나주성을 포위하자, 나주의 아전과 백성들이 방어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하였으나, 영장인 이원우가 순찰도중 금성관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무용을 보여주어 사람들을 굴복시켰고, 매일 기습조를 짜서 동학농민군을 수백명씩 죽였다. 뿐만 아니라 영장 이원우는 거짓 항복을 하고 삼경에 동문을 열어놓는다고 하여, 동학농민군을 유인한 다음 매복한 수성군이 대포를 발사하여 죽은 자가 거의 1,000명에 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⁴⁰⁾

양상형의 「금성평적비문」에는 『금성정의록』에서 나타나지 않은 나주영장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 즉 1894년 4월에 무안의 동학농민군 500명이 나주 서쪽 거평에 둔취하자 목사 민종렬과 나주 영장이 군사를 이끌고 잡으러 가서 여춘(汝春) 등 30명을 죽였다.⁴¹⁾ 5월에는 동학농민군이

39) 「錦城平賊碑文」, “二十四日 侯使台完在煥等發五百砲軍 分作三路 奇兵先向北門外 南山村權善所屯處 與民兵七百 並進襲擊 賊不暇按鋒 應丸輒斃 積尸相枕 二吳棄砲馬”

40) 『오하기문』2필, 6월조.

41) 「錦城平賊碑文」, “四月務安匪類 五百餘名 聚寇于州西居平 侯與營將 率軍追捕 得汝春等三十名殺之”

전주성에 입성하자 영장 이원우가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여 순창에 이르렀으나 초토영에서 진격을 중지하라고 해서 돌아왔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⁴²⁾ 이는 전라우영의 군사들이 동학농민군의 공격에 맞서 호남지역 전체를 방어하기 위해 출동한 것으로서, 후일 나주가 전라도 전체를 관할하는 호남초토영이 설치된 것과 관계가 깊다고 할 것이다.

전라우영의 역할은 이것 뿐만이 아니었다. 7월 서문 방어시에도 영장 이원우는 목사 민종렬과 함께 군대를 지휘하였는데, 동학농민군 중 포환에 맞아 죽은 자가 100여 명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⁴³⁾ 11월 북창에서 오권선(吳權善)과 오석규(吳碩圭)가 거느리는 동학농민군을 무찌를 때에도 나주영장이 진졸(鎭卒)을 거느리고 직접 전투를 지휘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⁴⁴⁾ 나주 수성군에 있어서 전라 우영의 역할이 극히 중요했던 것이다.

4. 호남초토영 설치와 역할

조정에서는 나주목사 민종렬을 9월 29일 여산 부사(礪山府使) 유제관(柳濟寬)과 함께 호남 소모사(湖南召募使)로 임명하였다.⁴⁵⁾

“(의정부에서 또 말하기를) 호서와 호남의 비적들을 지금 순무영(巡撫營)에서 군사를 조발하여 토벌하고 있는데, 멀고 가까운 곳의 선비와 백성들 중에 소문을 듣고 의병을 일으킨 사람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나주 목사(羅州牧使) 민종렬(閔種烈)과 여산 부사(礪山府使) 유제관(柳濟寬)을 호남 소모사(湖南召募使)로 차하(差下)하고, 홍주 목사(洪州牧使) 조재관(趙載觀)과 진잠 현감(鎭岑縣監) 이세경(李世卿)을 호서 소모사(湖西召募使)로 차하하여 의병을 모아

42) 같은 글, “營將率軍赴義 至淳昌 因招討營 停進之飭而還”

43) 같은 글, “砲勦擊 中丸死者百餘 ”

44) 같은 글, “權善吳碩圭 盤據州北 北民魚肉 侯使鄭台完金在煥等 率砲軍出陣于北倉 營將率鎭卒督戰”

45)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9월 29일

하루 속히 소탕하게 하며, 영남(嶺南)에는 창원 부사(昌原府使) 이종서(李鍾緒)와 전 승지(承旨) 정의묵(鄭宜默)을 역시 소모사로 차하하여 일체로 방비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각 지역에서 일어난 민포를 조직하고 지휘하기 위함이었다. 11월 11일 적량산 용진산 전투에서는 다음과 같은 6개 면의 민포가 동원되었다.⁴⁶⁾

관동면 의거영수(官洞面義學領首) 김경환(金景煥)
평리면 의거영수(平里面義學領首) 김대규(金大奎)
여황면 의거영수(餘皇面義學領首) 임노원(林魯源), 최신환(崔信煥)
오산면 의거영수(烏山面義學領首) 양상선(梁相善)
삼가면 의거영수(三加面義學領首) 유동근(柳東根)
적량면 의거영수(赤良面義學領首) 염효진(廉孝鎭)

이후 11월 17일 호장촌 전투에서는 11개 면의 민포, 11월 24일 금안면 남산촌 전투에서는 3개 면의 민포가 가담하였다.

나주목사 민종렬은 호남소모사 뿐만 아니라, 10월 28일 호남 전체의 방어와 질서를 책임지는 호남초토사를 제수받았다.

"지난번에 나주 목사(羅州牧使) 민종렬(閔種烈)에게 해당 진영장(鎭營將)과 협동하여 관하 각 고을에서 비적을 소탕하고 백성을 위로하는 방도를 형편에 따라 처리하도록 이미 계품하여 행회하였습니다. 호남에서 비적들의 소요가 갈수록 더욱 성해지는데도 해목(該牧)에서는 시종일관 성(城)을 굳게 지키면서 우뚝하게 지탱하고 있다 하니, 듣기에 매우 가상합니다. 홍주 목사(洪州牧使)의 전례대로 나주 목사 민종렬을 호남 초토사(湖南招討使)로 차하하여 우도(右道) 연안의 각 고을을 지휘해서 비적을 소탕하는 데 전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택하였다.⁴⁷⁾

46) 『갑오군정실기』 권10, 「湖南招討使羅州牧使 閔種烈所報」

47)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10월 28일 신미 1번째 기사

호남 초토사를 제수받은 민중렬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첫째, 나주성 외각으로 전투를 전개해 나갔다. 조정에서 이미 해당 진영장(鎭營將)과 협동하여 관하 각 고을에서 동학농민군을 소탕하고 백성을 위무하는 방도를 형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라고 지시함으로써,⁴⁸⁾ 나주수성군의 활동이 나주성을 수비하는 단계에서 나주성 외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먼저 주력군인 포군의 기동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포차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어 어느정도 군비가 갖추어지자 10월 20일 나주목사 민중렬은 ‘그간 추수를 거두지 않아서 몇 개월 동안 출병하지 않았지만, 이제 농사일을 마쳤고 경보(警報)가 급하니 동학농민군을 토벌하여 백성을 구할 때이다.’라고 하여 전투를 성밖으로 확산시켰다. 민중렬은 병사들에게 대적할 때는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단속하고서 나주목에서 5리 떨어진 석현리(石峴里)에 포군 600명이 출진(出陣)하였다.

나주 수성군은 나주뿐만 아니라 광주에까지 진출하였다. 광주(光州)의 침산(砦山)에 동학농민군이 주둔해있다는 소식을 듣고 출동하여 대완포(大碗砲)와 천보총(千步銃)으로 동학농민군을 격퇴하였고, 오늘날 광산구의 서봉산(西峯山)을 지나 작천참(鵲川站)에 이르렀던 것이다.

둘째, 나주지역에 다시 향약을 실시하였다. 황현의 <오하기문>에 따르면 나주목사 민중렬에게 호남초토사를 제수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나주목사 민중렬을 호남 초토사로 임명했다. 이 무렵 민포(民砲)라는 이름의 민간 부대가 조직되었는데, 이 조직을 통솔하는 사람을 가리켜 모두 소모관, 참모관이라고 했다. 이들은 도적을 풀어주고 뇌물을 받는가 하면, 적당한 때를 노려 원한을 갚기도 했다. 그 폐단이 심했지만, 이미 일과 권한이 나누어

48)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10월 28일 신미 1번째 기사 / 의정부에서 영남의 기근 구제 재원의 조달, 호남 수영의 재원 등을 아뢰다

버렸기 때문에 서로 통일할 수 밖에 없었다. 이도재(李道宰)가 이런 사정을 조정에 보고하여 마침내 초토사를 조정에서 임명하여 민포를 관할하게 한 것이다.⁴⁹⁾

초토사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것 보다는 민포들이 들고 일어나 뇌물을 받거나 원한을 갚는 수단들로 악용이 되었기 때문에 전라도관찰사 이도재의 건의로 초토사를 두어 민포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는 향약조직을 통하여 민포들의 사사로운 원한을 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는데, 『금성정의록』에서도 “왕사(王師)가 남하한 날에 옥석구분(玉石俱焚)의 탄식이 있을까 염려하여 귀화한 자는 스스로 새롭게 하게 했는데 또한 험종망치(脅從罔治)의 뜻이었다”라고 하여 경군이 남하할 때 우두머리는 처형하되, 가벼이 죄를 진 자는 교화시켜 살리기 위함이었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민종렬은 10월 26일 군민들을 동원하여 향약을 다시 조직하였다.⁵⁰⁾ 향교와 양사재에 첩(帖)을 내려 향약을 보수하도록 하였다. 먼저 각 면 약장(約長)에게 각 리(里)의 민호(民戶)를 파악하여 향약을 조직하여 성책하게 한 다음, 향교에 모아 등본(謄本)을 한 부씩 만들어서 열람하는 데에 대비하도록 하고, 향약 규약에 따라 향촌 질서를 재편성하게 한 것이다. 나주지역에서는 도약장(都約長) 진사(進士) 나동륜(羅東綸), 사인(士人) 기동관(奇東觀)·나경집(羅景集)·이병수(李炳壽) 등이 그 임무를 맡았다.

이후 민종렬은 11월 24일 남산촌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 도내 53주에 관문(關文)을 보내 남은 적당 가운데 아직 귀화하지 않은 자를 다 조사하고 이후로는 적도가 감히 다시는 주성(州城)을 범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셋째, 호남 전역에 토포조직을 만들었다. 호남 초토사로서 민종렬은

49) 『梧下記聞』 甲午九月, “以羅州牧使閔種烈爲湖南都招討使 時民砲之起其統之者 皆稱召募官 參謀官 或縱賊納賂 或乘時報怨 弊擾滋多 事權既分 莫相統一 故李道宰聞于朝 有是命以管轄之”

50) 『금성정의록』 갑편 1894년 10월 26일

나주에 초토영을 설치하고 4개읍을 1통으로 삼아서 일이 생기면 서로 통지하고 힘을 합치도록 하고, 막아내기 힘든 경우는 순영과 초토영에 보고하도록 하였다.⁵¹⁾ 이는 4개 읍을 한 통으로 묶어서 동학농민군의 재기에 대비하고 동학농민군을 뿌리 뽑으려고 한 것이었다.⁵²⁾ 4통 조직은 전라도 전체에 걸쳐 조직되었다. 그 구성은 아래와 같다.⁵³⁾

여산 익산 고산 진산 / 남원 운봉 구례 장수 / 무주 금산 진안 용담 /
장성 무장 고창 영광 / 금구 태인 흥덕 정읍 / 순창 임실 곡성 옥과 /
광주 담양 동북 창평 / 나주 남평 무안 함평 / 순천 낙안 홍양 광양 /
능주 보성 장흥 화순 / 고부 부안 김제 만경 / 임피 옥구 함열 용안 /
영암 강진 해남 진도

전주는 감영이 있는 고을로서 조직되지 않았고, 총 52개 읍을 13통으로 묶었으며, 각각의 통에서 책임지어야 할 고을을 맨 먼저 수록하여 각 통별로 토포조직을 움직이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각각의 4통 조직에서 시행할 일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一. 각각의 고을에서 수성군(守城軍)을 잘 단련시켜 수비하는 것을 잘 강론하고 결정하여 급할 때마다 서로 일에 알맞게 대처하도록 할 것.
- 一. 수성군이 마음대로 서로의 경계를 넘거나, 마음대로 총을 쏘아 사람을 죽이거나, 마음대로 민병(民兵)에 가담하거나, 백성들을 마음대로 침탈하거나, 사적인 혐오를 마음대로 행하거나, 마음대로 의거(義擧)를 빙자하는 일을 엄금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되, 만일 규칙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초토영에서 별도로 엄탐하여 단호하게 군율로 시행할 것.
- 一. 적을 치는 방략은 미리 기틀을 마련하여 때가 되면 서로 연락하여 실효를

51) 『全羅道各邑每四邑作統規模關辭條約別錄成冊』(奎 17105)

52) 이상찬, 앞의 논문, 147쪽.

53) 이상찬, 앞의 논문, 148쪽.

거두도록 할 것.⁵⁴⁾

수성군의 훈련과 역할, 의무, 상호간의 연결체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두 번째 조항의 경우 수성군이나 민포, 백성들이 동학농민군에 대한 사사로운 원한을 품거나 재산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실제 민종렬은 동학농민군을 처벌하는데 관대한 편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때 나주목사(羅州牧使) 민종렬(閔種烈)이 초토사로 굳게 본성(本城)을 지켰는데 적을 막아낸 방법과 적을 토벌한 꾀는 일찍이 갖추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매일 죽인 적이 적어서 20 명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적에게 욕을 당한 것이 자못 여러 번이었다. 이때 손화중·최경선(崔景先, 先은 善의 오기)·홍낙관(洪洛觀, 觀은 寬의 오기)·오중문(吳仲文, 仲文은 勸善의 자) 등이 금성(錦城)을 도륙하고 각 포(包)의 흠어진 무리들을 수습하여 장성의 황룡(黃龍), 나주의 북창(北窓) 등지에 모여 적의 기세가 크게 떨쳐졌다. 그 사이 민생은 도탄에 빠져 아녀자들은 울부짖고 통곡을 하니 차마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⁵⁵⁾

동학농민군에게 관대하여 동학농민군들이 크게 기세를 떨치게 되었고, 자주 욕을 당하였다는 기사이지만, 민종렬의 향약실시가 교화를 통한 향촌질서안정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이해된다.

5. 일본군의 나주점령과 수성군의 위축

호남지역의 동학농민군은 최종적으로 나주지역에 설치된 동학당 정토

54) 『全羅道各邑每四邑作統規模關辭條約別錄成冊』(奎 17105)

一 自各其邑 精鍊守城軍 講定守備 以爲隨急互相應變事
一 切禁守城軍 無得擅相越界 無得擅行砲殺 無得擅興民兵 無得擅恣侵掠 無得擅售私嫌 無得擅藉義舉 以爲安民奠居之地是矣 如或違規 自招討 營 另行廉探 斷以軍律施行事
一 討賊方略 預先設機 臨時相通 期圖實效事

55) 『甲午事記』

군 본부의 일본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1895년 1월 5일(양력)부터 2월 10일까지 나주에는 동학당 정도군 본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장 미나미 고시로가 일본군 외에도 우선봉 이두황군, 좌선봉 이규태군, 나주군병들을 나주에서 총지휘하였고, 호남에서 동학농민군이 재기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초토화 작전을 전개하였다.⁵⁶⁾ 미나미 고시로는 히로시마 제5사단 사령부에서 후비보병 독립 제19대대 대대장에 임명되고 조선에 건너와, 11월 7일 인천 인천병참부에서 동학당 정도대 지휘관의 임무를 부여받고 조선군 3개대대, 교도중대 1개, 충청도와 전라도 토착병 전체, 후비보병 19대대를 배속받아 동학농민군 토벌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는 서울에서 이노우에 공사로부터 동학당 토벌에 관한 특별훈령을 받고, 조선 정부와 탄약, 군량, 한인부(韓人夫), 행리 운반 등의 협의를 마치고, 세 길로 나누어 진격하였다. 이후 그는 각 지역의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해 소속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남으로 진격하였다. 12월 28일에는 전봉준을 체포하고, 1월 1일에는 체포된 김개남을 인수하기 위해 특무조장 다케우치 신타로를 인수인으로 삼아 파견하였다.

1월 3일에는 광주에 도착, 4일에는 광주를 출발하여 유림촌을 경유하여 1월 5일 나주성에 이르렀다. 그는 나주 관아에서 동학농민군에 의해 장흥성이 함락되고 장흥부사가 죽음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고, 곧바로 장흥과 강진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 서남해안 일대를 토벌하도록 지시하였다. 1월 5일 그가 지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⁵⁷⁾

- 1) 이시쿠로 대위에게 교도중대 1소대를 부속시켜 강진 방면으로, 시라키 중위에게 교도중대 2소대를 부속시켜 장흥 방면으로 출발시켜 적도를 초멸하게 하였다.
- 2) 마쓰키 지대에게 능주를 출발하여 보성의 적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 3) 장위영병 100명을 무안(務安) 방면으로, 통위영병 1대대를 함평(咸平),

56) 『南小四郎文書』, 『東學黨征討經歷書』

57) 같은 글, 1895년 1월 6일조.

무안, 해남(海南) 방면으로 출발시켰다.

- 4) 함평에 있는 스즈키 특무지대로부터 적정 및 유진에 관한 보고를 받고, 동지대에게 해안에 있는 적도 초멸에 착수하고 지대는 잔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미나미 고시로의 지시를 받은 정토군 휘하 소속부대는 강진, 장흥, 보성, 무안, 함평, 해남에 대해 철저한 진압과 수색작전을 펼쳐서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붙잡혀서 2,000명 이상이 죽어갔으며, 나주에서도 최소한 230명이 학살되었다.⁵⁸⁾

정토군 본부의 지시는 조선군대에도 예외 없이 전달되었다. 예컨대 미나미 고시로는 1894년 1월 16일 다음과 같은 군령을 내렸다.⁵⁹⁾

- 하나. 17일에 수영(水營), 전라우수영에서 전한 보고를 21일에 받았다.
둘. 해남(海南)은 적들의 소굴이니 모두 토벌해야한다. 비록 관리이더라도 동도(東徒)와 연결되어 의심스러운 자는 역시 결박하여 본진(本陣)에 보내라.
셋. 토벌하는 일은 진실로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하도록 힘쓰라.
넷. 탄약은 반드시 쓸 것을 요구하여 나주에서 받고 병사를 보내어 가져가라.
다섯. 해남 부근에 제1중대·제2중대·제3중대와 교도중대(教導中隊)를 이미 파견하였다. 귀관(貴官)의 토벌에 관계된 〈사항은〉 모두 제1중대장 마쓰키(松木)의 지휘를 따르라.
여섯. 황범수(黃凡秀)는 이미 방면(放免), 용서하여 풀어주다하였으니 여비를 주어 고향에 돌아가게 하고, 귀부대가 가지고 있는 행리(行李), 짐은 회군(回軍)할 때에 해당 대원에게 돌려주라.
음력 1894년 12월 21일 총지휘관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
편지를 보낸 곳 : 나주(羅州)
받는 사람 : 선봉장 이규태(李圭泰)
보내는 사람 : 총지휘관 미나미 고시로

58) 신영우, 「1894년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 『역사와 실학』35, 역사실학회, 2007, 130쪽.

59) 『南小四郎文書』, 「軍令 先鋒將李圭泰殿」

좌선봉장 이규태에게 지시를 내려 해남지역을 토벌하되 제1중대장 마쓰키(松木)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탄약의 수령 역시 나주의 지시를 받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 정토군 본부에서는 동학군을 죽이는 데에도 관여하였다.

군무아문(軍務衙門)에 첩보(牒報)하기를,

“본진 좌포대(左砲隊) 대관 이규식(李圭植)의 수본(手本)에, …… 일본 진영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죄인 등 도합 94명도 같이 압송하여 나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인 등의 성명을 성책(成冊)해서 일본군 진영 대대에 올렸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30일, 94명 중에서 73명은 일본 진영에서 쏘아 죽였고, ‘각처에서 획득한 돈·곡식·군기와 죽인 죄인들의 성명을 아울러 성책(成冊)하여 급히 보고하라’하였기에, 성책하여 베껴 쓴 후 올려 보냅니다. 이에 그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하였다.⁶⁰⁾

무장, 함평, 영광 등지에서 잡아들인 동학농민군 94명이 나주에 압송되었고, 그중에서 73명을 일본군 진영에서 쏘아 죽인 사실이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 정토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별로 인식이 좋지 못하였다.

일본군 장수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가 여러 고을에 전령을 보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대일본제국 동학정토군(大日本帝國東學征討)이라고 글씨를 썼으니, 그 뜻은 대개 조선이 곧바로 그 속국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⁶¹⁾

조선의 많은 인물들이 일본군 정토군을 조선을 속국으로 삼기 위해서

60) 『兩湖右先鋒日記』 1월 12일.

61) 『梧下記聞』 三筆, 乙未正月, “倭將南小四郎傳令列邑 而首署大日本帝國東學征討軍云云 其意蓋以朝鮮直爲其屬國 見者駭之”

오는 것으로 여겼고,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학당 정도군 본부가 설치된 나주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였다.

12월 16일(양력 1월 11일).

나경빈(羅敬賓) 부자와 같이 성중(城中)으로 가서 성루(城壘)를 새로 수리하여 쌓은 것을 보았다. 이른바 왜대인(倭大人)이 일인(日人)들을 거느리고 동헌(東軒)과 모든 공청(公廳)의 일을 주장하고, 목사(牧使)는 노반청(奴班廳)⁶²⁾으로 물러나 거처하였다. 일인들이 사대문(四大門)을 수직(守直, 맡아서 지킴)하니, 수성군(守城軍)이 분해하고 한탄함이 그지없었다.⁶³⁾

나주 관아를 일본군 정도군 본부가 장악하였으며, 나주 수성군이 지키던 사대문도 이제는 일본군이 수비했다. 동헌과 공청의 모든 일은 나주를 점령한 일본군이 주관하고, 나주목사 민종렬은 관아가 아닌 객사 옆의 노반청에서 머물게 되자, 수성군들이 분하게 여기고 한탄함이 그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일본군의 부녀자 겁탈이나 재물 약탈에 대해서도 민종렬이나 나주 영장 이원우가 감히 나서서 막지 못하였다.

일본군이 나주를 심하게 약탈했다. 나주는 자체적으로 성을 지키기 시작한 후 도적들도 함부로 쳐들어가 약탈하지 못하는 곳이었다. 비록 도적의 공격으로 매일같이 전투가 벌어지기는 했지만, 아전과 백성들이 생업을 놓아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구원을 핑계로 들어온 일본군이 부녀자를 겁탈하고 재물을 약탈하자 온 고을이 건잡을 수 없이 동요했다. 민종렬과 이원우는 행여 시비거리를 제공할까 두려워 감히 나서서 막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야 겨우 진정되었다.⁶⁴⁾

62) 『금성읍지』에 따르면 「官奴廳敎坊廳 俱在客館西」라고 하여 객사 서쪽에 위치하였다.

63) 변만기, 『鳳南日記』 12월 16일

64) 『오하기문』 3필, 12월 12일

일본군의 재물이나 부녀자를 약탈해도 나주목사나 나주영장이 두려워 나서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나주를 점령한 일본군들에 대한 나주 사람들의 반발이 컸으나, 나주초토영의 나주수성군은 일본군이 철수할 때까지 반감을 품었으나 일본군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6. 맺음말

본고는 나주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재조명을 위해 나주수성군의 실체는 어떠한었으며, 수성군의 활동은 나주수성단계와 호남 초토영 단계, 일본군진출기에 걸쳐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의 나주지역은 관찬사료와 고문서, 개인문집, 일본군 측 사료를 통해 볼 때 동학농민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크게 3단계로 전개되었다.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기 나주 수성군과 일본군에 관해서 검토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나주지역 수성군에 관한 자료는 『조선왕조실록』 등 연대기 자료, 이병수의 『금성정의록』을 비롯한 정석진, 이병수, 나동륜, 양상형, 기우만의 문집, 박기현의 『강재일사』, 황현의 『오하기문』, 변만기의 『봉남일기』 등의 내용이 있다. 그리고 호남초토영에 대해서는 『양호초토등록』, 이규태의 『선봉진일기』, 이두황의 『양호우선봉일기』, 기타 민종렬 관련 고문서 등이 있다. 일본군 점령에 관해서는 실록 등의 연대기 자료나 유생들의 문집에서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이나 『南小四郎文書(미나미 고시로)』 등의 문서를 통해 검토할 수가 있다. 이러한 문서를 분석하면 나주수성군의 조직과 활동은 3단계를 통해서 전개되었다.

첫째 단계는 나주 수성기이다. 나주는 1889년부터 3년간 나주 영장과 나주목의 아전들의 가혹한 세금징수로 농민반란이 잇따랐고 동학농민군

과 대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나주 진영과 아전, 군교들이 나주목사 민종렬의 수성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주목사 민종렬은 처음에는 전라병영의 지원을 받기도 했으나, 전라병영의 군사들이 빠져나가자 곧바로 나주에 설치되어 있는 전라우영의 영장 이원우의 도움을 받아 수성군을 편성하였다. 전라우영은 소속군현이 10개에 달하고, 속오군도 5,000명이 넘었으며, 대원군집권 이후 축적된 화포나 군수물자가 상당한 양에 달했기 때문에 수성군 편성과 전투에서 전라 우영의 도움은 막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주지역은 1710년(숙종 30)부터 변란에 대비한 이노작대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어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아전들과 관노들도 곧바로 수성군에 편성될 수 있었다. 그리고 대원군 집권 이후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 축적된 화포나 군수물자도 상당한 양에 달했다. 수성군의 조직은 아전과 군교 등의 지휘부, 주력부대인 포군, 일반 병사들로 구성되었는데, 포군은 전, 중, 후군 등 각 200명씩 양성하였다. 병사들은 모두 24개 초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전투와 나주성 경비, 군량미 보급 등에 종사하였다.

나주성이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집강소 설치에 협조하지 않자, 전봉준이 직접 찾아와 설득하기도 했으나 실패하였고, 전라감사 김학진을 통해 민종렬과 이원우를 파직시키고자 했으나 이 또한 나주지역 사족들과 수성군의 반발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동학농민군측은 나주성 탈환을 위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 공격을 하였으나, 화력의 부족과 전술의 미흡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특히 나주수성군은 600명에 달하는 포군을 지형에 따라 자유롭게 응용하고 기동성이 뛰어난 포차의 개발로 동학농민군의 전력을 무력화시켰던 것이다.

둘째 단계는 호남초토영기이다. 조정에서는 나주가 동학농민군의 공격에 맞서서 승리함에 따라 나주를 중심으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려고 하였다. 조정에서는 나주목사 민종렬에게 호남소모사, 호남초토사의 직함을 부여하고, 전라 우도를 책임지게 하였다. 이에 나주 수성군의 활동 반경은 남평이나 무안, 영암, 영광 등지로 전선이 확대되었다. 또한 초토사 민종

렬은 관할 구역에 향약을 실시하여 교화를 통해 동학농민군 수뇌부 외에는 죽이지 않는 정책을 택했다. 동학세력을 뿌리뽑기 위해 4읍 작통제를 실시하였을 때도 작통에 대한 규칙을 두어 수성군에 의한 동학농민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약을 실시하여 향촌질서를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민종렬의 군사들은 매 전투마다 동학농민군 살상이 20명 정도로 보고되었던 것이다.

셋째 단계는 일본군 점령기이다. 1895년 1월 5일(양력)부터 2월 10일까지 일본군은 나주에 동학당 정도군 본부를 설치하였다. 당시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장 미나미 고시로는 나주의 정도군 본부에 상주하면서 일본군 외에도 우선봉 이두황군, 좌선봉 이규태군, 나주군병들을 나주에서 총지휘하였고, 호남에서 동학농민군이 재기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초토화작전을 전개하였다. 장흥이나 강진, 병영성 전투, 각종 서남해안 등지에서 벌어진 수색 작전 등이 일본군 정도군 본부의 지시 내지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남해안 일대에서 동학농민군은 2,000명 이상이 죽어갔으며, 나주에서도 최소한 230명이 학살되었다.

또한 이 무렵 나주 관아는 일본군이 장악하였고, 사대문도 일본군이 수비했다. 미나미 고시로는 수행한 일본군으로 하여금 동헌과 모든 공청(公廳)의 일을 주장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나주목사 민종렬은 관아가 아닌 객사 옆의 노반청에서 머물게 되었다. 잇따른 일본군의 부녀자 겁탈이나 재물 약탈에 대해서 민종렬이나 나주영장 이원우가 감히 나서서 막지 못하였다. 나주 수성군들의 일본군에 대한 반감과 원한이 컸으나, 일본군 주둔시에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

본고는 나주 수성군과 일본군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 보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학농민군의 조직이나 활동, 의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였다. 이점은 향후 동학농민군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완할 생각이다.

〈참고문헌〉

『봉남일기』

『오하기문』

『나주목읍지』 (1815년 간행)

『1872년 지방도』(전라도 나주)

『국역 강재일사』

『승정원일기』

『고종실록』

『금성정의록』 갑편

『全羅道各邑每四邑作統規模關辭條約別錄成冊』(奎 17105)

『甲午事記』

『南小四郎文書』, 「東學黨征討經歷書」

『갑오군정실기』권10,

『南小四郎文書』, 「東學黨征討經歷書」

『栢下遺稿』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동학농민혁명과 광주·나주』, 광주·전남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1994.02,

나선아, 「19세기 초 나주 향리층의 계조직과 읍권의 동향」, 『한국사연구』

130, 한국사연구회, 2005.

박맹수, 「南小四郎文書[미나미 고시로 문서] 해제」(동학농민혁명종합정보시스템, <http://www.e-donghak.or.kr>)

배향섭, 「나주지역 동학농민전쟁과 향리층의 동향」, 『동학연구』 19, 한국동학학회, 2005.

배향섭, 「1894년 무안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古幕浦 전투」, 『한국민족운동사연구』8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송양섭, 「조선후기 강진병영의 지휘체계와 군수조달」, 『역사학연구』52,

호남사학회, 2013.

신영우, 「1894년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 『역사와 실학』35, 역사실학회, 2007, 130쪽.

이상식, 박맹수, 홍영기, 「나주지방의 동학농민혁명」, 『전남동학농민혁명사』, 전라남도, 1996.

이상찬, 「乙未義兵 지도부의 1894년 反東學軍 활동」, 『규장각』1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5.

동학농민혁명군의 나주로의 압송과 처형*

김 희 태

(전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1. 머리말
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본 압송과 처형
3. 호남초토영 문서로 본 압송과 처형
4. 일본 동학도별대 기록으로 본 압송과 학살
5. 맺음말

1. 머리말

동학농민혁명기 일본 동학도별대의 동학농민군 학살에 대해서는 자료의 소개와 함께 연구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¹⁾ 특히 학살과정에서 체포된 동학농민군 지도자와 농민군은 나주로 압송되었고 구금과 처형이 이루어졌다. 전투 현장에서 잡히면서 학살된 동학농민군도 기록을 통해서 확인된다. 호남초토영이 그 중심이었다 하겠다. 호남초토영의 초토사는 나주목사가 겸임하였다. 따라서 나주지역 수성군의 역할도 살펴 본 연구가

* 이 글은 김희태, 「동학농민군의 나주 압송과 처형」, 『나주 동학농민혁명 재조명과 세계시민적 공공성구축』-자료구축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나주시, 2020. 10.28., 105~119쪽에 실린 발표 논문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고는 동학농민혁명군이 피체되어 나주로 압송당한 내용과 포살이나 처형 등 학살 당하여 순국(殉國)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피체’와 ‘순국’이라는 용어를 써야 할 것 같다. ‘보국안민(輔國安民)’ 용어와 관련해서이다. ‘동학(東學)’과 관련해서는 ‘순도(殉道)’도 검토할만하다. 진전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학술대회 때 발표 제목을 그대로 쓴다.

1) 박찬승, 「동학농민전쟁기 일본군·조선군의 동학도 학살」, 『역사와 현실』54, 한국역사연구회, 2004, 21~60쪽.

신영우, 「1894년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 『역사와 실학』 35, 역사실학회, 2008.6, 117~145쪽.

있다.²⁾

근래 나주를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혁명기의 전투, 동학농민군 지도자와 나주목사의 협상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학술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³⁾ 이와 함께 실제 동학농민혁명기 전투에 참여했던 농민군이나 체포, 압송, 구금, 처형[학살]되었던 개별 동학농민군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 질 때 온전한 사회상이 밝혀지고 시대정신을 읽어 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런데 그에 대한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며, 전하는 기록이나 자료도 대부분이 정부나 관군이나 유림, 그리고 일본 토벌대측의 자료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에 등록한 자료나 기존에 알려진 기록을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관점’을 달리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것이다. 후대에 신청에 의하여 인정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동학농민혁명군 당사자들의 자료 범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호남초토영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처리 현황 보고 문서이다. 1894년 11월과 1894년 12월, 그리고 1895년 1월 등 3종의 문건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특히 1894년 11월 문서는 4월부터 11월 사이 나주 관내 7개소 접전지 포살자

2) 나천수, 「동학농민군의 나주지역 공략과 민중열 초토사의 방어를 다시보다-「금성정의록」과 「난파유고」 기록 등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82,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9, 317~354쪽.

김봉곤, 「동학농민혁명기 나주 수성군의 조직과 활동」, 호남사학회, 『역사학연구』79, 2020, 61~96쪽.

3) 이상식 편저, 『동학농민혁명과 광주·전남』, 광주·전남 동학농민혁명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1994.

이상식·박맹수·홍영기, 『전남동학농민혁명사』, 전라남도, 1996.

배항섭, 「집강소 시기 동학농민군의 활동양상에 대한 고찰」, 『역사학보』153, 1997.

배항섭, 「제1차 동학농민혁명 시기 농민군의 진격로와 활동 양상」, 『동학연구』11, 2002.

배항섭, 「나주지역 동학농민혁명과 향리층의 동향」, 『동학연구』19, 2005.

박이준, 「『금성정의록』을 통해 본 1894년 농민전쟁과 나주」, 『나주시사』, 2006.

배항섭, 「1894년 무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古藪浦 전투」, 『한국민족운동사연구』85, 2015.
나주시·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나주동학농민혁명 한·일 국제학술대회-한恨에서 흥興으로 승화하다-』, 2019.10.30.

수효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으로 처음 확인되었다는데서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일본 동학토벌대의 ‘학살’ 현장에 직접 참여한 토벌군의 일기를 통해서이다. ‘나주’를 중심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전라도’ 권을 함께 정리해 보겠다. 잘못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과 제보를 기대한다.⁴⁾

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본 압송과 처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따라 등록된 참여자이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된 사람은 모두 3,696명이다.⁵⁾ 이 가운데 전라도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2,692명으로 전체 등록자의 72.8%에 이른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는 8도제 행정 편제로 전라도는 당시 56개 군현이 속해 있었다. 그리고 행정편제로 구분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나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전라좌도와 전라우도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후기 전라도의 군현 편제와 전라좌우도의 구분을 통하여 등록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정리해 본 것이다.

나주의 읍격(邑格)은 8도제 하의 전라도 나주목이다. 전라우도권이다. 현재는 나주시에 포함되어 있지만 남평현은 독립된 고을로서 전라좌도권

4) 이 글에서 정리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인명록, 호남초토사 기록(3종), 토벌군 중군일지 등 세 종류의 5가지 자료에 기록된 내용을 발췌하여 연월일 순으로 재편집하여 본 책 3부에 ‘나주동학농민혁명군 관련 연표와 참여 인명록’이라는 제목으로 수록하였다.

5) 2022년 10월 20일 기준. 2004년 3월 5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이 제정되었다. 2004년 9월 17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출범하여 2004년 11월 3일부터 유족 등록이 시작되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644명, 유족 10,567명을 등록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추가적인 등록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7년 12월 특별법을 개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새롭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 위원회가 출범하여 2018년 3월 20일부터 참여자와 유족 등록을 다시 하여 2022년 10월까지 참여자 52명, 유족 2,145명을 등록하였다.

〈표 1〉 조선후기 전라도의 군현 편제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⁶⁾

구분	府尹 (종2품)		牧使 (정3품)		都護府使 (종3품)		郡守 (종4품)		縣令 (종5품)		縣監 (종6품)		계	
	군현	참여	군현	참여	군현	참여	군현	참여	군현	참여	군현	참여	군현	참여
전라좌도 (호남좌도)			광주	59	장흥	386	보성	67	능주	25	광양	134		
					남원	128	순창	25	창평	14	임실	84		
					순천	68	낙안	8	용담	6	홍양	37		
					담양	16					구례	15		
											운봉	15		
											화순	15		
											무주	13		
											장수	12		
											곡성	12		
											동복	10		
											진안	10		
											남평	7		
											옥과	7		
소계	-	-	1	59	4	598	3	100	3	45	13	371	24	1,173
전라우도 (호남우도)	전주	147	나주	250			고부	85	금구	35	함평	97		
			제주	-			익산	64	만경	16	장성	92		
							영광	41	임피	10	태인	79		
							금산	35			강진	82		
							김제	32			무안	74		
							여산	26			무장	72		
							영암	16			정읍	46		
							진도	11			부안	45		
							진산	9			고창	48		
											해남	41		
											고산	33		
											흥덕	24		
											옥구	5		
											함열	3		
											용안	1		
											대정	-		
											정의	-		
소계	1	147	2	250	-	-	9	319	3	61	17	742	32	1,519
합계	1	147	3	309	4	598	12	419	6	106	30	1,113	56	2,692

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누리집(<http://www.1894.or.kr>)에 등재된 참여자에 대하여 전라도 56관의 군현별로 검색어를 입력하여 수치화한 것이다. 홍양(32인)과 고흥(5인)은 각각 검색되어 합산하였다. 이 참여자 명단은 한 인물이 복수의 지역으로 검색이 되는 경우가 있어 해석이나 활용에는 주의를 요하지만, 어느 정도 지역성은 읽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2022.10.20. 기준)

이었다. 이 가운데 검색어를 ‘나주’로 하여 검색하면 250인⁷⁾, ‘남평’은 7인으로 현재의 나주 지역과 연고가 있는 참여자는 모두 257명인데 중복을 제외하면 254명⁸⁾이 확인된다. 참여 지역을 포함하여 ‘전체’를 중심으로 검색하여 정리한 내용인데, 당시 전국의 군현 단위⁹⁾로는 장흥 386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초기 기포지나 주요 전적지를 검색해 보면, 고창[무장 기포 등] 120명(고창 48명, 무장 72명), 정읍[황토현 전적] 125명(정읍 46명 태인 79명), 장성[황룡촌 전적] 92명, 장흥[석대들 전적] 386명, 충청도 공주[우금치 전적] 125명 등이다. 나주 인근 지역은 광주 59명, 함평 97명, 강진 82명, 무안 74명 등이다. 나주가 이처럼 많은 이유는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수성군과의 접전지이고 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군의 처형지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광주, 무안, 함평, 우금치, 무장, 금구, 백산, 정읍 등 참여지역이 복수로 나온 경우가 많아서이다. 나주 지역만 단독으로 참여지역이 표기된 경우는 98명에 이른다. 분명 98명도 다른 지역의 사례와 비겨 보면 적은 수는 아니다.

나주 254명 가운데 출생연도가 확인된 사람은 72명이다.(<표 2>) 나주권 전투 참전자는 63명, 나주로 압송되어 처형당한 사람은 9명이다.¹⁰⁾ 이 가운데 제일 연장자는 1828년생 송두호(宋斗浩)로 67세이다. 1893년 11월 사발통문에 서명하고 고부 봉기, 백산 봉기 등에 참여한 후 피신했던 중 체포되어 1895년 1월 16일 나주에서 처형을 당하여 순국(殉國)하였다.¹¹⁾ 1830년생(65세) 주경노(朱京老)는 1894년 11월 동학농민군의 나

7)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단은 전체, 성명, 내용, 지역 네가지로 검색하도록 되어 있다. <표 1>은 ‘전체’를 기본으로 검색하였다.

8) 남평으로 검색된 7인 가운데 나홍집(羅鴻集), 박덕기(朴德己), 박신환(朴信煥), 허재중(許在仲)은 나주와 중복되어 남평은 박천수(朴千洙), 이학순(李學淳), 최범구(崔範九) 3명이다.

9) 조선시대 군현은 『경국대전』(1485년) 329개소, 『호구총수』(1789) 333개소이다. 김정호 편저, 『지방연혁연구-전남을 중심으로-』, 광주일보출판국, 1988.

10) 나주 참전자는 나주를 비롯하여 나주 관내와 고막포 등 나주권 전투에 참여한 사람, 나주 압송자는 다른 지역에서 나주로 압송되어 처형된 사람이다.

11) 참여 내용에 대해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누리집에 등재된 참여자 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하 같다.

주성 최후 총동원령에 의해 향리인 청림산과 진등참에서 수성군과 전투 중 순국하였다. 50대는 2명, 40대 13명, 30대 33명, 20대 13명, 10대 9명이다. 30대가 33명으로 가장 많고 20대와 40대가 13명으로 뒤를 잇는다. 10대의 경우 나주 지역권 전투 참여자는 8명, 처형자는 1명이다. 최연소자는 14세(1881년생)로 2명이다. 신호재(申孝才)는 중정(中正)으로서 1894년 7~9월 전라도 나주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 최동린(崔東麟)은 1894년 12월 24일 13세의 나이로 석대들 전투에 참전하였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나주 일본군 진영으로 압송되어 12월 28일 처형당하였다.

〈표 2〉 출생이 확인된 나주 참여자 연령대별 현황

구분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계
나주 참전자	1	2	9	31	12	8	63
나주 압송자	1	-	4	2	1	1	9
계	2	2	13	33	13	9	72

나주 254명 가운데 순국 연도가 확인된 사람은 113명이다.(〈표 3〉, 〈표 4〉) 이 가운데 5명은 ‘1894년’, 1명은 ‘1895년’으로 연도만 확인된다. 1894년의 순국자는 86명으로 나주권 전투 참전자가 12명, 나주로 압송되어 처형된 자는 74명이다. 순국 첫 일자는 1894년 11월 19일이다. 주경노(朱京老)는 1894년 11월 동학농민군의 나주성 최후 총동원령에 의해 향리인 청림산과 진등참에서 수성군과 전투 중 순국하였다. 그리고 전장하(全章夏)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군포관 및 군자금 조달을 담당하였으며 이후 나주지역 전투에 참여하였다가 11월 20일 순국하였다. 12월에는 12월 2일, 8일, 13일, 16일, 27일, 28일에 1명에서 3명의 순국자가 보인다. 12월 30일에는 66명의 순국자가 확인되는데 모두 나주 압송자이며 대부분 총살에 처해진다.

〈표 3〉 순국(殉國)이 확인된 나주 참여자 현황1 - 1894년

구분	11.19	11.20	12.2	12.8	12.13	12.16	12.27	12.28	12.	12.30	1894	계
나주 참전자	1	1	-	-	-	-	2	-	4	-	4	12
나주 압송자	-	-	1	2	1	1	1	1	-	66	1	74
계	1	1	1	2	1	1	3	1	4	66	5	86

〈표 4〉 순국이 확인된 나주 참여자 현황2 - 1895년~1896년 8월

구분	1895. 1.6	1895. 1.16	1895. 1.26	1895. 1.27	1895. 3	1895. 4.2	1895. 4	1895. 6.23	1895	1896. 8	계	*1898 이후
나주 참전자	-	-	-	-	1	1	-	-	-	4	6	13
나주 압송자	1	1	1	1	-	-	1	1	1	-	7	1
계	1	1	1	1	1	1	1	1	1	*4	13	14

1895년에는 9명의 순국자가 확인되는데 나주 참전자 2명, 나주 압송자 7명이다. 전투나 처형 관련 마지막 순국자는 1896년 8월로 확인된다. 모두 4명인데 황준삼(黃俊三), 김순여(金順汝), 이경태(李敬泰), 백낙중(白樂中)이다. 이들은 동학농민혁명군 지도자로서 1894년 전라도 금구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피신한 뒤 1896년 봄 나주에서 재봉기를 모의하였다가 체포되어 같은 해 8월 전라도 전주에서 처형되었다. 1898년 8월 이후 순국자는 14명으로 나주 참전자 13인, 나주 압송자 1인이다. 제일 나중에 순국한 사람은 양해일(梁海日, 1870~1955)인데 1955년 12월 29일까지 생존하였다. 양해일은 1894년 11월 매형 윤세현 접주와 함께 동학농민혁명군으로 활동하였으며, 장흥 석대들 전투 패전 이후 윤세현과 나주, 장성 등으로 피신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전이 25세였고

〈표 5〉 1894년 12월 30일 총살당해 순국한 농민군의 출신 군현과 직임

직임	고창	무장	영광	함평	계
大接主		宋景昌 崔順七 張斗一 金桂龍 趙景順 金永來 姜基秀 李君瑞 金順京 金永心 金在英/11	魯明彦 丁基京 /2		13
接主		宋君化 金成青 金一仲 李富兼 崔文學 金德汝 文連奎 金子一 /8	林明辰 奉允弘 申恒用 姜大振 曹明九 黃相連 高休鎭 金元實 金寬西 奉允正 全厚兼/11	金德洪 尹相近 徐致雲 李京植 魯洪尙 李昌朱 朴兼五 朴用武 尹永菊 盧仁京 張所回 崔二玄 金春京 朴文八 李季成 朴萬宗 李五瑞 李益成 崔有憲 張賢局 李順伯/21	40
都省察		李南石 宣夫吉 金應伯/3			3
接司		吳良臣/1			1
砲士大將		尹相殷/1			1
都執綱		金景云/1			1
都令旗手					
書寫	成斗八 黃正五 黃贊菊/3		朴仁之/1		4
농민군		宋永石 宋鎭八 金在英/3			3
계	3	28	14	21	66

전쟁이 끝난 지 61년 만에 세상을 뜬 것이다. 나주가 전투지와 처형지이기는 했지만, 피난지가 되기도 했던 것이다.

나주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순국’ 유형은 참전자는 전투 중에, 압송자는 처형이 대부분이다. 나주의 경우에는 참여자 등록 254명 가운데 처형자는 86명으로 33.9%에 이른다. 이 가운데 총살 67명, 처형 16명,

효수 1명, 화형 1명, 살해 1명 등이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된 3,696명 가운데 총살로 처형되어 순국한 참여자는 641명으로 17.3% 비율인데 나주의 경우는 33.9% 비율로 배나 높은 편이다. 특히 1894년 12월 30일에는 66명이 총살형을 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날짜가 밝혀진 나주 압송자가 81명인데 이 가운데 66명, 81.4%가 같은 날 총살형으로 처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뚜렷한 목적의식이 드러나는 ‘학살극’이었음을 대변해 준다 하겠다.

1894년 12월 30일 총살처형자 66명의 출신 군현은 고창, 무장, 함평, 영광 등 서부권이다. 전라우도 지역이다. 일본 진영에서 총살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본부가 있는 나주는 전라 우영이 있고 우도 지역을 관장하는 호남초토사 권역이 있다는 점과도 관련은 있을 듯 싶다. 함평은 21명 모두가 접주로 직임이 나타나지만, 다른 3개 군현 지역에서는 대접주와 접주를 비롯하여 도성찰(都省察), 접사(接司), 포사대장(砲士大將), 도집강(都執綱), 도령기수(都令旗手), 서사(書寫) 등 다양한 직임이 보인다.

3. 호남초토영 문서로 본 압송과 처형

호남초토영의 동학농민혁명군 포착[포살] 관련 문서는 1894년 11월¹²⁾과 1894년 12월¹³⁾, 그리고 1895년 1월¹⁴⁾에 보고한 3종이 있다. 호남초토사[민종렬]가 작성하여 보고한 문서인데, 호남초토영에서 마지막 단계에 동학농민혁명군 토벌전을 벌인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보고자는 초토사[招討使 署押]이지만 관인은 ‘나주목사지인(羅州牧使之印)’이라는 점을

12) 『포살동도수효급소획급물병록성책(砲殺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구 630)

13) 『전라도각읍소착동도수효급소획급물병록성책(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규장각 소장, 奎17189)

14) 『전라도각읍소획동도수효급장령성명명록성책(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及將領姓名並錄成冊)』(규장각 소장, 奎17190)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미 10월 28일에 나주목사 민종렬을 호남초토사로 차하하여 우도(右道) 연안의 각 고을을 지휘해서 비적을 소탕하는 데 전심하게 하자고 하니 윤허를 내린다.¹⁵⁾ 그리고 12월 28일에는 의정부에서 초토영에 내리는 관(關)문서도 나주목사에게 보내고 있다.¹⁶⁾ 호남초토사가 관할 경역은 전라우영의 관할권인 전라우도 지역이지만 나주목사가 호남초토사를 겸임하고 있어서이다.

1894년 11월 호남초토사 보고문서는 표제가 『포살동도수효급소획증물명록성책(砲殺東徒數文及所獲汁物并錄成冊)』¹⁷⁾이다. 호남초토사가 1894년

〈표 6〉 1894년 4월~11월 나주 지역 동학접전지 일자별 장소와 처형 순국 현황

일시	접전지	거리	右鎮官 梟警	砲殺	踐踏死	落水死	自邑結果	계
4. 6	무안계	서30리	3				27	30
7. 5	西門			109				109
10.21	광주 砧山, 社倉	동 30리		23				23
11.11	赤良 聳珍山	북 40리		21				21
11.17	水多面 虎藏村	서 30리		86	43			129
	古幕浦橋邊					數百		數百
11.24	金安面 南山村 伊老面 下村	북 10리		353				353
계			3	592	43	數百	27	765

15)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10월 28일 신미.

16) 의정부가 나주 목사에게 보낸 관(1894년 12월 28일) : 당시 의정부에서는 이해 12월 말경 순무영을 해체하고 군무아문에서 마지막 농민군 토벌작전을 수행했다. 이 관문은 이 사실을 나주 초토영에 거듭 알리고 조치를 지시한 내용이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전국역총서 11』, 2019, 105쪽)

17) 소장품 열람허가(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4028, 2020.10.19)를 받아 열람(2020.10.23) 하였다. 2001년 개인에게서 구입한 것이라 한다. 학술대회 발표 논문(『동학농민군의 나주 압송과 처형』)에서는 문서 개략만 소개하였고, 내용은 발표 당일(2020.10.28.) PPT로 소개하였다. 크기 세로 37.2cm, 가로 21.5cm.

4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동학농민군 토벌 과정에서 죽인 동학도의 숫자 및 노획물의 현황, 전투에 참여한 호남초토영의 장령의 명단 등을 정리해 놓은 문서이다. <표 6>은 나주 지역 동학 전투지 일자별 장소와 포살 등 순국자 현황이다.

지금까지 나주 지역 내에서 동학농민혁명군과 호남초토영 관군과의 접전에 대한 기록은 있었으나 포살당한 동학농민혁명군의 수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¹⁸⁾ 이 1894년 11월 문서를 통해서 765명¹⁹⁾의 동학농민군이 희생되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장소와 일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4월 26일에는 나주 서쪽 30리 무안 경계에 나아가 토벌할 때 동학농민혁명군[적당]을 생포한 인원이 30명인데, 3명은 전라우진영에서 효수하여 경계토록[梟警] 했으며, 27명은 해당 고을에서 조치[自邑結果] 하도록 했다. 같은 날에 동학농민혁명군이 소지했던 즈물은 염주 5건, 발우(鉢盂) 7개, 통문축 상자 1, 책자 5권 등이었다. 호남초토군 문서에는 노획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각 전투지별 동학농민혁명군 소지 즈물은 <표 7> 참조)

7월 5일 서문(西門)에서는 포살당한 동학농민혁명군이 109명, 10월 21일 광주 침산(砦山), 사창(社倉)에서는 포살 23명, 11월 11일 적량(赤良) 용진산(聳珍山)에서는 포살 21명, 11월 17일 수다면(水多面) 호장촌(虎藏村)에서는 포살 86명, 천답사(踐踏死) 43명, 고막포교변(古幕浦橋邊) 낙수사(落水死) 수백명, 11월 24일 금안면(金安面) 남산촌(南山村) 이로면(伊老面) 하촌(下村) 포살 353명²⁰⁾ 등이다.

18) 배항섭, 앞논문; 김봉곤, 앞논문 참조.

19) 이 문서에는 “又有被逮至古幕浦橋邊落水死者殆過數百餘計而因潮漲未的其數”라 하여 고막포 전투 순국자는 ‘數百’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 경우 최소 수치라 할 100명으로 설정하여 합산한 수치이다.

20) 353명 포살로 희생된 금안면 남산촌, 이로면 하촌 전투의 경우 기존 알려진 기록에는 다음 내용처럼 포살 현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나천수, 앞 논문 발췌 인용)
11월 23일 적의 무리 수만 명이 금안면 남산촌에 주둔, 염박군이 함박산(咸朴山)까지 몰래 옴(『금성정의록(錦城正義錄)』)
용진산에서 패배한 농민군 수만명이 금안면 남산촌 진주, 밤에 함박산에 올라가 염탐(『난파

〈표 7〉 1894년 4월~11월 나주 지역 동학농민혁명군이 소지한 증물 현황²¹⁾

구분	종별	4.6. 무안계	5.7. 西門	10.21. 砵山, 社倉	11.11. 赤良 聳珍山	11.17. 水多面 虎藏村	11.17. 古幕浦 橋邊	11.24. 金安面 南山村 伊老面 下村
교리	渠所謂東經大全			1				
	염주	5권			1	1		
	詩傳							2
	將鑑							1
	책자	5권						
식기	발우	7						
문서류	각항문축상자				1			
	負擔箱子							1
	문서축							1
	명록성책			2				
	賊魁名牌							1
	各項廢文通軸			2				
	통문축상자	1						
	印櫃				1	2		
	白紙							49속
의류	草綠明袖衾							1
	紅苧兒小周衣							1
	靑木衾							1
휴대 용구	袋連							1
	皮紙匣					1		
	鉢囊					3		2
무기류	衫丁							1
	총			11柄				

유고(蘭坡遺稿)』)

11월 24일 도통장 정석진, 도위장 손상문, 초관 박성로, 별장 전학권, 포를 쓰며 남산촌으로
진진하여 격퇴(『금성정의록』)

포군을 3로(路)로 나누어 진격, 금안면 남산촌 전투(『난파유고』)

21) 나주목사가 겸임한 호남초토사 휘하의 호남초토군이 획득한 동학농민혁명군의 증물을 몇
가지로 나누어 분류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구분	종별	4.6. 무안계	5.7. 西門	10.21. 砧山, 社倉	11.11. 赤良 聳珍山	11.17. 水多面 虎藏村	11.17. 古幕浦 橋邊	11.24. 金安面 南山村 伊老面 下村
	조총		1		3	5		30
	친보총				1	1		
	창			2	2			
	화약			9근	1封			3봉
	연환			380개				300
	片箭			660개				
	木丸砲							3
	環刀			2				1
	朱錫三枝槍							2
	木弓			2				
	鐵鞭				1			
형벌구	棍杖				2			1
운송구	馬							16필
	馬鞍							1
군례류	各色旗							11
	大旗		1					
	令旗		1		1	2		
	肅靜牌			1	2			3
	軍令板				1			1
	稚長毛							5
농악기	鞭橙			1				
	鼓				2			2
	鉦			1				3
	喇叭			1				6
	錚			3				
농기구	推鎌							1
	斧子							1

이 문서에는 동학농민혁명군을 토벌하기 위해 초토군으로 나선 출전 장령 성명질이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다. 나주목의 수성군과 호남초토영군, 호장 등 이서집단, 면 의거소 영수 등 직임과 함께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표 8>은 출전장령의 직임을 전투지별로 정리한 것이다. (출전장령 성명은 3부 수록된 글 참조)

<표 8> 1894년 4월~11월 나주 지역 동학접전지 출전 장령 직임 현황

일시	접전지	戶長	吏房	戶房	中軍	退校	座首	千總	攔後別將	首校	討捕首校	將校	下吏	執事	公務軍官
4. 6	무안계														
7. 5	西門	1	1		1	1		1	1	1			7	1	1
10.21	광주 砬山,社倉	1	1		1	1			1				2		
11.11	赤良 簗珍山	1	1	1	1		1	1					7		
11.17	水多面 虎藏村	1	1		1	1		1					4		
	古幕浦橋邊														
11.24	金安面 南山村 伊老面 下村	1	1		1			1	1	1	1	1	12		
		5	5	1	5	3	1	4	3	2	1	1	32	1	1

좌별장	우별장	남문별장	哨官下吏	山砲手	千步隊長	別軍官	軍官	面義學所領首	계
1	1	1	17	1					37
									7
				1	2			7	23
				1				15	25
					2	1	1	3	27
1	1	1	17	3	4	1	1	25	119

1894년 12월 호남초토사 보고 문서는 표제가 『전라도각읍소착동도수효급소획증물병록성책(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爰及所獲汁物并錄成冊)』²²⁾이다. 문서를 작성한 일자는 1894년 12월 15일로 보인다. 우선은 보고서 상에서 2회를 제하고는 전부 날짜가 확인되는데 그 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라는 점에서이다. 그리고 12월 9일에 동학농민군 토벌을 건의하는 문서²³⁾를 보낸데 이어 12월 15일에 호남 초토사 민종렬이 관내 농민군 토벌의 사실을 최고 기관인 의정부에 보고한 내용의 문서²⁴⁾가 있어서이다. 당시 초토영에는 군사가 없다는 애로사항도 실토하고 있다. 이 문서로 보아 『1894년 12월 동도책』은 1895년 12월 15일의 서목과 일괄문서로 보인다. 한편, 1895년 1월 문서에는 1894년 12월에 미처 보고하지 못한 12월 22일과 25일, 29일의 처리 결과를 소급하여 보고한 기록이 있어서 늦어도 12월 22일에는 보고했을 것이다.

이 문서는 1894년 12월 전라도 각 읍에서 체포한 동학도들의 성명 및 수효와 그 처리사항, 노획품의 수량 및 그 노획자 등을 중앙에 보고하기 위하여 기록한 자료이다. 전라도 각지의 농민군 진압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하다.

처리 사항 중에는 진영 또는 우진영으로 압송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초토영이 있는 나주의 전라우영으로 압송한 것을 말한다. 주요인물인 경우는 거괴(巨魁), 접주(接主) 모(某)와 같이 그 직위와 성명, 체포한 날짜와 처리요지를 적고 있다. 그밖의 경우에는 성명을 생략하고 수효만 적고 있다. 뒷부분에는 소획물품을 기록하고 있다. 군현별 처리사항별로 정리한 것이 <표 9>이다.²⁵⁾

22) 규장각 소장(奎17189). 이하 『1894년 12월 동도책』으로 표기. 이 문서는 『동학란기록』(下) (국사편찬위원회, 1955)에 실렸고 동학농민혁명종합정보시스템[<http://www.e-donghak.or.kr>], 이하 <동학정보>로 표기] 등에서 소개하고 있다.

23) 호남 초토사 민종렬이 작성한 서목(1894년 12월 9일) : 잔여 농민군이 남도 일대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남평에 모여 다시 활동한 사실을 두고, 호남 초토사 민종렬이 군부대신에게 그들의 토벌을 건의하면서 보고한 내용이다. (앞책,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1』, 100쪽.)

24) 호남 초토사 민종렬이 작성한 서목(1894년 12월 15일) (앞책,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1』, 101쪽.)

〈표 9〉 1894년 12월 전라도 각읍의 동학농민군이 포착당한 현황

군현	鎭營押送			砲殺, 杖殺, 梟警				徑斃, 物故				京軍所押送	日軍[兵]		牢囚該邑		계
	梟首	使之分輕重酌處	使之嚴覈得情	徑斃	臨戰砲殺	捉得砲殺	捉得杖殺	梟警	徑斃	經訊後徑斃	押上中路徑斃	物故	砲殺	押去	仍囚	使之分輕重酌處	
광주	1	3				6	3					2			2		17
담양						4						2	1			15	22
동북						157			1	4	3			1		59	225
창평															1	11	12
화순						4						2				10	16
순창소모관														2			2
함평		1				26										8	35
무안						2				6						18	26
능주						7						10		6			23
영광						10		3				10					23
무장						3		2								18	23
우진영		3		1													4
남평		5				5											10
망운목		4															4
고창						2								1			3
나주		5	14		16	6											41
계	1	21	14	1	16	232	3	5	1	10	3	2	24	1	10	3	486

1894년 12월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14개소 군현과 순창소모관, 우진영[전라우영], 망운목장 등 17개관에서 모두 486명의 동학농민혁명군이

25) <동학정보>에 정서본과 국역문이 있는데 판독하지 못한 글자가 60여자이다. 호남학관카페 [<http://cafe.daum.net/honamhakgwan>]에도 소개되고 있다. 이번엔 규장각 소장 원본 [원색]을 검토하여 전문 판독을 할 수 있었다.

포착당하였다.²⁶⁾ 동북이 225명으로 가장 많고 나주 41명, 함평 35명, 무안 26명, 능주 26명, 무장 23명, 능주 23명, 영광 23명, 담양 22명, 광주 17명 순이다.

유형을 살펴보면 착득포살이나 임착포살, 즉 잡으면 바로 포살당하는 경우가 232명으로 가장 많고 임전포살 16명, 착득장살 3명, 효수가 5명이다. 경폐(徑斃)는 15명이다. 경폐란 제 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다는 뜻인데 고문이나 형벌 등으로 형을 집행하기 전에 죽는 것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전투 중의 부상으로 체포되었다가 경폐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²⁷⁾ 심문 뒤 경폐가 10명, 압송 도중 길에서 경폐한 동학농민혁명군이 3명이다.

경군으로 압송 당한 동학농민혁명군은 24명이다. 영광의 경우 “박인지(朴仁之)등 10명은 압송당하여 장위대관(壯衛隊官)에게 넘겼다.”고 하여 장위영(壯衛營)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다. 장위영은 1888(고종 25)년에 친군영(親軍營)의 전영(前營)과 좌영(左營)을 합친 군영으로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는 데 동원되기도 하였다. 일군으로 압송된 경우는 11명인데 이 가운데 1명은 포살당하였다. 그리고 순창소모관이 포착한 2명은 일군에게 압송되는데 전봉준과 양해일이다. 해당 고을의 감옥에 구금되는 경우는 142명으로 이 가운데 139명은 죄의 경중을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했다고 적고 있다.

특이한 경우로 “광주(光州) 접괴(接魁) 전유창(全有昌)의 처(妻) 이소사(李召史, 조이)와 박사집(朴士集)의 아들 문구(文句)는 해당 읍의 옥에 가두고 그 아비와 남편이 나타나도록 독촉”한다는 내용이다. 동학농민혁명군 지도자로 일정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와 아들을 체포하여 구금함으로써 당사자가 나타나도록 독촉하고 있다.

26) 규장각 해제문에는 “光州·潭陽 등 17個處의 東徒가 官軍에 捕捉되어 砲殺된 數(391名)와 官軍의 戰死者數(157名)와 官軍의 所獲汁物(大砲碗鳥銃, 火藥, 假馬牌, 偽造紀牌·白牌 旗等)이 邑別로 收錄되어 있음.”으로 설명하고 있다.

27) 동학농민혁명종합정보시스템의 국역문에는 “경폐(徑斃) : 사형이 선고된 자가 집행 전에 자살하는 것을 말한다.”는 주석이 있다. 그런데 『1895년 동도책』(奎17190) 경양역조의 “捉得押上之路 因病徑斃”라는 표기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

나주 관련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자. 『1894년 동도책』에 나주 기록은 3건이다. 전라우영[우진영]과 나주목, 그리고 남평현에 관한 내용으로 전라우영 4명, 나주 41명, 남평 10명 등 나주 관내에서 55명의 동학농민혁명군이 포착당하였다. 전라도 각읍 포착 동학농민혁명군의 11.3%에 해당한다. 전라우영으로 압송된 동학농민혁명군은 33명이다. 17개 관 평균 29명을 상회하고 있다. 나주권 55명 가운데 포살당한 동학농민혁명군 27명, 경폐 1명 등 순도가 29명이다. 포살은 임전포살(臨戰砲殺)과 착득포살(捉得砲殺)로 구분하고 있다. 임전포살은 전투 중에 포살당한 것이다. 착득포살은 임착포살(臨捉砲殺)이라고도 표기하고 있는데 전투하다가 붙잡혀서 포살을 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주권의 포살당한 동학농민혁명군 가운데 16명은 임전포살이다. 전라도 각읍 총 포착 486명 가운데 임착포살[착득포살]이 232명으로 47.4%에 이르는데, 나주만 임전포살이라는 점에서 나주 지역에서는 동학농민혁명군과 나주수성군 사이에 전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우진영에 잡아 가둔 정동관(鄭同寬)은 12월 12일에 잡았는데 경폐하였음. 이귀표(李貴杓)와 박동만(朴東萬), 박정원(朴正元)은 여황(餘惶), 평리(平里), 북암(伏巖) 등 3개 면에서 잡았다기에 죄의 경중을 참작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음.²⁸⁾

남평(南平) 적도(賊徒) 10명을 12월 초10일에 잡았는데, 그 가운데 5명은 쏘아 죽였음. 접주 나홍집(羅鴻集), 허재중(許在仲), 박신환(朴信煥), 박덕기(朴德己), 김사현(金士玄)은 전라우영 진영에 압송하여 죄의 경중을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²⁹⁾

28) “右鎮營 捉囚 鄭同寬 十二月 十二日 捉得徑斃 李貴杓 朴東萬 朴正元 餘惶 平里 伏巖 三面 捉得 使之分輕重酌處”(『1894년 12월 동도책』)

29) “南平 賊徒 十名 十二月初十日 捉得內 五名 砲殺 接主 羅鴻集 許在仲 朴信煥 朴德己 金士玄 押送 右鎮營 使之分輕重酌處”(『1894년 12월 동도책』)

나주(羅州) 동오면 의거소(東五面義學所)에서 잡은姜道守(姜道守)와 정사심(鄭士心) 및 이화삼(李化三) 등 13명은 싸울 때에 쏘아 죽였음. 한달문(韓達文)과 주심언(朱心彦) 등 14명은 전라우영 진영에 압송하여 엄중히 조사해서 실정을 파악하도록 하였음. 두동(豆洞) 통수(統首)가 잡은 접주 최국서(崔局西) 등 3명은 싸울 때에 쏘아 죽였음. 죽포(竹浦)에서 잡은 2명과 오산(吾山)에서 잡은 1명 및 여황(餘皇)에서 잡은 3명을 잡을 때에 쏘아 죽였음. 삼가(三加)에서 잡은 2명과 도림(道林)에서 잡은 1명 및 용문(用文)에서 잡은 2명은 전라우영 진영에 압송하여 넘기고 죄의 경중을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³⁰⁾

다음으로 1895년 1월 호남초토사 보고문서는 표제가 『전라도각읍소획 동도수효급장령성명병록성책(開國五百四年正月 日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爻及將領姓名竝錄成冊)』³¹⁾이다. 1895년 1월 호남초토사 민종렬이 전라도 각지에서 체포한 동학농민혁명군들의 성명과 수효, 그 처리사항, 노획품의 수량과 그 노획자 이름 등을 중앙에 보고하기 위하여 기록한 자료이다. 체제는 중요 인물인 경우에는 성명을 적고 구체적인 처리 요지를 적고 있으며 그밖에는 수효와 처리사항을 적고 있다. 체포당한 동학농민혁명군의 관직과 성명을 함께 기록한 경우도 보인다. 전라도 각지의 농민군 진압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이 문서를 작성한 시기는 보고 내용이 1월 3일부터 1월 22일까지인 것으로 보아 1월 22일 이후로 볼 수 있다. 1894년 12월 문서의 작성이 12월 15일~22일 사이이므로 한달 정도 간격을 두고 보고를 한 것이라 하겠다. 1894년 12월에 보고하지 못한 3회(12. 22., 12.25., 12.29)의 처리사항을 함께 보고하고 있다.

1895년 1월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13개소 군현, 법성진과 임자진 등 수군진, 벽사역과 경양역 등 찰방역 등 16개관에서 모두 188명의 동학

30) “羅州 東五面義學所 捉得 姜道守 鄭士心 李化三 等十三名 臨戰砲殺 韓達文 朱心彦 等十四名 押送 右鎮營 使之嚴覈得情 豆洞 統首 捉得 接主 崔局西 等三名 臨戰砲殺 竹浦 捉得 二名 吾山 捉得 一名 餘皇 捉得 三名 臨捉砲殺 三加 捉得 二名 道林 捉得 一名 用文 捉得 二名 押付右鎮營 使之分輕重酌處”(『1894년 12월 동도책』)

31) 규장각 소장(奎17190). 이하 『1895년 동도책』으로 표기. <동학정보>에 정서본과 국역문을 소개하고 있다.

〈표 10〉 1895년 1월 전라도 각읍의 동학농민군이 포착당한 현황

군현	鎗營押送		砲殺			徑斃		京軍				召募所 押去	日軍所與			牢囚該邑獄			계
	使之分 輕重酌 處	使之嚴 覈得情	臨戰砲 殺	捉得砲 殺	捉得物 故	經訊後 徑斃	押上中 路徑斃	砲殺	押送	巡營	先鋒陣		砲殺	梟警	押去	捉得	使之分 輕重酌 處	使之嚴 覈得情	
광양															49			49	
무장																1		1	
부안								2	3			1		3			9	18	
금구										5								5	
장성		1																1	
능주				1	4										8	1		15	
남평		1														2		3	
만경											1							1	
동북		2																2	
함평		1															11	12	
보성																	3	3	
무주															5			5	
법성진		2															3	5	
백사역											39						1	62	
경양역							1											1	
임자진																	5	5	
계	-	7		1	4		1	2	3	5	40	1		3	63	3	33	188	

농민혁명군이 포착당하였다. 『1894년 동도책』에서는 전라우영이 있었고 군현 외에 망운목장이 있었는데, 『1895년 동도책』에서는 수군진과 찰방역이 포함되고 있다. 그리고 남평, 능주, 동북, 무장, 함평 5개 군현은

2종의 문서에 함께 나타난다. 장흥 벽사역이 62명으로 가장 많고 광양 49명, 부안 18명, 능주 15명, 함평 12명 순이다. 나주권은 나주 우영 압송은 7명, 남평 3명이다. 남평은 다음 내용이다.

남평(南平) 동도 이학순(李學淳)과 박천수(朴千洙)는 1월 16일에 잡아서 가두고 영(令)을 내려 경중을 가려서 조치하도록 했다. 거괴(巨魁) 백정(白丁)인 치성(致成)은 20일에 잡아 진영에 압송하여 넘기고 엄중히 조사하여 실상을 파악하도록 하였음.³²⁾

유형을 살펴보면 해당 군현에 착득(捉得)당한 동학농민혁명군이 63명으로 가장 많다. 『1894년 동도책』에서는 ‘착득포살’ 또는 ‘임착포살’이라 하여 체포되면 포살 당하는 경우가 전체 486명 가운데 232명으로 높은 비율이었는데, 『1895년 동도책』에서는 ‘착득’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앞의 문서처럼 ‘포살’이 포함되었는데 표기만 이렇게 한지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해읍(該邑)에서 감옥 가두고 ‘죄의 경중을 참작하여 처리[使之分輕重酌處]’하는 경우와 ‘엄정하게 조사해서 실정을 알아서 처리[使之嚴覈得情]’하는 경우가 각각 3명과 33명이다. 『1894년 동도책』에서는 ‘죄의 경중을 참작하여 처리[使之分輕重酌處]’하는 농민군이 139명이었고 후자의 경우는 없었는데, 차이를 보인다.

경군으로 압송된 경우는 1894년 12월에 비해 늘어난다. 『1894년 동도책』에는 장위대관이라 하여 한군데만 명기되고 있는데, 1895년 1월 문서에서는 순영(巡營)과 선봉진(先鋒陣)이 보인다. 특히 장흥에 있는 벽사역에서는 우선봉의 지시에 따라 39명의 동학농민혁명군이 포살당한다.

또 하나 눈에 띄는 표기는 ‘징방(懲放)’이다.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되 놓아주는 처벌이다.³³⁾ 이 ‘징방’은 ‘임전포살(臨戰砲殺)’이 없는 점이나

32) “南平 東徒 李學淳 正月 十六日 捉囚筋 使分輕重酌處 朴千洙 巨魁 屠漢 致成 二十日 捉得 押付右鎮營 使之嚴覈得情”(『1895년 동도책』)

33) 『고종실록』에서도 懲放과 함께 嚴棍懲放, 竝棍懲放, 嚴懲放送, 嚴刑懲放 등의 용어가 보인다. (『고종실록』30권, 고종 30년[1893년] 11월 17일 辛未조 등)

‘경폐’도 압송중 로상 경폐 1명에 지나지 않은 점 등과 비교하여 1894년 12월과 1895년 1월의 동학농민혁명군 토벌과 압송, 처형은 일정 정도 차이가 있다. 우선은 동학농민혁명군 주요 지도자는 1894년 12월에 체포되어 압송당하거나 처형당하였고, 그에 따라 호남초토영 권에서는 전투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³⁴⁾

4. 일본 동학토벌대 기록으로 본 압송과 학살

일본 동학토벌대로 동학농민혁명군 학살에 참여했던 일본군 후비보병 부대의 쿠스노 비요키치[楠美代吉] 상등병이 남긴 『중군일기[明治二十七年日清交戦従軍日誌]』가 2012년 3월에 발견되었다. 그해 박맹수 교수에 의해 국내에 일부가 소개되었다가 최근 전문이 소개되었다.³⁵⁾ 1894년 7월 23일부터 1895년 12월 9일까지의 일기이다.

이 일기에는 체포한 동학농민군을 죽이는 방법으로는 현장에서 즉각 ‘총살’하는 것은 기본이었으며, ‘돌살(突殺)’과 ‘타살(打殺)’,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살(燒殺)’마저 거리낌 없이 자행한 사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 ‘돌살’은 총에 대검을 착검하고 돌격하여 찔러 죽이는 것이고, ‘타살’

34) 한편, 나주목사 민종열이 전주 화약 직후 귀가하는 동학농민혁명군 32명을 살해 한 적이 있다.(배항섭, 「한말 나주 지역의 사회운동」, 『나주의 재발견』-천년의 역사문화도시-, 나주시, 2018, 100쪽)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군 지도자는 나주로 압송당하였다가 이송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경선은 1894년 12월 3일 동복에서, 전봉준과 양해일은 12월 7일 순창에서, 손화중은 12월 11일 고창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당하였다가 다시 서울로 압송당하였다.(『東學亂記錄』上(한국사료총서 제10집) 이같은 전반적인 체포, 압송, 이송 등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5) 이노우에 카츠오(井上勝生), 「東学党討伐隊兵士の従軍日誌」-『日清交戦従軍日誌』徳島県阿波郡-, 『人文学報』第111號,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 2018.3, 65~91쪽
박맹수,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기록」, 『한국독립운동사연구』6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8, 203~228쪽.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당의 상황: 폭민 동학당; 메이지 27년 일청교전 중군일지』-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14-, 2022.

은 총이나 몽둥이 등으로 때려 죽이는 것, ‘소살’은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이다. 동학농민혁명군 탄압에 동원된 이 같은 학살 방법은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잔인성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 아닐 수 없다.³⁶⁾

『중군일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동학토벌대의 학살 현황을 <표 11>로 작성해 보았다. 동학 토벌대는 인천에서 출발해 인천, 청풍, 문의, 충주, 김천, 안의를 거쳐 남원, 곡성, 동복, 능주, 장흥, 해남, 나주를 거친다. 전체 1,600명 이상³⁷⁾이고 체포구금이나 추방을 제외하면 1,300명 이상이 처형당하거나 전사 순국한다. 이 가운데 총살당한 동학농민혁명군은 900여명에 이른다. 능주나 장흥에서는 수십명이라 하여 헤아리기 어렵다. 소살은 46명, 돌살은 7명, 타살은 51명이다. 전사 순국은 328명으로 집계된다.

나주의 경우는 1895년 2월 4일에서 2월 7일 사이 머물다가 2월 8일 북문을 거쳐 광주로 이동한다. 2월 4일 기록에 남문 부근의 작은 산에 시체가 산을 이룬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장흥 전투(1.8~1.10)의 중죄인을 죽인 것이 매일 12명씩 103명을 넘었다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시체를 버린 것이 680명이고 악취가 진동하고 땅은 죽은 사람의 기름에 뒤덮혀 하얀은[白銀]처럼 얼어붙어 있었고 시신은 개나 새들의 밥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산을 이루는 시체는 제하고라도 783명이 학살된 현장을 기록하고 있다.

2월 5일 기록에는 나주 병참감에서 대구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하달된다. 이날은 해남 북부에 호랑이를 잡으러 가서 6척의 암호랑이를 잡았다는 기록도 남긴다. 2월 6일에는 동학농민전쟁이 진정되기에 이르러 토벌대의 장교와 병사들이 조선군대와 나주목사가 참여하는 이별회를 하는 내용을 적고 있다. 조선인 경예자(輕藝者)가 참여한다. 나주에서만 8백여명에

36) 박맹수,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기록」, 위 논문 206쪽.

37) 『중군일지』에는 수십 명 또는 수백 명, 7~80명 등 정확한 수치를 헤아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7~80명은 80명, 수십은 10명, 수백은 100 등 최소 수치를 기준 수치로 하여 합산하였다. 실제로는 훨씬 상회할 것이다.

이르는 동학농민혁명군을 학살하고도 경예자가 참여하는 이별회를 나주 목사와 함께 했다는 것은 학살의 주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표 11〉 『종군일지』에 나타난 동학토벌대에게 학살당한 동학농민혁명군 현황
(1894.11~1895.2)

지역	총살	燒殺	突殺	打殺	전사	격퇴	체포 구금	추방	계	불지름	일자
이천	1						13		14	○	1894.11. 14
가흥	1				18				19	○	11.17
청풍										○	11.21
제천	1								1		11.22
청풍										수10호	11.23
문의						○					12. 2
옥천										수 100호	12. 3
충주	1								1		12.13
상주								1	1		12.16
개령	수십								수십		12.18
김천	10								10		12.19
안의	8								8		12.23
남원										○	12.29~30
곡성		10							10	○	12.31
옥과	5								5		1895.1.2
동복							15		15		1.3
능주	20/수십						5-60, 수백		7~80 수백		1.5~6
이양원					10				10	4~50호	1.7
장흥	37/수십	36		51	300		41-51	8	493 이상		1.7~14
해남	16		7				3		26	1	1.27~2.2
나주	103/680								783		2. 4~2.7
계	897	46	7	51	328		312	9	1,650		

동학농민군의 학살에는 조선의 장위영군이나 경리청군 등의 경군과 각 군현의 수령, 유회군(儒會軍), 민군(民軍) 등도 동참하였다. 이 가운데 처형은 주로 조선의 경군과 지방관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처형의 여부 결정은 당시 작전 지휘권을 가졌던 일본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또 일본군이 직접 처형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유회군과 민군은 혐의자들을 붙잡아 경군과 지방관에게 넘긴 경우가 많았다.³⁸⁾

5. 맺음말

이상에서 동학농민혁명군 지도자와 동학농민군의 체포와 압송, 그리고 처형 학살당한 내용에 대해서 나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호남초토영 문서, 일본 토벌대 기록 등 세가지 관점에서 살폈다. 한정된 자료이지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당대의 사회상을 이해하고 시대 정신을 읽어 보려 한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된 동학농민군은 모두 3,696명이다. 이 가운데 1894년 당시 전라도 56관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나주를 중심으로 살폈다. 군현 단위로 가장 많은 곳은 장흥으로 386명이고 나주가 254명으로 두 번째로 많다. 나주 254명 가운데 출생연도가 확인된 사람은 72명이다. 나주권 전투 참전자는 63명, 나주로 압송되어 처형당한 동학농민혁명군은 9명이다. 순국 연도가 확인된 사람은 118명이다. 이 가운데 5명은 ‘1894년’, 1명은 ‘1895년’으로 연도만 확인된다. 1894년의 순국자는 86명으로 나주권 전투 참전자가 12명, 나주로 압송되어 처형된 자는 74명이다.

나주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순국’ 유형은 참전자는 전투 중에, 압송자는 처형당한 것이 대부분이다. 나주의 경우에는 참여자 등록 254명

38) 박찬승, 「동학농민전쟁기 일본군·조선군의 동학도 학살」, 앞 논문, 57쪽.

가운데 처형자는 86명으로 33.9%에 이른다. 이 가운데 총살 67명, 처형 16명, 효수 1명, 화형 1명, 살해 1명 등이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된 3,696명 가운데 총살로 처형된 참여자는 641명으로 17.3% 비율인데 나주의 경우는 33.9% 비율로 두배나 높다. 날짜가 밝혀진 나주 압송자가 81명인데 이 가운데 66명, 81.4%가 같은 날 총살형으로 처형되어 순국하였다.

다음으로 호남초토영의 동학농민군 포착[포살] 관련 문서는 1894년 11월과 1894년 12월, 그리고 1895년 1월에 보고한 3종이 있다.

첫 번째 문서는 4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의 동학농민혁명군 포살과 노획한 줍물, 전투에 참여한 출전 장령 성명질 등을 정리한 문서이다. 지금까지 나주 지역 내에서 동학농민혁명군의 접전에 대한 기록은 있었으나 포살 수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문서를 통해서 765여명의 동학농민군이 희생되었음을 처음 확인한 것이다. 4월 26일 무안 경계에서 생금 30명 중 3명 우진영 효경(梟警), 27명 자읍결과(自邑結果), 7월 5일 서문 포살 109명, 10월 21일 광주 침산, 사창 포살 23명, 11월 11일 적량 용진산 포살 21명, 11월 17일 수다면 호장촌 포살 86명, 천답사(踐踏死) 43명, 고막포교변 낙수사(落水死) 수백명, 11월 24일 금안면 남산촌과 이로면 하촌 포살 353명 등이다. 이 765여명의 희생자는 일본토벌대가 나주에 오기 전의 일이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1894년 4월~11월 나주 지역 동학농민혁명군이 소지한 줍물 현황을 알 수 있다. 동경대전이나 염주 등 교리류, 식기, 각향문축상자와 명록성책 등 문서류, 의류, 휴대용구, 천보총과 화약 등 무기류, 형별구, 운송구, 각색기(各色旗)와 대기(大旗) 등 군례류, 농악기, 농기구 등 50종에 이른다. 또 한가지 특기할 사항은 동학농민혁명군을 토벌하기 위해 초토군으로 나선 출전 장령 성명질이 전투지별로 기록되고 있다. 나주목의 수성군과 호남초토영군, 호장 등이서집단, 면 의거소 영수 등 23종의 직임과 함께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 문서는 12월 15일 경 작성한 문서로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17개 관에서 포착한 동학농민군의 수효와 처리과정을 기록한 문서이

다. 유형을 살펴보면 착득포살(捉得砲殺)이나 임착포살(臨捉砲殺), 즉 잡으면 바로 포살하는 경우가 232명으로 가장 많고 임전포살 16명, 착득장살 3명, 효수가 5명이다. 경폐(徑斃)는 15명이다. 경군 장위대관(壯衛隊官)으로 압송된 농민군은 24명이다. 해당 고을의 감옥에 구금되는 경우는 142명으로 이 가운데 139명은 죄의 경중을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했다고 적고 있다.

나주 관련 내용은 전라우영 4명, 나주 41명, 남평 10명 등 55명이 포착되었다. 전라도 각읍 포착 농민군의 11.3%에 해당한다. 전라우영으로 압송된 동학농민혁명군은 33명이다. 17개 관 평균 29명을 상회하고 있다. 나주권 55명 가운데 포살 27명, 경폐 1명 등 사망이 29명이다. 나주권 포살 농민군 가운데 16명은 임전포살이다. 전라도 각읍 총 포착 486명 가운데 임착포살[착득포살]이 232명으로 47.4%에 이르는데, 나주만 임전포살이라는 점에서 나주 지역에서는 동학농민군과 나주수성군 사이에 전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1895년 1월 보고문서는 1894년 12월에 보고하지 못한 3회(12.22., 12.25., 12.29)와 1월 3일부터 1월 22일까지 처리한 내용으로 16개관에서 모두 188명이 포착되었다. 남평, 능주, 동복, 무장, 함평 5개 군현은 1895년 12월, 1896년 1월 등 2종의 문서에 함께 나타난다. 벽사역이 62명으로 가장 많고 광양 49명, 부안 18명, 능주 15명, 함평 12명 순이다. 나주권은 나주 우영 압송은 7명, 남평 3명이다.

유형을 살펴보면 해당 군현에서 착득(捉得)한 농민군이 63명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해읍(該邑)에서 감옥 가두고 ‘죄의 경중을 참작하여 처리[使之分輕重酌處]’하는 경우와 ‘엄정하게 조사해서 실정을 알아서 처리[使之嚴覈得情]’하는 경우가 각각 3명과 33명이다. 경군으로 압송된 경우는 1894년 12월에 비해 늘어나 순영(巡營)과 선봉진(先鋒陣)이 보인다. 특히 벽사역에서는 우선봉의 지시에 따라 39명이 포살된다.

일본 동학토벌대로 동학농민혁명군 학살에 참여했던 일본군 후비보병 부대의 쿠스노키 비요키치[楠美代吉] 상등병이 남긴 『중군일지』는 1894

년 7월 23일부터 1895년 12월 9일까지의 일기이다. 체포한 동학농민군을 현장 ‘총살’, ‘돌살(突殺)’과 ‘타살(打殺)’, ‘소살(燒殺)’을 자행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학살 방법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성이 있다.

동학토벌대에 의한 동학농민군의 희생은 전체 1,600명 이상이고 체포 구금이나 추방을 제외하면 1,300명 이상이 처형되거나 전사한다. 이 가운데 총살은 900여명에 이른다. 소살은 46명, 돌살은 7명, 타살은 51명이다. 전사는 328명으로 집계 된다. 나주의 경우는 1895년 2월 4일에서 2월 7일 사이 머무는데 남문 부근의 작은 산에 시체가 산을 이룬다고 적고 있다. 장흥 전투(1.8.~1.10)의 중죄인을 죽인 것이 매일 12명씩 103명을 넘었다고 하였다. 시체를 버린 것이 680명이라 하여 수치상으로 783명이 학살된 현장을 기록하고 있다. 2월 6일에는 동학농민전쟁이 진정되기에 이르러 토벌대의 장교와 병사들이 조선군대와 나주목사가 참여하는 이별회를 하는 내용을 적고 있어 학살의 주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이 글이 앞으로 경군이나 일본군의 문서, 유학자 등의 기록과 비교 검토하여 동학농민혁명군의 희생과 순도(殉道), 순국(殉國)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밝힐 수 있는 한 계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³⁹⁾

〈참고문헌〉

『포살동도수효급소획즙물병록성책(砲殺東徒數爻及所獲汁物并錄成冊)』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구 630)

『전라도각읍소착동도수효급소획즙물병록성책(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爻及所獲汁物并錄成冊)』(규장각 소장,奎17189)

39) 이 글은 본책 3부에 실린 ‘나주동학농민혁명군 관련 연표와 참여 인명록’, ‘나주동학농민혁명기 호남초토영군 출전장령성명질(出戰將領姓名秩)’과 관련이 있으므로 참고 바란다.

『전라도각읍소획동도수효급장령성명명록성책(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文及將領姓名竝錄成冊)』(규장각 소장, 奎17190)

『경국대전』(1485년)

『호구총수』(1789)

『동학란기록』(下)(국사편찬위원회, 1955)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1』(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김정호 편저, 『지방연혁연구-전남을 중심으로-』, 광주일보출판국, 1988.

나주시 ·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나주동학농민혁명 한
· 일 국제학술대회-한恨에서 흥興으로 승화하다-』, 2019.10.3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 농민군 편지; 동학농민혁명 관련 고문서;
춘당록』-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11-, 2019.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당의 상황; 폭민 동학당; 메이지 27년 일청
교전 종군일지』-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14-, 2022.

윤여정 엮음, 『대한민국 행정지명』1, 전남 · 광주 편, 향지사, 2009,

이상식 편저, 『동학농민혁명과 광주 · 전남』, 광주 · 전남 동학농민혁명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1994.

이상식 · 박맹수 · 홍영기, 『전남동학농민혁명사』, 전라남도, 1996.

강효숙, 「제2차 동학농민전쟁과 일청전쟁」, 『역사학연구』 762호, 淸穆書店,
2002.5

김봉곤, 「동학농민혁명기 나주 수성군의 조직과 활동」, 호남사학회, 『역사
학연구』79, 2020, 61~96쪽.

김희태,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유산 활용방안」, 『나주동학농민혁
명 한 · 일 국제학술대회-한恨에서 흥興으로 승화하다-』, 나주시
·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9.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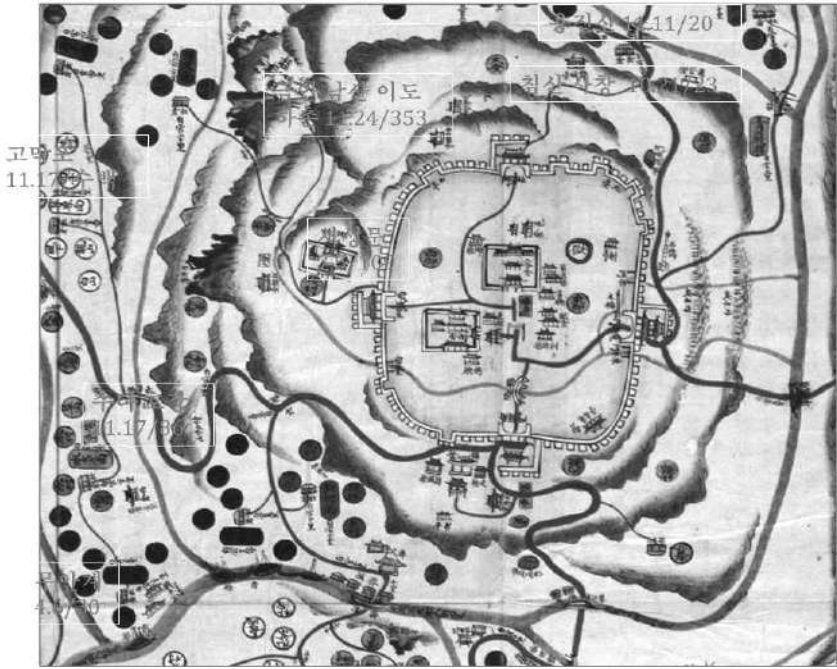
김희태, 「동학농민군의 나주 압송과 처형」, 『나주 동학농민혁명 재조명과
세계시민적 공공성구축』-자료구축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원
불교사상연구원 · 나주시, 2020.10.28., 105~119쪽.

- 나천수, 「동학농민군의 나주지역 공략과 민종열 초토사의 방어를 다시보다-「금성정의록」과 『난파유고』 기록 등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82,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9, 317~354쪽.
- 박맹수,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기록」, 『한국독립운동사연구』6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8, 203~228쪽
- 박이준, 「『금성정의록』을 통해 본 1894년 농민전쟁과 나주」, 『나주시사』, 2006.
- 박찬승, 「동학농민전쟁기 일본군·조선군의 동학도 학살」, 『역사와 현실』 54, 한국역사연구회, 2004, 21~60쪽.
- 배항섭, 「1894년 무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古幕浦 전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5, 2015.
- 배항섭, 「나주지역 동학농민혁명과 향리층의 동향」, 『동학연구』 19, 2005.
- 배항섭, 「제1차 동학농민혁명 시기 농민군의 진격로와 활동 양상」, 『동학연구』 11, 2002.
- 배항섭, 「집강소 시기 동학농민군의 활동양상에 대한 고찰」, 『역사학보』 153, 1997.
- 배항섭, 「한말 나주 지역의 사회운동」, 『나주의 재발견』-천년의 역사문화도시-, 나주시, 2018, 100쪽)
- 신영우, 「1894년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 『역사와 실학』 35, 역사실학회, 2008.6, 117~145쪽.
- 이노우에 카츠오[井上勝生], 「東学党討伐隊兵士の従軍日誌」-‘日清交戦従軍日誌’ 徳島県阿波郡-, 『人文学報』第111號,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 2018.3, 65~91쪽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누리집[<http://www.1894.or.kr>]

동학농민혁명사료(史料)아카이브[<http://e-donghok.kr/archive/>]



동학농민혁명기 1894년 4월~11월 나주 관내 전투 현황도
(규장각 소장(奎10483) 1872년 나주지도 인용 편집)

2부
나주동학농민혁명,
한(恨)에서 흥(興)으로

日本軍と羅州東学農民革命

井上勝生

(日本 北海道大学 名誉教授)

1. はじめに
2. 日本軍の、東学文書分捕りー全羅南道の事例
3. 全羅南道東学農民軍と日本軍羅州入城
4. 全羅南道東学農民軍と公州戦争以後の東学農民革命
5. 全羅南道、後半期東学農民革命の歴史的意義を新しく検証するために

1. はじめに

私は、『東学農民革命100年』(全北日報、1995年)や、『分かりやすい全南東学農民革命』(全羅南道、1996年)などを読んだ。羅州や全羅南道の第2次東学農民革命について多くを学ぶことができた。ただし、執筆者の方々は、東学農民軍側が残した史料は、きわめて少ないことをくり返し指摘している。そのため、ほとんどは反農民軍側の資料から、現地調査を進めざるをえない、と。

第2次東学農民革命の通史的な叙述を成し遂げるには、まだ残された課題も多い。そういう指摘がされている。私も、これからの研究課題について、日本側から報告したい。

2. 日本軍の、東学文書分捕りー全羅南道の事例

課題を残したことについて、日本側に、大きな責任がある。

第2次東学農民革命の時、日本軍は、討伐作戦の全期間を通して全軍に、東学農民軍の地域指導者を銃殺し、あるいは捕らえ、機密書類を奪い、日本公使館へ送れという命令を出していた。珍島郡や全州市で開催されたシンポジウムで、それについて報告した。

ここで、事例を挙げよう。

1894年 12月 2日、日本軍討伐部隊小隊が忠清道靑山郡文岩邑を襲撃した。日本軍は、東学第2代教主、崔時亨の潜伏を察知したのである。崔時亨は、襲撃を探知して深夜逃走した。日本の新聞記事『宇和島新聞』に、従軍した一兵卒の手紙が掲載されていた。

「書類2行李、牛馬10頭を分捕り、その夜、また文岩を夜襲したけれども、東学農民は一人も居らず、そのため火を放ってこれを灰燼とし」。

兵卒の手紙によれば、崔時亨は、日本軍の襲来を前もって探知した。日本軍は文岩邑で牛馬10頭を分捕った。夜襲で東学農民は皆逃げていたので、日本軍は、文岩邑を焼き払って「灰燼」にした。日本軍は、真冬に村落を焼き払った。そして崔時亨の「書類2行李(こり)」を分捕った。

日本軍将校は「行李」を持っていた。討伐大隊の大隊長、南小四郎少佐が使用していた署名入り軍用行李が、南小四郎文書とともに、今、山口県文書館(山口市)に寄贈されている。私は、行李の大きさを問い合わせた。縦23センチ、長さ67センチ、横32センチであった。現在の最大の旅行トランクの大きさである。紙の文書であれば、数百点から千点も入る大きさである。日本軍が崔時亨文書を運んだ行

李は、もっと大きい、日本軍のいわゆる「大行李」だったかも知れない。いずれにせよ、崔時亨所有の大量の文書が、本来、存在したのだが、日本公使館へ送られて、現在、行方不明である。

全羅南道で同じ事が起きた。1895年 1月 12日。農民軍討伐部隊第1中隊、一兵士が「従軍日誌」を記していた。この「従軍日誌」は、日本の徳島県で見いだして、所有者子孫側の了承を得て、日本の学術誌(『人文学報』京都大学人文研)に全文を公表した。

「12日、8時 30分、第2分隊(日誌筆者の分隊)は、月林洞にある大接司、李法軒の家屋搜索のために派遣された。・・・月林洞に至ると、李法軒の家宅に着いて見るに、風を食らい、同人、遁走して不在である故、秘密の書類若干を得て、家屋に火を放ち、捨ててある牛馬を6頭、分捕り」

月林洞は、長興城から、眠峠を南へ越えた南山面の村である。長興農民軍の指導者、有名な李芳彦の家があった。李芳彦も、機密文書を日本軍に奪われた。状況は、崔時亨潜伏の場合とよく類似している。李芳彦は、襲撃を知って逃走し、日本軍は、牛馬を6頭分捕り、家屋を焼き払った。

同じ「従軍日誌」は、1月 29日、西の海南で農民軍指導者が襲撃されたとも記した。

我2分隊(やはり筆者の分隊)は、東徒(東学農民軍)捕縛の命あり、午前7時 30分出発。3里去る所に道一洞あり・・・直ちに彼の東徒接司の家に至りしに、早くも遁走、不在の故、家宅に火を放ち、書類および太鼓などを我が中隊まで持ち帰り

これは、海南東学農民軍指導者に対する襲撃であり、「道一洞」の

場所が私には分からなかったが、家屋を焼き払い、書類と太鼓(東学農民軍の象徴)を奪っている。

同「従軍日誌」の1月 8日、日本軍が大激戦のすえ、長興城へ突入した時に記された分捕り品、「紙無量(大量の紙)」も東学農民軍書類である可能性が高い。このように、東学農民軍文書分捕りの事例は日本軍の残した記録各所に記されている。日本軍は、朝鮮南北全土で、農民軍指導者を徹底的に探索し、文書を分捕り、日本公使館へ送った。

これらの例を見ると、東学農民軍指導者の機密文書は、本来、豊富に存在したと思われる。この事実自体、東学農民軍の組織水準の高さを検討する際に、重要な事実であろう。東学農民軍の貴重な文書、すなわち「歴史」も、日本に奪われたのだと思う。

3. 全羅南道東学農民軍と日本軍羅州入城

朴孟洙さんと、私は、日本の防衛研究所図書館所蔵文書を共同で調査した。共同調査を手掛かりに、私は、東学農民軍討伐大隊大隊長、南小四郎文書を見いだした。

南家の墓を知ることができ、くり返しご子孫に電話連絡をしていたが、ご高齢のため、お宅を訪ねることを許されなかった。大学を停年退職する、数日前、ようやくお宅を訪問することを認めていただいて、保管されていた南小四郎文書を見せていただいた。ご子孫は、この史料が貴重な歴史資料だということを、よく理解された。今、南小四郎文書は、山口県文書館に寄贈され、一般に公開されている。

南小四郎文書に、「東学党征討経歴書」がある。討伐作戦が終わっ

たその年の作成で、命令の発令、部隊の移動、司令部からの電報などを、簡明、端的に記している。

南小四郎と討伐大隊、後備歩兵第19大隊が、羅州城に入る部分を紹介しよう。

同4日(1895年 1月 4日)、光州出発、柳林村を経て、同5日、羅州城着、舎営。

この日、靈巖、康津、長興、宝城、綾州の各地より、賊徒(東学農民軍)跋扈、人民を殺害するのみならず、就中、長興府使を銃殺した旨の飛報、あいついで至る。

よって、(東学農民軍の)討滅に関する部署をなす。

同6日、石黒大尉に、教導中隊の一小隊を付して、康津方面に。

白木中尉に、教導中隊の二小隊を付して、長興方面へ出し、賊徒(東学農民軍)勦滅に従事せしむ。

松木支隊へ綾州出発、宝城の賊(東学農民軍)を攻撃すべき命令を下す。

壮衛營兵100名を務安方面に、統衛營兵一大隊を咸平、務安、海南方面に出す。

咸平にある鈴木特務支隊より賊情および、滞陣に関する報告を受ける。

よって同支隊へ海岸にある賊徒勦滅に着手、および支隊が滞陣すべき命令を下す。

この日(9日)より、捕虜取調を始む。

記録から、史実が浮かび上がる。

1895年 1月 5日、日本軍討伐大隊が、羅州城に入る。日本軍は、光州から、途中、柳林村を通ってきた。検証が必要だが、当時の羅州郡老安面の柳林村とすれば、光州から西へ出て、黄龍江を渡り、北方から羅州城へ入ったのである。柳林村の約4キロメートル西方

に金安洞がある。これより前、東学農民軍が、錦城山に上がって、羅州城を包囲攻撃するために集結したのが金安洞であった。その近くを進撃したのである。

同日ただちに、全羅南道西部の、靈巖、康津、長興、宝城、綾州の各地で、東学農民軍が戦っていることが、南大隊長にあいついで報告された。

順に見よう。長興では、東学農民軍が、農民軍を激しく弾圧していた府使を銃殺した。史実と一致している。また、知られているように、日本軍が羅州に入る前、羅州をはじめとする全羅南道の東学農民軍が、羅州城を包囲していた。この史実は、これまで韓国でも、南大隊長が残した「講話」記録、「東学党征討略記」などでも、よく知られている。韓国政府・国史編纂委員会が刊行した『駐韓日本公使館記録』6所収の南小四郎「東学党征討略記」という講話(口述)記録である。

「東学党征討略記」は、「我軍の全州に達すると、羅州の県令、急を報じて、救援を求む、頻繁なり」と述べている。同じく、「東学党征討略記」によれば、「匪徒(東学農民軍)数千、日夜羅州城を攻撃し、今は陥落迫れりとの事実を探知」。しかし「道程遙かなため、直ちに往き、これを救うことができない。行軍、たいへんに日数を要した」。そして「各軍(日本軍や指揮下の韓国政府軍など)ことごとく羅州近傍に集まると、東徒(東学農民軍)は、ついに遁走して、靈巖、務安、長興方向に集まった」と。

次のような「東学党征討略記」講話も、「東学党征討経歴書」の記事と一致している。

「我軍(日本軍討伐大隊他)の羅州に入ると、報告、蟄集し、就中、靈巖の県令は、その陥落、旦夕に在り。速やかに来て救えと。又、綾州の県令は、匪徒(東学農民軍)遁走の恐れがある故、速やかに一中隊の先

発支隊を送れと請求し」。

「長興の県令は、今まさに東徒(東学農民軍)に斬られようとしていると知らせた」。

このように、羅州へ「報告、蝟集し」は、「東学党征討経歴書」に、羅州入城の日、「飛報、あいついで至る」と記されているのと、内容も一致している。

4. 全羅南道東学農民軍と公州戦争以後の東学農民革命

「東学党征討経歴書」と「東学党征討略歴」講話を、あわせて検証すると、事態をさらに詳しく再構成できる。

東学農民軍は羅州を包囲していたが、討伐軍の来襲を知って逃走した。今度は、霊巖を陥落させようと包囲していた。綾州では、東学農民軍は行軍中であり、長興では、城を実際に陥落させ、県令を殺害した。南大隊長は、羅州に入ったその日、東学農民軍の大展開を知って、「討滅」の「部署」、部隊の配置をしたのである(「東学党征討経歴書」)。

討滅「部署」の命令は、「東学党征討経歴書」に記されているように、翌1月6日、南大隊長によって、羅州から一斉に発令された。

康津には、石黒大尉の部隊、すなわち討伐大隊第3中隊と日本軍士官が指揮する韓国政府教導中隊が送られた。長興へは、日本軍中尉が指揮する韓国政府軍教導中隊2小隊が、東学農民軍「勦滅」に送られる。綾州と宝城へは松木大尉討伐大隊第1中隊が向かった。

占領された長興へ日本軍が、送られていないように見える。康津に送られた討伐大隊第3中隊と、宝城へ送られた討伐大隊第1中隊が、いずれも西と東から、長興攻撃に展開してゆくのである(「東学党征討経歴書」)。つまり、包囲攻撃している東学農民軍を、日本軍討

伐大隊他が、さらに包囲して攻撃してくる。より詳しく言えば、羅州包囲戦から退去したが、なお靈巖を包囲し、綾州で移動中で、長興を占領しようとしていた東学農民軍を、日本軍を中心とする討伐の諸部隊が、これを、逆に包囲しようと展開していたのである。その直後の約3万名の東学農民大勢力が参加した長興戦闘は、上の「従軍日誌」にも、実に詳しく記されていた。討伐諸軍全軍の総指揮は、明確に羅州の南大隊長が執っていた。

このように、全羅南道では、1895年の厳冬期に入っても、第2次東学農民戦争の大激戦が闘われていた。これを、「第2次東学農民戦争の後半戦」と呼ぶこともできる。また、「公州戦争以後の第2次東学農民戦争」と呼ぶこともできる。

これまで、公州戦争以後、とくに全?準等、主な指導部が捕まって以後の第2次東学農民戦争は、重要視されてこなかった。公州戦争以後は、ただ掃討戦であったという叙述も見られた。日本でのすぐれた研究者である趙景達さんは、「第2次東学農民戦争のクライマックスは二次にわたる公州の戦いであり、これ以後の戦いは、政府軍にとって「掃討戦」にすぎなかったとも言える」(『異端の民衆反乱』1998年)、と叙述している。趙景達さんの研究は、日本で近代史研究者に大きな問題提起をただけに、この叙述については、その研究を発展させるためにも、あらためて問い直さなければならない。

一方、公州戦争以後、全羅南道東学農民革命の継続を強調する叙述もあった。最初に挙げた韓国の2書は、東学農民軍が全羅南道で戦い続けたことを強調していた。近年までの韓国各地での史実の掘り起こしに注目すれば、それが事実である、と思う。

では、公州戦争以後の第2次東学農民戦争の、鎮静どころか、むしろ激化は、どういう歴史的意味をもっていたのであろうか。

5. 全羅南道、後半期東学農民革命の歴史的意義を新しく検証するために

東学農民革命の日・韓の戦いと、日・清の戦争の全体を、日清戦争と見るべきであろう。また、近年の日本の研究では、日本軍が直隸平野、北京侵攻を実現しようとしていたことが、ますます明らかにされている。原田敬一さん『日清・日露戦争 シリーズ日本近現代史③』(2007年)や大谷正さんの『日清戦争』(2014年)などである。日本軍の大本営と現地軍は、ともに、冬季に直隸平野進撃を実現しようとしていた。

そのなかで、全羅南道東学農民軍が、公州戦争以後、最後まで抗日戦争を闘った歴史的意義が浮かび上がってくると思う。私は、かねて北接・忠清道東学農民軍を中心とする抗日蜂起開始の時期に注目してきた。

1894年 10月 25日、忠清北道で、東学農民軍は、鳥嶺北側の安保、忠州、可興の日本兵站部に一斉蜂起した。27日、大本営の川上操六兵站総監が、農民軍を「向後ことごとく殺戮すべし」という命令し、翌日、南小四郎討伐大隊に渡韓の命令が出された。

一方、10月 24日、日本軍第一軍が、鴨緑江を渡河し、第二軍も、24日、花園口に上陸して遼東半島進撃を始めた。東学農民軍全勢力が抗日蜂起を始めたことと、日本軍が、清国領へ侵入を開始したこととは同時に起きていた。清国領へ侵攻し、大戦争へと深入りした日本軍が、抗日蜂起に立ち上がった東学農民軍に「ことごとく殺戮」命令を出したのも、歴史の深い関連があつてのことと考えられる。

さらに、次の点を注意しよう。

11月 26日、井上公使から日本軍在朝鮮兵站部への午後9時 40分の電報である。

黄海道に於ける東学党征討のため、出兵の義、山縣大将より兵站部へ命令された趣、承知した。ついで東学農民軍指導者を捕縛し、書類を押収する事が必要だから、できる限り力を尽し、捕縛、又は押収の上は、取り調べのため日本公使へ送付せよ

その後、夜12時、安東県の小川第一軍参謀長から南部兵站監へ電報が届く。

黄海道海州地方に東学党起こり、去る23日、2千人計り、載寧郡なる我が徴発官を襲った由。事実、不埒千万の事に付き、この際、特に厳酷なる懲戒を加えなければ、我が軍に加える妨害は、終に停止しない。よって速やかに兵站部より出兵、その(東学農民軍の)根本を滅絶するの手段を取られたい。

防衛省防衛研究所図書館所蔵の「南部兵站監部日誌」(1894年 11月から12月)の記事である。日本軍指導者、山縣有朋第一軍司令官が、黄海道東学農民軍にたいする討伐出兵を命じた。それで、井上公使は、東学農民軍指導者を捕らえ、文書を奪い取って、ともに日本公使館へ送ることを命じた。

その深夜、清国安東県に進軍していた第一軍小川参謀長から、農民軍に厳酷な懲戒を加えるようにという電報が来たのである。小川参謀長、小川又治は、山縣有朋の有名な側近で、ともに最前線にいた。小川参謀長電報は、すなわち山縣命令であった。山縣有朋らは、11月 26日、東学農民軍の「根本を滅絶するの手段を取」れ、と命令したのである。いままで注意されてこなかったのだが、これは、大本営川上参謀次長の東学農民軍「ことごとく殺戮」命令とおなじ命令である。

このころ、安東県にいた山縣有朋司令官は、日本広島の本営と

冬季作戦をめぐる、意見がくい違っていた。山縣司令官は、11月に、渤海湾奥、山海関付近へ早期上陸実現という冒険的な進撃を求めたが、大本営は採用しなかった。ところが山縣司令官は、現地司令部の作戦を優先させると主張していた。日本軍大本営も、直隸平野侵攻を冬季作戦で実行する考えだったのだが、その順序や緩急には、食い違いが発生していたのである。

その一因は、直隸侵攻の場合の、ロシア軍の動静への対応策があった。また、もう一つの源因として、日本軍が、補給線の極度の弱体のために、進軍に苦しんでいたことがある。このように、近年の日清戦争の研究は、従来、日本人が持っていた「日本軍、連戦連勝」という歴史像を書き直している。清国が仮に崩壊した場合、清国に利権を持っている欧米から日本軍へ干渉が予想されていた。ロシアは、かならず干渉してくると予想されていた。

実際に下関講和条約が結ばれたとき、ロシアは、欧米をさそって干渉し、ロシア艦隊も集結させて、日本に遼東半島領有を止めさせた。日本がロシアに屈したために、ソウルでは、強硬外交を進めていた井上馨公使の立場が、たちどころに悪化した。井上公使の強硬外交の威信墜落は、みじめなものであった。閣僚はもちろん、井上公使が引き立てた親日派筆頭朴泳孝さえも井上公使に背いた。井上馨を顕彰する伝記『世外井上公伝』すら、「手飼いの犬に手を噛まれた観」(4巻479頁)と記している。「何たる不幸ぞ」、「時運の非であった」(同538・9頁)と、井上馨の惨憺たる朝鮮公使時代を総括している。

日清戦争中、日本軍は、ロシアの圧力を恐れていたために、直隸平野侵攻を冬季の前に短期間で具体化しようとし、しかし、兵站の補給線が弱いために進軍に苦悶し、そうして、指導部は、内部でさまざまな食い違いを演じていた。日本軍の、破竹の「連戦連勝」は、じつは薄氷の上を、懸命に走り続ける、危うい姿であったのである。

そういう東アジアの歴史の背景を考えると、日清戦争の終わりま

で抗日戦争を続けていた黄海道東学農民軍の蜂起は、さわめて重要であろう。

全羅南道東学農民軍は、日清戦争最後まで戦い続けた。全羅南道東学農民軍に対する日本軍の討伐戦は、知られているように、第2次東学農民戦争のなかでも、とりわけ苛酷であった。羅州に入った南大隊長は、羅州を本拠として東学農民軍討伐を総指揮していた。先に紹介した一兵士の「従軍日誌」は、凄惨な討伐状況を、次のように紹介していた。

(羅州城の)南門より4丁ばかり離れた所に、小さき山あり。人骸累重、実に山をなせり。これは前日、長興府の戦後、搜索厳しき故、東学農民軍居所に困難し、日々、我が家に帰ろうとしたのを、彼(朝鮮)の民兵、あるいは我が隊兵(日本兵)に捕獲され、責問(拷問)の上、重罪人を殺し、日々12名以上、103名に登り、よってこの所に屍をすてた者、680名に達した。近所は、臭気激しく、土地は白銀のようで、人油結氷した。

日本の指導部全体は、ロシアを恐れつつも、結果としてロシアなどの力量を過小評価していた。しかし北部朝鮮の黄海道東学農民は、日本の指導部の国際感覚と同じであったであろうか。私は、疑問に思う。全羅南道東学農民軍指導部も、最後まで抗日戦を闘い続けたのだが、同じように、何処かで、日本軍と日本の総合的な力量の危うさを感じ取っていたのだと思う。実際に日本軍は、本来の大目標であった直隸平野作戦を実行できなかった。

東学農民革命の公州戦争以後を、日清戦争終末などとの関係を踏まえて、東アジア史の再検証として、新しく検討し直し、再構成する必要があると思う。

[번역문]

일본군과 나주동학농민혁명

이노우에 카츠오(井上勝生)

(일본 홋카이도대 명예교수)

1. 머리말
2. 일본군의 동학문서 탈취: 전라남도 사례
3. 전라남도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의 나주 입성
4. 전라남도 동학농민군과 공주전쟁 이후의 동학농민혁명
5. 맺음말 : 전라남도, 후반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새롭게 검증하기 위하여

1. 머리말

나는 『동학농민혁명 100년』(전북일보, 1995)과 『알기 쉬운 전남 동학농민혁명』(전라남도, 1996) 등을 읽었다. 덕분에 나주나 전라남도의 제2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다만 집필자들은 동학농민군이 남긴 사료가 극히 적다는 점을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은 반(反)농민군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의 통사적인 서술을 완성하려면 아직 남아 있는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 연구자의 입장에서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2. 일본군의 동학문서 탈취 : 전라남도 사례

미해결 과제가 남아있는 점에 대해서는 일본 쪽에 커다란 책임이 있다. 제2차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일본군은 토벌작전의 전 기간을 통해서 동학농민군의 지역 지도자를 총살하거나 포로로 잡고, 기밀서류를 빼앗아 일본공사관으로 보내라는 명령을 전군(全軍)에게 내렸다. 진도군이나 전주 시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이 주제에 대해 보고한 적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894년 12월 2일, 일본군 토벌부대 소대가 충청도 청산군(靑山郡) 문암읍(文岩邑)을 습격했다. 일본군은 동학의 제2대 교주 최시형이 이곳에 잠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하지만 최시형은 습격사실을 미리 눈치 채고 심야에 도주했다. 일본의 『우와지마신문(宇和島新聞)』¹⁾에 어느 종군병사의 편지가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문서류 두 상자와 우마(牛馬) 10마리를 포획하였다. 그날 밤 다시 문암을 야습했지만 동학농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불을 질러 잣더미로 만들었다.

이 병사의 편지에 의하면, 최시형은 일본군의 습격을 미리 알고 있었다. 일본군은 문암읍에서 우마(牛馬) 10마리를 포획했다. 야밤의 습격으로 동학농민군은 모두 도망갔기 때문에 일본군은 문암읍을 불태우고 잣더미로 만들었다. 일본군은 한겨울에 마을을 불태우고 최시형의 ‘문서류 두 상자’를 탈취했다.

일본군 장교는 ‘상자’를 가지고 있었다. 토벌대대 대대장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 소좌(少佐)가 사용하였던 서명이 들어 있는 군용상자가 미나미 고시로 문서와 함께 현재 야마구치현(山口県) 야마구치시(山口市)에 위치한 ‘야마구치현 문서관’에 기증되어 있다. 상자의 크기를 물었더니, 높이 23센

1) 역주) 우와지마(宇和島)는 일본 남부에 위치한 에히메현(愛媛県)의 남쪽에 위치한 도시이다.

티, 길이 67센티, 너비 32센티였다. 오늘날 가장 큰 여행트렁크의 크기이다. 종이 문서라면 수백 권에서 수천 권까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이다. 일본군이 최시형 문서를 운반한 상자는 이보다 더 큰, 일본군의 이른바 ‘대(大)상자’였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최시형이 소유한 대량문서가 원래는 존재하였고, 그것이 일본공사관으로 보내졌는데 지금은 행방을 알 수 없다.

전라남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1895년 1월 12일, 농민군 토벌부대 제1중대의 한 병사가 「종군일지」를 기록하였다. 이 「종군일지」는 일본의 도쿠시마현(徳島県)에서 발견되었는데, 소유자인 손자의 양해를 얻어서 일본의 학술지 『人文学報』(京都大学 人文科學研究所 간행)에 전문을 공개하였다.

12일 8시 30분. 제2분대(「일지」의 저자가 소속된 분대)는 월림동(月林洞)에 있는 대접사(大接司) 이법현(李法軒)의 가옥수색을 위해 파견되었다. (...) 월림동에 도착하여 이법현의 가택에 가보니, 이미 낚새를 알아차리고 도주하고 없어서, 비밀 서류 약간을 가져오고 가옥에 불을 붙인 뒤에 버려진 우마(牛馬) 6마리를 포획하였다.

월림동은 장흥성(長興城)에서 남쪽으로 자율재(眠峠)를 넘은 곳에 위치한 남산면(南山面)에 있는 마을로, 장흥농민군 지도자로 유명한 이방언(李芳彦)의 집이 있었다. 이방언도 기밀문서를 일본군에게 빼앗겼다. 상황은 최시형 잠복의 경우와 아주 유사하다. 이방언은 습격할 것을 미리 알고 도주하였고, 일본군은 우마 6마리를 포획하고 가옥을 불태웠다.

「종군일지」에는 1월 29일에 서쪽의 해남에서 농민군 지도자가 습격당했다는 기록도 있다.

우리 2분대는 동도(東徒=동학농민군)를 포획하라는 명령이 있어서 오전 7시 30분에 출발했다. 3리(里) 떨어진 곳에 도일동(道一洞)이 있다. (...) 곧장 저 동도 접사(接司)의 집에 도착하자 일찌감치 도주하고 없기에 가택에 불을 지르고 서류 및 북 등을 우리 중대에까지 가지고 돌아왔다.

이것은 해남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가 숨어 있는 곳을 습격했다는 기록으로, ‘도일동’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옥을 불태우고 서류와 북(동학농민군의 상징)을 빼앗았다는 내용이다.

「중군일지」 1월 8일자에는 일본군이 대격전 끝에 장흥성에 돌입했을 때의 기록인데, 이곳에 나오는 포획물 ‘대량의 종이’(紙無量)도 동학농민군의 서류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동학농민군 문서 탈취 사례는 일본군이 남긴 기록 곳곳에 나오고 있다. 일본군은 조선의 남북 전역에서 농민군 지도자를 철저히 탐색하고 문서를 탈취하여 일본공사관으로 보냈다.

이상의 예로부터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기밀문서는 원래 풍부하게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런 사실 자체가 동학농민군 조직의 높은 수준을 검토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실일 것이다. 동학농민군의 귀중한 문서, 즉 ‘역사’도 일본에 빼앗겼다고 생각한다.

3. 전라남도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의 나주 입성

박맹수 씨와 나는 일본의 방위연구소 도서관 소장 문서를 공동으로 조사한 적이 있다. 공동조사를 단서로 나는 동학농민군 토벌대대 대대장인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를 찾아냈다. 미나미 가문의 묘를 알게 되어 반복해서 후손에게 전화를 했는데, 고령인 탓에 집을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학을 정년퇴직하기 며칠 전에 간신히 방문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보관되어 있던 미나미 고시로 문서를 볼 수가 있었다. 후손은 이 사료가 귀중한 역사자료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지금 미나미 고시로 문서는 야마구치현 문서관에 기증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다.

미나미 고시로 문서 중에 「동학당 정토(征討) 경력서」가 있다. 토벌작전이 끝난 그 해에 작성된 것으로, 명령의 발령, 부대의 이동, 사령부로부터의 전보 등을 간명하고 단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중에서 미나미 고시와 토벌대대 후비보병 제19대대가 나주성에 들어오는 장면을 읽어 보자.

이 달(1895년 1월) 4일에 광주를 출발하여 유림촌(柳林村)을 지나, 5일에 나주성에 도착하고 민가에서 숙박한다[舍營]. 이날 영암, 강진, 장흥, 보성, 능주의 각지에서 적도(賊徒=동학농민군)가 날뛰어 인민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장흥부사를 총살했다는 비보(飛報)도 잇달아 도착한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의) 토벌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든다.

같은 달 6일 이시쿠로(石黒) 대위에게 교도중대(教導中隊) 1소대를 주어 강진 방면으로 보낸다. 시라키(白木) 중위에게 교도중대 2소대를 주어 장흥 방면으로 보내, 적도(동학농민군) 소멸에 종사시킨다. 마쓰키(松木) 지대(支隊)에게 능주를 출발하여 보성에 있는 적(동학농민군)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린다. 장위영 병사 100명을 무안 방면으로, 통위영 병사 1대대를 함평, 무안, 해남 방면으로 보낸다. 함평에 있는 스즈키(鈴木) 특무지대(特務支隊)로부터 적의 상황 및 체진(滯陣=진을 치고 그곳에 머무는 것)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이에 스즈키 지대(支隊)에게 해안에 있는 적도(동학농민군) 소멸에 착수하고, 체진(滯陣)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 날(9일)부터 포로 취조를 시작한다.

이상의 기록으로부터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1895년 1월 5일에 일본군 토벌대대가 나주성에 들어왔다. 일본군은 광주에서 도중에 유림촌을 지나 왔다. 검증이 필요하지만, 이 유림촌이 당시의 나주군 노안면(老安面) 유림촌이라고 한다면, 광주에서 서쪽으로 나와서 황룡강을 건너 북쪽에서 나주성으로 들어온 것이다. 유림촌의 약 4킬로 서쪽에 금안동(金安洞)이 있다. 금안동은 일본군 토벌대대가 나주성에 들어오기에 전에 동학농민군이 금성산(錦城山)에 올라가서 나주성을 포위공격하기 위해 집결한 곳이다. 일본군 토벌대대가 그 근처까지 진격한 것이다. 같은 날, 곧장 전라남도 서부의 영암, 강진, 장흥, 보성, 능주의 각지에서 동학농민군이 싸우고 있다는 보고가 미나미 대대장에게 잇달아 들어왔다.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장흥에서는 동학농민군이 농민군을 격렬하게 탄압하였던 부사를 총살했다. 사실과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알려져 있듯이 일본군이 나주에 들어가기 전에 나주를 비롯한 전라남도 동학농민군이 나주성을

포위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에서도 미나미 대대장이 남긴 ‘강화(講話)’ 기록인 「동학당정토약기(東學黨征討略記)」 등을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다. 「동학당정토약기」는 한국의 국사편찬위원회가 간행한 『주한 일본공사관기록』에 수록되어 있는 미나미 고시로의 구술 기록이다.

「동학당정토약기」는 “아군(我軍)이 전주에 도달하자 나주 현령이 급하게 연락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동학당정토약기」에 의하면 “비도(匪徒=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주야로 나주성을 공격하여 이제 곧 함락되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탐지.” 그러나 “(나주까지) 기나긴 여정이었기 때문에 곧장 가서 구할 수 없었다. 행군은 상당한 나날이 걸렸다.” 그리고 “각 군(일본군과 그 지휘 하에 있는 조선정부군 등)이 각각 나주 근처에 집합하자, 동도(동학농민군)는 마침내 도주하고 영암, 무안, 장흥 방향으로 모였다.” 이상은 다음과 같은 「동학당정토약기」의 구술도 「동학당정토경력서」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아군(일본군 토벌대대 등)이 나주에 들어오자 보고가 쇄도했다. 그 중에서 영암 현령은 함락되기 일보 직전이니 신속하게 와서 구해달라고 하였다. 또한 능주 현령은 비도(동학농민군)가 도주할 우려가 있으니 신속하게 1중대의 선발 지대(支隊)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장흥 현령은 지금 당장 동도(동학농민군)에게 목이 달아나려 하고 있다고 알려 왔다.

이와 같이 나주에 “보고가 쇄도한” 사실은 「동학당정토경력서」에 나주에 입성한 날에 “비보(飛報)가 잇달아 들어왔다”는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4. 전라남도 동학농민군과 공주전쟁 이후의 동학농민혁명

「동학당정토경력서」와 「동학당정토약기」의 구술을 함께 검토하면, 사태를 더 상세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 동학농민군은 나주를 포위하였는데,

토벌군의 급습을 알고 도주했다. 이번에는 영암을 함락시키려고 포위하고 있었다. 능주에서는 동학농민군이 행군 중이었고, 장흥에서는 성을 실제로 함락시켜 현령을 살해했다. 미나미 대대장은 나주에 들어온 그 날 동학농민군의 대대적인 전개를 알고 ‘토멸(討滅)’의 ‘부서’, 부대의 배치를 한 것이다(「동학당정토경력서」).

토멸 ‘부서’의 명령은 「동학당정토경력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1월 6일에 미나미 대대장에 의해 나주로부터 일제히 발령되었다.

강진에는 이시쿠로 대위의 부대, 즉 토벌대대 제3중대와 일본군 사관(士官)이 지휘하는 조선정부 교도중대가 보내졌다. 장흥으로도 일본군 중위가 지휘하는 조선정부군 교도중대 2소대가 동학농민군 ‘초멸(剿滅)’을 위해 보내졌다. 능주와 보성으로는 마쓰키(松木) 대위 토벌대대 제1중대가 향했다.

점령된 장흥으로는 일본군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진에 보내진 토벌대대 제3중대와 보성에 보내진 토벌대대 제1중대가 하나같이 서와 동에서 장흥 공격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동학당정토경력서」). 즉 포위 공격하고 있는 동학농민군을 일본군 토벌대대 등이 다시 포위하여 공격해 온다. 좀 더 상술하면, 나주 포위전에서 퇴각했지만, 여전히 영암을 포위하고, 능주에서 이동 중에 장흥을 점령하려 한 동학농민군을, 일본군을 중심으로 한 토벌 부대들이 역으로 포위하는 작전을 전개한 것이다. 그 직후에 약 3만 명의 동학농민 대군이 참가한 장흥전투는 위에서 소개한 「종군일지」에도 실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전 토벌군의 총지휘는 명확하게 나주의 미나미 대대장이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전라남도에서는 1895년의 엄동설한에도 제2차 동학농민전쟁의 대격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것을 “제2차 동학농민전쟁의 후반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주전쟁 이후의 제2차 동학농민전쟁”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지금까지 공주전쟁 이후에, 특히 전봉준과 같이 중심 지도부가 붙잡힌 이후의 제2차 동학농민전쟁은 증시되지 않았다. 공주전쟁 이후는 단지

토벌전이었다는 서술도 보인다. 일본에서의 탁월한 연구자인 조정달씨는 “제2차 동학농민전쟁의 절정은 두 차례에 이르는 공주 전투로, 그 이후의 전투는 정부군에게 있어 ‘소토전(掃討戰)’에 지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다”(『異端の民衆反乱』, 1998)고 서술하고 있다. 조정달 씨의 연구는 일본에서 근대사 연구자들에게 커다란 문제제기를 한 만큼, 이 서술에 대해서는, 그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시 물음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공주전쟁 이후에도 전라남도에서 동학농민혁명이 계속되었음을 강조하는 서술도 있었다. 이 글의 서두에 소개한 한국의 두 권의 책은 동학농민군이 전라남도에서 싸움을 계속한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최근까지의 한국 각지에서의 사실 발굴에 주목하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공주전쟁 이후에 제2차 동학농민전쟁이 진정되기는커녕 격화되었다는 사실은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5. 맺음말 : 전라남도, 후반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새롭게 검증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시기의 한일의 싸움과 청일의 싸움의 전체를 청일전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의 일본의 연구에서는 일본군이 즈리(直隸)평야, 북경침공을 실현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하라다 케이치(原田敬一)씨의 『(シリーズ日本近現代史③) 日清・日露戦争』(2007)이나 오오타니 타다시(大谷正)씨의 『日清戦争』(2014) 등이 그것이다. 일본군 대본영과 현지군은 모두 겨울에 즈리평야 진격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남도 동학농민군이 공주전쟁 이후에 최후까지 항일전쟁을 전개한 역사적 의의가 부각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일찍이 북접·충청도 동학농민군을 중심으로 하는 항일 봉기 개시

의 시기에 주목해 왔다. 1894년 10월 25일, 충청북도에서 동학농민군은 조령 북쪽의 안보, 충주, 가흥의 일본 병참부를 향해 일제히 봉기했다. 27일에는 대본영의 카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 병참총감이 농민군을 “항후 남김없이 살육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다음날 미나미 고시로 토벌대대에게 한국으로 가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한편 10월 24일에 일본군 제1군이 압록강을 건너고, 제2군도 24일에 화원구(花園口)에 상륙하여 요동반도 진격을 시작하였다. 전(全) 동학농민군이 항일봉기를 시작한 사건과 일본군이 청나라 영토에 침입을 개시한 사건은 동시에 일어났다. 청나라 영토를 침공하고 대대적인 전쟁에 돌입한 일본군이 항일봉기를 위해 일어난 동학농민군에게 “남김 없는 살육” 명령을 내린 것도 역사의 깊은 관련성이 있어서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더해서 다음과 같은 사료에 주목하자. 이하는 11월 26일 오후 9시 40분에 이노우에(井上) 공사가 일본군 재조선(在朝鮮) 병참부로 보낸 전보이다.

황해도에서 동학당 정토(征討)를 위해 출병하라고 아мага타(山縣) 대장으로부터 병참부로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 잘 알았다. 이와 관련해서 동학농민군 지도자를 포획하고, 서류를 압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힘을 다해서 포획 또는 압수한 다음에 조사를 위해 일본공사로 송부하라.

그 후 밤 12시에 안동현에 있는 오가와(小川) 제1군 참모장으로부터 남부 병참감 앞으로 전보가 도착한다.

황해도 해주 지방에서 동학당이 일어나서 지난 23일에 약 2천여 명이 재령군(載寧郡)에 있는 우리 징발관(徵發官)을 습격했다. 실로 꽤 씹하기 그지없는 일로, 이번에 특별히 엄중한 징계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군에게 가하는 방해는 결국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신속하게 병참부에서 출병하여 그들(동학농민군)의 근본을 멸절할 수단을 취하기 바란다.

이것은 방위성 방위연구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남부병참감부일지(南部兵站監部日誌)」(1894년 11월~12월) 기사다. 일본군 지도자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제1군 사령관이 황해도 동학농민군에 대한 토벌출병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이노우에 공사는 동학농민군 지도자를 체포하고 문서를 탈취하여 모두 일본공사관으로 보내라고 명령한 것이다.

그날 심야에 청나라 안동현에 진군하였던 제1군 오가와 참모장으로부터 농민군에게 엄혹한 징계를 가하라는 전보가 온 것이다. 오가와 참모장과 오가와 마타지(小川又治)는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유명한 측근으로, 모두 최전선에 있었다. 오가와 참모장의 전보는 곧 야마가타의 명령이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은 11월 26일에 동학농민군의 “근본을 멸절할 수단을 취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지금까지 주목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대본영에 있는 카와카미 참모장(長)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남김 없는 살육” 명령과 같은 명령이다.

이 무렵에 안동현에 있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 사령관은 히로시마의 대본영과 동계작전을 둘러싸고 의견이 달랐다. 야마가타 사령관은 11월에 발해만 안쪽, 산해관 부근으로 조기에 상륙한다는 모험적인 진격을 요구했지만 대본영은 이것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야마가타 사령관은 현지사령부의 작전을 우선시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군 대본영도 즈리(直隸)평야 침공을 동계작전으로 실행할 생각이었는데, 그 순서나 완급을 둘러싸고 차이가 생긴 것이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즈리 침공의 경우에 러시아군의 동정에 대한 대응책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일본군은 보급선이 극도로 약하기 때문에 진군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최근의 청일전쟁의 연구는 종래에 일본인이 갖고 있었던 “일본군, 요동 전승”이라는 역사상을 수정하고 있다. 만약에 청나라가 붕괴했다고 하면 청나라에 이권을 갖고 있는 서구로부터 일본군에 대한 간섭이 예상되었다. 러시아는 반드시 간섭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실제로 시모노세키 강화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러시아는 서구에 권한면서 간섭하였고, 러시아 함대도 결집시켜 일본에게 요동반도 점유를 멈추

도록 하였다. 일본이 러시아에게 굴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강경외교를 진행한 이노우에 카오루 공사의 입장이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이노우에 공사의 강경외교의 위신 추락은 비참한 것이었다. 각료는 물론 이노우에 공사가 등용한 친일파의 거두 박영효조차도 이노우에 공사에게 등을 돌렸다. 이노우에 카오루를 현창하는 전기 『世外井上公傳』조차 “집에서 기르던 개에게 손을 물린 격”(4권 479쪽)이라고 적고 있다. “무슨 불행인가”, “시운이 맞지 않았다”(4권 538쪽, 539쪽)라고 이노우에 카오루의 참담한 조선공사시대를 총괄하고 있다.

청일전쟁 중에 일본군은 러시아의 압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즈리평야 침공을 겨울 이전에 단기간에 구체화하려고 했지만, 병참의 보급선이 약해서 진군에 고생하였고, 그래서 지도부는 내부에서 여러 의견들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었다. 일본군의 파죽의 ‘연전연승’은 실은 박빙(薄氷) 위를 목숨 걸고 달려가는 위태로운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런 동아시아의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 청일전쟁의 마지막까지 항일전쟁을 지속한 황해도 동학농민군의 봉기는 지극히 중요할 것이다. 전라남도 동학농민군은 청일전쟁 최후까지 싸움을 계속했다. 전라남도 동학농민군에 대한 일본군의 토벌전은, 잘 알려져 있듯이, 제2차 동학농민전쟁 중에서도 특히 가혹하였다. 나주에 들어온 미나미 대대장은 나주를 본거지로 하여 동학농민군 토벌을 총지휘하였다. 앞서 소개한 「종군일지」는 처참한 토벌상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나주성) 남문에서 약 400미터[4丁] 남짓 떨어진 곳에 작은 산이 있다. 시체가 실로 산을 이루었다. 이것은 전날, 장흥부 전투 후에 수색이 삼엄했기 때문에 동학농민군이 갈 곳이 없어서 매일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 하다가 조선의 민병이나 우리 병사에게 포획되어, 고문당하고 중죄인이 살해된 것이 매일 12명 이상 103명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이곳에 버려진 시체가 680명에 달했다. 근처에는 악취가 심하고 땅은 시체에서 나오는 기름이 얼어붙어서 마치 백은(白銀)과 같았다.

일본의 지도부 전체는 러시아를 두려워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러시아 등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였다. 그러나 북부 조선의 황해도 동학농민은 일본 지도부의 국제 감각과 같았을까? 아마 아니었으리라 생각한다. 전라남도 동학농민군 지도부도 최후까지 항일전을 벌였지만, 마찬가지로 무언가 일본군과 일본의 총합적인 역량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일본군은 본래의 큰 목표였던 즈리평야 작전을 실행하지 못했다.

동학농민혁명의 공주전쟁 이후를, 청일전쟁 종결 등과의 관계까지 포함시켜, 동아시아사의 재검증으로 새롭게 검토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번역 : 조성환(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나주동학농민혁명, 한(恨)에서 흥(興)으로

- 전봉준의 평화사상을 중심으로 -

박 맵 수
(원광대학교 총장)

1. 머리말
2. 「무장포고문」과 보국안민
3. 「사대명의와 12개조기율」과 불살생(不殺生)
4. 「폐정개혁안」과 정도일신(政道一新)
5. 「전봉준공초」와 만국공법(萬國公法)
6.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동학농민군 최고지도자 전봉준이 ‘보국안민’을 위해 일으킨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평화사상을 1차 사료를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그에 따라 동학농민군의 희생이 다대했던 나주 땅에 깃든 ‘어두운 역사’ 곧 한의 역사를 미래지향적이며 희망의 역사 곧 ‘흥의 역사’로 만드는데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글의 순서는 동학농민군혁명의 지향인 ‘보국안민’의 대의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무장포고문>의 내용을 먼저 고찰하며, 그 다음으로 ‘보국안민’의 구체적 실천 강령이 담긴 <사대명의와 12개조 기율>에서 드러나는 불살생(不殺生)과 불살물(不殺物) 정신을 확인한 다음, 폐정개혁안 27개조에 나타나는 ‘정도일신(政道一新)’ 즉 정치개혁의 방향을 확인하고, 그 다음 전봉준의 최후진술이 담긴 <전봉준공초>에서 드러나는 ‘만국공법’ 인식에 대해 설명하고, 끝으로 이상과 같은 내용 속에서 드러나는

평화사상이 나주 동학의 미래화, 세계화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1894년 3월 21일(음력)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전봉준(全琫準)은 1855년에 지금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당촌 마을에 세거하던 천안전씨(天安全氏)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 이름은 철로(鐵爐)요, 자는 명숙(明淑)이며,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녹두장군’이라는 애칭으로 불렸다. 전북 김제군 금산면 원평리 일대에 전승되어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어린 시절의 전봉준은 원평(院坪) 부근의 서당(書堂)에 다녔으며,¹⁾ 20대 전후에는 태인현 동곡으로 이거하였다고 한다. 전봉준의 최후 진술을 담고 있는 『전봉준공초(全琫準供草)』²⁾에 거주지가 전라도 태인현(泰仁縣) 산외면(山外面) 동곡(東谷)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전봉준이 태인 동곡에 거주한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다. 동곡은 원평에서 지근거리에 있으며 농민군 지도자 김개남(金開南)이 태어난 마을이기도 하다. 또한, 공초에 따르면 전봉준은 1880년대 후반 즉 그의 나이 30대 무렵에는 태인 산외면 동곡을 떠나 고부군 이평면 조소리(鳥巢里)로 이주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19세기 후반, 고창 당촌 마을에서 태어나 청소년기에 김제 원평, 태인 동곡을 거쳐 동학농민혁명 수년 전에 고부 조소리에 자리를 잡은 전봉준이 거처를 옮겨가며 살아가는 동안 체험하고 목격했던 당대 현실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밖으로는 ‘서세동점’과 안으로는 ‘삼정문란’으로 대표되는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에 시달리고 있는 민초들의 신산(辛酸)한 삶 바로 그 자체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동학 창시자 수운 최제우가 일찍이 “우리나라에는 나쁜 병이 가득해 백성들이

1) 전봉준이 어린 시절에 서당에 다녔던 김제군 금산면 원평리 일대는 1893년의 교조신원운동 단계에서 있었던 원평집회와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에서 군량 조달 등의 책임을 맡았던 김덕명(金德明) 대접주의 출신지이자, 제2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군과 맞서 싸운 ‘구미란 전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원평에 가면 지금도 전봉준이 다녔던 서당 터를 확인할 수 있다.

2) 서울대 규장각에 원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규장각본을 저본으로 한 마이크로필름이 보관되어 있다.

사시사철 단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다”³⁾라고 지적인 현실과 조금도 다른 없는 현실이었다. 이처럼 ‘백성들이 사시사철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다’고 표현되는 위기의 시대에 태어나 각지를 전전하며 전봉준이 목격한 현실은 당대 민초들의 생명, 생업, 생활이 전면적으로 위협받는 위기상황, 이른바 반평화적 상황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이러한 시대 상황을 타파하여 민중의 생명과 생업, 생활이 보장되는 세상을 열고자 하는 아래로부터의 열망을 집대성하여 등장한 새로운 사상이 바로 1860년 수운 최제우가 창도한 동학이다. 동학은 창도 초기인 1860년대에는 주로 경상도를 중심으로, 이어 1870년대에는 강원도 영서(嶺西)의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포교되었으며, 1880년대 후반에는 전라도 일대(전주, 삼례, 익산, 고산, 부안, 태인, 고부, 정읍, 무장)에도 널리 전파되고 있었다. 전봉준은 1880년대 후반에 동학이 전라도에 급격하게 전파될 무렵, 태인 동곡에서 고부 조소리로 이사를 오면서 동학에 입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봉준은 왜 당시 조선왕조 지배층이 이단사술(異端邪術)로 배척, 탄압하는 동학에 빠져들게 되었을까? 그 이유의 일단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전봉준공초』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관련 내용을 인용한다.⁴⁾

문: 소위 동학이라는 것은 어떤 주의이며 어떤 도학인가?

(所謂東學 何主義 何道學乎)

답: 마음을 지켜 충효로 본을 삼고, 보국안민하고자 하는 것이다.

(守心 以忠孝爲本 欲輔國安民也)

문: 너도 역시 동학을 대단히 좋아하는 자인가?

(汝亦 酷好東學者耶)

답: 동학은 수심경천의 도이기 때문에 대단히 좋아한다.

(東學 是守心敬天之道 故酷好也)

3) 최제우 지음, 박맹수 옮김, 『동경대전』 (서울: 지식의 만드는 지식, 2009), 43쪽.

4) 국사편찬위원회, 『동학란기록』하 (서울: 탐구당, 1971), 534쪽.

위의 내용에 따르면, 전봉준은 동학의 가르침을 보국안민(輔國安民)과 수심경천(守心敬天)의 도학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필자 나름의 해석을 하자면 ‘수심경천(개인의 영성)’과 ‘보국안민(사회 혁명)’을 동시에 추구하는 동학이라는 도학이야말로 전봉준에게는 서세동점에 시달리는 조선이라는 나라와,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 및 빈발하는 자연재해와 전염병 등에 시달리던 조선의 민초들을 건질 새로운 도학이었기에 그는 동학을 ‘혹호’(酷好; 대단히 좋아함)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동학에 입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르면 1888-1889년경, 늦어도 1890-1891년경에는 동학에 입도한 전봉준이 동학 교단의 유력한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는 것은 1892년 7월경부터 준비되어 전개되기 시작한 동학의 교조신원운동(敎祖伸冤運動) 단계부터이다. 구체적으로는 1892년 음력 11월초부터 전개된 전라도 삼례집회 단계부터 전봉준은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기 시작하였다.⁵⁾ 교조신원운동은 동학 교단이 중심이 되어 ‘교조의 신원(동학 공인 요구), 지방관의 가렴주구 금지, 척왜양’ 등 세 가지 요구를 내걸고 전개되었는데, 전봉준은 그 중에서도 특히 서양 열강과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반대하는 척왜양 운동, 곧 외세의 침탈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반외세 운동을 적극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⁶⁾

삼례집회 단계부터 지도력을 발휘한 전봉준은 1893년 2월의 서울 광화문 복합상소, 같은 해 3월 10일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충청도 보은집회 등에 호응하기 위하여 그가 어린 시절에 서당에 다녔던 원평을 중심으로 도인(道人: 동학 신자)들을 결집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교조신원운동은 조선왕조 지배층의 강경 탄압책과 열강의 간섭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교조신원운동 좌절 이후, 전봉준은 고부 조소리에 칩거하면서 고부군수 조병갑의 악정(惡政)에 반대하는 진정서를 여러 차례⁷⁾ 제출했지만 번번이

5) 崔柄鉉, 『南原郡 東學史』(필사본, 1924), 3~8쪽.

6) 최병현, 위의 책, 3~8쪽.

7) 『전봉준공초』에 따르면, 1893년 11월에는 고부군수에게, 같은 해 12월에는 전라감영의 전라

추방당하였고, 진정서를 제출한 대표자들과 함께 탄압을 받았다. 이에 전봉준은 ‘사발통문 모의’⁸⁾를 해서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으로 상징되는 지방관들의 악정을 개혁하고자 했지만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1894년 음력 1월 10일, 익산 군수로 전임 발령이 났던 조병갑이 다시 고부군수로 눌러 앉게 된 바로 그 날, 전봉준은 고부농민들과 함께 무력을 통한 악정 개혁의 길로 나아가는 첫발을 내디뎠다. 고부농민봉기를 주도한 것이다. 하지만 고부농민봉기 역시 2개월여에 걸친 장기간의 항쟁에도 불구하고 끝내 실패로 귀결되었다. 이에 전봉준은 자신과 운명을 함께 하고자 남은 5-6명의 동학 도인들과 함께 고부에서 무장(茂長)으로 피신하였다. 무장에는 수천 명의 연비(聯臂; 동학 신자)를 거느리고 있던 대접주 손화중을 설득, 1894년 음력 3월 21일에 마침내 동학농민혁명의 봉화를 힘차게 올렸다.

학력과 사회적 경력이 보잘 것 없는 전봉준은 과연 어떻게 해서, 어떤 심경으로 동학농민혁명의 불길을 당겼던 것일까? 그리고 혁명 실패 뒤에는 어떤 심경으로 죽음을 맞이했으며, 후세에 무엇을 남기고자 했던 것일까?

이 논문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 전봉준의 활동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1차 사료를 중심으로 전봉준이 추구하고자 했던 지향은 무엇이며, 그 지향이 평화사상의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해명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먼저 제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1894년 음력 3월) 전봉준이 작성하여 전국 각지에 포고한 것으로 알려진 「무장포고문(茂長布告文)」에 주목하여 그 내용 분석을 통해 전봉준이 말하고자 하는 평화의 의미를 드러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모여든 동학농민군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전봉준이 동학농민군 최고지도자로 추대되는 ‘백산대회’(白山大會; 1894년 음력 3월 25일경)를 전후하여 선포된 것으로 추측되는 농민군의

감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투옥당한 후 퇴출당했다고 한다.(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526쪽.)

8) 1893년 11월, 전봉준 등 고부 일대 동학 지도자 20여 명이 비밀리에 모여 고부군수 조병갑의 악정을 징치하기 위해 사발통문에 서명하고 봉기를 모의한 것을 말한다.

「사대명의(四大名義) 및 12개조기율(十二個條規律)」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속에서 드러나는 평화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세 번째는 제1차 동학농민혁명 기간 내내 전봉준이 지휘하는 동학농민군 측이 중앙정부에 제출했던 각종 폐정개혁 요구를 집약한 「폐정개혁안(弊政改革案) 27개조」에서 읽을 수 있는 평화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포되어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심문내용을 담고 있는 「전봉준공초」에 드러나고 있는 평화 관련 내용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2. 「무장포고문」과 보국안민

「무장포고문」은 1894년 3월에 전라도 무장현(茂長縣)에서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조선왕조 전체의 폐정(弊政) 개혁을 위하여 전면 봉기를 단행하기 직전에 전국 각지에 포고(布告)하여 재야의 유교지식인을 비롯하여 뜻있는 지방 수령 및 하급관리, 그리고 일반 민중들의 광범위한 호응을 촉구한 명문 중의 명문이다.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河合文庫)에서 발견된 제1차 동학농민혁명 관련 1차 사료 『수록(隨錄)』에 따르면,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1894년 3월 21일에 무장현 동음치면 당산마을(현재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구시내 마을)에서 전면 봉기를 단행하여 복상을 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고문은 적어도 봉기 직전인 3월 20일경 아니면 그 이전에 포고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무장포고문」은 전봉준이 직접 쓴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일설에는 당시 농민군 지도부 내에서 전봉준의 참모 역할을 했던 인물이 썼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작성자가 누구였던 포고문 속에는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 지도부의 당면한 시국인식(時局認識), 무장봉기(武裝蜂起)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 이유, 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는

조선왕조 지배체제의 모순을 개혁하고자 하는 강력한 개혁의지, 그리고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하는 향촌사회 지지층의 광범위한 연대와 협조를 촉구하는 내용이 감동적인 문체로 서술되어 있다. 종래, 학계에서는 「무장포고문」을 농민군이 고부에서 전면 봉기를 단행한 뒤에 정읍과 부안, 흥덕을 거쳐 무장현을 점령했던 1894년 4월 12일경에 포고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왔다. 예를 들면, 후래 동학 연구자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끼친 김의환의 『전봉준 전기』⁹⁾, 재일(在日) 사학자 강재언의 『한국근대사연구』¹⁰⁾ 등에 실린 내용이 그것이다. 이 같은 오류는 익산지역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했던 오지영(吳知泳)의 『동학사』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동학사』에서 「무장포고문」이 포고된 시점을 갑오년 3월이 아닌 1월에 포고된 것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다.¹¹⁾

「무장포고문」의 포고시기를 3월이 아닌 1월 또는 4월로 오해한 이유는 첫째 1차 사료에 대한 엄밀한 검토 없이 농민군의 전면 봉기 장소를 무장(茂長)이 아닌 고부(古阜)로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둘째 1894년 1월 10일의 고부민란(古阜民亂) 즉 고부농민봉기를 3월 21일의 무장기포(茂長起包) 즉 제1차 동학농민혁명과 별개의 사안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1월의 고부민란을 3월의 무장기포와 같은 것으로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무장포고문」이 실려 있는 1차 사료로는 오지영의 『동학사』를 비롯하여, 매천 황현의 『오하기문』, 경상도 예천 유생 박주대의 『나암수록』, 관변기록인 『동비토록』, 1893년 보은취회 단계부터 1894년 무장기포에 이르기까지 충청도 보은 관아에서 농민군의 동정을 탐지하여 수록한 관변기록 『취어』, 일본 교토대에서 발견된 전라도 무주관아에서 수집하여 남긴 관변기록 『수록』, 동학농민혁명 당시 서울 명동성당에 주재하며 농민군 관련 문서를 광범위하게 수집했던 뮌텔 주교의 『뮌텔문서』,¹²⁾ 제1차 동학농

9) 김의환, 『전봉준 전기』 (서울: 정음사, 1981). 97~100쪽.

10) 강재언, 『한국근대사연구』 (한울, 1982), 168~169쪽.

11) 오지영, 『동학사』(서울: 영창서관, 1940), 108~109쪽.

12) 뮌텔문서는 현재 서울 명동 천주교회관 내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

민혁명 당시 전라도 줄포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 파계생(巴溪生)이 쓴 「전라도고부민요일기」 등이 있다. 이들 사료 가운데 오지영의 『동학사』에는 국한문(國漢文)으로, 「전라도고부민요일기」에는 일본어로 실려 있으며, 나머지 사료에는 모두 한문(漢文)으로 실려 있다. 관변기록인 『취어』에는 405자, 『수록』에는 400자의 한자로 되어 있으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오하기문』과 『동비토록』, 『취어』 등에 실린 「무장포고문」을 서로 대조하여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무장 포고문〉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인륜이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윤리는 인륜 가운데서도 가장 큰 것이다. 임금은 어질고 신하는 정직하며, 아버지는 자애롭고 자식은 효도를 다한 후에라야 비로소 한 가정과 한 나라가 이루어지며, 한없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법이다. 지금 우리 임금님께서서는 어질며 효성스럽고 자애로우며, 귀신과 같은 총명함과 성인과 같은 예지를 갖추셨으니, 현명하고 정직한 신하들이 보좌하여 돕기만 한다면 요(堯) 임금과 순(舜) 임금 때의 교화(教化)와, 한(漢) 나라 문제(文帝)와 경제(景帝) 때의 다스림에 도달하는 것은 마치 손가락으로 헤아리는 것처럼 시일이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신하라는 자들은 나라의 은혜에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한갓 봉록(俸祿)과 벼슬 자리만 탐내면서 임금님의 총명을 가린 채 아침만을 일삼고 있으며,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나라의 잘못을 충고하는 선비들의 말을 요사스러운 말이라 하고, 곧고 바른 사람들을 가리켜 도적의 무리라 하고 있다. 또한, 안으로는 잘못되어가는 나라를 바로잡을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관리들만 많으니, 사람들의 마음은 날로 거칠고 사납게 변해만 가고 있다. 백성들은 집에 들어가도 기쁘게 종사할 생업이 없고 집을 나오면 제 한 몸 보호할 방법이 없건마는 가혹한 정치는 날로 심해져 원망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리와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윤리, 윗 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의 분별은 마침내 다 무너지고 남은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일찍이 관자(管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유(四維), 즉 예의염치(禮義廉恥)가

떨치지 못하는 나라는 결국 망한다”고 하였는데 지금의 형세는 그 옛날보다도 더 심하기 그지 없으니, 예를 들면 지금 이 나라는 위로 공경대부(公卿大夫)로부터 아래로 방백수령(方伯守令)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라의 위태로움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몸 살찌우고 제 집 윤택하게 할 계책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벼슬길에 나아가는 문을 마치 재화가 생기는 길처럼 생각하고 과거시험 보는 장소를 마치 돈을 주고 물건을 바꾸는 장터로 여기고 있으며, 나라 안의 허다한 재화(財貨)와 물건들은 나라의 창고로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개인의 창고만 채우고 있다. 또한 나라의 빛은 쌓여만 가는데 아무도 값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교만하고 사치하며 방탕한 짓을 하는 것이 도무지 거리낌이 없어 팔도(八道)는 모두 어육(魚肉)이 되고 만백성은 모두 도탄에 빠졌는데도 지방 수령들의 가혹한 탐학(貪虐)은 더욱 더하니 어찌 백성들이 곤궁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백성들은 나라의 근본인 바, 근본이 꺾이면 나라 역시 쇠잔해 지는 법이다. 그러니 잘못 되어가는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 방책을 생각하지 않고 시골에 집이나 지어 그저 오직 저 혼자만 온전할 방책만 도모하고 한갓 벼슬자리나 도둑질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어찌 올바른 도리라 하겠는가. 우리 동학농민군들은 비록 시골에 사는 이름 없는 백성들이지만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이 땅에서 나는 것을 입고 사는 까닭에 나라의 위태로움을 차마 앉아서 볼 수 없어서 팔도가 마음을 함께 하고 억조(億兆) 창생들과 서로 상의하여 오늘의 이 의로운 깃발을 들어 잘못되어가는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 것을 죽음으로써 맹세하오니, 오늘의 이 광경은 비록 크게 놀랄 만한 일이겠으나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말고 각자 자기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여 다 함께 태평성대를 축원하고 다 함께 임금님의 덕화를 입을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겠노라.(밀줄은 필자)

〈茂長 布告文〉

人之於世最貴者 以其有人倫也 君臣父子 人倫之大者 君仁臣直 父慈子孝然後 乃成家國 能逮無疆之福 今我聖上 仁孝慈愛 神明聖睿 賢良正直之臣 翼贊佐明 則堯舜之化 文景之治 可指日而希矣.

今之爲臣 不思報國 徒竊祿位 掩蔽聰明 阿意苟容 忠諫之士 謂之妖言 正直之人

謂之匪徒 內無輔國之才 外多虐民之官 人民之心 日益渝變 入無樂生之業 出無保
軀之策 虐政日肆 惡聲相續 君臣之義 父子之倫 上下之分 遂壞而無遺矣.

管子曰 四維不張 國乃滅亡 方今之勢 有甚於古者矣 自公卿以下 至方伯守令 不念
國家之危殆 徒竊肥己潤家之計 銓選之門 視作生貨之路 應試之場 舉作交易之市
許多貨賂 不納王庫 反充私藏 國有積累之債 不念圖報 驕侈淫佚 無所畏忌 八路魚
肉 萬民塗炭 守宰之貪虐 良有以也 奈之何民不窮且困也.

民爲國本 本削則國殘 不念輔國安民之策 外設鄉第 惟謀獨全之方 徒竊祿位 豈其
理哉 吾徒雖草野遺民 食君土服君衣 不可坐視國家之危 而八路同心 億兆詢議 今
舉義旗 以輔國安民 爲死生之誓 今日之光景 雖屬驚駭 切勿恐動 各安民業 共祝昇
平日月 咸休聖化 千萬幸甚. (밑줄은 필자)

위 포고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바로 ‘보국안민(輔國安民)’ 네 글자이다.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면, 보국안민이란 용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시대는 세종조이다. 이른바 유교적 민본주의가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된 시대로 알려져 있는 세종조에 보국안민이란 용어의 용례가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모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런데, 세종조에 널리 사용되었던 보국안민은 조선후기로 내려오면서 점차 그 용례가 줄어들다가 동학 창시자 수운 최제우의 「포덕문(布德文)」(1861년)에 와서야 전격적으로 다시 부활한다. 수운은 1861년 6월경에 쓴 「포덕문」이란 글 말미에서 ‘백성들이 사시사철 단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시대에 보국안민의 계책(輔國安民之計)으로써 동학을 창시한다고 선언했다.¹³⁾ 이렇듯, 세종조에 널리 사용되고, 다시 동학 창시자 수운에 의해 부활한 보국안민은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전봉준의 「무장포고문」에서 거듭거듭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전봉준이 보국안민을 새삼스럽게 강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전봉준에 있어 평화는 보국안민 네 글자를 빼놓고서는 말할 수 없다고 본다. 보국안민이란 “잘못되어 가는 나라를 도와

13) 최제우 지음, 박맹수 옮김. 앞의 책, 47쪽.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편안히 한다”는 뜻으로, 나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민초들의 생명, 생업, 생활 전반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나라가 나라답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스스로 나서서 나라의 잘못을 바로잡아 백성들의 생명, 생업, 생활을 안전하게 보장하도록 만든다는 뜻이다. 따라서, 「무장포고문」의 보국안민은 필자 나름으로 해석하자면 민초들의 생명과 생업, 생활 전반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이른바 ‘사회적 평화’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4대명의 및 12개조 기율」에 나타난 불살생(不殺生)

종래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들 대부분이 간과해온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의 행동강령으로 알려진 사대명의(四大名義) 및 12개조 기율의 내용과 그것이 농민혁명 전개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필자는 지난 30여년에 걸친 동학농민혁명 관련사료 조사 및 현지조사 내용에 근거하여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조선의 인구는 대략 1,052만 명 정도이며,¹⁴⁾ 그중 적게는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의 인구가 참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통신, 교통 등의 인프라가 부재했던 시대에 어떻게 그 많은 민초들이 혁명 대열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농민군의 행동강령인 4대명의와 12개조 기율에 나타난 농민군의 규율 엄정한 도덕성이 민초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냈다는 데 있었다.

예를 들면, 1894년 당시 전라도 구례에 거주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을 직접 목격했던 매천 황현(1855~1910)은 농민군에 대해 시종일관 비판적

14) 동학농민혁명 당시, 조선의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남아 있지 않다. 다만, 1894년 당시 일본에서 간행되고 있던 『코쿠민신문』 조선특파원이었던 기쿠치 겐조의 「동학당」 관련기사 속에 1,052만이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다.

인 입장에서 『오하기문』¹⁵⁾이란 역사서를 서술했다. 그런데 매천은 『오하기문』에서 제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은 민폐를 전혀 끼치지 않은 반면에, 서울에서 파견된 흥계훈의 경군(京軍)은 막대한 민폐를 끼쳤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또한 제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도쿄에서 간행되고 있던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 『지지신보(時事新報)』 등 일본에서 간행되고 있던 신문들은 조선주재 일본인 특파원이 보내온 기사를 연재하면서 조선 내지에서 각종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일본 상인 가운데 농민군에게 피해를 입은 상인은 단 1명도 없을 정도로 농민군은 규율을 엄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 중의원(衆議院)의원이었던 다나가 쇼조(田中正造, 1841~1913)는 1896년에 쓴 「조선잡기(朝鮮雜記)」¹⁶⁾라는 글에서 동학농민군의 규율에 대해 ‘문명적’이라고까지 극찬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매천과 일본신문 및 다나가 쇼조가 주목했던 농민군 측의 4대명의와 12개조 기율을 상세히 검토함과 동시에, 그 안에 담긴 평화 지향적 요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894년 음력 3월 21일에 전라도 무장(茂長)에서 전면 봉기한 동학농민군은 3월 25일을 전후하여 오늘날의 전북 부안 백산성(白山城)에 결진(結陣)하여 진영을 확대 개편하고, 4대명의라는 행동강령과 함께 12개조 기율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⁷⁾

동도대장(東道大將; 동학농민군 대장)이 각 부대장에게 명령을 내려 약속하기를,
(1) 매번 적을 상대할 때 우리 동학농민군은 칼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이기는 것을 가장 으뜸의 공으로 삼을 것이며, (2) 비록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15) 『오하기문』은 2016년에 김종익 선생에 의해 『오동나무 아래에서 역사를 기록하다』는 제명으로 다시 번역되어 역사비평사에서 나왔다.

16) 「조선잡기」는 2004년에 일본 도쿄 이와나미서점에서 나온 『다나가쇼조 문집』 제1권 136쪽에서 140쪽까지에 실려 있다.

17) 원문은 일본 외무성 산하 외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국 동학당 동정에 관한 제국공사관 보고일건(朝鮮國 東學黨 動靜에 關한 帝國公使館 報告一件)』에 실려 있다.

사람의 목숨만은 해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3) 또한 매년 행진하며 지나갈 때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해치지 말 것이며, (4)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나라에 충성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사는 동네 십리 안에는 절대로 주둔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東道大將 下令於各部隊長 約束曰 每於對敵之時 兵不血刃而勝者爲首功 雖不得已戰 切勿傷命爲貴 每於行陣所過之時 切物害人之物 孝悌忠信人所居村十里內 勿爲屯住) <12개조 기율>

행복하는 자는 사랑으로 대한다	곤궁한 자는 구제한다
탐관은 쫓아낸다	따르는 자는 공경하며 복종한다
굶주린 자는 먹여준다	간교하고 교활한 자는 못된 짓을 그치게 한다
도망가는 자는 쫓지 않는다	가난한 자는 진휼(賑恤)한다
충성스럽지 못한 자는 제거한다	거스르는 자는 타일러 깨우친다
아픈 자에게는 약을 준다	불효하는 자는 벌을 준다

이상의 조항은 우리의 근본이니, 만약 이 조항을 어기는 자는 지옥에 가돌 것이다.

주지하듯이,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에서 농민군 측이 가장 빛나는 승리를 거두는 시기는 1894년 3월 21일에 시작된 제1차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무혈점령하는 4월 27일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무장(茂長)에서 전면봉기를 단행하여 고부(古阜), 정읍(井邑), 부안(扶安), 흥덕(興德), 고창(高敞), 영광(靈光), 함평(咸平), 무안(務安), 장성(長城) 등 전라도 서남해 연안의 여러 고을을 파죽지세로 점령하였다. 또한, 황토재 전투(4월 7일)와 황룡춘 전투(4월 23일)에서 각각 지방 군대인 전라감영군과 중앙 군대인 경군(京軍)마저 연달아 격파하여 승리하였으며, 4월 27일에는 마침내 전라도의 수부(首府) 전주성마저 무혈점령하기에 이른다.

제1차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농민군 측이 빛나는 승리를 거두는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배경의 하나는 앞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동학농민군 지도부가 내건 보국안민이라는 혁명의 기치

(旗幟)가 일반 백성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보국안민이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나라를 도와 백성들의 생명, 생업, 생활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이었다. 만약, 보국안민을 내걸고 봉기한 농민군이 백성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그것은 곧 ‘백성의 군대’를 자임하고 일어난 농민군에게는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3월 25일경 전북 부안의 백산성에 집결하여 농민군 진영을 개편하는 ‘백산대회’를 전후하여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부는 보국안민의 구체적인 실천강령에 해당하는 4대명의와 12개조 기율을 제정, 선포했다. 백산에서 선포한 4대명의와 12개조 기율은 바로 포고문에서 내내 강조했던 보국안민의 정신을 행동강령으로 구체화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행동강령의 핵심은 불필요한 살생을 금하는 데 집중되었다.

농민군 지도부는 4대명의와 12개조 기율에서 볼 수 있는 엄정한 기율 실천을 통해 일반 백성들의 생명과 생활, 생업을 보호하는 ‘백성의 군대’로서 손색없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칼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이기는 것을 가장 으뜸의 공으로 삼을 것이며, 비록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사람의 목숨만은 해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불살생의 정신을 최고 덕목으로 삼아 행동하는 농민군에 대해 제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각 고을 수령을 비롯하여 뜻있는 지식인과 부자들은 다투어 농민군 측에게 식량을 제공하였고, 잠자리를 제공하였다. 또한 각 군현의 하급 관리들은 자진하여 성문을 개방하여 농민군을 맞이했다. 그 덕분에 농민군은 40일이 넘도록 계속된 제1차 동학농민혁명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농민군의 기율 엄정함에 대해 매천은 동학농민군 측의 형벌은 사람 목숨 빼앗는 것을 가장 꺼려할 만큼 인도적이었다고 감탄한 바 있다.

요컨대, 동학농민군은 4대명의와 12개조 기율 실천을 통해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를 삼갔으며, 백성들의 생명, 생업, 생활에 해를 끼치는 탐관오리를 제거하되 어디까지나 불살생을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바로 여기에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군 지도부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 보국안민을 실현하고자 했던 ‘불살생의 평화’ 실현이라는 지향이 있었다.

4. 「폐정개혁안 27개조」와 정도일신(政道一新)

동학농민혁명의 전사(前史)로 알려져 있는 1892년-1893년의 교조신원운동 과정에서 동학 지도부는 “척왜양(斥倭洋), 지방관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 금지, 동학 교조의 신원(伸冤)” 등 세 가지 슬로건을 내세우고 충청도 공주(1893년 10월), 전라도 삼례(1892년 11월), 서울 광화문(1893년 2월), 충청도 보은 및 전라도 금구 원평(1893년 3월) 등지에 적제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이 모인 합법적인 집회를 열었다.¹⁸⁾

그런데, 교조신원운동의 꽃은 1893년 3월 10일부터 4월 초까지 충청도 보은(報恩)에서 열린 보은집회였다. 보은집회 당시 지도부는 집회 목적을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라고 선언함으로써 동학 교조 수운이 제시한 바 있는 보국안민의 구체적 방도를 왜(일본)와 양(서양)의 침탈로부터 국권과 민생을 보호하는 데서 찾고자 하였다. 보은집회에서 전면적으로 내건 ‘척왜양’ 슬로건은 당시 민중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음은 물론이려니와, 민중들의 정치의식을 배양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집회 지도부는 ‘척왜양’만이 아니라 지방관의 가렴주구에 대한 구체적 개혁까지 요구한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보은집회가 단지 반외세의 측면만이 아니라 반봉건의 측면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1893년 11월에 전봉준 등 고부의 동학 지도자들은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하며,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한 다음, 전주 영을 함락하고 경사(京師; 서울)로 직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을 모의한 이른바 ‘사발통문 모의’를 한 적이 있었다. 이 모의는 한 마디로 조병갑의 악정 때문에 빚어진 것이었고, 그 악정에 대한 두 차례의 합법적 청원을 모두 탄압한 데서 비롯되었다. ‘사발통문 모의’는 고부군수 조병갑

18) 1892년 10월 공주에서 시작되어 이듬해 4월 보은집회를 끝으로 끝난 교조신원운동이 합법적이었던 것은 그 집회가 바로 『경국대전』 「형전(刑典)」에 규정하고 있는 ‘신소(伸訴)’ 제도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 갑작스런 전임(轉任)으로 인해 그 실행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1894년 1월 10일경 조병갑이 다시 고부군수에 임임(仍任;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뜻)된 것을 계기로 고부민란, 즉 고부농민봉기로 발전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듯, 교조신원운동과 사발통문 모의, 고부농민봉기 등은 모두 지방관들의 가렴주구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과 생업, 생활을 위협받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폐정(弊政)의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 같은 농민군 즉 움직임은 이른바 폐정개혁을 통한 보국안민의 실현, 즉 자신들의 생명, 생업, 생활의 안전 실현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속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폐정은 개혁되지 않았다.

2년여에 걸친 합법적 운동에 이어 사발통문 모의와 고부농민봉기라는 비합법적 운동을 통한 폐정개혁 요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간 결과, 마침내 1894년 3월에는 제1차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전대미문의 무장봉기 형태의 혁명운동이 일어나기에 이른다.

주지하듯이, 제1차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3월 21일부터 전주화약(全州和約)이 체결되어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으로부터 자진 철수하는 음력 5월 8일경까지 전개되었는데, 이 시기에 동학농민군 지도부는 각종 포고문(布告文) 및 격문(檄文), 원정(原情) 등의 형태로 조선왕조의 폐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요구를 지방수령 및 조선왕조 지배층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제출하였으며, 그 같은 요구는 마침내 전주화약 당시 초토사 홍계훈에게 전봉준이 제출한 ‘폐정개혁안 27개조’로 집약되었다.

‘폐정개혁안 27개조’를 통해 농민군 지도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개혁하고자 했던 내용은 부패한 집권자(執權者)의 교체 바로 그것이었다. 즉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안민(安民)이라는 유가적 통치의 이상(理想)을 저버린 민씨(閔氏) 정권을 타도하고, 민심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던 대원군(大院君)을 추대할 것을 희망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민군 지도부는 민씨 정권에 빌붙어 아첨을 하며, 안민과는 정반대로 학민(虐民) 행위를 일삼는 중앙조정의 부패한 관리를 비롯하여 가렴주구를 일삼는 지방의 탐관오리

숙청을 통한 ‘정도(政道)의 일신’, 즉 정치혁명을 시도하였다.¹⁹⁾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 지도부가 지향했던 정치혁명의 궁극적 목표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본군의 개입 및 불법적인 탄압으로 인해 좌절된 직후 체포된 전봉준의 최후 진술에서 명료하게 확인되고 있다. 농민군 최고지도자 전봉준은 1894년 12월 초에 전라도 순창에서 체포된 직후 나주를 거쳐 서울로 압송되었다. 그리고 1895년 3월 말까지 전후 5차례에 걸친 심문을 받았다. 심문 과정에서 전봉준이 남긴 진술 내용은 앞에서 말한 『전봉준공초』로 남아 있으나, 정치혁명에 관한 내용은 당시 일본영사의 취조 내용을 자세히 보도한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 1895년 3월-5월분 기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²⁰⁾

『도쿄아사히신문』 1895년 3월 5일자 5면의 「동학당 대거괴와 그 구공(口供)」에 의하면, 전봉준은 “나의 종국의 목적은 첫째 민족(閔族; 민씨정권)을 타도하고 간신들을 물리쳐서 폐정을 개혁하는 데 있다”고 말한 다음, 이어서 민심을 잘 아는 몇 사람의 명망가를 선출하여 임금을 보좌함으로써, 안민의 정치를 이룩하고자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진술에 의하면, 전봉준은 끝까지 왕조(王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임금이 민심을 잘 파악하고 수렴하여 안민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도(政道)의 일신(一新)’²¹⁾, 요컨대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에 가까운 구상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비록 농민군 최고지도자 전봉준이 구상했던 정치혁명이 조선왕조를 부정하지 않는 입헌군주제에 가까운 것이었다고는 해도, 제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이미 ‘집권자의 교체’를 목표로 한 정치개혁을 시도하고, 다시 제2차 동학농민혁명 단계에서는 안민의 이상을 실현하

19) 박맹수,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왜 혁명인가”, 『생명의 눈을 보는 동학』(모시는 사람들, 2014), 233~236쪽.

20) 『도쿄아사히신문』 1895년 3월 5일자 「동학당 대거괴와 그 구공」, 3월 6일자 「동학당 대거괴 심문 속문」 및 같은 날짜의 「동학수령과 합의정치」, 5월 7일자 「동학당 거괴의 재판」, 5월 8일자 「동학당 거괴 선고 여문」 등 참조.

21) 『도쿄아사히신문』 1895년 3월 5일자, 「동학수령과 합의정치」 참조.

기 위한 구체적 방도로서 민심을 대변하는 명망가를 선출하여 임금을 보좌하게 하려 했다는 점에서 전봉준이 추구하고자 했던 또 다른 평화는 ‘정도의 일신’을 통한 정치혁명, 즉 ‘정치적 평화’ 실현으로 드러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전봉준공초」와 만국공법(萬國公法)

전봉준은 1892년 11월, 전라도 삼례에서 약 2개월에 걸쳐 전개되었던 교조신원운동²²⁾ 단계부터 동학 교단 내의 유력한 지도자의 1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전봉준이 교조신원운동 지도자로 부상한 삼례집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척왜양이라는 반외세적 요구가 집회의 주된 요구로 등장하였고, 그 운동의 주도자 가운데 1인이 바로 전봉준이라는 사실이다. 교조신원운동 과정에서 표출된 척왜양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해는 ‘일본과 서양 세력을 배척하는 배외주의’(排外主義) 또는 폐쇄적인 민족주의적 요구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 필자는 교조신원운동 단계, 특히 1892년 11월의 삼례집회 단계부터 1894년 동학농민혁명 기간 내내 일관되게 동학농민군들이 주장했던 척왜양이라는 슬로건이 단순한 배외주의적 요구이거나 폐쇄적인 민족주의적 요구가 아닌, 당시의 만국공법(萬國公法) 즉 근대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주창되어진 ‘합법적’ 요구였다는 점을 전봉준의 최후진술을 통해 해명하고자 한다.

전봉준이 주도한 동학농민혁명은 제1차(1894년 3월, 무장기포)와 제2차(동년 9월, 삼례기포)로 대별되며, 1차 혁명은 주로 조선왕조 지배체제의 모순을 무력을 통해 제거하고자 했던 반봉건적 성격의 봉기이며, 2차 혁명은 일본군의 불법적인 경복궁 점령(음력 6월 21일)으로 초래된 조선

22) 이것을 일러 삼례집회(參禮集會)라 부른다. 삼례집회는 1892년 음력 11월초에 시작되어 약 1개월 뒤에 공식 해산했으나, 일부 해산하지 않은 동학지도자 및 신자들에 의해 이듬해 1월까지 산발적인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의 ‘국난’을 타파하기 위해 일본군 구축을 명분으로 봉기한 항일 봉기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1차, 2차 혁명 모두 반봉건과 반외세라는 두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어찌됐든 이른바 ‘항일봉기’로 널리 알려져 있는 2차 혁명과 관련하여 전봉준의 명확한 진술이 남아 있다. 아래 인용한다.²³⁾

문: 다시 기포(제2차 봉기-인용자 주)한 것은 무엇 때문이나? (更起包 何故)

답: 그 후 들으니, 귀국(貴國-일본; 인용자)이 개화(開化-내정개혁; 인용자)를 한 답시고 처음부터 민간에게 일언반구 알림도 없고, 또 격서(激書-선전포고; 인용자)도 없이 군대를 거느리고 도성(都城-서울; 인용자)으로 쳐들어와 야반(6월 21일 새벽; 인용자)에 왕궁(王宮-경복궁; 인용자)을 격파하여 주상(主上-고종 임금)을 말함(인용자)을 경동케 하였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시골 선비와 일반 백성들은 충군애국(忠君愛國)의 마음으로 분개를 이기지 못하여 의병(義兵)을 규합하여 일본군과 싸우되, 일차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청문(聽聞)하고자 하였다. (其後聞則 貴國稱以開化 自初無一言半辭伝布民間 且無激書率兵入都城 夜半擊破 王宮 驚動主上云 故草野士民等 忠君愛國之心不勝慷慨 糾合義旅 與日人接戰 欲一次請問此事實)

위 내용에 따르면, 전봉준은 일본이 조선왕조와 조선의 백성들에게 일언반구 알린 일도 없이 제 멋대로 남의 나라의 내정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그것을 거부한 조선왕조 정부에 대해 격서(檄書) 즉 선전포고도 없이 불법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점령하고 임금을 포로로 삼은 사실에 대해 ‘충군애국’의 마음을 이기지 못해 ‘의병(義兵)’을 규합하여 일본군과 싸우되, 왜 불법을 저지르는가를 ‘청문’하고자 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내용은 당시의 국제법에 비추어볼 때 저촉되는 내용이 전혀 없다. 전봉준이 당시의 국제법, 즉 만국공법(萬國公法)을 알고 있었다거나 또는 읽었다는 증거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위의 진술은 그 어디를 읽어보아도

23)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529쪽.

당시의 국제법에 어긋나는 조항이 전혀 없다. 불법을 자행한 일본과 관련된 전봉준의 진술은 또 있다.²⁴⁾

문: 재차 기포(제2차 동학농민혁명; 인용자)는 일본군이 왕궁을 침범했기 때문에 다시 봉기했다고 하였는데, 다시 봉기한 후 어떻게 행동하고자 하였는가? (再次起包 · 因日兵犯闕之故再挙云 · 再挙之後 · 於日兵欲行何举措耶)

답: 왕궁을 침범한 이유를 따지고자 하였다. (欲詰問犯闕緣由)

문: 그렇다면 일본군은 물론이고, 경성에 주둔하고 있는 다른 외국인도 모두 몰아내려고 하였는가? (然則 · 日兵与各国人留住京城者 · 欲尽驅逐耶)

답: 그렇지 않다. 다른 나라의 외국인은 다만 통상만을 할 뿐인데, 일본인만은 유독 군대를 거느리고 경성에 주둔하는 까닭에 우리 국토를 침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 (不然 · 各国人但通商而已 · 日人則率兵留陣京城 · 故疑誣侵掠我国境土也)

위 진술에서 전봉준은 2차 혁명을 일으킨 뒤 후에 무엇을 하고자 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불법으로 왕궁을 침범한 일본군의 행위를 따지고자 하였다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이외에 서울에 거주하는 다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동을 취하고자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고 있다. 전봉준은 특히 일본만이 오직 군대를 서울에 주둔시키는 까닭은 조선의 국토를 ‘침략’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일본군을 ‘구축(驅逐)’하기 위해 2차 봉기를 단행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동학농민혁명 당시 메이지(明治) 일본정부는 외무성이건 육군성이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 총리대신을 필두로 한 여당이건 자유당(自由黨)을 필두로 하는 야당이건,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로 대표되는 지식인이건 일반 민중이건 간에 이구동성으로 일본군의 조선 출병과 조선왕궁점령, 즉 일본군의 조선 침략 행위를 지지한 바 있다. 예컨대, 전봉준이 재판과정에서 그 불법성을

24)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538쪽.

지적하고 있는 1894년 6월 21일(양력 7월 23일) 미명(未明)에 일본군이 조선왕궁을 침범한 사실에 대해, 그것이 당시의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였다고 그 부당성을 지적한 메이지 일본인은 단 한 명도 없다.²⁵⁾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전봉준은 만국공법으로 대표되는 근대 국제법은 물론이고 조선의 국내법까지 어기면서까지 침략행위를 일삼는 제국주의 일본에 대해 사형선고를 받는 순간까지 어느 한 구석도 당시의 국제법에 어긋남이 없는 진술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주장하였다.

요컨대, 전봉준은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킨 자신의 행위를 만국공법, 곧 근대 국제법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행위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볼 때 전봉준은 국제법에 근거한 조선의 평화수호를 위하여 행동했고, 죽을 때까지 그러한 신념을 일관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6. 맺음말

전봉준은 동학을 ‘혹호’, 즉 목숨을 걸 정도로 대단히 좋아했다. 동학은 수심경천과 보국안민, 곧 개인의 영성함양과 사회혁명의 이념을 두루 갖춘 ‘도학’이었기에 전봉준은 동학을 ‘혹호’했다. 수심경천과 보국안민을 평화와 관련하여 해석한다면 개인의 내면적 평화 실현과 함께 사회적 평화 구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영성과 혁명의 통일이 바로 동학이라는 도학이 추구하는 이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봉준은 동학을 목숨을 걸 정도로 좋아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봉준의 평화사상은 동학의 사상과 동학의 접포 조직에 기반한 동학농

25)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은 음력 6월 21일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불법 점령한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건 당초부터 은폐에 급급하였다. 경복궁 불법 점령 사실의 진실은 100년이 지난 1994년에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의 사료 발굴을 통해 밝혀졌다. (中塚明, 『歴史の偽造をただす』, 東京: 高文研, 1997.)

민혁명 전개과정에서 극적으로 표출되었다. 그 첫째는 1894년 음력 3월 20일경에 포고한 「무장포고문」을 통해 보국안민의 이념으로 드러났다. 포고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보국안민의 이념은 일찍이 동학 교조 수운이 「포덕문」에서 제시한 ‘보국안민지계’로써 동학의 지향을 충실히 계승한 것이기도 했다. 보국안민이란 ‘잘못되어가는 나라를 바로잡아 백성들을 편안하게 함’, 곧 서세동점과 삼정문란이라는 이중의 위기 속에서 생명과 생업, 생활을 위협받고 있던 민중들을 구제하는 것을 의미했다. ‘보국안민’을 통한 민초들의 생명과 생업, 생활 보장이야말로 평화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다음으로 전봉준의 평화사상이 가장 감동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바로 1894년 음력 3월 25일경 ‘백산대회’를 전후하여 발표한 「사대명의와 12개조 기율」이다. 이것은 동학농민군의 행동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행동강령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 동학농민군은 칼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이기는 것을 으뜸의 공으로 삼으며,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사람의 목숨만은 해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불살생(不殺生)에 있었다. 바로 이 같은 불살생의 정신 덕분에 동학농민군은 제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며 빛나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그 같은 동학농민군의 규율 실천은 이웃 일본에게까지 널리 알려져 ‘문명적’이라고까지 극찬을 받을 수 있었다.

셋째로 전봉준의 평화사상은 교조신원운동 단계(1892-1893)에서 고부농민봉기 단계(1894년 1월)를 거쳐 제1차 동학농민혁명 단계(1894년 3월-5월)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했던 폐정개혁 요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전봉준을 필두로 한 농민군 측의 폐정개혁 요구는 1894년 음력 5월 7일경 초토사 홍계훈에게 제출한 이른바 「폐정개혁안 27개조」를 통해 ‘정도의 일신’ 곧 부패한 민씨정권 교체를 통한 민생의 보장이라는 형태로 집약되고 있는바, 이것은 곧 정치혁명을 통한 나라 전체의 평화실현을 지향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봉준은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이 1894년 음력 9월에 제2

차 동학농민혁명(삼례기포)을 주도한 이유로서 당시의 국제법인 만국공법을 어기고 심지어 조선의 국내법까지 어기면서 침략행위를 일삼는 일본군을 '구축'하기 위해 봉기했다고 진술했다. 전봉준은 자신의 행위가 국제법적으로 합법(달리 표현하자면 평화적)이었음을 당당하게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는 전봉준이 만국공법적 국제질서를 깨뜨리는 일본의 침략에 맞서 만국공법적 국제질서의 회복, 곧 만국공법적 국제질서가 준수됨으로써 찾아올 국제평화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었다.

나주의 동학 관련 유적지 현황과 활용방안

한 규 무
(광주대학교 교수)

- | | |
|-----------|---------|
| 1. 머리말 | 2. 선행연구 |
| 3. 유적지 현황 | 4. 활용방안 |
| 5. 맺음말 | |

1. 머리말

필자는 2011년 박맹수(원광대)·홍영기(순천대) 두 분 교수와 함께 전라남도 일대 동학 관련 사적지를 조사한 경험이 있다. 한국근대사를 전공했으나 두 분 교수와는 달리 동학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인 필자에게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나주의 동학 관련 유적지는 10개를 넘지 않는다.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발굴될 여지는 있겠지만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여기서는 먼저 유적지 현황을 정리해 보고 이어 그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려 한다.

필자는 지역의 문화유산 관련 학술회의에 참여하여 ‘활용방안’에 대해 언급할 때면 가끔 회의에 빠지곤 한다.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원론 수준의 공허한 주문같은 느낌이 들어서다. 게다가 많은 시간과 인력, 재원이 필요한 방안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되도록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나주의 역사에 대해 밝지 않고 동학에 관해서는 비전문가인 필자는 걱정이 앞선다. 많은 질정을 부탁드린다.

2. 선행연구

나주의 동학 관련 선행연구는 적지 않으나 유적지 및 그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많지 않다. 먼저 필자도 조사에 참여했던 전라남도·무등역사회, 『전남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전라남도청, 2011)에는 ① 나주성 서성문 전투지, ② 나주목사내아 전봉준·민중렬 회동지, ③ 나주초토영 터 농민군 처형지, ④ 금성토평비, ⑤ 나동환의적비·진주정씨행적비, ⑥ 금성산 농민군 주둔지, ⑦ 함박산 농민군 주둔지 등이 나와 있다. 그리고 김남철 외, 『청소년을 위한 나주 역사: 근대 독립운동 편』(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2019)에는 ① 목사내아, ② 금성토평비, ③ 의열각, ④ 정수루, ⑤ 전라우영터, ⑥ 유광화선생기념비, ⑦ 송산정사, ⑧ 정석진 집터 등이 실려 있다.

이에 앞선 연구로는 신순철,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문화재 지정현황과 과제」(2010)가 있는데, 여기서 조사된 전국의 동학 관련 유적지는 다음과 같다. 이들 중 나주에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없고, 시도지정 문화재로 금성관·나주목사내아·금성토평비가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 : 전국】

순번	유적지명	소재지	문화재명/호수	지정주체	지정연월
1	전주성 풍납문	전북 전주	보물 308호	문화재청	1963.01.
2	해미읍성	충남 서산	사적 11호	문화재청	1963.01.
3	무성서원	전북 정읍	사적 295호	문화재청	1968.12.
4	홍주성	충남 홍성	사적 231호	문화재청	1972.10.
5	전주 객사	"	보물 583호	문화재청	1975.03.
6	전봉준 고택	전북 정읍	사적 293호	문화재청	1981.11.
7	남원성	전북 남원	사적 298호	문화재청	1982.11.
8	전주 경기전	전북 전주	사적 399호	문화재청	1991.01.
9	무장읍성	전북 고창	사적 346호	문화재청	1991.02.

순번	유적지명	소재지	문화재명/호수	지정주체	지정연월
10	담양 금성산성	전남 담양	사적 353호	문화재청	1991.09
11	우금치 전적지	충남 공주	사적 387호	문화재청	1994.03.
12	선운사 도솔암마애불	전북 고창	보물 120호	문화재청	1994.05.
13	고창읍성	전북 고창	사적 145호	문화재청	1995.04.
14	전라병영성지	전남 강진	사적 397호	문화재청	1997.04.
15	황룡전적지	전남 장성	사적 406호	문화재청	1998.06.
16	백산성	전북 부안	사적 409호	문화재청	1998.09.
17	진남관	전남 여수	국보 304호	문화재청	2001.04.
18	위봉산성	전북 완주	사적 471호	문화재청	2006.04
19	석대들전투지	전남 장흥	사적 498호	문화재청	2009.05.

【시도지정 문화재 : 전국】

순번	유적지명	소재지	문화재명/호수	지정주체	지정연월
1	나주 금성관	전남 나주	유형문화재 2호	전라남도	1972.02.
2	무장동헌	전북 고창	유형문화재 35호	전라북도	1973.06.
3	교룡산성	전북 남원	기념물 9호	전라북도	1973.06.
4	안흥성	충남 태안	기념물 11호	충청남도	1973.12
5	서산관아 외동헌	충남 서산	유형문화재 41호	충천남도	1976.01.
6	만석보 터	전북 정읍	기념물 33호	전라북도	1976.04.
7	홍덕동헌	전북 고창	유형문화재 77호	전라북도	1976.04.
8	태인동헌	전북 정읍	유형문화재 75호	전라북도	
9	풍암리 전적지	강원 홍천	기념물 25호	강원도	1977.11.
10	선산해평일본병참부 터	경북 구미	민속자료 105호	경상북도	1979.12.
11	고부옛읍성	전북 정읍	기념물 53호	전라북도	1981.04.
12	우덕리 산성	전북 정읍	기념물 51호	전라북도	1981.04.
13	고부향교	전북 정읍	문화재자료 74호	전라북도	1984.04.

순번	유적지명	소재지	문화재명/호수	지정주체	지정연월
14	최시형선생묘	경기 여주	향토유적 8호	여주군	1986.04.
15	나주목사내아	전남 나주	문화재자료 132호	전라남도	1986.09.
16	금성토평비	전남 나주	문화재자료 175호	전라남도	1990.02.
17	목애당	충남 태안	문화재 138호	충청남도	1992.08.
18	황화대	충남 논산	기념물 92호	충청남도	1993.12.
19	소근진성	충남 태안	기념물 93호	충청남도	1993.12.
20	세성산성	충남 천안	기념물 105호	충청남도	1997.08.
21	고성산성	경남 진주	기념물 142호	경상남도	1994.07.
22	수운 최제우 유허지	경남 울산	기념물 12호	경상남도	1997.10.
23	상주 동학교당	경북 상주	민속자료 120호	경상북도	1999.12.
24	말목장 터	전북 정읍	기념물 110호	전라북도	2001.04.
25	전라감영지(선화당)	전북 전주	기념물 107호	전라북도	2001.09.
26	천도교 장흥교당	전남 장흥	기념물 218호	전라남도	2003.05.
27	고부관아 터	전북 정읍	기념물 122호	전라북도	2005.06.
28	용못(송장배미)	충남 공주	향토기념물 4호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 전남】

순번	성격	유적지명	소재지	건립년도	비 고
1	사건유적	황룡 전적지	전남 장성		사적 406호
2	기념시설	기념공원, 기념탑	"	1995	
3	기타유적	승좌승지이공학승순절비	"	1897	
4	"	장경삼 형제 공적비	전남 함평	1996	
5	"	금성토평비	전남 나주	1895	시도문화재자료 175호
6	"	나동환의적비/진주정씨 행적비	"		
7	"	나주목사내아	"		전남도 문화재자료 132호
8	"	나주금성관	"		전남도 유형문화재 2호
9	"	천도교 장흥교당	전남 장흥		시도기념물 218호
10	"	영화단(당)	"		

순번	성격	유적지명	소재지	건립년도	비 고
11	기타유적	광서이십년갑오동학란수성장졸순절비	전남 장흥	1899	
12	"	벽사도찰방김후일청사복성불망비	"	1900	
13	"	홍룡단	"	1901	
14	사건유적	석대들전투지	"		사적 498호
	기념시설	기념탑	"	1992	
15	사건유적	옥산리 전투지	"		
16	"	장흥·강진집강소 터	"		
17	기타유적	전라병영성지	전남 강진		사적 397호
18	인물유적	김지홍 집	전남 여수		
19	사건유적	동성산 전투지	"		
20	"	석창성 전투지	"		
21	"	김지홍 화형 터	"		
22	"	나진 돌무덤 터	"		
23	"	장수 돌무덤 터	"		
24	기타유적	진남관	"		국보 304호
25	"	좌수영 서문 터	"		
26	"	사향 염전 터	"		
27	"	홍국사	"		
28	"	덕양역	"		
29	"	최부자집	"		
30	"	열녀김씨 제각	"		
31	사건유적	김인배 효수 터	전남 광양		
32	"	망덕나루·섬진나루	"		
33	"	가장골	"		
34	기타유적	섬거역	"		
35	"	유당공원	"		

아울러 동학농민혁명 종합지식정보시스템(<http://www.e-donghak.or.kr>)에는 다음과 같은 7개의 유적지가 소개되어 있다.

HOME > 유적지 > 전라남도 > 나주	
나주	
목록개수: 10 ▼	총: 7 건
번호	유적지명
1	1. 금성산 농민군 주둔지
2	2. 금성도평비(鎭城道平碑)
3	3. 나동환 의적비·진주정씨 행적비(의열각)
4	4. 나주성 서성문 전투지
5	5. 나주목사 내야(內衙) 전복준 민중항 화약지
6	6. 나주초토현 터(농민군 거점지)
7	7. 함박산(咸林山) 전투지

※ 출처 : <http://www.e-donghak.or.k>

나주의 동학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나천수의 「동학농민군의 나주지역 공략과 민중열 초토사의 방어를 다시보다: 『금성정의록』과 『난파유고』 기록 등을 중심으로」(『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 82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9)와 김봉곤의 「동학농민혁명기 나주 수성군의 조직과 활동」(『호남학연구』, 호남사학회, 2020)이 그것이다. 역사적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 그와 관련된 유적지도 함께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이밖에 2000년대에 들어와 지역의 동학 유적지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나,¹⁾ 아직 나주의 사례는 찾지 못했다.

1) 김정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문화관광연구』 6-1(한국문화관광학회, 2004); 우종윤, 「보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보존방안」, 『중원문화연구』 14(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10); 김양식, 「충북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보존과 활용방안」, 『동학학보』 28(동학학회, 2013); 조극훈, 「동학 문화 콘텐츠 글로컬라이제이션 -경상도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35(동학학회, 2015); 채길순, 「원주 동학농민사 전개과정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연구」, 『동학학보』 49(동학학회, 2018); 이병규, 「강원도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동학농민군」, 『동학학보』 37(동학학회, 2015); 장세길, 「브랜드로서 전주동학농민혁명과 지속가능한 역사교훈여행의 과제」, 『동학학보』 51(동학학회, 2019)

3. 유적지 현황

필자가 파악한 나주의 동학 관련 유적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2)

연번	명칭	구분	주소	비고
①	나주성 서성문 수성군·농민군 전투지	성곽	나주시 교동 42	사적 제337호
②	나주목사내아 전봉준·민중렬 회동지	건물	나주시 금계동 33-1	문화재자료 제132호
③	나주초토영 터 농민군 처형지	터	나주시 남외동 128	
④	금성토평비	비석	나주시 과원동 109-5 금성관 내	문화재자료 제175호
⑤	나주나공동환의적비·효열부 진주정씨행적비	비석	나주시 과원동 121-10	
⑥	금성산 농민군 주둔지	산야	나주시 경현동 산8-1 일대	
⑦	함박산 농민군 주둔지	산야	나주시 대호동 산62 일대	
⑧	정수루 수성군 결성지	건물	나주시 금계동 13-18	
⑨	송산정사 이병수 강학지	건물	나주시 노안면 용산리	
⑩	동학농민혁명국가유공자 유광 화선생기념비	비석	나주시 다도면 방산리	

2) 전라남도·무등역사회, 『전남의 동학농민혁명 유적』, 56-71쪽.

유적지명	❶ 나주성 서성문 수성군·농민군 전투지		
유적지 지정사항	사적 제337호		
주소	현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교동 42	
종류	성곽		
관련내용	정의	1894년 7월 동학농민군과 나주수성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진 곳	
	위치고증	『錦城正義錄』·『梧下記聞』 등에 관련내용이 실려 있으며, 당시 위치에 서성문이 복원되어 있다.	
	관련 역사적 사실	1894년 7월 5일 나주의 대접주 오권선(吳勸善)과 최경선(崔景善)이 이끄는 동학농민군 1만여 명은 금성산을 거쳐 나주성에 이르러 수성군과 접전을 벌였다. 나주읍성에는 동점문(東漸門)·서성문(西城門)·남고문(南顧門)·북망문(北望門)이 있었는데 전투는 주로 서성문에서 치러졌으며, 농민군은 나주읍성 함락에 실패했다. 한편 서성문은 전봉준이 나주목사 민중렬을 만나 담판을 짓기 위해 8월 중순 나주읍성에 닿았을 때 수문별장(守門別將)에게 자신의 신문과 목적을 밝힌 곳이라고도 한다.	
현재상태	원형복원 2011년 당시 위치에 서성문이 복원되었다.		
기념물	기념물명		
	주요내용		
조사의견	복원된 서성문 주변에 안내판을 세워 이같은 역사적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錦城正義錄』: 『叢書⑦』, 11~12쪽. 『梧下記聞』, 『叢書①』, 156쪽. 『전남동학농민혁명사』, 275~276쪽.		
			

유적지명	❷ 나주목사내아 전봉준·민종렬 회동지	
유적지 지정사항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32호	
주소	현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금계동 33-1
종류	건물	
관련내용	정의	1894년 8월 전봉준과 나주목사 민종렬이 회동한 곳.
	위치고증	『錦城正義錄』·『東學史』 등에 관련내용이 실려 있으며, 목사내아가 당시 위치에 보존되어 있다.
	관련 역사적 사실	1894년 7월 오권선·최경선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나주성 함락에 실패하자 전봉준은 감사 김학진의 서찰을 들고 부하 10여 명과 함께 나주성 서성문에 닿아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나주목사 민종렬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전봉준과 민종렬은 목사내아에서 만났는데, 전봉준의 수성군 해산 권고를 민종렬이 거절하여 회담은 결렬되었다.
현재상태	원형보존 당시의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참고문헌	『東學史』: 『叢書①』, 474~475쪽. 『錦城正義錄』: 『叢書⑦』, 49~52쪽. 『전남동학농민혁명사』, 278~282쪽.	



유적지명	㉠ 나주초토영 터 농민군 처형지	
유적지 지정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소	현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남외동 128 나주초등학교
종류	건물	
관련내용	정의	전봉준·손화중을 비롯한 동학농민군이 수감되거나 처형된 초토영이 있던 곳
	위치고증	『오하기문』·『금성정의록』·『김낙철역사』 등에 관련 내용이 실려 있으며, 『전남동학농민혁명사』·『동학농민혁명100년』에 당시 초토영 터가 현재 나주초등학교 위치라고 나와 있다.
	관련 역사적 사실	1894년 10월 28일 호남초토사(湖南招討使)에 임명된 민종렬은 초토영(招討營)을 설치하고 민보군(民保軍)을 모집했다. 이 초토영은 호남의 농민군 진압을 위한 본부 역할을 했으며, 12월 이후 전라도 각지에서 체포된 수많은 농민군들이 이곳에 수감·처형되었다. 전봉준·손화중·최경선 등도 이곳에 수감되었다가 서울로 압송되었다. 화순집주 한달문(韓達文)이 옥중에서 고향의 어머니에게 구명을 요청하며 쓴 편지가 남아 있다.
현재상태	멸실 당시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현재 나주초등학교가 세워져 있다.	
기념물	기념물명	
	주요내용	
조사의견	학교 구내에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오하기문』: 『혁명사』 249/292쪽. 『김낙철역사』: 『혁명사』 296쪽 『전남동학농민혁명사』, 249·292·296·569쪽.	



유적지명	❶ 금성도평비		
유적지 지정사항	전라남도문화재자료 제175호		
주소	현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과원동 109-5 금성관 내	
종류	비석		
관련내용	정의	1894년 나주수성군이 동학농민군을 물리치고 나주성을 지킨 것을 기념하기 위해 1895년 세운 비	
	위치고증	『錦城正義錄』·『蘭坡遺稿』 등에 관련내용이 실려 있다. 이 비는 원래 정수루(正綏樓) 앞에 세웠다가 금성관(錦城館) 앞으로 옮긴 것(1930)을 다시 현재 위치로 옮겼다(1976)는 안내문의 내용으로써 위치를 확인했다.	
	관련 역사적 사실	금성도평비(錦城討平碑)는 거북을 새긴 받침돌 위에 빗뚝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돌을 올린 모습이다. 받침돌은 땅 속에 파묻혀 그 윗부분만 보이고 있다. 비문의 내용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 동학농민군이 나주에까지 들어오는 과정, 나주목사 민중렬이 여러 장수들과 방어계획을 세우는 과정, 수성군과 농민군이 나주목에서 전투를 벌이는 과정 등 3부분으로 구분된다. 동학농민혁명이 끝나자 나주의 유림들이 뜻을 모아 세운 것으로 짐작되며, 기우만(奇宇萬)이 글을 짓고 송재희(宋在會)가 글씨를 써서 1895년에 세웠다. 이 비는 나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 동학농민혁명사 연구에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현재상태	원형보존 당시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기념물	기념물명		
	주요내용		
조사의견	현재 금성도평비 앞에 안내판이 세워져 있으나, 비각(碑閣)이 없어 훼손의 우려가 있다.		
참고문헌	『蘭坡遺稿』: 『叢書⑧』, 122쪽 『전남동학농민혁명사』, 297쪽. 『錦城正義錄』: 『叢書⑦』, 45~51쪽		







유적지명	㉞ 나주나공동환의적비·효열부진주정씨행적비	
유적지 지정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소	현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과원동 121-10
종류	비석	
관련내용	정의	나주 동학농민군 점주 나동환의 부인 정씨의 의열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
	위치고증	의적비·행적비 및 『전남동학농민혁명사』·『동학동민혁명 100년』 등에 관련내용이 실려 있고, 현재 나주시 과원동 정수루 옆 효열각에 비들이 세워져 있다.
	관련 역사적 사실	나주의 점주 나동환(羅東煥, 1849-1937)은 1894년 500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나주성을 공격했으나 실패했고, 전봉준이 체포되자 함평군 월야면 연암리의 처가로 은신했다. 부인 진주정씨(晉州鄭氏)는 남편과 아들을 다시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고, 자신은 나동환을 잡기 위해 들이닥친 관군들에게 잡혀 혹독한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다. 이들을 기리기 위해 의열각(義烈閣) 안에 <나주나공동환의적비(羅州羅公東煥義蹟碑)>와 <효열부진주정씨행적비(孝烈婦晉州鄭氏行蹟碑)>가 함께 세워졌다.
현재상태	원형보존 현재 효열각 안에 의적비와 행적비가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다.	
기념물	기념물명	
	주요내용	
조사의견	현재 효열각 앞에 이같은 역사적 사실을 담은 안내문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전남동학농민혁명사』, 290~291쪽. 『동학동민혁명 100년』, 291쪽.	



유적지명	❷ 금성산 농민군 주둔지	
유적지 지정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소	현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경현동 산8-1 일대
종류	산야	
관련내용	정의	1894년 7월 동학농민군이 나주성 공격에 앞서 주둔했던 곳.
	위치고증	『금성정의록』·『오하기문』 등에 관련사실이 실려 있고, 현재 나주시 경현동에 금성산이 있다.
	관련 역사적 사실	1894년 7월 1일 오권선·최경선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나주 금안동에서 합류하여 수일 동안 전투를 벌이고 금성산에 주둔했다. 이들 10,000여 명의 농민군은 7월 5일 하산하여 나주성의 서성문을 공격했으나 끝내 함락시키지 못했다.
현재상태	원형보존 현재 나주시 경현동에 금성산이 있다.	
기념물	기념물명	
	주요내용	
조사의견	금성산은 등산객이 많이 찾는 곳이므로, 등산로 입구에 이같은 역사적 사실을 담은 안내문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錦城正義錄』: 『叢書⑦』, 11~12쪽. 『梧下記聞』: 『叢書①』, 156쪽. 『전남동학농민혁명사』, 272쪽.	



유적지명	㉠ 함박산 농민군 주둔지	
유적지 지정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소	현주소	나주시 대호동 산62 일대(성향공원)
종류	산야	
관련내용	정의	1894년 11월 동학농민군이 나주성 공격을 위해 주둔했던 곳.
	위치고증	『난파우고』·『금성정의록』 등에 관련내용이 실려 있고, 당시 함박산(咸朴山) 위치에 현재 성향공원(姓鄕公園)이 조성되어 있다고 『동학농민혁명사』에 나와 있다.
	관련 역사적 사실	1894년 11월 23일 동학농민군은 금안면(金安面) 남산촌(南山村)의 태평정(太平亭) 등지에 주둔하던 동학농민군은 나주성 공격을 위해 다시 함박산으로 진출했다.
현재상태	변형 당시 함박산 위치에는 현재 성향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기념물	기념물명	
	주요내용	
조사의견	성향공원은 방문객이 많은 곳이므로, 입구에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담은 안내문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蘭坡遺稿』: 『叢書⑧』, 134쪽. 『錦城正義錄』: 『叢書⑦』, 31쪽. 『전남동학농민혁명사』, 265·288쪽.	



유적지명	⑧ 정수루(正綏樓) 수성군 결성지
주소	나주시 금계동 13-18
관련내용	1894년 음력 4월 25일(양력 5월 29일) 나주목사 민종렬이 성의 문루인 정수루에서 아전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수성군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참고문헌	『錦城正義錄』:『叢書⑦』



유적지명	⑨ 송산정사(松山精舍) 이병수 강학지
주소	나주시 노안면 용산리 3구 월송마을
관련내용	『錦城正義錄』을 지은 이병수(李炳壽, 1855~1941)가 만년에 머물러 후학을 양성하던 곳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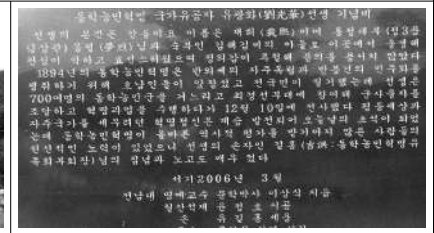
<https://blog.naver.com/nox9109/221920831507>

<https://blog.naver.com/camlhd2/220738974349>

유적지명	⑩ 동학농민혁명 국가유공자 유광화(劉光華)선생 기념비
주소	나주시 다도면 방산리
관련내용	이곳 출신의 동학농민군으로 1894년 12월 화순전투에서 전사한 유광화를 기념하기 위한 비
참고문헌	



<http://www.doopedia.co.kr>



<http://www.doopedia.co.kr>

4. 활용방안

나주시는 역사와 문화를 매우 모범적으로 정리하고 소개하는 지자체이다. 달리 말하자면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다. 『나주시지』 전문이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으며, (<http://www.naju.go.kr>), 나주목문화관이 운영되고 있고, 나주문화관광 홈페이지(<http://www.naju.go.kr/tour>)와 나주관광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visitnaju>)의 콘텐츠도 잘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나주독립운동사』(2015), 『청소년을 위한 나주 역사』(2019) 등도 간행하였다. 이 같은 기반은 동학 관련 유적지의 활용에 매우 유용하다.

연번	명칭	관련 시기
1	정수루 수성군 결성지	1894.05
2	금성산 농민군 주둔지	1894.07
3	나주성 서성문 수성군·농민군 전투지	1894.07
4	나주목사내아 전봉준·민중렬 회동지	1894.07
5	함박산 농민군 주둔지	1894.11
6	나주초토영 터 농민군 처형지	1894.10~12
7	나주나공동환의적비·효열부진주정씨행적비	1894
8	금성토평비	1895
9	송산정사 이병수 강학지	1931~1941
10	동학농민혁명국가유공자 유광화선생기념비	2006

아울러 유적지의 구성도 다양한데, 관련 시기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보듯이 수성군 결성지, 농민군 주둔지, 수성군·농민군 전투지, 전봉준·민중렬 회동지, 초토영 설치지 및 농민군 처형지 등 관련 유적지가 남아 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담은 수성군측의 금성토평비와 『금성정

의록』의 저자 이병수의 강학지, 농민군측인 나동환 의적비와 유광화 기념비, 그리고 나동환의 부인인 진주정씨 행적비도 남아 있다. 이 정도면 나주의 동학 관련 스토리텔링을 위한 자료로 손색이 없다. 여기에 나주 초토영에 간혀 있던 화순 출신 농민군 한달문(1859~1895)의 옥증편지까지 더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나주의 동학 관련 유적지는 타지에 비해 그리 부족한 편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이같은 유적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서 ‘활용’이란 무엇인가. 필자는 ① 널리 알려져 ②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③ 무엇인가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③에 대해서는 필자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므로 ①과 ②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나주는 역사와 문화 이해를 위한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는 동학 관련 내용들이 얼마나 담겨 있을까.

구분		내용	대상	비고
온라인	홈페이지	❶ 나주시청 홈페이지	전체	http://www.naju.go.kr
		❷ 나주문화관광 홈페이지	전체	http://www.naju.go.kr/tour
	블로그	❸ 나주관광 공식블로그	전체	https://blog.naver.com/visitnaju
오프라인	문화관	❹ 나주목문화관	전체	
	문화관광지도	❺ 나주관광안내지도	전체	리플렛
	간행물	❻ 『나주독립운동사』(2015)	일반인	2.4 동학농민전쟁과 나주
		❼ 『청소년을 위한 나주 역사』(2019)	청소년	2. 동학농민운동과 나주
	해설사	❽ 문화관광해설사	전체	나주읍성권
	시티투어	❾ 나주시티투어	전체	1코스/2코스
	기타	❿ 도전! 역사골든벨	청소년	2019년 개최

❶ 나주시청 홈페이지

나주시청 홈페이지에는 동학 관련 내용이 많지 않으며, 조선시대 연혁에도 나오지 않는다. 행정구역의 변천만을 소개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대신 『나주시지』(2006)를 e-book으로 싣고 있으며 8장 2절(『금성정의록』)을 통해 본 1894년 농민전쟁과 나주)에 동학 관련 내용이 나온다.

Ⅲ 조선시대

- 세조 2년(1457년) 병영의 하부조직인 거진(巨鎭)을 설치하고 진장(鎭將)인 병마사(兵馬使)는 목사(牧使)가 겸임하였으며,
- 효종 8년(1657년) 나주거진(羅州巨鎭)을 전라우영(全羅右營)으로 개편함으로써 우영장(右營將)을 두어 2군 8현의 군비를 장악하게 한바, 관할 구역이 확대되어
- 고종 32년(1895년) 5월 갑오경장 후 근대적인 지방행정체도 개혁에 따라 목사(牧使)와 우영장(右營將)을 없애고 나주군수(羅州郡守)를 두고 나주관찰부(羅州觀察使)를 설치하였다..

제2장 지방제도와의 변화	300
1. 군령제도의 정비 300	2. 나주읍회의 승강 300
3. 나주목사와 나주읍성 303	
제3장 통치시대의 실체	316
1. 군정시대 - 군내실시의 실체 316	
2. 영안성의 설치와 폐지 320	
3. 백제와 동진 및 고령 322	
제4장 사족세력의 성장과 가족문화	328
1. 사족세력의 성장 328	2. 사족세력의 향촌활동 330
제5장 사림의 성장과 활동	338
1. 사림의 건립 현황 338	2. 영안현에서 출어유사 338
제6장 임진왜란과 나주지역	342
1. 왜란의 발발 342	2. 나주지역의 활동상황 344
3. 영유권과의 변동 348	
제7장 조선후기의 사회변동	352
제1장 지방제도의 개편	352
1. 행정체제의 변화 352	2. 지방관서의 정비 352
3. 군사제도의 정비 352	4. 백야(白野) 관제의 정비 353
제2장 통치적 사건과 통치	358
1. 통치적 사건 358	2. 나주읍사(司) 357
제3장 지역 사회의 발달	374
1. 지역의 경제 상황 374	2. 지역의 대외 활동 - 출어유사 378
제4장 사회경제적 상황	384
1. 나주지역의 사회 384	2. 영성의 행정과 유물 386
3. 수공업과 상업 388	
제8장 제국주의 침략과 근대적 변화	394
제1장 근대 개혁과 근대화와의 변화	394
제2장 《갑오경장(甲午)을 통해 본 1894년 농민전쟁과 나주	398
제3장 문화의 변화와 나주	398
1. 단발령을 둘러싼 논쟁 398	2. 읍사(邑使)에 대한 비판 398
3. 향교(香校)의 쇠락 397	

제4장 행정 나주지역의 근대적 변화의 실체	381
-------------------------	-----

제9장 일제강점기 민족운동과 지역사회의 변화

제1장 나주지역의 민족운동의 전개	383
1. 나주의 민족운동의 전개 383	2. 나주의 사회의 변화 384
3. 나주의 경제의 변화 385	
4. 조선조에서 일제강점기까지의 변화 385	
5. 나주지역의 민족 387	
제2장 나주지역의 각종 민족 - 사회운동단체의 활동	389
1. 청년운동 389	2. 노동 - 농민 운동 387
3. 민족운동 389	4. 산업운동 386
5. 민족과 종교의 운동 387	
제3장 나주지역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단체의 전개	389
1. 민족 운동의 전개 389	
2. 나주지역의 민족운동 - 사건 372	
3. 나주지역의 민족운동 - 사건 372	
4. 나주지역의 민족운동 - 사건 372	
5. 나주지역의 민족운동 - 사건 372	
6. 나주지역의 민족운동 - 사건 372	
제4장 일제강점기 나주의 경제	381
1. 민족운동의 전개 381	
2. 나주의 사회경제적 상황 384	
3. 민족운동의 전개 384	
제5장 문화의 변화와 나주	388
1. 단발령을 둘러싼 논쟁 388	
2. 향교(香校)의 쇠락 387	
3. 향교(香校)의 쇠락 387	
4. 향교(香校)의 쇠락 387	
5. 향교(香校)의 쇠락 387	
6. 향교(香校)의 쇠락 387	

제10장 광복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나주지역사회의 변화

제1장 광복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나주지역사회의 변화	410
1. 광복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나주지역사회의 변화 410	
2. 광복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나주지역사회의 변화 410	

『나주시지』는 나주 2,000년의 역사를 고루 담아야하기에 동학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기는 어렵다. 다만 수성군의 입장에서 씌여진 8장 2절(『금성정의록』)을 통해 본 1894년 농민전쟁과 나주)은 다른 자료들을 통해 보완되어 균형을 맞췄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다.

② 나주문화관광 홈페이지

홈페이지의 「관광지」→「문화관광」에는 41개 관광지가 나오며, 이들 중 동학 관련은 금성관, 나주목사내아, 서성문, 정수루 등이다. 이들 중 서성문³⁾ 설명에서 동학 관련 내용이 나온다.



「관광지」→「문화재」에는 81개 문화재가 나오며, 이들 중 동학 관련은 금성관, 금성정의록, 금성토평비, 나주목사내아, 정수루 등이며, 이들 중 금성정의록과 금성토평비 설명에서 동학 관련 내용이 나온다.



- 3) “나주읍성의 서쪽에 위치한 서성문은 나주읍성 수성군과 동학군의 전투, 즉 우리 민족끼리의 전투 역사를 가진 슬픈 사연을 담고 있는 성문이다. 1894년 7월 1일 나주를 점령하기 위해 동학군이 서성문으로 내달렸으나 성은 함락되지 않았고, 이에 녹두장군 전봉준은 당시 나주목사 민중렬과 협의를 위해 나주읍성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그 문이 서성문이다.”

「추천여행」에는 「나주읍성 고샅길 마실가자」, 「테마여행」, 「체험여행」, 「코스여행」이 있는데 특히 「코스여행」에는 다양한 여행코스가 소개되어 있다. 이들 중 상당수에 금성관, 나주목사내아, 서성문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정수루와 나동환의적비·진주정씨행적비만 추가한다면 동학 관련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

③ 나주관광 공식블로그(나주에서 시작되는 2천년의 시간여행)

블로그 「두근두근 나주여행」에는 273개의 콘텐츠가 나오는데 동학 관련 내용은 없으며, 행사 소개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서성벽을 따라 나주목의 역사를 만나본다’처럼 문화유산 답사를 위한 콘텐츠도 있으므로 동학 관련 콘텐츠, 그리고 독립운동 관련 콘텐츠가 여기에 추가된다면 의향나주의 위상을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두근두근 나주여행 273개의 글

목록 열기



추석맞이 흥성할 가족 모임장

2020. 9. 17. 5



영산포 철도공원을 달리고 달려보자!!

2020. 8. 13. 4



연생사진 포토그래피에서 인증샷 찍고 선물받으러 가자!!



원년이 뿔 나주등류열전이 시작됩니다!!

④ 나주목문화관

나주목문화관에서는 동학 관련 콘텐츠를 찾기 어렵다. ‘나주목’보다는 ‘나주목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나타난 현상으로 짐작된다.



⑤ 나주관광안내지도(리플렛)

관광안내소뿐 아니라 버스터미널이나 KTX역 등에서도 쉽게 얻을 수 있는 나주관광안내지도(리플렛)는 외지인에게 가장 유용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금성관, 나주목사내아, 서성문, 정수루, 금성산, 함박산 등이 나온다. 하지만 동학 관련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리플렛에는 제한된 지면에 많은 내용을 담아야하기에 여기에 동학 관련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이 지도에는 금성산과 함박산(성향공원)을 포함한 대부분 동학 유적지가 나와 있어 매우 유용하다.

⑥ 『나주독립운동사』(2015)

『나주독립운동사』는 ‘독립운동’ 위주이므로 동학 관련 내용은 5쪽 정도이다.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분량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 없이 읽으면서 요약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전문 학술서라서 일반인이 찾아보기 어려우며 문체도 딱딱하다는 단점도 있다.

⑦ 『청소년을 위한 나주 역사』(2019)

『청소년을 위한 나주 역사』은 1. 역사의 고장 나주, 2. 동학농민운동과 나주, 3. 한말 의병활동과 나주, 4. 학생독립운동과 나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131쪽) 중 32쪽이 동학 관련 내용이며, 특히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동학농민운동 나주 유물과 유적’(8쪽)은 동학 관련 답사에 매우 유용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만큼 문장도 딱딱하지 않고 친근하다. 유적지의 소재지만 추가된다면 훌륭한 가이드북이 될 것이다.

⑧ 문화관광해설사

나주에는 7개 권역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동학 관련 권역은 나주읍성권이다.

관광안내지역

- 나주읍성권관광 안내소(061-331-6941)
- 나주영상테마파크 관광안내소(061-335-7941)
- 빈남고분군 관광안내소(061-336-1151)
- 도래전통마을 관광안내소(금~일 / 061-336-3675)
- 서문주막 관광안내소 (061-332-4417)
- 한국천연염색박물관 관광안내소(061-335-0091)
- 영산포역사갤러리 관광안내소 (061-331-1755)

필자는 관광이나 답사에서 가이드나 해설사 등 안내자의 역할이 그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관광지 가이드보다 유적지 해설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스토리텔링으로써 과거 유적지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언제 누가 만들었으며 건축사적인 의미는 무엇이다 라는 등의 제도사적 해설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인에게는 큰 흥미를 주지 못한다. 사람 사는 내용이 들어가야 관심을 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나주읍성권 해설자라면 어차피 서성문, 나주목사내아, 정수루, 금성관, 금성토평비, 나동환의적비·진주정씨행적비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데, 이때 민중렬, 전봉준, 나동환, 정씨부인 등에 대한 소개를 곁들이면 나주 동학의 핵심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효과적으로 나주 동학에 대해 정리해 줄 수 있는 것이다.

9 나주시티투어



나주시티투어는 2개의 투어코스가 있는데 모두 나주읍성권이 포함되어 있다. 가이드 또는 해설자의 역할에 따라 동학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만약 투어버스 이동시 금성산과 함박산 인근을 지나게



⑩ 도전! 역사골든벨(근현대사 알아가기 프로젝트)

2019년 7월에는 나주시와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공동주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전! 역사골든벨(근현대사 알아가기 프로젝트)」가 개최되었다. ‘나주 근현대사 알아가기 프로젝트’인 만큼 독립운동사 위주의 문제가 출제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역사골든벨은 사전에 예비문제가 공개된다. 여기에 동학 관련 문제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으며, 코로나19 때문



에 2020년에는 개최되지 못했다. 만약 앞으로 다시 개최될 수 있다면 여기에 동학 관련 문제도 포함시키면 좋겠다.

대신 단순한 암기 지식보다는 나주의 동학 유적지와 관련된 내용이 되기를 바란다. 나주의 동학 유적지는 대부분 나주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장소이다. 다만 그것에 담긴 동학 관련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주변의 유적지가 동학과 이런 관련이 있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면 이 역사골든벨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5. 맺음말

누군가가 나주의 동학에 관심을 갖고 답사를 하려 할 때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할까. 가장 일반적인 것이 포털 검색일 것이다. ‘나주’+‘동학’+‘답사’로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Google은 정보가 섞여 있어 검색이 쉽지 않으며, Daum과 NAVER는 개인 블로그가 대부분이다. 즉 개인의 답사기가 대부분이며 지자체 차원



의 체계적인 정보는 얻기 어렵다. 그도 그럴 것이, 지자체의 홈페이지에도 그 같은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자체로서도 고민이 있을 것이다. 동학뿐 아니라 나주의 한말의 병, 학생운동, 청년운동 등 모두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이들 모두에 대한 정보를 각각 정리하여 심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에 대한 간략한 정보마저 찾기 어렵다는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의향(義鄕)’을 자처하려면 그에 걸맞는 최소한의 정보라도 있어야 한다. 이는 나주시만이 아닌 광주시를 비롯한 광주·전남 지자체의 공통된 문제이다. 개인 블로그의 경우 전문가들이 아니라면 2차·3차로 생산·가공된 정보에 근거했을 가능성도 크다. 지자체는 그에 대한 학술적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나주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모색*

김 양 식

(청주대학교 연극영화학부 조교수)

1. 머리말
2. 나주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성격
 - 1) 극단의 충돌
 - 2) 정의로운 싸움
3. 나주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콘텐츠 모색
 - 1) 핵심가치 찾기
 - 2) 의미있는 기념공간과 상징 만들기
 - 3)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 발굴
4. 맺음말

1. 머리말

2천년대에 들어와 과거사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다양한 기념시설이 조성되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과 그 표현방식인 기념문제에 대해서 학계는 물론 일반 시민단체와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역사 기억과 기념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현실적인 이해관계와 이념 지형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지 냉정한 비판의식과 미래 지향적인 관점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과 기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전승하고 기념을 함께 나눌 공감대와 대중성을 확보해야만

* 이 글은 나주시·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이 주관하는 2021년 나주동학농민혁명 한·일학술대회(2021. 11. 12,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발표한 바 있고, 『역사연구』43호(역사학연구소, 2022.1)에 게재되었음을 밝힌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과 기념을 재생산하고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실천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두드러진 양상 하나는 2019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민간의 기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이다. 그 단적인 예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단체가 곳곳에서 새로 만들어지고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라는 요구가 민간 차원에서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억과 기념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민간의 기념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억과 기념은 주로 유적지 보존, 기념시설 조성(기념관·기념비·기념탑·상징조형물·기념공원), 기념행사 개최(학술대회·축제·추모제), 문화예술 창작 활동 위주였다. 그 결과 많은 유적지가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국가 차원에서 보존·관리되고, 다양한 형태의 기념시설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물론 아직도 보존·정비되어야 할 유적지가 많고 기념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기념사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유적지와 기념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대중적인 공감대를 확보하면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기념시설로 활용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그것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억의 가치와 의미를 확대 재생산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그를 위해서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기념시설이 나홀로 자기만의 진정성과 가치를 주장해서는 안된다. 다른 영역과의 전략적 제휴와 공유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곧 기억과 기념의 현재성의 문제이자, 대중성과 보편성 위에서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의 문제이다. 그럴 때 과거만을 위한 기억과 기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만나는 기억과 기념이 될 것이며 장기지속성을 선도적으로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념철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상당수의 기념시설이나 기념행사의 바탕에 깔려있는 의식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억과 추모 일변도라 기념철학의 빈곤이 느껴진다. 보다 풍부한 '동학

농민혁명의 기억과 기념'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현재성과 대중성, 그리고 미래지향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념철학의 정립이 요구된다.

나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풀어나가는 전략도 동일하다. 나주는 동학농민혁명사에서 특별한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 다행히 최근 나주시역 동학농민혁명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을 뿐 아니라,¹⁾ 2019년도에 일본인의 위령탑 건립안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사실상 나주시역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시작되는 초기 국면에 있는 만큼,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처럼 보다 많은 논의와 중지를 모아갈 필요성이 있다.

그를 위해 본고는 나주시역 동학농민혁명 기념콘텐츠 발굴에 앞서, 먼저 나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성격을 해명한 뒤 그를 기반으로 나주만의 기념사업 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추진될 나주시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기념사업에도 일정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나주시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성격

1) 극단의 충돌

동학농민혁명은 중세의 사회구조를 해체하여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일어난 밑으로부터의 민중항쟁으로, 그 형태는 내전인 동시에 동북아 국제전쟁으로 확대된 역사적 대사건이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는 조선왕조 5백년의 구각을 깨트려 조선후기에 잉태된 '근대'를 탄

1) 나천수, 「동학농민군의 나주시역 공략과 민중열 초토사의 방어를 다시 보다」,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2, 2019; 나천수·이영기, 「나주시역 동학 관련 구술자료 수집과 그 의의」,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6, 2020; 김봉곤, 「동학농민혁명기 나주 수성군의 조직과 활동」, 『역사학연구』 79, 2020.

생시킨 점이다.

그러나 산모의 진통은 참으로 컸다. 19세기 후반 조선사회는 전통적인 중화의식이 상당부분 형해화되어 있었다. 1876년 이후 조선은 이미 세계 체제에 편입된 상태였으며 고종은 미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이었다. 사회경제적으로도 중세적인 신분제가 상당히 해체된 상태였고 생산과 교환에 있어서도 자본주의적인 제관계가 성장하던 단계였다. 정치적으로도 왕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과거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매관매직과 무명잡세가 성행하는 등 분명 중세적인 전제군주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한 마디로 19세기 후반은 중세사회가 해체되고 근대사회로 나아가는 이행기였다. 이 시기는 중세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가 중첩돼 있고, 농민의 식 역시 파괴되어가는 전통사회를 지키려는 보수성과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혁신성이 병존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발발한 동학농민혁명은 19세기가 잉태한 내재적 근대성을 역사 무대에 탄생시킨 역사적 사건이었다. 동학농민군은 근대를 낳기 위해 반봉건 반침략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근대 핵심가치라 할 수 있는 평등, 자유, 인권, 자주 등의 씨앗이 심어졌으나, 서구문명을 앞세운 일본과 서구 열강의 침입으로 국내의 모순과 부조리가 왜곡되고 변형될 수밖에 없었으니, 그 중심에 나주도 있었다. 그래서 나주는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극단의 충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나주지역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특별한 장소성을 지닌 곳으로, 그 장소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나주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성격을 이해하고 기념사업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점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나주는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동학농민군과 반농민군 사이의 대립과 충돌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나주는 동학농민군 입장에서는 한 맺힌 슬픔과 희생의 장소이나, 반농민군 입장에서는 승리와 기쁨의 장소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

동학농민군과 나주목사 민종렬이 이끄는 수성군 사이의 대립·충돌은

크게 세 단계로 전개되었다. 1단계는 5월부터 7월 나주목사 민종렬이 수성군을 조직해 동학농민군과 충돌하던 시기이고, 2단계는 8월 전봉준과 민종렬의 담판으로 안정을 찾던 시기, 3단계는 9월 동학농민군의 재봉기로 다시 극단의 대립과 충돌이 벌어진 시기이다.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4월 18일 함평에 머무르면서 나주목사 민종렬에게 항복을 요구하였으나, 민종렬은 거부하였다. 오히려 그는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고 있던 5월 초에 아전과 군교·관노 등을 중심으로 한 1천명 규모의 수성군을 조직한 뒤, 5월 10일 동학농민군 32명을 살해하였다.²⁾

이 문제는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나온 뒤 전봉준과 전라감사 김학진 사이에 주요한 협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5월 8일 전주성에서 철수하여 각지를 순행하다 순창에 머물던 전봉준은 약속한대로 나주목사 민종렬을 처벌해줄 것을 6월 초에 전라감사 김학진에게 강력히 요구하여,³⁾ 6월 7일 김학진으로부터 ‘적의(適宜) 처리하겠다’는 답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김학진의 약속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나주목사 민종렬은 그대로 자리를 보전하였고 나주 수성군은 계속하여 동학농민군에 적대적이었다. 그러자 동학농민군들은 나주를 공격해 무고한 농민군 32명을 살해한 나주목사를 직접 처형하고자 하였으나, 전봉준이 이를 적극 저지하였다.⁴⁾ 전봉준은 최대한 직접적인 무력행사를 자제하면서, 전라감사 김학진을 통해 나주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전봉준은 전라감사 김학진의 제안을 받아들여 7월 6일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전주회담’을 갖고 집강소를 전면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⁵⁾ 그에 따라 전봉준과 김학진 사이에 시종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나주문제가 ‘관민상화’의 원칙에 따라 전향적으로 해결되었다.

2) 김봉곤, 위의 글 참조.

3) 『隨錄』, 44~45쪽.

4) 『日本人』, 35~36쪽.

5) 전봉준과 김학진의 전주회담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김양식, 『근대한국의 사회변동과 농민전쟁』, 신서원, 1996, 137~157쪽 참조.

7월 5일 나주 공격에서 패한 최경선이 전봉준에게 구원을 요청하자, 전봉준은 “각자 맡은 직책을 다할 뿐인데, 어떤 이유로 먼저 나주성을 공격했는가? 접장께서 나의 말을 듣지 않고 패하였으니, 나의 원조를 바라지 마시오” 라고 하였다.⁶⁾ 최경선부대가 나주를 공격한 것은 7월 5일 밤이었으므로, 전봉준에게 구원을 요청한 시점은 적어도 6일 이후일 것이다. 이 때는 이미 전주회담 중이거나 마친 직후이므로, 전봉준은 나주에 대한 무력 사용을 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이 문제를 김학진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김학진의 요청에 따라 나주목사 민종렬과 영장 이원우는 7월 18일 파직되었다.⁷⁾

그렇지만 나주는 오히려 수성군이 더 강화되는 추세였다. 그래서 7월 27일경에는 동학농민군이 나주를 공격하여 또 패하였다.⁸⁾ 7월 나주는 전봉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군과 민보군 사이의 치열한 대치상태가 지속되었다.

이에 8월 13일 전봉준은 김학진의 편지를 가지고 직접 나주목사를 찾아가 수성군 해산을 직접 종용하였다.⁹⁾ 그뒤 나주에서는 농민군과 민보군 사이의 이렇다 할 충돌이 9월까지 없었다. 이는 비록 동학농민군의 집강소가 나주성내에 설치되지 않았을지라도 김학진과 전봉준의 적극적인 무마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7월 18일 파직된 민종렬도 8월 17일 다시 유임되었다. 이 역시 전봉준과 김학진, 그리고 민종렬 세 사람의 타협 산물로 볼 수 있다.

오지영은 『동학사』에서 나주에도 집강소가 설치된 것으로 서술하였고 정석진의 『갑오토평일기』에서는 동학농민군이 굴복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실제 상황은 나주의 기존 수성소가 집강소의 기능을 대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때문에 상반된 두 기록이 있는 것이며, 실제 양측의 충돌은 없었다. 기존의 수성소가 집강소 기능을 대신 한 사례는 금산·

6) 黃玼, 『梧下記聞』 2필, 7월조.

7) 황현, 『오하기문』 2필, 8월조.

8) 『邑報抄概冊』, 7월 27일자 보고.

9) 李炳壽, 『金城正義錄』 갑편; 「全瑋準供招」, 『동학란기록』 하, 1959, 552쪽.

강진 등 여러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전봉준과 김학진의 대타협으로 무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나주에서의 화의국면은 동학농민군의 9월 재봉기로 집강소체제가 붕괴되면서 다시 새로운 대립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전봉준은 9월 10일경 삼례에 재기병을 위한 도소를 설치하고 군량미와 군자금을 모았다. 이때 광주·나주일대를 관할하고 있던 최경선은¹⁰⁾ 삼례 대도소로 와 5,6일간 머문 뒤 광주지역으로 내려갔다. 무장·영광·장성 일대를 관할하고 있던 손화중¹¹⁾ 역시 전봉준과 뜻을 같이 하여, 9월 26일 광주에서 대대적인 농민군집회를 열고 재기병 준비에 들어갔다.¹²⁾ 손화중과 최경선이 전봉준과 같이 서울을 향해 총진군할 수 없었던 것은 후방 방어와 흡사 모를 일본군의 바다 협공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나주목사 민종렬과 수성군의 존재는 동학농민군의 북진전략에도 영향을 줄 만큼 동학농민군에게 위협적이었다.

광주에 근거지를 확보한 손화중·최경선부대는 함평과 장성 일대를 휩쓸었다. 드디어 10월 21일 손화중 휘하 동학농민군 1만여 명은 나주접주 오권선과 함께 나주의 접경지역인 광주 침산(砦山)에 집결하여 나주 점령을 시도하였다. 그 무렵 전봉준은 10월 11일경 삼례를 떠나 북상을 개시, 10월 12일 논산에 도착하여 10월 16일경 동학교단 소속 동학군과 합세함은 물론 충청감사에게 글을 보내, 국왕을 꺾박하고 민중을 도탄에 빠뜨리는 항일의병전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¹³⁾ 이에 대해 충청감사가 거부하자, 드디어 10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북상을 위한 공주 공격에 들어갔다. 남원에 49일간 머물던 김개남 역시 10월 14일 남원을 떠나 북상길에 올랐다. 따라서 10월 21일 손화중의 나주성 공격은 전봉준의 북상전략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 이후 동학농민군과 나주 수성군 사이에는

10) 이병수, 『금성정의록』 갑편: 「전봉준공초」, 『동학란기록』 하, 1959, 554쪽 참조.

11) 손화중이 무장·영광일대를 관할하였음은 「宣諭檄文竝東徒上書所志膽書」, 『동학란기록』 하, 1959, 386쪽;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162쪽 참조.

12) 朴冀鉉, 『日史』, 9월 23일조.

13) 국사편찬위원회 엮음, 「宣諭榜文竝東徒上書所志膽錄」, 『동학란기록』 하, 1959, 282쪽.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졌다. 11월 12일 나주 수성군은 나주 북창 민가를 불태웠고, 16일 광주 비야산에서는 큰 전투가 벌어졌다. 농민군은 점점 불어나 수만명에 이르렀다.

드디어 손화중은 11월 20일경부터 최경선·오권선 등과 함께 나주성 점령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사정은 만만치 않았다. 이미 나주성은 철옹성이었다. 농민군 사기도 전과 같지 않았다. 전봉준이 연이어 패전한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손화중은 나주성 공격을 포기하고 11월 23일 장성방면으로 물러났다.

그러자 나주 수성군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나주 수성군은 11월 24일 남산촌에 집결해 있던 농민군들을 거의 몰살한 것을 비롯해, 금안면전투에서도 수많은 농민군들이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러자 손화중과 최경선이 이끄는 농민군 수만명은 광주에서 후퇴하여 덕산에 진을 쳤다. 이 때가 11월 27일 11시경이었다.

전세가 동학농민군에 매우 불리하게 기울었다. 특히 전봉준부대가 연패하는 상황에서 후방을 책임진 손화중부대 역시 나주성 공략에 실패함으로써 동학농민군의 전세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었다. 날씨가 추운 한겨울이 다가와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전봉준은 손화중부대가 나주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광주로 되돌아온 11월 27일 휘하 농민군을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손화중부대의 공격을 막아낸 나주목사 민종렬은 수성군을 독려하여 동학농민군을 해산하는데 주력할 즈음, 상황은 일본군 진입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장 미나미 고시로가 이끄는 일본군은 10월 15일 서울 용산을 출발하여 12월 10일 나주에 도착, ‘동학당 정토군 본부’를 설치한 뒤 무자비한 동학농민군 색출과 처형이 이루어졌다. 특히 미나미 고시로는 일본군 외에 조선 정부군은 물론 나주군병들을 총지휘하였다. 10월 28일 호남초토사로 임명된 나주목사 민종렬 역시 지휘권을 잃고 일본군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¹⁴⁾

그에 따라 1894년 12월 10일(양력 1895년 1월 5일)부터 1895년 1월 16일(양력 2월 10일)까지 일본군이 머물던 37일간의 나주지역은 일본군 세상이었으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동학농민군의 죽음으로 피로 얼룩진 동토였다. 이때 처형된 자는 부지기수인데,¹⁵⁾ 12월 2일에서 16일 사이 나주일대에서 붙잡혀 고문을 받아 죽거나 총살 내지 효수된 접주급 이상의 농민군 지도자로서 중앙에 보고된 명단만 해도 283명이다.¹⁶⁾ 일본군이 나주에 입성한 뒤 민보군에게 잡혀 지방관들에 의해 처형된 농민군만도 나주 부근 230명, 해남 부근 250명, 강진 부근 320명, 장흥 부근 300명 등 1,500여 명에 이르렀다.¹⁷⁾

처음 일본군 19대대의 작전계획은 서울 용산을 3개 중대로 나누어 남진, 경상도 낙동에 집합한 뒤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었다.¹⁸⁾ 이 계획은 공주 우금치전투 이후 동학농민군이 전라도로 대거 후퇴하자, 목적지가 전라도 서남단으로 변경되었다. 그에 따라 일본군은 11월 20일(양력 12월 16일) 충청도 은진에서 서로와 중로 중대를 통합하여 삼례→전주→임실→순창→담양→광주를 거쳐 나주에 도착하였다. 나주에 도착한 뒤에는 나주 주변지역에 동학농민군들이 대거 운집해 있자, 일본군을 여러 부대로 나누어 각지에 보내 농민군을 섬멸하도록 한 것이다.¹⁹⁾

미나미 고시로가 나주를 기반으로 전라도 서남단 농민군 섬멸을 꾀한 것은 나주가 전남의 지정학적인 요충지인 데다가, 호남초토사 민종렬이 나주성 외곽을 장악하고 향약을 실시하고 호남 전역에 토포조직을 구축하

14) 일본군의 나주 점령과 수성군의 위축에 관해서는 김봉곤, 「동학농민혁명기 나주 수성군의 조직과 활동」, 주56 참조.

15) 9월 이후 죽은 동학농민군 총수는 사실상 정확히 집계할 수 없다. 이돈화는 20만 명 이상(『天道敎創建史』 제2편, 69쪽), 박은식은 약 30만 명이라 하였고(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엮음, 『韓國痛史』 『朴殷植全書』 상,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11쪽), 오지영은 약 30~40만 명이라고 했다(오지영, 『동학사』, 154쪽).

16) 국사편찬위원회 엮음, 「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文及所獲汁物并錄成冊」, 『동학란기록』 하, 1959, 707~709쪽.

17) 국사편찬위원회 엮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1988, 62쪽.

18) 국사편찬위원회 엮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1987, 153~156쪽.

19) 국사편찬위원회 엮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1988, 59~68쪽.

는 등²⁰⁾ 농민군 진압기반을 다져놓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나주를 기반으로 한 일본군의 최종 농민군 섬멸작전은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 그래서 농민군의 사상자 역시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나주지역 동학농민혁명사는 극단의 충돌이 이루어진 역사를 지니고 있다. 동학농민군과 수성군의 대립·충돌,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의 충돌은 그 자체 사회적, 이념적, 민족적 충돌로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당시의 시대적 모순과 과제가 극명하게 표출되었다. 그것은 곧 조선왕조 구각의 해체이자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 정의로운 싸움

나주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겸산 이병수(1855-1941)의 『금성정의록(錦城正義錄)』이 있다. 문제는 이 기록에서 말하는 ‘정의’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한 질문을 처음으로 던지고 답한 것은 나천수이다.²¹⁾ 나천수의 문제제기는 나주 동학농민혁명의 성격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나천수는 동학농민군이 폐정개혁을 요구한 것이 오로지 나라를 위한 의로움에서 비롯되었듯이, 『금성정의록』을 편찬한 이병수나 나주목사 민종렬 역시 모두 농민군을 무찌른 데서 비롯된 정의가 아니라 ‘임금(나라) 편’에 선 정의로운 행위로 보았다. 그러면서 호남인은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언제나 뜻을 같이 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도 해석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사실은 농민군과 민종렬·이병수 등으로 대변되는 보수층이 지향하는 나라, 정의

20) 김봉곤, 「동학농민혁명기 나주 수성군의 조직과 활동」, 주48-55 참조.

21) 나천수, 「동학농민군의 나주지역 공략과 민종렬 초토사의 방어를 다시 보다」 참조.

의 주체, 정의의 개념은 분명 달랐을 것이다. 그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규정한 정의의 실현 주체로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싸웠고, 그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자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렸던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계급투쟁이며 국가적으로는 국가 운영 주체를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동학농민군이 표방한 정의란 무엇인가? 농민군은 그들의 투쟁 본부를 의소(義所) 또는 창의소(倡義所)라 하였다. 즉, 농민군은 의로움을 밝히기 위해 펼쳐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1894년 3월 20일 동학농민혁명 을 알리는 무장 포고문에 잘 나타나 있다.

“공경(公卿) 이하 방백수령(方伯守令)들은 국가의 위태로움을 생각지 않고 단지 자신과 자신의 집안만을 살찌울 공리만 하니 ----- 전국이 비참한 지경이고 만민이 도탄에 빠졌다. 수령의 탐학으로 어찌 인민이 곤궁치 않으랴. 인민은 국가의 근본이라. 근본이 쇠약하면 국가가 멸망하는 법, 어찌 국가의 위망(危亡)을 좌시할 수 있겠는가. ----- 이에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안민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서하노니...”²²⁾

이와 같은 내용은 농민군의 이념적 지향성이 표출된 것으로, 동학농민 혁명 전기간을 통해 일관되게 나타났던 논리이다. 4월 17일 창의소 명의로 전주에 보낸 통문에서도, “이번 우리들의 의는 위로는 종사를 보전하고 아래로는 서민을 편안케 하여 부자의 천륜과 군신의 대의를 완전히 밝히는데 있다” 하였다.²³⁾ 동학농민군은 군신지의(君臣之義)를 실천하기 위해 의로운 거사를 도모한 것이다. 다시 말해 동학농민군은 타락한 기존의 신하 대신 ‘군신지의’의 실천주체로서, 위로는 종사를 보전하고 아래로는 서민을 편안하게 하고자, 즉, 보국안민을 위해 의로운 깃발을 든 것이다.

동학농민군이 도탄에 빠진 민중을 널리 구제하고자 의를 들어 무장봉기

22) 『수록』, 1-2쪽; 국사편찬위원회 엮음, 「聚語」, 『동학란기록』 상, 1959, 142~143쪽.

23) 『수록』, 22~23쪽.

한 사실은 전봉준이 사용하던 「제중의소(濟衆義所)」라는 인장의 네 글자에 집약돼 있다. 또한 「보국안민(輔國安民)」, 「보제중생(普濟衆生)」, 「광제창생(廣濟蒼生)」, 「의(義)」자가 적힌 농민군 깃발에도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동학농민군은 인민을 해치는 자는 모두 그들의 적으로 설정될 수 있었다.²⁴⁾ 그래서 동학농민군 활동을 지켜보던 일반인들도 농민군을, 인민을 구하는 의군(義軍)으로 여기고 내심 찬미했던 것이다.²⁵⁾

이러한 이념은 전주화약 이후에도 그대로 관철되었다. 전봉준은 순창에서 만난 일본인에게 보낸 6월 7일자 글에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권을 잡은 신하들은 천하를 돌아보지 않고 인심을 살피지 않고서 백성의 재물을 탐내어 빼앗아 허망스럽게 사욕을 채울 생각만 꾀한다. --- 가렴주구하여 만민을 괴롭히고 팔도를 선동하여 도탄이 여기에 이르렀는데, 아직 이를 구하지 못했다. 세상이 변하고 운이 쇠하였는데, 어찌 조정에 사람이 없는가” 하였다.²⁶⁾ 이러한 전봉준의 글은 무장 포고문과 맥을 같이 한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관료를 위해 인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해 관료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당시 동학농민군은 다산의 관점으로 관료층을 바라보았는 바, 백성 위에서 군림하고 수탈하는 관료들은 ‘군신지의’에 어긋나며, 그래서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이 정의로운 행동에 나선 것이다. 그 때문에 동학농민군은 정의를 집행하는 의리의 전사이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의병으로 자기 자신을 여기고 있었다.²⁷⁾

이러한 동학농민군의 대의론은 9월 이후 항일의병전쟁기에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1894년 6월 일제가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한 이후 침략이 노골화되자, 9월 이후 재기병한 동학농민군들은 그들 자신을 일본세력을

24) 『일본인』, 45쪽.

25) 국사편찬위원회 엮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1987, 69쪽.

26) 『二六新報』, 明治 27년 8월 15일(강창일, 「갑오농민전쟁 자료발굴」, 『사회와 사상』, 1988, 255~256쪽).

27) 金邦善, 『林下遺稿』.

물리쳐 나라를 구하려는 의병으로 규정하였다. 10월 16일 전봉준은 충청도 논산에서 충청감사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²⁸⁾

“일본 도적놈이 전쟁을 일으키고 군사를 움직여 우리 임금을 핍박하고 우리 백성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차마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옛날 임진년 때에 능침을 더럽히고 궁궐과 종묘를 불태우며, 군주와 부모를 욕되게 하고 백성을 살육한 것은, 신민이 함께 분노하여 천추에 잊지 못할 한입니다. --- 현재 조정대신이 구차스럽게 목숨을 보전하려는 마음을 망령되게 하고서 위로는 군주를 위협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기망하고, 동쪽 오랑캐와 마음을 잇고서 남쪽 백성들에게 원망을 가지게 하였으며, 나라의 군사를 함부로 움직여 선왕의 백성들을 해치고자 하니 실로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저의 행위는 실로 몹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함께 의로써 죽는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위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전봉준은 일본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의로운 거사에 동참할 것을 충청감사에게 촉구하고 있다. 일반 민중들을 보국안민의 주체로서 바라보았다. 그 때문에 나라와 백성이 위기에 처하였을 때 거의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며 정당한 도덕적 실천으로 여겼다. 이런 행동이 가능하였던 것은 유교적 민본주의가 보편적 민본주의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군신지의’의 주체가 관료·양반 중심의 지배층에서 일반 인민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그것은 곧 19세기말 일반 인민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사회·정치사상으로까지 발전한 민본주의와 의리론에 바탕으로 둔 것으로, 부패한 봉건세력과 외세에 대한 민중들의 보편적인 저항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다. 더 나아가 그러한 민본주의적 의식과 사상은 인민이 주체가 된 정의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것은 곧 인민들이 중세의 질곡에서 벗어나 국가의 주체인 국민으로 재구성되는 ‘근대의 탄생’을 준비하고

28) 『東學黨征討略記』, 兩湖倡義領袖全瑋準謹百拜上書于湖西巡相閣下(甲午十月十六日).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성정의록』에서 말한 ‘정의’는 어떤 의미인가? 『금성정의록』에서 동학농민군은 동비(東匪), 요적(妖賊), 흉도(凶徒), 사문난적(斯文亂賊), 춘추토적(春秋討賊) 등으로 토벌·평정의 대상이었다. 동학농민군은 춘추대의와 군신지의에서 벗어난 흉도들이자 종묘사직과 임금께 불충한 역적이었으니, 이들을 토벌해 평정하는 것은 의로운 행동으로써 대의를 바로세우는 것이었다.

“성인이 입인(立人)의 도에 관하여 말한 것이 있으니, 곧 인(仁)과 의(意)이다. 의는 군신 사이보다 그 덕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 없다. 무릇 국가가 환난에 처하였을 때, 그 신하된 자로서, 자신의 몸을 바쳐 분발하려는 자는 오직 의를 본받으려는 마음만을 가질 뿐, 사생과 화복은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덕을 가져야 성인이 이르신 입신의 도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다.”²⁹⁾

이 인용문은 1894년 9월 전라도 흥덕 유생들이 작성한 기록이다. 그들이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해 수성군을 조직한 대의명분은 국가의 환난에 처한 임금님을 구하기 위한 군신지의였다. 그들은 그것을 정의로운 투쟁으로 여겼다. 이는 당시 성리학으로 무장된 지식인들의 일반적인 의리론이었다.

따라서 민종렬을 비롯한 보수층이 내세운 정의는 조선의 종묘사직을 지키고 임금께 충군(忠君)하기 위해 역적을 토벌하고자 한 ‘군신지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때문에 임금의 허락을 받고 역적을 토벌하기 위해 나주성에 입성한 일본군에 저항할 수 없었던 이념적 한계를 드러내었다. 더 나아가 민종렬 등이 지키고자 한 것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없이 안정화된 지배질서 재구축이었으니, 이는 1893년 12월 민종렬이 나주목사로 부임해서 한 다음과 같은 말에 잘 나타나 있다.³⁰⁾

29)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엮음, 『學義錄』,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2, 2009, 428쪽.

30) 이병수, 『금성정의록』 갑편, 高宗三十年 癸巳冬十二月.

“예전에 내가 들으니 금성은 곧 호남의 중심지로 도학과 충절, 문장과 명환(名宦)이 이전부터 여기에서 많이 배출된 고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유풍(遺風)과 여운(餘韻)이 마땅히 무너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있을 것인데도 지금은 옛날을 잊지 못하니, 어찌 오직 나주에 있는 선비들만의 불행이겠습니까. 또한 이곳을 다스리는 사람이 잘 이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를 위해 민중렬은 향약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나주 유지층의 환영을 받았다. 이것으로 보아 민중렬 등이 내세운 정의사회는 향약으로 정비된 도덕화된 사회였다. 이는 동학농민군이 전망하는 정의사회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정의 구현과 실천 주체 역시 현격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보수층은 일차적으로 배척되어야 할 불의의 대상이 조선의 강상을 해치는 무리였던 반면, 농민군은 보국안민을 위해 먼저 척결해야 할 세력으로 부패와 탐학을 일삼는, 그래서 민중을 도탄에 빠뜨려 국가의 근본을 어지럽히는 무리였다. 이는 8월 13일 전봉준이 민중렬을 찾아가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용에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³¹⁾

전봉준이 탐관오리의 학정을 바로잡아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자, 민중렬은 전봉준 등은 난상(亂常)의 무리로서 임금님께 근심을 끼쳤으니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전봉준과 민중렬이 바라본 시대상과 지향성은 그 간극이 넓고 컸다. 그 때문에 두 진영은 극단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3. 나주시역 동학농민혁명 기념콘텐츠 모색

1) 핵심가치 찾기

2019년 2월 정부는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였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던 1994년에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단

31) 이병수, 『금성정의록』 갑편, 甲午八月十三日 巨魁全瑋準.

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국가기념일 제정문제가 25년만에 결실을 거둔 것이다.

국가기념일은 한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이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국가 상징이자 ‘나라 만들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역사적인 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집합기억(collective memory)을 통한 기억의 정치(politics of memory)라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대한민국 역대 정권은 자신의 정통성과 이념 및 정치기반에 부합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고, 국가기념일이라는 기억의 도구를 활용해 이념적 국민 통합과 나라 만들기를 도모하였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와 나타난 뚜렷한 변화의 하나는 국가의 기억 정치에 시민사회가 참여한 점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시민사회의 성장을 대변한다. 그 때문에 일반 대중이 참여하고 민주시민사회 성장의 기폭제가 되었던 역사적 사건을 주목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5.18의 국가기념일 지정, 노동자의 날 부활 등이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위에서 동학농민혁명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특정 정치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난 25년에 걸친 동학농민혁명 유족, 학계, 시민사회가 적극 추동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민주시민사회로 보다 진일보했다는 반증이자,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인정한 결과이다.

앞으로 정부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기념일에는 정부 차원에서 기념행사 또는 그에 준하는 행사를 하여 기념일의 의의를 높이고 새로운 발전과 성숙을 모색하도록 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정부 외에 관련 지자체와 단체도 활발히 추진할 것이다. 실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각지에서 기념사업단체가 새로 결성되고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기념사업이 모색되면

서 동학농민혁명 기억과 기념의 역사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현재 민간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단체는 2021년도에 설립된 ‘사단법인 전봉준’을 비롯해 전국에 34개가 설립되어 있다. 전북과 충남이 가장 많은 각각 8개이다. 사단법인만 해도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와 (사)전봉준을 비롯해 12개에 이른다.

〈표 1〉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단체 현황

지역	전국	경기	전북	광주·전남	충남	충북	경북	경남	강원	계
기념단체수	2	1	8	4	9	4	2	3	1	34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설립된 일부 단체 추가.

이들 단체의 설립 목적은 대동소이하다. 대부분 동학농민혁명의 반봉건·반침략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문제는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기념방식이 과거를 현재에 소환하는 방식이어서 미래지향적인 방향과 전략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주요 기념사업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표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단체 주요 기념행사

행 사 명	시 기	행사내용	주최/주관	지 역
전봉준 장군 탄신제	1월 10일	전봉준 장군 탄신제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북 고창
동학농민혁명 고부봉기 기념제	2월 15일 전후	고부농민봉기 기념행사	(사)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	전북 정읍
김개남 장군 추모제	4월 2~3주 중	김개남 장군 순국 추모제례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전북 정읍
전봉준 장군 추모제	4월 24일	전봉준 장군 순국 추모제례	(사)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	전북 정읍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기념제	4월 25일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재현행사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북 고창
장흥동학농민혁명 기념식	4월 2~3주 중	장흥 동학농민혁명 의의 선양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남 장흥
동학농민혁명 보은취회 기념식	4월~6월 중	동학농민혁명 보은집회 기념행사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충북 보은

나주동학농민혁명의 재조명(나주학 총서 2집)

행 사 명	시 기	행사내용	주최/주관	지 역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대회 기념식	5월 1일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재현행사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	전북 부안
산청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4월 2~3주 중	영남(산청) 동학농민혁명 의의 선양	산청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경남 산청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5월 11~12일	황토현전승, 무명농민군 추모제례 등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전북 정읍
황룡 동학농민혁명군 승전기념식	5월 27일	경군을 크게 물리친 황룡전투 기념	장성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남 장성
동학농민혁명 전주입성 기념대회	5월 5주~6월 1주	동학농민군 전주입성, 집강소 설치 기념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북 전주
상주 동학농민군 추모제례	9월 3~4주 중	상주성 점령 기념 및 태평루 농민군 처형터 추모제례	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경북 상주
동학농민혁명군 추모제	10월 3~4주	태안 백화산 교장바위 희생자 추모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충남 태안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기념대회	10월 2~3주 중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의의 선양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북 완주
자작고개전투 희생자 추모제례	10월 22일	동학농민혁명 자작고개전투 희생자 추모제례	동학농민혁명서석면추모사업회	강원 홍천
동학혁명군 추모제례	10월 4주 중	고성당산전투 희생자 추모제례	천도교	경남 하동
동학농민혁명 추모제례	10월 말~11월 초중	대둔산최후항전 희생자 추모제례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북 완주
동학농민혁명 희생자 추모제례	9월 3~4주 중	남원대회 및 방아치전투 희생자 추모제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북 남원
동학농민혁명군 관작리 전승기념제	10월 3~4주 중	관작리전투 승전 기념행사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충남 예산
동학혁명 우금티 추모예술제	11월 중	우금티전투 희생자 추모제례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충남 공주
동학농민혁명 희생자 추모제례	12월 21일	구미란전투 희생자 추모제례	(사)김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북 김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단체에서 추진하는 기념행사는 주로 탄신제, 추모제, 기념식 등이다. 행사내용 역시 통상적인 기념행사이거나 추모제례·재현행사 등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억과 희생자에 대한 추모 위주이다. 그 형식 역시 전통적인 방식이거나 통상적인 콘텐츠 일변도이다. 기념철학이 빈곤한 실정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지난 20세기와 달리 매우 평등하고 민주적인 열린 사회로 급진전하고 있다. 열린 사회의 가치는 평등, 민주, 자유, 개인, 다양성 등이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지향점과도 부합된다. 그렇

다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이와 같은 가치들을 재구조화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기념행사가 되어야 하며, 그래야 우리 사회가 나아갈 정체성 확립과 정치사회적 가치 확산에 일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최근 동북아질서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당시의 동북아질서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19세기말 한반도 패권을 둘러싼 청·일·러가 각축을 벌였듯이, 오늘날 통일된 한반도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의 대립이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동학농민군이 자주적인 근대화를 외치고 외세 침략을 강력히 배격하였던 민족자주의식은 오늘날에도 이어갈 민족정신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기념은 열린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문제의식을 반영, 민족 자주와 주체적 변명을 상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학농민혁명의 핵심가치를 찾아내 기념사업의 방향과 전략으로 살려나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의 핵심가치는 평등, 자주, 정의, 평화 등이다. 최근에는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상생, 생명, 공존, 연대 등이 부상하면서, ‘정의로운 나라(사회)’를 향한 민중적 연대’와 같은 비전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핵심가치는 동학농민혁명의 보편적 가치 담론이고 기저에 깔린 기념철학이나, 동학농민혁명은 지역별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단체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에 기반을 둔 핵심가치를 찾아내 비전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기념방향과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나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핵심가치는 무엇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 한 마디로 ‘정의’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주 동학농민혁명은 극단의 정의투쟁이었다. 이는 1894년 8월 13일 나주목에서 만난 전봉준과 민중렬의 대화내용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³²⁾

전봉준은 보국안민을 위해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이 편히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더 이상 지배층에게 기대할 수 없기에 민중들의

32) 이병수, 『금성정의록』 갑편, 甲午八月十三日 巨魁 全瑋準.

직접적인 물리적 힘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동학농민군이 바라본 정의였으며, 그래서 나주목사 민중렬에게 공감을 구하면서 수성군을 해체하고 전라감사 김학진과 합의된 집강소 운영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민중렬은 향약을 통해 유교적인 도덕사회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하면서, 임금의 명을 어기고 사회질서를 혼란에 빠트리는 동학농민군을 난상의 무리로 간주, 춘추대의로 토평하는 것이 정의였다. 이 때문에 민중렬은 동학농민군을 도둑과 개에 비유하면서 주인이 집을 도둑으로부터 지켜내듯, 나주성을 동학농민군에게 내줄 수 없다고 하면서 전봉준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민중렬로 대표되는 보수층은 그들 나름대로 정의를 행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전봉준으로 대표되는 동학농민군 역시 그들이 판단한 의로움을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실천에 옮긴 것이다. 두 진영이 생각한 정의의 가치와 실천방식은 전혀 달랐기에 극단적으로 충돌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정의에 대한 정의(定意)이다. 사전적 의미의 정의는 사회구성원들의 공정하고 올바른 도리나 가치를 말하는데, 그것은 시대정신과 가치관에 따라 변하고 재정의되는 개념이다. 유학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 『논어』에서도 의를 당위성이나 정당성, 도덕 원칙이나 합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³³⁾ 주관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 때문에 정의는 해석여하에 따라 다른 기준, 다른 평가, 다른 지향점을 모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시의 사법 정의란 관점에서 보면, 동학농민군은 범죄집단일 뿐이다. 사법은 국가 체제 유지와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학농민군은 법을 떠나 정의의 이름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역사적 존재였다. 반면에 민중렬을 비롯한 보수지배층의 행위는 사법 정의를 바로세운 인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는 사법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다면, 그 사법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따라서 민중렬의 행위는 정의로 볼

33) 임종진, 『무엇이 의로움인가』, 글항아리, 2015, 37쪽.

수 없다.

분배 정의란 관점에서 보면, 동학농민군은 당시 분배의 불공정과 불평등, 그리고 불법을 직시하였다. 그래서 직접 분배 정의를 실현하고자 의로운 깃발을 든 것이다. 반면에 당시 보수지배층은 분배를 독점하고 분배의 모순과 부조리를 외면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동학농민혁명은 소유와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지배층에 대한 저항인 동시에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볼 수 있다.

회복적 정의는 옳고 그름을 떠나 마음으로부터의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다.³⁴⁾ 이런 개념으로 나주 동학농민혁명을 들여다보면, 전봉준과 민종렬의 언행을 통해 회복적 정의의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 민종렬은 1894년 8월 13일 전봉준과 대화를 나눈 뒤 전봉준이 무사히 나주성을 나가도록 하였으며, 10월 이후 호남초토사로 활동하였을 때도 인명 살상을 최대한 통제하고자 하였다. 전봉준과 민종렬은 시대정신과 사회모순 해결책이 달랐을지라도 나라와 인민을 위한 마음은 같았으며, 그 지점에서 두 사람은 화해하고 평화를 열어갈 여지는 있었다.

이와 같이 나주 동학농민혁명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핵심가치로 ‘정의’를 설정할 수 있다면, 다양한 담론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탐구하면서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정의 담론에서 공동선과 공공성을 매우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원 사이에 끊임없는 정의 담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논쟁이야말로 건강한 사회의 상징’이라고 하면서,³⁵⁾ 정의로움은 기본적으로 사회구성원의 행복을 극대화하고 자유를 존중하며 미덕을 기르는 공동선이 추구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 개념으로 보면, 동학농민군의 정의야말로 참으로 공동선을 지향한 정의로운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 공동

34) 하워드 제어, 손진 옮김,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KAP, 2010 참조.

35) 마이클 샌델, 김명철 옮김, 『정의란 무엇인가』, 와이즈 베리, 2015 참조.

선 내지 공공의 이익이란 차원에서 볼 때, 보수적인 조선 양반들은 공공영역에 일반 인민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들만의 나라를 꿈꾸었으며 인민들은 그들의 종속적인 존재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동학농민군은 위로 임금님부터 아래로 천민에 이르기까지 만백성을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 간주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탐관오리에 저항하고 천민 해방을 주장하였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실천한 정의로운 길이었다.

이렇듯 나주에서 주도하는 정의 담론은 시공을 초월하여 사회문제를 직시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유용한 대안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마이클 샌델의 말처럼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생각하게 하여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의 담론은 나주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적 핵심가치와 기념철학으로 삼아도 좋을 뿐 아니라, 기념사업의 확장성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2) 의미있는 기념공간과 상징 만들기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 등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성을 지닌 물리적인 기념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념공간은 통상적으로 유적지나 생가 또는 의미있는 장소를 택해 일정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장소를 택해 기념공간을 새롭게 구축해야만 한다. 이런 경우 어떤 형태로든 장소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터하고 살아가는 특정 장소의 환경(자연환경, 물리적 인공환경, 사회환경, 의미와 가치 등의 정신적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장소에 대한 소속감과 관계적 밀접성을 가진 장소 애착(장소에 또는 향토애)을 갖게 된다. 그러한 장소 애착은 일정한 연속성과 동질성·개별성을 띠게 되면서 장소 전체의 정체성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장소 애착과 정체성은 개인 차원에서 일정한 장소감으로 이어지고 장소 구성원 집단의 장소정신으로 자리매김되면서 장소성을 구성하게 된다. 그 결과 일정한

공간이 의미있는 장소로 자리매김되면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총체적인 특징, 즉, 장소성이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장소성은 특정 장소를 상징하는 유무형의 기억이나 이미지 형태로 나타난다. 어느 지역을 말할 때 공통적으로 기억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무엇이 그 지역의 장소성을 대변한다. 예를 들어 정읍하면 동학이 연상 되는데, 그것은 정읍이 이미 동학의 고장이란 장소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소성은 그 지역의 성격이나 특징, 또는 상징기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나주 역시 나주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장소가 선택되고, 나주시민이 그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장소 만들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념공간으로서의 장소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특정 장소를 일차적으로 염두에 둘 수 있겠으나, 시민이 찾지 않는 장소, 공감을 줄 수 없는 장소는 피해야 한다. 오히려 그것보다 시민들과 소통이 용이하고 장소적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보다 바람직하다. 그곳이 역사적 유적지가 아니어도 좋다.

현재 나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표 3>과 같다. 그 가운데 나주읍성과 관련이 있는 곳이 7개 가운데 3개로, 나주읍성이 나주 동학농민혁명사에서 가장 큰 장소적 의미를 지닌 곳이다.

현재 나주읍성을 ‘동학혁명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있다.³⁶⁾ 나주읍성(사적 제337호)은 나주 천년의 오랜 전통과 역사성을 가진 곳으로, 과연 동학농민혁명이 나주읍성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독점해도 되는지 시민사회 동의가 필요하다. 나주읍성 천년의 역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은 부분이지 전체는 아니다. 나주읍성 자체를 동학혁명 역사공원화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동의를 얻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나주읍성내 특정 장소를 기념공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장소가 바람직한지 시민사회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그

36) 나천수·이영기, 「나주지역 동학 관련 구술자료 수집과 그 의의」, 401쪽.

〈표 3〉 나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유적지	위 치	내 용
나주 금성산 동학농민군 주둔지	나주시 경현동	동학농민혁명 당시 나주성 점령을 위해 동학농민군이 주둔했던 곳
나주읍성	나주시 교동	동학농민혁명 당시 광주와 나주 지역의 동학농민군과 나주 관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진 곳
나주 과원동 의열각	나주시 과원동	동학농민혁명 당시 나주 동학농민군 접주인 나동환의 행적과 그의 부인 진주정씨의 효열(孝烈)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
나주목 관아	나주시 금성관길	동학농민혁명 당시 1894년 8월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과 나주목사 민종렬 사이에 회담이 이루어진 곳
나주 남외동 동학농민군 처형지	나주시 남외1길 16(나주초등학교)	2차 봉기 이후 나주에 설치되었던 호남초토영이 있던 곳으로 나주를 비롯한 인근지역의 동학농민군이 처형된 곳
나주 함박산 동학농민군 전투지	나주시 대호동	2차 봉기 이후 나주지역 동학농민군과 나주 관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던 곳
금성도평비	나주시 금성관길	동학농민혁명 당시 나주성을 사수한 나주목사와 관군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기우만(奇宇萬) 등 나주 유림들이 세운 비

자체 정의로운 논쟁이자 건강하면서도 생산적인 기념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다만, 나주 동학농민혁명을 담아낼 기념공간은 시민사회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장소성 확보가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현재 전국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간 대부분이 시민의 발길이 뜸한 이유를 곱씹어 보아야 한다.

이렇게 선택된 기념공간에는 일정한 상징조형물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상징조형물은 동상, 기념탑(위령탑), 기념비, 기념조형물 등이 일반적이다. 기념탑은 수직적이며 권위적인 형태가 대부분이다. 기념비 역시 전통적인 방식의 비석이 대부분이다. 기념조형물 가운데

데 나름대로 예술성을 가미하여 대중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 것도 있으나, 소수에 불과하다.

현재 나주에서는 일본인의 동학농민군 위령탑 건립이 논의 중에 있다. 이는 2019년도에 합의된 내용이나,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나천수는 나주 읍성을 ‘나주 동학혁명 역사공원’으로 지정한 뒤 빈 터에 일본인이 사죄의 의미를 담아 위령탑을 세우고 동학농민군과 그 후손들의 한의 목소리를 담아 12만개의 편석판 비군(碑群)을 배치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³⁷⁾ 매우 의욕적이고 참신한 제안이 아닐 수 없다. 이 제안에 대한 나주 시민사회의 활발한 논의가 기대된다.

그러나 몇 가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위령탑 건립 주체이다. 일본인이 사죄의 마음을 담아 건립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가해자로부터의 보상심리에 기반을 둔 것으로 회복적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회복적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관계를 벗어나 피해자가 용서와 사랑의 힘으로 역사를 넘어 미래 지향의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건립 주체는 나주인이 되어야 하고 일본인은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둘째, 나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성격과 현재성을 어떻게 탑의 형태로 상징화할 것인가이다. 다시 말해 탑에 담길 역사성, 현재성, 핵심가치의 문제이다.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죽어간 곳이기에 위령탑을 착안할 수 있겠으나, 억울하게 죽어간 동학농민군들이 바라는 것이 과연 그들을 기억하고 한을 풀어주는 것일까? 기억 넘어 또다른 표상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런 의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오히려 나주 동학농민혁명의 핵심가치가 ‘정의’라면, 정의가 표상화된 기념탑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할 때 기념탑 앞에서 갑오년의 정의를 묻고 이 시대의 정의를 찾고 그 대안을 모색해나가는 진지한 모습이 그려질 수 있다.

셋째, 탑의 조형성이다. 탑은 상징조형물이다. 조형물은 상징화된 이미

37) 나천수·이영기, 「나주지역 동학 관련 구술자료 수집과 그 의의」, 401쪽.

지이다. 기존의 정형화된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형태의 조형물로는 새로운 가치와 이미지를 담아낼 수 없다. 이 또한 건립 이전에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며, 논의 그 자체가 탐 건립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닌다.

3)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 발굴

현재 동학농민혁명 문화콘텐츠는 축제콘텐츠(축제·기념제 등), 예술콘텐츠(공연·영화·드라마·음악·그림 등), 문학콘텐츠(소설·시·희곡 등) 등이 일반적이다. 그 가운데 기념제적 성격을 지닌 축제가 일반적이며, 예술콘텐츠로는 천명(1994)·금강 1894(2015) 등과 같은 뮤지컬과 녹두꽃(2019) 드라마가 주목을 받았다.

동학농민혁명과 문화콘텐츠의 융합은 시대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은 역사적인 대사건이었고 관련 사건·인물 등이 많아 잠재적인 문화원형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콘텐츠로 확장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문화예술적 접근이 부족한 점, 둘째,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 기획과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셋째,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과 날로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에 제고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³⁸⁾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지나친 사실주의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즉,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되 크리에이터(creator)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제약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문화콘텐츠로서의 동학농민혁명 확장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관계자(역사학자·향토사학자·기념사업단체 회원 등)들이 우선 문화콘텐츠가 무엇인지, 그에 필요한 ICT 기술은 무엇인지, 트렌드는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38) 조우찬, 「문화예술콘텐츠로써 동학농민혁명의 확장성과 스토리텔링의 활용」, 『문화콘텐츠연구』 17, 2019 참조.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동학농민혁명 전문가와 크리에이터 및 테크놀로지와의 소통과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나주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와 조건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해결되었을 때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문화콘텐츠 발굴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나주 동학농민혁명 문화원형의 발굴이다. 문화콘텐츠는 일반적으로 ‘문화원형+스토리텔링+매체(ICT·축제 등)’가 결합되면서 완성된다. 그런 만큼 문화콘텐츠 발굴을 위해서는 콘텐츠화할 수 있는 문화원형 발굴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주 동학농민혁명 문화원형 발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사료와 인물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고증과 재해석을 통한 의미 부여와 가치 발굴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나주지역 동학 관련 구술자료 수집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³⁹⁾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작업은 지역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나주 동학농민혁명 문화원형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이 축적되어야 한다. 스토리텔링이란 살아있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사실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문학 작가들의 손을 빌려 소설이나 시·희곡 등으로 텍스트화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주지역 문학 작가들과의 교류와 소통이 필요하다.

셋째, 나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외연이 다양한 예술 장르와 문화산업 전문가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야 나주 동학농민혁명이 예술을 만나 노래가 되고 그림이 되며 드라마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ICT 문화산업 전문가들 손을 통해 AI, VR, AR 등과 결합되면서 캐릭터나 실감형 콘텐츠

39) 나천수·이영기, 「나주지역 동학 관련 구술자료 수집과 그 의의」 참조.

로 만들어지고 다양한 굿즈 상품이 만들어져 문화상품으로 소비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화콘텐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문화콘텐츠는 하루 아침에 결실을 거둘 수 없다. 나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고 고민이 깊어질 때 창조성을 만나고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다. 그를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나는 나주 동학농민혁명만의 문화상징을 찾아내는 일이다. 대표적인 동학농민혁명 문화상징은 죽창, 깃발, 파랑새, 녹두꽃, 칼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화상징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도구 역할을 한다. 또한 다양한 모티브를 제공하여 문화콘텐츠 발굴과 창작에 매우 유용하다.

또 하나는 일회적인 콘텐츠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진행형 콘텐츠 발굴이 필요하다. 이는 특정 기념행사도 동일하다. 동학농민혁명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은 현재성과 대중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시민의 참여와 공감의 수반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되새김이 필요하고 연차적인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통해 체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2019년부터 매년 ‘동학깃발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깃발은 동학농민군을 대표하는 문화상징으로, 동학농민군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여러 의미를 지닌 깃발이 나부끼었다. 더욱이 깃발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어 콘텐츠로서의 확장성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동학깃발문화제 때는 시민들이 직접 글자를 새긴 깃발을 들고 행진을 하며, 깃발에 새긴 글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구 외에 개인적인 희망도 좋고 가훈이나 사훈도 무방하다. 그래서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참여형 축제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동학깃발문화제 때 장승도 매년 제작하여 동학장승공원에 세우는 데, 2021년 현재 5기 10개의 장승이 세워져 있다. 이들 장승 제작에는 지역의 전문 예술인(목공예인·서예가·조각가)이 참여하고 있다. 10년

뒤에는 청주 동학장승공원이 지역작가의 예술 장승으로 숲을 이루는 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기념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러 주체를 연대하거나 네트워킹할 수 있는 구심점이 만들어져야 한다. 나주는 아직 기념사업 단체와 유족회가 결성되어 있지 않은 만큼, 향후 의미있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민단체 결성은 중요한 현안과제이다.

시민단체 결성은 연대방식이 바람직하다. 유족이나 향토사학자 중심으로 추진할 경우 확장성이 없다. 나주 동학농민혁명 네트워크 연대에는 동학농민군 유족, 향토사학자, 예술인, 문화산업 전문가 등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논의하고 조직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문제는 누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느냐이다. 이 질문에는 나주시민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4. 맺음말

동학농민혁명은 평등, 민주, 인권, 상생 등의 근대 가치를 지향하였다. 그러므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그러한 가치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동학농민군이 지향한 것은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였다. 동학농민군이 뿌린 정의와 평등의 씨앗은 오늘날 민주시민사회로 성장한 만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자칫 국가 중심의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민주적이고 민주적이며 상생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동학농민혁명은 새로운 사회로의 진보를 지향한 만큼 기념사업 역시 시대를 넘어 21세기 새로운 민중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특히 민족·국민과 같은 집단개념에서 ‘사람’ 하나하나의 가치를 빛낼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과 문화예술이 융복합된 기념콘텐츠를 발굴하여 확산시켜야 한다. 그를 통해 사람의 가치를 담아

내는 기념, 장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념공간, 기억의 회상과 추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념콘텐츠가 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나주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정의’를 핵심 가치와 기념철학으로 삼아 시대정신이 반영된 논쟁을 많이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다. 마이클 샌델이 말한 것처럼, 논쟁거리 만들기는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정의에 기반을 둔 다양한 상징 기념공간과 조형물 조성, ICT와 융합된 문화콘텐츠 개발, 동학농민혁명과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만남을 통한 정의로운 공공선 추구 등이 이루어질 때, 나주는 명실상부하게 ‘정의 도시 나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나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동학농민군과 보수층의 갈등·대립이 심하였고 그 여진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만큼 기념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관한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추진 주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로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다.

공감대 확보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나주 동학농민혁명사 연속 강좌, 나주 동학농민혁명 자료 읽기모임, 나주 동학농민혁명 시민답사(매월 1회), 나주 동학농민혁명길 걷기(격주 토요일) 등과 같은 모임을 지속적이면서도 정기적으로 추진해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시민을 모아가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기념사업 추진방식은 과정 중심의 사업전략이다.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기념은 시간의 간극이 큰 데다가 다양한 의식과 이해의 편차가 심한 만큼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 믿고 기다리면서 장기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의도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정의로운 도시 나주’로 향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역음, 『東學亂記錄』 상·하, 1959.

국사편찬위원회 역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6, 1986-1991.

金邦善, 『林下遺稿』.

朴冀鉉, 『日史』,

『隨錄』.

李炳壽, 『金城正義錄』.

『日本人』.

『邑報抄概冊』.

黃玪, 『梧下記聞』.

김양식, 『근대한국의 사회변동과 농민전쟁』, 신서원, 1996.

마이클 샌델, 김명철 옮김, 『정의란 무엇인가』, 와이즈 베리, 2015.

임종진, 『무엇이 의로움인가』, 글항아리, 2015.

하워드 제어, 손진 옮김,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KAP, 2010.

김봉곤, 「동학농민혁명기 나주 수성군의 조직과 활동」, 『역사학연구』
79, 2020.

나천수, 「동학농민군의 나주지역 공략과 민중렬 초토사의 방어를 다시
보다」,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2, 2019.

나천수·이영기, 「나주지역 동학 관련 구술자료 수집과 그 의의」,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86, 2020.

조우찬, 「문화예술콘텐츠로써 동학농민혁명의 확장성과 스토리텔리의
활용」, 『문화콘텐츠연구』 17, 2019.

나주동학농민혁명과 나주 정체성*

박 경 중
(전 나주문화원장)

1. 나주의 역사적 정체성
2. 나주동학농민전쟁과 한말의병의 관계
3. 나주동학농민혁명의 현장 방안

1. 나주의 역사적 정체성

나주는 금동관이 출토된 신촌리 9호분이 있는 반남 고분군, 아파트형 묘제가 확인되고 금동신발이 나온 복암리 고분군 등 우리나라 고대사의 뿌리인 마한의 중심지로 그 역사적 위상이 확인되고 있다. 평소 필자는 ‘목사골, 나주’보다 ‘마한 왕도, 나주’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나주 백성들은 고려 혜종 왕비인 장화왕후 오씨가 태어난 곳이라 하여 ‘어향’이라는 자부심도 있었다. 나주 사람들이 어느 지역보다 높은 국가의 식과 애국심을 가지게 된 배경이다. “나주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라는 강한 국가의식과 민족의식이 있었다. 여기에 나주의 정체성이 있었다.

나주는 이미 마한 시대부터 낙랑, 왜, 가야와의 교역이 이루어진 영산지 중해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왕건이 후백제의 배후를 치기 위해 영산강을 거슬러 나주 지역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고, 강화도에서 진도 용장성으로 이동한 삼별초 군대가 나주를 공략하려 한 것에서 이 지역의 지리적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 이 글은 2020년 나주시가 주최하고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이 주관하는 나주동학농민혁명
한·일학술대회(2020. 10. 28., 나주시민회관)에서 발표된 글을 게재하였음을 밝힌다.

격동의 근현대사에 들어서도 역사적, 지리적으로 나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94년 봄에 전라도 고부에서 일어나 전라도 전 지역을 휩쓸었던 동학농민군의 공격을 관군이 막아낸 유일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한말 의병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역사의 현장이 또한 나주였다. 3·1운동 이후 일어난 최대의 민족운동인 11·3학생운동의 발원지이자 중심지였다. 이러한 것은 나주 정체성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나주의 역사성은 나주의 행정구역개편에 잘 나타나 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김홍집의 개화당 정부는 기존의 8도 체제를 23개의 관찰부로 바꾸었다. 나주목은 전주부, 남원부, 제주부와 함께 전라도의 4개 관찰부의 하나가 되었다. 이때 나주부에는 나주, 해남, 진도, 강진, 장흥, 흥양, 보성, 영암, 무안, 함평, 능주, 동복, 광주, 남평, 낙안, 화순 등 16개 군이 속하였다. 이렇게 나주군이 나주부로 승격하여 전라남도 대부분 지역을 관할하게 된 것은 직전에 있었던 동학농민군의 공격을 막아낸 것과 관련이 있다.

2. 나주동학농민전쟁과 한말의병의 관계

1896년 2월 초 나주 지역에서는 전남에서 가장 먼저 을미의병(전기의 병)을 일으켰다. 동학농민군의 공격으로부터 나주를 지킨 공으로 해남군수로 승진해 나가 있던 정석진과 김창곤 등이 중심이 된 나주지역의 관민은 단발령을 추진하는 데 앞장선 참사관 안종수를 처단하는 등 일제의 내정 간섭에 격렬히 항의하였다. 일본의 침략정책에 노골적으로 저항한 나주 지역의 행정적 지위를 당시 무능한 조선 정부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였다 하여 그 격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보면 개항 이후 나주의 행정구역 변동은 동학농민전쟁, 한말

의병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주는 어떻게 해서 동학농민군의 공격을 막아냈고, 다시 위정척사사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의병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이 치열하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동학농민전쟁과 의병전쟁, 항일운동은 모두 항일운동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건을 각각의 별개로 인식하기보다 하나로 연결지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껏 동학농민전쟁과 한말의병을 별개로 이해하다 보니 상호 충돌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동학농민전쟁 당시 나주 상황을 간단히 살피고 그것의 현재적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동학이 나주에 전래된 시기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지 않아 알 수 없으나 강진, 완도, 보성, 장흥 지역에 1891년 포교가 시작된 것으로 미루어 나주도 이 무렵으로 추정된다. 정읍→장성→담양→광주→나주로 이어지는 루트로 포교가 이루어졌다. 고부 황토현에서 관군을 격파한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영광, 함평을 장악하고 나주로 밀려들었다.

나주 지역의 당시 상황은 이병수가 쓴 『금성정의록』에 잘 드러나 있다. 1893년 12월 나주 목사로 부임한 민종렬은 향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림의 결속을 다졌다. 민종렬은 “금성은 호남의 웅부이고 도학총절과 문장명현들이 전대에 많이 배출된 고장으로 그 유풍과 여운이 의당 끊기지 않고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지금 와서 만약 옛날처럼 계승되지 않으면 본 고을 유림에게 불행이며 따라서 향토를 지키는 이들이 능히 안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고 하였다. 곧 민종렬은 나주가 지나는 역사적 위치를 강조하며 이 지역민의 자긍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나주는 12개 고을의 진영을 관할하는 목이었으므로 기고(旗鼓), 창검, 활, 화살, 긴화살, 대완포, 장대포, 천보총, 탄약 등을 갖춘 무기고가 있었다. 그러므로 농민군의 입장에서 나주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을 점령하는 것보다 몇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농민군은 ‘막강한 전력’과 완고하게 둘러쳐져 있는 나주성을 접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나주는 농민군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새’이면서도

쉽게 점령할 수 없는 곳이었다.

민종렬은 4월 12일 향병을 모집하며 군사조직을 재정비하였다. 68명의 책임자를 정하고 별초를 운영하는 등 난공불락의 요새가 형성되었다. 이 러자 전봉준은 정면 공격 대신에 민종렬에게 편지를 보내 성문을 열 것을 회유 협박하였으나 민종렬이 거부하자 나주성 공격을 포기하고 장성으로 복진하였다. 그리고 4월 25일 장성 황룡강 전투에서 승리한 동학농민군은 본격적으로 나주성 공략에 나섰다. 특히 전주성을 점령하고 전주화약을 체결한 동학농민군의 입장에서는 나주성 공략은 커다란 숙제였다. 나주는 등에 찔린 가시 같고 눈에 박힌 바늘과 같은 곳이었다. 당시 “양호가 무너지고 호서에는 오직 홍주만 남고 호남에는 나주만 남아 성을 지키고 있어 전라도 53주에는 하나만 푸른 이파리 같다”는 민요가 유행하였다. 동학농민군은 7월 1일 나주성을 점령하기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최경선 손화중이 이끄는 3천의 동학농민군이 공격에 나섰다. 나주접주 오권선도 동학농민군에 합류하였다. 7월 5일 금성산에 주둔 중인 동학농민군은 서성문을 향해 총공격에 나섰으나 정석진이 지휘하는 나주 수비대의 강력한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주성 주변은 동학농민군의 수중에 들어 있었다.

나주성 공격에 실패한 전봉준은 8월 13일 직접 민종렬과 담판을 지으려고 나주성에 들어왔다. 물론 민종렬은 성을 내놓으라는 전봉준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민종렬을 만나고 돌아온 전봉준은 나주가 영산강이 휘감고 있는 천연의 지세에다 민종렬을 중심으로 관민의 결속력이 강함을 확인하고 나주성 공략을 서두르지 않았다. 특히 나주 관군이 당시 최고의 무기를 무장하고 있었던 것도 전봉준이 나주를 쉽게 공격하지 못하였다.

9월에 이르러 나주성 인근에 있는 동학농민군을 격퇴해야 한다는 부장들의 건의가 있었지만, 민종렬은 응하지 않았다. 관군이 나주성을 지킨 것은 나주성이 처한 지세에다 무기의 우수성 때문인데 만약 출정하게 되면 지형적 유리함이 상실되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추수기인

가을을 맞아 더 이상 농성하기에 한계가 있었던 나주 관군은 10월에 이르러 성문을 열고 동학농민군과 일전을 벌였다. 11월까지 관군과 동학농민군은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벌였으나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동학농민군은 비록 강진, 장흥 등을 장악하였지만 상당한 인적 손실을 입었다. 특히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 동학농민군 지휘부가 체포되면서 그들의 기세가 크게 꺾였다.

12월에 이르러 나주성은 동학농민군 토벌군의 총본영이 되었다. 이원우 등 23명이 나주수성의 공으로 공훈록에 이름을 올렸다. 나주성이 지켜질 수 있었던 데는 우선 나주의 지리적 여건을 들 수 있다. 밖에서 보면 평지처럼 보이나 금성산, 남산으로 둘러싸여 산성과 같은 요새였다. 다음으로 나주성에는 신식무기가 많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목사 민종렬을 중심으로 정석진, 김창균의 수성군과 나주 유생, 향리 등의 민병대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나주는 동학농민군의 공격을 이겨냈고 11월말 나주에 초토영과 일본의 교도영이 설치되었고, 12월 동학농민군 토벌대의 총본영이 되었다.

3. 나주동학농민혁명의 현창 방안

동학농민전쟁은 봉건질서를 타파하고 외세로부터 나라를 구하려는 구국운동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당시 왕조의 입장에서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받아들여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주에서 동학농민군에 강력히 맞선 것은 동학농민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왕조를 보위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왕조는 곧 국가였다. 당시 나주인들은 그들이 무너지면 조선왕조가 붕괴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것은 나주지역에 형성된 오랜 역사성이 표출된 것과 관련이 깊다. 따라서 나주성을 지켜냈던 나주인들의 굳건한 의식은 바로 애국의 발로에서 나온 것

이라 하겠다.

반면 동학농민군의 입장에서는 나주 공략 실패는 그들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한계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무리하게 나주성을 공격한 배경이라 하겠다. 그러나 나주성을 무모할 정도로 집요하게 공격하였으나 결국 실패에 이르면서 동학농민군 전체의 전력 약화를 가져오고 동학농민전쟁의 실패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동학농민군 지도부의 결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필자에게 남겨진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나주성 공략에 나섰던 수많은 동학농민군들은 그들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쓰러져갔다. 관군과 동학농민군이 치열하게 싸우던 11월 죽은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냇물을 이룰 정도였다. 이때 희생자의 대부분은 이름 없는 농민들이었다. 이들의 활동 내용을 객관적으로 살펴 역사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후세의 몫이다. 특히 나주성 공방과 관련된 동학농민군과 수성군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한 과거의 역사 인식 때문에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살피지 못하였다. 비록 한 세기가 훌쩍 넘었지만 이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으로 여긴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소견을 이야기 하려 한다.

동학농민군과 수성군의 공방을 ‘당시의 시각’으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들은 모두 왕조와 국가를 지키려는 애국 충정의 발로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상호의 관점에서 그들의 애기가 정리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이들의 신원을 위한 기념비를 건립하려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이 기념비를 세울 때 당시 수성군과 동학농민군을 함께 세워 역사에서 화해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점에서 위령비의 건립 주체가 누구인지 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념비 건립을 위해 일본의 한 단체가 나선다고 한다. 일견 동학농민군의 진압과정에서 일본군이 가담하였기 때문에 가해자의 반성이라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폈듯이 일본군의 개입 이전에 동학농민군과 나주 수성군 간의 치

열한 전투로 적지 않은 사상자가 나왔다. 따라서 우리가 역사에서 양자 사이의 원한을 풀고 기억의 공간으로 삼고자 한다면, 우리 나주시 또는 국가 예산으로 기념물을 세우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당시의 나주 공방전은 ‘나주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는 절박한 나주 백성의 의식과 새로운 세상을 꿈꾼 하층 동학농민군 간의 이념이 폭발한 역사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나주시가 주도적으로 위령비 등 기념물 제작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부
나주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와 참여자 현황

나주지역 동학관련 구술자료*

나천수 · 이영기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

1. 머리말
2. 동학농민운동 희생자 및 후손 찾기의 실상
3. 동학 구전 찾기: 나주지역 사례로 본 동학 희생자 찾기 문제점
4. 동학 구전자료 수집의 현실적 문제점과 대책
5. 맺음말

1. 머리말

지금부터 15년 전인 2006년부터 ‘한일 시민이 함께 하는 동학농민군 역사를 찾아가는 여행’이 시작되었다. 필자와 이 여행단과의 인연은 2018년 제13회 행사에서 맺어졌다. 당시 이노우에 가츠오(井上勝生) 교수를 대표로 하는 일본측과 한국측의 원광대학교 박맹수 교수가 동반하여 한일 답사단 20여명이 전라우영 터를 방문했을 때 필자가 현장을 안내¹⁾한 인연이었다. 그날 만찬 간담회 자리에서 필자와 일본측 단장 간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고 갔다.

필자 : 일본 측은 동학관련하여 가해자 측인데 가해자 측에서 일본군인의

* 이 글은 2020년 나주시가 주최하고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이 주관하는 나주동학농민혁명 한·일학술대회(2020. 10. 28.)에서 ‘나주지역 동학관련 구술자료 수집과 그 의의’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6(2020)에 게재한 바 있다.

1) 전라우영 터는 오늘날 나주초등학교 교정으로 필자는 1958년도에 졸업하였다. 당시 건물은 일제 때 지은 건물로 우영터 사형장이 학교 내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에 들은 대로 해설을 하였다.

살육했던 역사를 왜 발굴하려 하는가?

일본 측 단장 : 1894년 일본군이 가해했던 역사를 덮어놓는다는 것은 학자적 양심에 위배된다. 반드시 밝혀 일본에 알려야 한다.

필자 : 가해 역사를 밝힌 후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일본 측 단장 : 나주에 위령탑을 건립하고자 한다.

필자 : 현 아베 수상은 한국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위 일본측 양심 있는 학자는 억울하게 죽은 자를 위한 위령탑을 세운다 하니, 이는 한국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을 만한 획기적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인으로 한국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사람은 궁삼면 사건 때 조선인을 변호해준 ‘후세 다쓰지(布施辰治)’²⁾란 분 한사람뿐이다.

과거 필자는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태평양전쟁 전몰자 위령탑[沖繩の戦跡・慰霊塔 平和祈念公園]을 답사한 적이 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동학 위령탑 건립에 대한 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오키나와의 위령탑은 일본 측 전몰자는 물론 미국, 한국, 필리핀 등 각국에서 태평양 전쟁 때 전몰된 자의 20만 명의 이름을 빗돌에 새겨, 관광 필수코스로 연중 방문객이 오고 있다.



〈사진 1〉 일본 오키나와 평화공원



〈사진 2〉 태평양전쟁 참여자 20만명 비군

2)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 1880년 11월 13일~1953년 9월 13일,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출신의 일본의 인권변호사, 사회운동가이다. 2004년, 일본인으로서 최초로 대한민국 건국훈장(애족장)을 수여받았다.

오키나와 위령탑(慰靈塔)과 비군(碑群)은 20만 명의 이름을 새긴 것으로 그 위용은 거의 세계적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전쟁의 참상(慘狀)을 전한다거나 죽음에 직면한 인간의 한(恨)의 목소리를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메시지가 들리지 않았다. 공원 조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사례라고 본다.

2018년 가을, 나주시를 찾은 한일 대표단의 동학 위령탑 나주 건립의 의지 표명은 마침내 나주시의 미래전략 사업으로 채택되어 2019년 10월 30일 나주 시민의 날에 나주시, 원광대, 일본측 3자가 MOU를 체결하고 제1회 한일 학술대회³⁾에 앞서 일본측 대표 이노우에 카츠오(井上勝生) 교수가 1894년 동학과 관련된 일본군의 만행을 사죄하고 그것을 문서화하여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하였다. 이는 당일 학술대회보다 더 주요한 뉴스로 전파되었다.

분명 슬픈 동학역사에 대해 양심 있는 일본 측 학자들이 주동하여 나주에 건립하려고 하는 위령탑은 동학을 바라보는 사관(史觀)의 재정립이라는 세계사적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위령탑을 통해 나주가 세계적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칭 ‘동학 세계화 프로젝트(Donghak Globalization Project)’가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나주가 동학을 통해 세계적인 명소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넘어서야할 문제점이 있다.

첫째, 지금까지 발굴된 동학 참여자 명단은 겨우 3,670명 정도⁴⁾이고 그들 각각의 후손을 발굴치 않은 상황에서 다만 이름을 빗돌에 새겨 넣는다고 해서 나주가 세계적인 명소로 발돋움하겠는가? 3,670명은 아마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동학관련 기록문서에 언급된 동학도 인물을 집대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중에 가승도나 후손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3) 당시 학술대회의 슬로건은 ‘나주 동학농민혁명, 한(恨)에서 흥(興)으로 승화하다’였다. 이는 한·일 간의 갈등을 넘어 동학의 슬로건이었던 ‘인내천(人乃天)’ 즉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이념을 통해 세계 민주화와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숨은 뜻을 담고 있다.

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http://www.1894.or.kr/>) 참조.

얼마나 될 것인가? 3,670명 이외의 동학도는 현재로는 무명(無名)의 동학도일 뿐이다. 1894년 동학 농민운동에 참여한 자가 몇 만 또는 몇 십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겨우 3,670명만 확인된 것은 문제가 있다.

둘째, 제1회 한일 동학 학술대회 지향 방향이 ‘한(恨)에서 흥(興)으로 승화하다’였으니,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한(恨)이 흥(興)으로 승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나주 동학 위령탑이 세워지는 곳을 가칭 <나주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⁵⁾이라 명명(命名)하고, 그 위령탑은 나주시를 상징하는 심볼 마크가 될 것이다. 여기에 소위 희생자를 모두 발굴하여 나라별, 출신지역별로 분류하여 각자의 한(恨)의 소리를 새긴 편석판(片石板)을 모아 그것을 쌓은 비군(碑群)을 가칭 <나주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에 디자인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반드시 희생자 후손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恨)을 흥(興)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민족은 오로지 우리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恨)을 가슴에 품지 말고 밖으로 모두 뱉어 내도록 하는 틀을 만들면, 그 틀이 마침내 흥(興)으로 승화되고, 그렇게 승화되는 장소는 명소로 바뀐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다른 한편, 동학의 피해자가 오로지 동학 농민군만 있었는가? 당시 많은 식자층의 유림들도 벼슬아치들의 농민 수탈에 반대하여 농민군을 지지하고 응원하였다. 농민군의 기세가 날로 커지자 정부는 의병(義兵)이란 이름으로 민병(民兵)을 모집하여 동학군을 타도케 하였으니, 이들도 어찌 보면 피해자이다. 어떤 벼슬아치 또는 유명 유림인사는 자결을 통해 정부의 부패를 막고자 했다. 이들도 피해자이다.

또한 당시 일본군 후비보병(後備歩兵) 부대로 동학군을 진압하러 왔던 그들도 사람을 죽이는 진압에 동원 되었는데, 제19대대 제1중대 제2소대 제2분대 쿠스노키 비요카치(楠美代吉) 상등병이 쓴 『진중일지(陣中日誌)』⁶⁾가 120여년이 지난 근년에 발견되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원

5) 이 문제는 추후 전문가와 시민의 공감대를 통해 정해져야 할 문제이다 큰 틀로 보아 「세계 민주화 공원」의 이미지를 부각할 필요가 있다.

6) 박형모, 「장흥동학농민혁명의 기억의 장소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2019, 22쪽.

되어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이 왜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겠는가? 아마 그 사람은 물론 그 후손들도 살인이라는 한(恨)의 명예를 벗고 싶었을 것이다. 분명 가해자 측에서도 뱉어 내고 싶은 한(恨)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그 일본측 한(恨)의 목소리를 편석판(片石板)으로 모아 비군을 세워놓으면 후세에 교훈이 되지 않을까? 즉, 어찌 보면 동학 가해자 측인 일본군 후손들도 자신들의 선조가 동학농민군을 학살했다는 명예를 벗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도 그들 나름의 한(恨)의 소리를 뱉어내고 싶을 것이다.

그러한 한(恨)의 소리를 모아 나주에 새롭게 조성되는 가칭 <나주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에 탑비(塔碑)로 세워놓으면 그 후손들이 반드시 가서 예(禮)를 드리는 성지 순례 코스가 되어 나주시는 저절로 명소로 떠오를 것이다. 아울러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지구촌에서 사라지게 하는 교훈의 장소로 알려질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재정 투자하여 만든 관광조성물은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관광조성물이 성공하였음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대전의 <뿌리공원>이다. 대전시는 전국 성씨 공원을 조성하면서 분명 나주의 <성향공원>을 벤치마킹 했을 것으로 본다. 대전시는 도로 등 기반 조성을 부담하고, 해당 성씨 종중에서 입비(立碑)에 대한 재정 부담을 하였다. 입비의 숫자가 현 공원에 넘치자 제2의 성씨공원을 조성한다는 뉴스도 보았다. 우리나라는 혈통에 연민의 정(情)을 가진 민족이다. 필자도 오래 전에 방문하여 유료 입장을 하였는데, 요즘은 연중 무휴 관광객이 마치 성지 순례지를 찾듯 방문하니 입장료가 무료인데, 외래 방문객이 많아져서 대전시 음식점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나주시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가칭 <나주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은 나주시가 재정 부담하여 기반 조성을 하겠지만, 피해자 측 후손들을 참여하는 길을 터놓고 그들의 한(恨)의 목소리를 새긴 편석판(片石板)을 만들어 그들이 찾아 오게 하고, 나주시가 취합하여 나라

별, 지역별, 또는 성씨별 비군(碑群)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1894년경에 이름 없이 죽어간 희생자는 누구이며, 그 희생자의 후손을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가라는 방법의 모색에 있다.

나주시는 1896년 천년 나주목(羅州牧)의 위상인 관찰부(觀察府)가 폐하여지고 낙후를 면치 못하였다. 그런데 나비효과의 최초 발상지가 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여 나주시, 원광대학교, ‘일본 시민이 함께 하는 동학농민군 역사를 찾아가는 여행’이란 삼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나주를 세계적 명소로 탈바꿈시키려는 미풍이 나주에서 시작하였으니, 장차 이 바람이 세계 곳곳으로 불어갈 태풍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또한 그러한 결실을 맺도록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본 글은 나주 동학농민혁명의 과거 실상은 어떠했고,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점검하여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나주시가 동학의 세계적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동학농민운동 희생자 및 후손 찾기의 실상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1894년 당시의 동학에 가담한 농민들의 숫자를 조사한 적이 없다. 또한 당시에 죽임을 당한 자의 숫자도 조사한 적이 없다. 과거 정부에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1894년 이후 조선의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일본군은 무력으로 조선 정부를 장악하고 마침내 1910년 일제강점기의 한일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는 초야에 숨어 살면서 동학의 흔적을 지우고, 동학 활동을 외부로 발설치 못하는 분위기에서 거의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1894년 2차 농민봉기부터 반일운동(反日運動)을 시작하였기에 농민군을 단순히 폭도 진압차원을 넘어 일본군과 관군은 집단 학살을 자행했다. 그러나 관군 측이 살상자를 기록해 놓지 않아 그 숫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

다만 몇 군데 특별한 전투지역에서만 살상자를 기록한 정도였다.

예를 들어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은 최신 무기인 스나이더(Snyder) 총과 무라타(村田)총 그리고 개틀링 건(Gatling gun/기관총)으로 무장하여 체포보다는 학살을 자행하였다.

당시 조선군 3,200명, 일본군 200명이 진압군으로 참여하였고 동학농민군은 남접군 1만명, 북접군 1만 명으로 대략 2만 명이 접전하였으나 생존자는 겨우 3천명이란 설이 있으니 거의 1만 7천명이 죽은 셈이다. 농민군 대 진압군의 대비를 500대1로 보기도 하고 250대 1로 보기도 한다.

동학농민군 전시관 소개 글에서는 장흥 석대들 전투 등 장흥지역 사상자도 실명 확인전사자 357명, 무명전사자 1,165명이라고 한다. 대체로 이 두 개소의 전투에서만 거의 2만8천명 이상이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전국적 동학 참여자 수를 파악한 기록은 없으므로 필자가 옛 기록을 근거로 전국 동학 참여자 수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참여자 수를 산출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산출해 내지 않으면 동학농민운동을 수치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필자가 과거 동학관련 기록을 먼저 발췌하고 발췌된 근거로 전국에 과연 몇 개의 접(接)이 있었으며, 1개 접당 인원은 몇 명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전국 접(接)을 X라 하고, 접(接)당 인원을 Y라 하여 X와 Y값을 산출해 보았다. 전국단위 인원을 산출해 낼 수 있는 기록은 관찬(官撰)의 전봉준 공초록(供草錄)이 있고, 사찬(私撰)의 기록으로 『금성정의록』, 『김낙봉 이력』, 『김낙철 역사』 등 기타 역사기록에서 추출하여 다음 <표 1>을 작성하였다.

다음 <표 1>에서 보면, 전국단위로 몇 개의 접(接) 그리고 접(接)당 인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산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1894년 갑오민란은 1862년 임술민란의 연장선 또는 재현이라고 보면 1862년 임술민란 전국70개소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70을 고정 수치로 하였다.

〈표 1〉 ‘키워드’로 본 전국 동학 농민군 수 추정

X값	Y값	수치 고정	내용	출처
수천명 ?		불가	문 : 기포(起包)시에 무엇 때문에 주모하였는가? 답 : 중민(衆民)이 나를 추대하여 주모로 삼은 고로 민언(民言)을 따랐다. 문 : 수천 명 중민이 무엇 때문에 너를 추대하여 주모로 하였는가? 답 : 중민은 비록 수천 명이나 모두가 어리석은 농민으로 나는 문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봉준 공초록」 1895.2.9
동학은 적고 원민은 많다?		불가	문 : 고부 기포(起包)시에는 동학(東學)이 많았는가? 원민(冤民)이 많았는가? 답 : 기포시에는 원민·동학이 비록 합하였으나 동학은 적고 원민이 많았다.	「전봉준 공초록」 1895.2.9
70		70	1894년 갑오농민운동은 1862년 임술민란의 재현이다. 1862년 임술민란 전국70개소 발생	
53		53	1894년 갑오농민운동으로 전국53개소 집강소 설치	
전적지 110		110	전국 도별 동학농민혁명사 개관 및 사적지 현황 <출처>http://blog.daum.net/muaedongcheon/1372 (2020년8월2일 검색)	인터넷 무에동천
6임 첨지 4천장		4000/6 = 667	대신사 최재우께서 분부하신 말씀 가운데 “이것도 시운(時運)이어서 금지할 수가 없다. 그러나 너는 형과 상의하여 접(接)의 내부를 정중히 단속하고 숨어 지내는 것을 위주로 하라”고 하시며, 형에게 답장을 내려주시고, 6임(六任)의 첨지(牒紙/임명장) 4,000여 장을 내어 주셨다.	『김낙봉이력』 1894년 봄
6임 체지 4천장		4000/6 = 667	장수군의 김숙여(金淑女)가 예우(禮遇)로서 체지(牒紙)를 낼 때에 4,000명이 넘는 명단을 가져와서 대신사가 계산 곳의 40리 밖에 머물렀다. 그래서 대신사(최시형)께서 대교주[김연국]와 손의암에게야 명하시기를, “너희 두 사람이 가서 사람의 숫자가 어떨든 간에 반만 내어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내어주라”고 하였다. 대교주[김연국]께서 마침 그 때에 돌아볼 곳이 있어 10리가량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송암(松菴, 孫天民) 어른을 먼저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내가[김연국]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체지(牒紙)를 내어주라”고 하였다. 대교주께서 볼 일을 보고 돌아오셨는데, 자연히 몇 시간 늦게 도착하였다. 송암 어른은 침석에 누워있고, 숙여가 도장을 찍은 것이 이미 4,000장이 넘었다.	『김낙봉 이력』 1897년 2월
6임 체지 7천장		7000/6=1,167	「정유년(丁酉年, 1897) 2월에 내려가서 각 처에 포교(布教)를 하니 날로 널리 전파되었다. 3월에 화형(火刑) 이철우의 집에 올라가니 해월선생님은 이천(伊川) 양선동(鴛先洞)으로 옮기시고 구암(龜菴) 어른도 이천 보통리(保通里)로 이사를 하셨다. 이덕현(李德賢)의 하는 말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고, 선생님이 하신 분부에 “낙찰이 올라오거든 몰래 오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덕현에게 천도교의 체지(牒紙/임명장) 7,000여장을 지워 보통리 구암 어른의 집에 갔더니 주인 권성좌(權聖佐)가 앉아있었다.”라 하였다.	『김낙철 역사』 1897년 2월
	소접 5-6백명	550	대접(大接)이 통솔한 인원이 수천명이고 소접(小接)은 5-6백 명이 넘지 않았다.	금성정의록

② 1894년 갑오민란은 전국 53개소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53을 고정 수치로 하였다.

③ 전국 도별 동학농민혁명사 개관 및 사적지 현황은 인터넷 ‘무애동천’이라는 사이트에서 내려 받았다. 여기에 전적지로 판단되는 110개소를 본 필자가 추출해 냈다.

④ 『김낙봉 이력』 1894년 봄 기록에 ‘6임(六任)의 첩지(牒紙/임명장) 4,000여 장’이라는 말은 임명장을 4천장 발급하였다는 말이다. 여기서 6임은 천도교의 교장(敎長)·교수(敎授)·교집(敎執)·교강(敎綱)·대중(大中)·중정(中正)의 여섯 가지 직책으로, 교장(敎長)·교수(敎授)·교집(敎執)·교강(敎綱)은 지역단위 지휘관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6임을 한 접(接)으로 보면 $4,000/6=667$ 개소가 산출된다.

⑤ 『김낙봉 이력』 1897년 2월 기록과 그의 형인 김낙철이 1897년 2월에 쓴 『김낙철 역사』에 보면 첩지(帖紙/임명장) 7,000여장을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수치는 1894년 동학란 진압 후에 살아남은 농민들이 천도교로 재집결하는 수치를 보여 주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수치이다. 이 경우도 6임을 한 접(接)으로 보고 $7,000/6=1,167$ 개소가 산출된다.

⑥ 이병수의 『금성정의록』에서는 ‘대접(大接)이 통솔한 인원이 수천 명이고 소접(小接)은 5-6백 명이 넘지 않았다.’라 하였으므로 소접의 수치 5-6백명의 중간이 550명으로 수치를 고정시켰다.

이상의 함수와 변수에서 고정 수치를 논리에 맞게 환산해 내었으므로 전국 농학농민 수를 산출해 보자.

○ 첫 번째 환산 방법

1894년 갑오민란은 1862년 임술민란의 재현이라고 보아야 한다. 임술

7) 원문 禮帖은 김낙봉 1896년 봄 일기에 “6임(六任)의 첩지(牒紙/임명장) 4,000여 장을 내어 주셨다.”란 기록이 있다. 본 일기에도 “4,000명의 명단”이 있기에 禮帖을 ‘예우로서 帖紙/또는 牒紙’로 봄이 맞겠다.

8) 대신사께서 대교주와 손의암에게 : 대신사 최시형께서 대교주 김연국과 의암 손병희에게

민란 당시 전국 70개 고을이 참여 하였으니 여기에 소접 수치 550명을 곱하여 보면, 이 경우 38,500명이 민란에 가담한 수치로 나온다. 1894년 나주 지역의 전투만 보아도 거의 2만여 명이 넘으니 이 수치는 타당치 않은 것 같다.

○ 두 번째 환산 방법

1894년 갑오농민 운동은 전국 53개 고을에서 집강소를 설치하였다고 하였으니 집강소 설치한 고을을 1개 접(接)으로 볼 경우 대략 2만9천여 명의 수치가 환산된다. 그러나 나주는 집강소를 설치하지 못한 구역이지만 8전(戰)을 치른 곳이니, 집강소 설치로 동학도를 환산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다.

○ 세 번째 환산 방법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국 도별 동학농민혁명사 개관 및 사적지 현황」을 <표 2>와 같이 작성해 보았다.

<표 2>와 같이 전국 사적지(史蹟地) 지정현황은 총 357개소로 동학관련 탑(塔)과 비(碑)가 건립된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다. 또한 전국 357개소 중에 110개소가 전적지 또는 농민군 주둔지로 파악되었기에 여기에 변수 550을 곱해보니 대략 6만 명이 환산되었다.

○ 네 번째 환산 방법

김낙봉은 1894년 봄에 전국 천도교 육임(六任)의 첩지(牒紙/임명장)를 4천장 발급하였다고 하였다. 육임을 한 접(接)으로 볼 경우 667×550 명 = 366,850명이다. 이 경우 전국 동학농민 수는 36만6천명으로 추산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시위 군중 중 1/10 정도가 살상되었다 하면 전국적으로 3만6천여 명이 죽었다고 보아야 한다.

〈표 2〉 전국 도별 동학농민혁명사 개관 및 사적지 현황⁹⁾

시도별	사적지 지정	사적지 중 위령탑 등	전적지 주둔지
강원도	21개소	홍천군/동학혁명위령탑	3
충청북도	67개소	보은군/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보은군/동학농민혁명기념탑 보은군/보은 동학농민혁명기념조형물 옥천/동학농민군재기포기념비 옥천군/갑오 동학농민혁명전적지비 옥천군/동학농민혁명재기포기념비 충주시/일본군 위령비(日本軍慰靈碑) ¹⁰⁾	26
충청남도	76개소	공주/ 동학농민혁명군위령탑 태안/갑오 동학혁명군추모탑 태안/태안지역동학전래비 태안/갑오동학혁명군추모탑	29
서울, 경기	24개소	파고다 공원/의암 손병희동상	6
경상북도	56개소	구미/쌍암고택 갑오농민전쟁전적비 상주/상주 동학농민기념상 선산/갑오 전쟁선산창의비 선산/항일선산갑오농민군 선산읍성 전적비	16
경상남도	15개소	하동군/동학혁명군위령탑	13
전라북도	75개소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고창/동학농민혁명포고문조형물 고창군/무장 창의포고비 남원/동학농민혁명유적지요천표지석 남원/갑오 토비사적비 부안/동학농민혁명백산창의비 부안/무명(無名)동학농민군위령탑 부안/동학혁명백산창의비 전주/동학혁명기념관 정읍/동학농민혁명100주년기념탑 정읍/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정읍/동학농민혁명모의탑 정읍/무명(無名)동학농민군위령탑	17

9) <http://blog.daum.net/muaedongcheon/1372> (2020년 8월 2일 검색)

시도별	사적지 지정	사적지 중 위령탑 등	전적지 주둔지
전라남도	25개소	장성/황룡촌기념탑 장흥/석대(石臺) 뜰 전투지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	8
합계	357개소	34	110

※ 전적지, 주둔지는 필자가 사적지 목록에서 발췌한 것임.

○ 다섯 번째 환산 방법

〈표 1〉에서 본바와 같이 동학란이 진압되고 3년 후인 1897년 2월에 천도교에서 육임의 철회(帖紙/임명장)¹¹⁾ 발급상황을 살펴보자.

『김낙봉 이력』에는 4,000명의 임명장을 발급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의 형인 김낙철은 천도교 7,000여장을 발급하였다고 하였다. 육임을 한 접(接)으로 볼 경우 김낙봉은 4,000/6=667이니 여기에 550을 곱하면 전국 36만7천명이 천도교로 재집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낙봉의 형인 김낙철은 철회 7,000장을 발급하였다 했으니 그 두 배이다. 따라서 73만3천명이 동학이 진압되고 천도교로 재집결하고 있음이 파악된다.

이 수치는 1894년 이후 살아남은 동학도가 천도교로 재집결하는 수치라고 보아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살아남은 동학도가 천도교에 가담하여 인내천(人乃天)의 세상을 꿈꾸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적게는 36만7천명에서 많게는 73만3천명의 동학도들의 한(恨)의 목소리 중에서 1-2만개를 채증(採證)하는 것은 결코 많은 수치가 아니란 말이다. 오히려 목표수치의 2배 정도 채증 할 수 있어야 한다.

10) 日本軍慰靈碑 : 이 비는 1894년에 일본측이 건립하였는데, 진압과정에서 전사한 일본군을 기리는 비돌이다. 현재는 충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전사자는 4명이다. 〈출처〉 조광환, 「한국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http://www.e-donghak.or.kr/bbs/dataimg/hs1205.pdf>

11) 원문 禮帖은 김낙봉 1896년 봄 일기에 “육임(六任)의 철회(牒紙/임명장) 4,000여 장을 내어 주셨다.”란 기록이 있다. 본 일기에도 ‘4,000명의 명단’이 있기에 禮帖을 ‘예우로서 帖紙/또는 牒紙’로 봄이 맞겠다.

1897년경에 천도교로 재집결하는 인원수가 거의 70만 명을 넘어선다는 것은 당시 민중들은 인내천(人乃天) 즉 사람이 곧 하늘인 세상을 기대하고 따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3. 동학 구전 찾기: 나주지역 사례로 본 동학 희생자 찾기 문제점

나주의 구전 찾기는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겠다. 첫번째 사례는 현재 발견된 동학관련 문서에는 기록이 없지만 가전(家傳)되어 오는 근거기록이 있는 사례인 나주 동학접주 나동환(羅東煥)과 그의 부인 진주정씨(晉州鄭氏)의 이야기이며, 두번째 사례는 전혀 기록이 없고 오로지 구전(口傳)만 남아 있는 사례이다.

나주지역도 비록 나주읍성을 거점으로 동학의 나주침공을 막아내었지만 나주지역 동학과의 전투를 보면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다. 난와 오계수(難窩 吳繼洙)는 묘갈명(墓碣銘)에서 6전(戰)이라 하였고, 송사 기우만(松沙 奇宇萬)은 정장군전(鄭將軍傳)에서 7전(戰)이라 하였고, 겸산 이병수(謙山 李炳壽)의 『금성정의록』에서는 8전(戰)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나주를 비록 읍성 때문에 침공해 들어올 수는 없었으나 6~8전의 전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금성정의록』으로 본 동학농민군 숫자를 보면, ‘서성문 전투에 농민군 수천 명’, ‘침산전투에 농민군 7백 명’, ‘고막포 전투에 농민군 5~6만 명’, ‘남산촌 전투에 농민군 수만 명’이라 하였다. 변만기의 『봉남일기(鳳南日記)』 1894년 11월 24일자에 보면 ‘나주(羅州)의 오중문(吳重文)도 패진하여 남산촌(南山村)¹²⁾에서 거의 몰살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주지역의 동학 농민군을 적게 잡아도 5천~1만명 정도로 파악되지만 동학 관련 인물은 이미 역사의 뒤편길에 묻혀버려 동학과 관

12) 남산촌(南山村) :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남산촌을 말한다.

군과의 접전이라는 사실만 남고 접전하여 죽은 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동학 가담자를 조사해본적도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왜 동학 가담자나 피해자 조사가 어렵게 되었는지를 나주지역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의열각 주인공 일암 나동환(日菴 羅東煥)과 부인 진주정씨 사례

동학농민혁명 종합정보시스템(<http://www.e-donghak.or.kr/>) ‘유적지-나주편’을 보면 유적지 총7건 중에 「나동환 의적비·진주정씨 행적비(의열각)」이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나주의 접주 나동환(羅東煥, 1849~1937)은 본관이 나주이며 삼영동 택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는 도경(道卿), 호는 일암(日菴)이며, 일찍이 동학에 입도하여 1894년 1월에는 교단으로부터 교수 겸 교장 직책을 받았다. 농민군의 1차 기포 때는 나주의 접주로서 활동하였다. 농민군이 나주성을 공격할 때도 500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싸웠으나 실패했다. 그 후 전봉준의 체포 소식을 듣고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그의 부인 진주정씨와 함께 함평군 월야면 연암리 다라실에 있는 나동환의 처가로 은신했다. 관군이 들이닥쳤으나, 부인 진주정씨(晉州鄭氏)는 남편과 아들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고, 자신은 관군들에게 잡혀 압슬형(壓膝刑) 등 혹독한 고문을 받았으나, 끝내 남편의 행방에 대해 함구하다가 사망했다. 이들을 기리기 위해 의열각(義烈閣) 안에 〈나주나공동환의적비(羅州羅公東煥義蹟碑)〉와 〈효열부진주정씨행적비(孝烈婦晉州鄭氏行蹟碑)〉가 함께 세워졌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면 나동환과 그 부인 진주정씨에 대한 기록은 비문에 남아 있었으나, 비 뒷면에 새겨진 비문 내용까지 조사한 적은 없었다.

원래 의열각은 나주시 과원동 121-10에 건립되었는데 2019년 나주시 측이 나주 관아 일원 지표 발굴조사 등을 이유로 나주시 남내동의 금호사

(錦湖祠) 경내로 이설하는 과정에서 대들보에 숨겨진 상량문이 45년 만에 발견되자, 그 때 후손 측에서 필자를 불러 해설을 부탁하였다. 그래서 필자가 나동환과 진주정씨 스토리를 연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먼저 나동환의 가승도와 족보기록을 살펴보자.

〈표 3〉 나동환의 가승도¹³⁾

구분		생몰년	비고
6대조 언필(彦弼)			
고조부 수철(壽澈)/언필의 차자			※언필의 장자 수장(壽章)
증조부 동환(東煥)		1849-1937(향년88세)	나주 동학접주
증조모 진주정씨(晉州鄭氏)		1848-1913(향년65세)	
조부	장남 상집(相集)	1870-1942(향년73세)	※壽章에게 出系
	차남 영집(玲集)	1873-1938(향년66세)	
부 도산(燾山)		1900-1991(향년92세)	
구술자 태균(泰均)		나주 거주 도산의 제3자 태균(현69세)의 증언 태균의 형 화균(和均)의 부인이 이영기의 여동생임	
구술자 이영기(李英紀)			

필자에게 구술을 해준 자가 나동환의 증손자 나태균(羅泰均/현 69세)과 겸산 이병수의 방손이며 나태균과는 사돈관계가 되는 이영기(李英紀/전 나주시 의원)이다. 증언자 나태균을 기준으로 가승도를 재구성한 것이 〈표 3〉 ‘나동환의 가승도’이다.

먼저 나태균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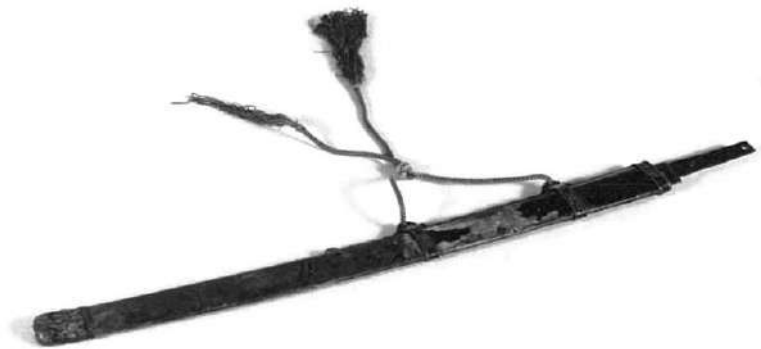
첫째, 어려서부터 아버지[燾山]로부터 ‘진주정씨 할머니가 일본 군인에게 고문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아 할아버지가 살아났고, 결국 자식들이 살아나서 후세에 너희들도 태어났다.’라고 자주 말씀했다는 점.

둘째,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동학 관련 서지류(書紙類)가 상당히 많이

13) 나주나씨대동보소, 『나주나씨(임술)대동보』권5, 1958, 85쪽.

있어서 자신도 보았다고 하며, 접시모양이 그려진 작은 병풍¹⁴⁾도 있었고, 위촉장 같은 문서도 있었는데,¹⁵⁾ 1972년과 1974년 나동환과 진주정씨 추모비 건립 즈음에 집안에 귀중한 동학 관련 자료가 있다고 소문이 나자 어느 학계인사가 찾아와 연구를 위해 잠시 빌려간 뒤에 잠적해 버려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였다. 맡겨놓은 신분증도 모두 가짜였다고 한다. 다행히 비전되는 자료로 1972년도에 족후손 나평집(羅平集)은 진주정씨 효열부 비문을 짓고, 유림 대표 최남구(崔南九)는 1974년도에 나동환의 의적비문을 지은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리고 같은 해 말에 비(碑) 보호각인 의열각(義烈閣)을 건립하였다.

셋째, 비전(秘傳)된 집안의 보물을 잃어버린 도산(薰山)은 조부께서 농민운동 때 지녔던 검(劍)을 집안에 두면 또다시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여 1987년도에 천안의 독립기념관에 기탁해 버렸다. 독립기념관에 수장된 이 검은 ‘동학농민운동 당시 고부지역에서 활동한 나동환이 사용하던 칼’이라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진 3〉 1894년 나동환이 지녔던 검(출처: 독립기념관)

14) 아마 사발통문을 화균의 부친이 병풍으로 만들어 놓은 듯하다. 화균은 사발모양을 접시모양으로 본 것 같다.

15) 이것은 나동환에게 내린 접주차정(接主差定/접주 임명서)인 듯하다.

이상은 증언자 나태균과 이영기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이다. 그렇다면 나동환이 1894년 농민운동에 참여하여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비문과 의열각 상량문을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최남구(崔南九)가 지은 비문을 보면 다음은 같은 주요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첫째, “공의 이름은 동환(東煥)이요 자는 도경(道卿)이며 호는 일암(日菴)이다”¹⁶⁾하였으니, 그의 호가 일암(日菴)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암(菴)자 도호(道號)를 쓴다는 것은 동학과 관련이 있고 천도교와도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둘째, “공이 어렸을 때 지행(志行)이 고결하고 경사(經史)에 숙달하여 관작(官爵)이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이르렀다”¹⁷⁾라 하였는데, 이는 비문 쓰는 격식에 맞지 않는 벼슬을 써넣은 것이다.

셋째, “당시 국정이 어지럽고 시끄러워 권력과 세력을 가진 간신들이 권세를 부리고 왕비들이 제 마음대로 행동함으로 삼정(三政)이 문란하고 부정과 부패가 점점 배어들어가자 농민이 제멋대로 날뛰고 백성은 어육이 됨은 물론 이른바 고관(高官)들은 외세에 의존하여 자기편의 세력 심기에 급급할 뿐 국가 존망(存亡)과 백성의安危(安危)에는 털끝만큼도 생각조차 엿보아 알 수 없는지라 기아에 허덕이는 유랑민은 삼남(三南)을 중심으로 각처에 별떼처럼 일어나 관아(官衙)에 방화 또는 관곡(官穀)을 탈취하는 등 민란이 잇달아 나서 임금도 임금답지 못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답지 못하는 혼란 속에 국가는 존망(存亡)의 위기에 처하였다”¹⁸⁾라 하였다.

16) “公의 諱는 東煥이요 字는 道卿이며 號는 日菴이니” <나동환 의적비 원문>

17) “公이 自幼時로 志行이 高潔하고 經史에 熟達하여 官爵이 吏曹參判에 至하였으나” <나동환 의적비 원문>

18) “當時 國政이 紛擾하여 權奸이 用事하고 國威이 跋扈함으로 三政이 紊亂하고 不正과 腐敗가 浸潤하여 農民이 陸梁하며 百姓이 魚肉은 勿論 所謂高官들은 外勢에 依存하여 自派의 勢力扶植에 汲汲할 뿐 國家存亡과 人民의 安危에는 秋毫의 想念조차 窺知할 수 없는지라 飢餓에 허덕이는 流民들은 三南을 中心으로 各處에 蜂起하여 官衙에 放火 또는 官穀을 奪取하는 등 民亂이 續出하여 君不君父不父의 混亂속에 國家는 存亡의 危機에 處하였다.” <나동환 의적비 원문>

넷째, “그러하므로 공이 보국안민(輔國安民)의 충의와 폐정개혁의 열렬한 뜻 아래 동학교주 최시형(崔時亨)과 의기(義氣)가 서로 맞아 『동국대전(東國大全/經國大典)』을 남김없이 읽고 인내천(人乃天)의 도(道)와 경세제민(經世濟民)의 학(學)을 연구 터득한 후 동학접주(東學接主)라는 중책(重責)을 지고 나주에 부임하여 동지규합과 교세확장에 마음과 힘을 다하는 중에 1894년(갑오) 2월 15일 고부접주(古阜接主) 전봉준(全琫準)으로부터 의거(義擧)한다는 통보를 받고 나주 교도(敎徒) 5백여 명을 인솔 합세(合勢)하여 제폭구민(除暴救民) 권귀진멸(權貴盡滅) 왜이축멸(倭夷逐滅) 폐정개혁(弊政改革) 삼정확립(三政確立) 등의 기치(旗幟)를 높이 들고 분전고투(奮戰苦鬪)하여 불과 며칠 만에 좌우도(左右道) 10여군이 바람을 타고 향응하여 장성(長城)을 점령한 후 파죽지세(破竹之勢)로 전주(全州)를 점령하고 대승(大勝)의 여세로 나주(羅州)를 격파하고자 대장 전봉준(全琫準)의 지휘로 고창접주(高敞接主) 신정옥(申正玉)¹⁹⁾과 5천여 병력을 인솔 어등산(魚登山)에 포진하고 공(公)이 선봉(先鋒)으로서 수 십차 성을 공격하였으나 수성군(守城軍)의 반격으로 승산이 없음을 간파하고 어등산에서 해산(魚登山解散)하였다”라 하였다.

그렇다면 나동환의 족보기록에도 없는 내용을 동학농민운동이 지난 80년 후에 최남구는 어떻게 이런 내용의 비문을 썼을까? 분명 최남구는 당시 비전된 나동환 집안에 소장된 동학관련 문서를 보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문장가 최남구²⁰⁾는 경주최씨로 나주 토박이였으며 광주학생독립 운동에

19) 申正玉은 고창 접주로 칭해졌던 인물로, 일찍이 동학에 입교하여 손화중(孫華仲) 포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그의 행적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다만 9월 재봉기 이후의 행적만 확인되고 있다. 장성 유생의 기록에 의하면 10월 중순 이후 장성으로 내려와 개천과 단방 등지에 진을 쳤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10월 28일에는 장성에서 점심 400상을 대접받고 저녁에 황룡으로 진을 옮겼다가, 손화중으로부터 “많은 왜선(倭船)이 법성포에 당도한다.”는 급한 기별을 받고 29일에 월평 도소(都所)를 떠났다. 이후 신정옥은 11월 15일부터 황룡에 도소를 세우고 활동했다. 9월 재봉기 때 상당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임에는 틀림없으나 이후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신정옥 검색, 2020. 4. 18일 검색.

20) 최남구는 경주최씨로 나주 서내동에서 살았다. 정확한 출생연도는 알 수 없으나 1894년경에 태어나 나주학생독립운동에 가담하였기에 『나주독립운동사』(나주시, 윤선자 외 집필, 2015년

참여했던 인물이었다. 『나주독립운동사』 책자의 기록에 의하면 최남구는 학생독립 운동에 참여하였는데 ‘1924년 나주 노농공영회’의 위원, ‘1928년 나주 흥농주식회사 발기인’ ‘1929년 신간회 나주지역 간사’, ‘1929년 나주청년동맹 연락조직부장’ 등으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나주에서 한때 서당을 운영했다 하였으니 한학(漢學)에 조예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비문 중에 맞지 않은 글을 써넣었다. 그것은 나동환의 벼슬명칭이다. 비문 앞면에 보면 나동환의 벼슬을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새겨놓았다. 우리나라 과거시험제도는 1894년에 막을 내렸다. 족보에도 이조참판을 지냈다는 기록도 없다. 왜 비문에 동학 접주(接主)란 말을 못 썼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1894년 당시 벼슬아치의 수탈이라는 부패한 정치행태를 백성들이 들고 일어서니 정부는 이들을 ‘비적(匪賊)’ 또는 ‘동비(東匪)’라 폄하하였다. 당시 얼마나 썩은 정치풍토였는지 조병갑의 벼슬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실감이 난다.

〈표 4〉 ‘고부민란 전후 조병갑의 벼슬 변동사항’에서 본바, 1894년 고부 백성 수탈로 처벌을 하였으면 다시는 벼슬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3년 후인 1897년에 법부 민사국장이 되고 1898년 겸임으로 고등재판소 판사에 임용되어 동학인으로 살아남은 자들을 재판하였다고 한다. 더더욱 1910년 한일 병탄이 되어 일제강점기가 되어 버리니 살아남은 동학도와 그 후손들은 숨어 살아야 했으며 동학의 흔적을 모두 지웠다고 하였다.

〈표 3〉 ‘나동환의 가승도’에서 보듯이 나동환은 일제강점기인 1937년도에 졸하였으니, 죽는 날까지 큰소리 한번 못하고 살았을 것이다. 또한 부인 진주정씨도 1913년도에 졸하였으니 일제강점기 초를 경험하였다. 또한 나동환의 손자 도산은 1900년에 태어나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던

간행)에 10회 언급되어 있다.(201~256쪽). 2020년 4월 현재 증언 해준 사람은 박화진(당시 92세/광주 거주)으로 박화진의 할머니가 최남구의 누님 되는 사람이다.

〈표 4〉 고부민란 전후 조병갑의 벼슬 변동사항(『승정원일기』 참조)

1892. 4.28	조병갑을 고부군수로 삼다
1892. 7. 6	고부군수 조병갑 부임 ○ 11. 15 전봉준이 농민 40여명과 함께 조병갑에게 진정 ○ 조병갑 거부하자 농민봉기 준비 및 사발통문 작성
1893. 11.30	조병갑 익산군수로 전근 조치. 농민 봉기는 취소
1894. 1. 9	고부군수 조병갑 다시 임명 ○ 1. 11 고부민란 봉기, 관아습격
1894. 4.20	조병갑을 본부의 도사를 보내어 수감과 차꼬를 채우고 칼을 썬워 잡아와 남간(南間/의금부 남쪽에 있는 옥)에 가둠
1894. 4.24	전 군수 조병갑이 백성들에게 못되게 굴어 소요가 일어나게 된 데 대해서는 古今島에 안치
1895. 3.12	조병갑을 서울로 압송
1895. 7. 3	조병갑을 석방
1897. 12.10	법부 민사국장에 조병갑을 임용
1898. 5.23	법부 민사국장 조병갑을 겸임 고등재판소판사에 임용
1904. 5. 9	조병갑 비서승(祕書丞) 임명

해가 무려 37년이나 되니 할아버지가 겪은 이야기를 구전(口傳)으로 손자 도산에게 전해졌을 것이며,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내내 숨어 지내는 모습도 보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1945년 해방이 되었으나 다시 친일파가 정권을 쥔 바람에 동학 후손들은 1970년 초까지 기(氣)가 죽어 살아야 했다. 그런데 1970년 중반 즈음부터 동학관련 학술 논문이 세상에 발표되면서²¹⁾ 마침내 1972년과 1974년도에 한(恨)에 맺힌 나동환과 부인 진주정씨를 추모하는 입비

21) 필자가 '전봉준'을 키워드로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검색한 결과 학술논문 현황은 다음과 같다. <http://www.riss.kr/index.do> (2020년 4월 9일 검색)

총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58건	3	6	11	18	20
총계	국내석사		국내박사		해외박사
58건	42		15		1

와 의열각이 나동환의 손자에 의해서 건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비문을 지은 최남구 자신도 일본 순경에게 쫓긴 경험이 있기에 과연 1974년도에 나동환의 직함을 「나주 동학접주(羅州 東學接主)」라 새길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전혀 무관한 「이조참의(吏曹參議)」란 직함으로 새긴 것은 나동환의 업적이 그 정도쯤 평가 받아야 맞다는 자신의 뜻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훗날 개비(改碑)할 적에는 나주동학 접주 나동환으로 새기는 것이 역사에 맞다고 생각된다.

이어서 진주정씨 비문을 살펴보자. 앞서 나태균이 증언한대로 일본군이 위협함에도 끝내 남편이 숨은 곳을 실토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

〈진주정씨 비문〉(발췌)

일군(日軍)과 관군(官軍)의 수색을 피하여 함평군 해보면 연암리 처가에 은신하며 동지들과 은밀히 재기를 모색하던 중 수색대들은 공을 체포하려고 나주 택촌(澤村) 본가를 포위 수색하였으나 공이 있지 않으므로 그 집에 방화하고 다시 함평 해보에 가 공의 은신처를 포위 수색하였으나 역시 공을 발견치 못하고 그 부인 정씨(鄭氏)를 잔인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였으나 죽기를 작정하고 입을 다문 채 저항하면서 자기 생명을 죽여 남편을 구출하였으니.²²⁾

〈의열각 상량문〉(발췌)

“죽음을 무릅쓰고 절개를 지킨 정씨 부인은 진주 정씨 성대한 가문으로 정태원(鄭泰源)의 따님이라네. 정성으로 아버이를 섬기는 효(孝)가 출중하였는데 비녀를 꽂는 나이 15세에 나씨(羅氏) 집으로 시집갔네.”²³⁾라 하였다. “저들의 노여움을 사면 잔인하게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어찌 말로 써 드러내 보이겠는가? 그리하였기에 남편과 아내 둘이 온전히 살아났네.”²⁴⁾라 하였다. 여기서

22) 日軍과 官軍의 搜索을 避하여 咸平郡 海保面 連巖里 妻家에 隱身 同志들과 隱密히 再起를 摸索中 搜索隊들은 公을 逮捕하려고 羅州澤村 本家を 包圍 搜索하였으나 公이 不在함으로 그 집에 放火하고 다시 咸平 海保에 가 公의 隱身處를 包圍搜索하였으나 亦是 公을 發見치 못하고 그 婦人 鄭氏를 殘忍한 拷問으로 自白을 強要하였으나 抵死含口하고 自己生命 屠하여 夫君을 救出하였으니

23) “烈婦鄭氏 胥州盛門 泰源肖女 誠孝出等 笄年歸羅.”

24) “避凶孽而隱蔽辛苦莫可復陳 逢彼怒而撻鞭殘忍何以形說 然而夫妻兩全而活.”

저들은 바로 일군(日軍)을 지칭한 말이다.

상량문을 지은 나평집(羅平集)²⁵⁾은 나동환의 재종질이고, 글쓴이 나관규(羅瓘奎)²⁶⁾는 하촌 나동륜의 손자이다. 비문과 상량문을 지으면서 분명 비전(祕傳)되는 동학관련 문서를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일군(日軍)과 관군(官軍)에게 쫓기는 몸이 되었으며, 비밀리 체포하러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사전에 알고 피신하였을까? 일군(日軍)의 추적을 받은 나동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사(祕史)를 자세히 기록한 문건은 없다. 그래서 그 답변을 본 필자가 상황논리에 맞게 풀어보고자 한다.

1894년 당시에 지방 수령의 수탈에 저항운동을 하는 농민군을 무조건 비적(匪賊) 또는 동비(東匪)라 하였으니 농민군을 도적떼로 폄하해버렸다. 그런데 동학 농민군은 다만 농사꾼만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 깨어 있는 식자층인 유림들도 참여하였다. 그 사례가 바로 서당훈장 전봉준이다. 전봉준은 농사가 전업이 아니지만 농민에 의해서 동학 농민군의 우두머리로 추대되어 활동을 한사람이다.²⁷⁾ 소위 식자층의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고부 농민저항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아마 나주의 오권선(吳權善)과 나동환(羅東煥)도 비록 농사꾼은 아니나 당시 지방 수령의 수탈하는 폐정을 좌시하지 않으려는 의협심이 그들을 농민군에 가담케 하였을 것이다.

오권선은 나주오씨 나성군 오자치(羅城君 吳自治)의 후손으로 나주 삼가면 세동마을 출신으로 대대로 유학의 전통을 지닌 가문에서 태어나 동학 접주가 되어 나주지역 농민활동을 하였으며 1894년 11월 용진산 전투에서 패배한 후 몸만 빠져 도망쳐 잠적하여²⁸⁾ 그 후의 기록을 찾을 수 없기에

25) 나평집 : 1898년 2월23일생-1978년 7월17일졸[향년81세] 하였으니 이 상량문은 죽기 4년 전에 쓴 것이다. 대동보를 보면 5대조 允瑞의 큰 아들 得維의 후손이 東煥이고, 셋째아들 健維의 후손이 平集이다.

26) 나관규 : 荷村遺稿를 남긴 나동륜의 손자이다. 동륜-병집-도건-관규(1935~1990)이다

27)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 『(국역)금성정의록』, 광주 아가페 문화, 1991, 244-245쪽.

28) 나천수, 「동학농민군의 나주지역 공략과 민중열 초토사의 방어를 다시보다」,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82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9, 339-341쪽;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 『(국역)금성정의록』, 위의 책, 97쪽.

살아남은 것으로 추정한다.

나동환은 나성군 나공언(羅城君 羅公彦)의 후손이요 금남 최부(錦南 崔溥)의 둘째 사위 나질(羅啞)의 후손이니, 가문으로 보면 보수성향이 강한 유림가에서 태어났다.

당시 농민군은 거의 죽창을 들거나 하였는데 선비의 복장에 검(劍)을 차고 다니는 동학접주 나동환을 발견한 일군(日軍)은 나동환의 인적사항을 은밀히 내사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군이 나동환을 체포하려면 그 정보를 어디에 통보했겠는가? 그 정보를 하달 받은 하부 기관은 호적을 관리하는 나주목사였을 것이다. 조선조 호구단자(戶口單子)는 3년마다 호주가 지방 수령에게 신고하기에 지방 수령에게만 백성의 인적사항 기록부가 있기 때문이다.

1893년 12월경에 남원부사에서 나주목사로 부임해온 민종열은 향약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나주에 도향약소(都鄉約所)를 설치하고 도향약장(都鄉約長)으로 소과에 합격한 나동륜(羅東綸, 1833-1905)을 초빙하고, 직월(直月)에 이병수(李炳壽)를 위촉하였다. 그리고 1894년 1월부터 향약으로 백성을 다스리다가 동년 4월에 동학농민군이 나주를 공략해 온다고 하니 민종열 목사는 초토사(招討使)가 되어 나동륜과 이병수를 좌우에 두고 자문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동학농민군을 회유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나주목사에게 하달되는 다양한 정보를 나동륜과 이병수는 가장 먼저 간파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나동륜은 바로 나동환의 집안 형이 되고, 이병수는 나주나씨와의 혼맥을 가진 양성이씨 측이니 나동환이 체포되도록 그냥 놓아둘 사이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나동환의 체포 사실을 사전에 알아낸 나동륜과 이병수는 나동환 측에게 은밀히 연락을 하여 일군이 체포하려 한다는 소식을 알리니, 나동환은 아들들을 데리고 함평군 해보면의 처가마을로 숨어들었던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나동환과 나동륜가의 가승을 <표 5> '나주나씨 금암공파 후손 나동환과 나동륜의 가계도'와 같이 도표로 작성해 보았다.

나동환과 나동륜은 금남 최부(錦南 崔溥)의 둘째 사위인 나질(羅啞)의

후손으로 나주나씨 14세에서 사침(士忱)의 6형제가 소파조가 되면서 덕준은 금암공파 파조가 되었으니, 나동환과 나동륜은 같은 파에 나주나씨 22세의 같은 항렬(行列)인 것이다.

나동환은 대대로 나주 삼영동의 택촌²⁹⁾ 마을에서 살았으며, 나동륜은 택촌마을 영산강 건너 남쪽 편인 방하촌에 대대로 살았으며, 소위 오늘날 금사정(錦社亭)을 중수했던 인물이다. 다만 나이로 보면 나동륜이 나동환보다 16년 연상이다.

나동환이 1894년 동학도에 가담하여 봉기할 때는 46세로 그야말로 혈기왕성하고 세상을 보는 눈도 미혹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혼의 시기를 추정해 보면 의열각의 상량문 중에 열부정씨(烈婦鄭氏)를 기록하는 것 중에 ‘비녀를 꽂는 나이 15세에 나씨(羅氏) 집으로 시집갔네.’란 구절이 있다. 진주정씨는 나주나씨 대동보에 1848년[무신]생-1913년[계축] 5월 5일 졸로 기록되어 1862년에 결혼하였을 것으로 추산되니, 나동환은 겨우 14살이고 진주정씨는 15살이었다. 1870년[경오]에 큰아들 상집(相集)을 낳았으니 진주정씨가 22세 때였으며 다시 3년 후[1873년]에 둘째아들 영집(玲集)을 낳았다.

그리하여 1894년 갑오농민운동이 일어날 때 진주정씨는 47세로 남편이 쫓기는 몸이 되자 아들과 함께 처가인 함평군 해보면 연암리³⁰⁾로 은신시켰다. 그래서 일군(日軍)은 진주정씨 부인을 붙잡아 문초하였으나 끝내 남편의 은신처를 발설치 않았다고 하였다.

이상은 필자가 상황논리에 맞게 풀어본 것이니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다.

한편, 필자는 진주정씨 대동보도 찾아 마침내 나동환의 장인 정태원(鄭

29) 택촌은 윤선도와 교류하면서 강호구가를 지은 경주목사 나위소(羅緯素/덕준의 세째아들)의 터이기도 하다.

30) 함평군 해보면 연암리는 북쪽으로 칠봉산(해발267m), 남쪽으로 불갑산(해발516m), 동쪽으로 가재봉(해발281m), 서쪽으로 대왕산(해발314m)에 싸인 산속마을이다. 오늘날 광주-영광을 잇는 4차선이 뚫리기 전에는 그야말로 첩첩산중 마을이었기에 日軍들이 나동환을 찾지 못했다.

〈표 5〉 나주나씨 금암공파 후손 나동환과 나동륜의 가계도

〈일암 나동환 가승도〉			〈하촌 나동륜 가승도〉				
12세	-	啗	금남 최부의 둘째사위	12세	-	啗	금남 최부의 둘째사위
13세		士忱		13세		士忱	
14세		德峻		14세	-	德峻	
15세		經素	德峻의 다섯째 아들	15세	-	綴素	덕준의 네째아들
16세	-	禎		16세	-	櫟	배 양성이씨
17세	-	斗南	배 양성이씨	17세	-	斗七	배 함풍이씨
18세	-	允瑞	배 해주오씨	18세	-	允復	배 광산김씨
19세	-	得維	배 광산김씨	19세	-	貞維	배 서흥김씨
20세	-	彦弼	배 진주정씨	20세	-	彦一	배 당약김씨
21세	-	壽澈	배 문화유씨	21세	-	壽冕 茅齋遺稿	배 양성이씨
22세	-	東煥	배 정부인 진주정씨	22세	-	東綸 荷村遺稿	배 함평이씨
23세	-	玲集	배 상산김씨 배 나주정씨	23세	-	秉集 習齋集	배 창녕조씨
24세	-	燾山					

泰源)을 찾아냈다. 1976년 진주정씨제학공파대동보편찬회에서 발간한 대동보 곤(坤)편 606쪽에 정문원(鄭文源)의 큰사위로 나동환이 등재되었음을 발견하고 아울러 대동보 족보에 「손도산건의열각(孫燾山建義烈閣)」이란 기록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마 호적명(戶籍名)과 족보명(族譜名)이 다른 것 같았다.

의열각의 현판 글을 춘강(春岡)이란 호를 가진 자가 썼는데, 나주 인덕정의 시판에서 함평 출신 한학자 신흥열(辛洪烈)의 호가 춘강(春岡)으로, 본관 영산(靈山)인데, 전 국회의원 신기하(辛基夏)의 부친임을 확인하였다.

2) 구전(口傳)만 있는 충혼비 주인공 박양규(朴良圭)의 아버지 박병국(朴炳國) 사례

나동환의 사례는 근거기록이 있는 사례라면 동학농민군 박병국은 근거기록이 없는 사례이다. 나동환의 사례에서처럼 반일운동으로 죽임을 당했고, 혹여 살아났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동학농민 운동했던 흔적을 숨기거나 흔적을 지우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집안 비전(祕傳)의 구전만 남은 사례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례는 발설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의 사례를 소개해본다.

박병국은 본래 보성군 검백면에서 거주하였으며 18세에 동학농민운동을 했다. 당시 보성 접주는 박태로(朴泰潞/또는 朴泰吉)와 웅치면의 구교철(具敎轍)이 있었다. 1895년 이후 살아남은 박병국은 동학에 가입하여 활동했다는 이유로 당시 유럽에게 천대를 받았고, 마침내 문중에서도 천대를 받게 되었는데, 박병국도 고향 보성에서는 도저히 살아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자 몰래 나주로 도망쳐 나주에 터를 잡았다고 한다.

그리고 나주에서 김씨 부인을 만나고 딸과 아들을 낳아 이들이 자라 마침내 딸이 결혼할 즈음에 문중에 알리지 아니할 수 없어 보성 고향에 가서 집안 어른신을 뵈고 그동안 살아온 사연을 말씀드리며, 딸 혼사도 말했다고 한다. 그때서야 박병국의 고향이 보성이고 동학농민운동하다가

나주로 숨어들어와 살았다는 것이 알려졌다고 한다. 그렇다고 이런 이야기는 그저 아는 사람 몇 사람만 아는 이야기이다.

박병국은 1년2남을 두었는데 큰아들 양규(良圭)가 경찰로 들어가 나주 경찰서에 근무하던 중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주에 북한군 탱크가 진입하자 치안을 담당했던 나주경찰서도 모두 후퇴하였는데, 나주의 동향을 살피고자 박양규 단신으로 나주로 잠입해 들어와 나주시 교동 폐허된 벽돌공장 굴뚝 아래 굴속에 은신하면서 나주상황을 정탐하던 중에 발각되어 소위 빨치산군과 교전 중에 전사하였다.

그 충(忠)의 공(功)이 인정되어 충훈비가 최초로 나주 남고문 옛터에 건립되었는데, 남고문 복원 문제로 나주 사격장 부지 내로 충훈비를 옮겼다. 그러나 훗날 사격장 확장 문제로 나주 역사공원 내로 이설하여 현존하고 있다.

박양규는 아들 용남(현 73세)을 두었는데 용남이 장성한 후에 할아버지 박병국이 동학농민운동을 보성에서 하다가 나주로 숨어들어와 살았다는 말을 할머니로부터 들어 알았다고 한다. 박병국의 동학농민운동 이야기는 나주에서 일부 나이든 분들은 알고 있는 일이다.

4. 동학 구전자료 수집의 현실적 문제점과 대책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조사한 증언록은 전국적으로 겨우 97건 뿐이다.(〈표 6〉) 그러므로 지금까지 발굴된 동학 참여자 3,670명과 구전으로 발견된 97건을 합해도 3,767명뿐이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측에서 위령탑(또는 위령비)를 건립한다면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징물은 될 수 있으나 〈표 2〉에서처럼 기준에 건립된 전국적 위령탑 10개소, 위령비 12개소와 별반 차이가 없다면 나주는 결코 세계적 명소로 거듭날 수 없게 된다.

〈표 6〉 기존의 증언록

전국	지역별	건수
전라도	전주권, 남원/운봉권, 광주/나주권, 순천/광양권, 장흥/강진권	62
충청도	목천/천안권 예산/홍성/서산/당진/태안권, 충주/단양/제천권 부여/한산/서천권, 청주/옥천/보은/영동/논산권, 회덕/진산권	16
경기도	경기북부권, 경기남부권	0
강원도	강원도	2
경상도	상주/예천/금산권, 고성.진주/하동권	15
기타	황해도, 함경도	2
계		97

※ 출처: 동학농민혁명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발췌

그러므로 반드시 구전(口傳) 수집을 통해 역사의 뒀안길에 묻혀버린 동학농민과 그 후손 모두를 찾아서 그들의 한(恨)의 소리를 모두 편석판(片石板)에 새겨 이를 모아 위령탑 주변에 비군(碑群)으로 세워야만 사람의 심금(心琴)을 울리게 하여 소위 「동학(東學)의 한(恨)을 흥(興)으로 승화하다」라는 문사철(文史哲)이 하나 되는 위령탑과 비군(碑群)이 되어 세계적 명소로 거듭날 것이다.

나주 동학농민 위령탑 건립을 계기로 역사의 뒀안길에 묻혀버린 이름 없는 동학농민군을 모두 찾아 그들의 한(恨)의 소리를 편석판(片石板)에 새겨 가칭 「나주동학혁명 역사공원」에 비군으로 세워 놓으면 나주는 동학농민군 후손의 성지순례코스가 될 것이며, 민주화 열사의 세계적 성지순례코스가 될 것이다.

2018년 가을에 ‘한일 시민이 함께 하는 동학농민군 역사를 찾아가는 여행’을 빌미로 나주에 온 일본 측 대표단이 “나주에 위령탑을 세우겠다”는 한마디가 마침내 나주시 발전 미래전략에 반영되고 ‘한일 학술대회’를 4년간 개최하는 MOU도 한일 간에 체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恨)의 목소리 1~2만개의 편석판(片石板)을 모아 위령탑 주변에 비군(碑群)으로 건립하면 마침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일본 측을 이끄는 칠순의 이노

우에 가츠오(井上勝生)교수와 구순의 나카츠가 아키라(中塚 明)교수가 일으킨 미풍(微風)이 몇 년 내에 태풍이 되어 한국과 일본은 물론 전 세계에 몰아칠 것이다.

구전 수집에 있어 일본측도 동학진압군으로 왔던 군인의 후손을 찾아내야 하며, 그들의 한(恨)의 소리도 채증해야 할 것이다. 『진중일지』를 쓴 일본군 쿠스노키 비요키치(楠美代吉)상등병 뿐만 아니라 동학군 진압에 참여했던 일본군 모두 살인(殺人)이라는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가해자 자신의 가슴에 한(恨)이 맺혀 있었고 혹여 그 한(恨)이 핏줄을 타고 후손에게 전해졌을 수도 있다. 그러한 한(恨)의 소리를 밖으로 다 쏟아내어 마음의 짐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일본 측 편석판(片石板)도 수집되어 비군(碑群)으로 수립되어야 한(恨)을 흥(興)으로 승화시키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한다.

한국측인 나주시와 원광대학측이 담당하여 전국 구전 찾기를 해야 하는데, 나주시가 직접 담당키 어려우니 외부 동학 관련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다만 본 논문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증언자에게 근거서류,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동학 농민군 진압 후 125년이 지난 2020년 현재 역사의 뒤편길에 묻혀 버린 피해자를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으며, 그들로부터 한(恨)의 목소리를 채증(採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전 수집은 2-3년의 단기 사업으로는 끝낼 수 없으니 2022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마무리하고 2023년부터는 오로지 동학 구전 수집을 중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恨)의 목소리로 동학농민군 당사자의 목소리는 가슴을 감동케 하는 언어들이 많다. 예를 들어 당시 동학도를 체포하여 심문하는 공초록을 보면, 전봉준(全琫準) 등의 한(恨)의 소리를 찾아낼 수 있다.

〈시안1〉 전봉준의 경우

- 녹두장군 전봉준(1855-1895) 천안전씨, 고부출신 -
세상사가 날로 그릇되어 가는 고로 개연히 한번 세상을 구제하는 의(義)를
보이고자 하였다. 世事日非故慨然欲一番濟世義見

- 1895년 2월 11일(음) 공초록에서

- 녹두장군 전봉준(1855-1895) 천안전씨, 고부출신 -
나는 바른 길을 건다가 죽는 사람인데 대역죄를 적용한 것은 실로 천고의
유감이다.

- 재판부 선고문에 대한 응답

- 녹두장군 전봉준(1855-1895) 천안전씨, 고부출신 -
다른 할 말은 없다. 그러나 나를 죽일진대 종로 네거리에서 목을 베어
오가는 사람에게 내 피를 뿌리라. 어찌 이 캄캄한 적굴에서 암연히 죽이느냐

- 사형 직전 전봉준의 최후 말 -

〈시안2〉 손화중의 경우

- 손화중(1861-1895)

백성을 위해 힘을 다한 것인데 어찌 사형에 처하느냐

- 손화중의 사형선고에 대한 최후 진술에서

〈시안3〉 나동환과 진주정씨

- 동학 접주 나동환(1849-1937) 나주나씨 22세 호 日菴 -
나라의 운명이 장차 어지러워질 때 진실로 성대(聖代)의 다스림을 바랬으며
나라의 일이 날로 그릇되어 갈 때 권력을 가진 간신(奸臣)들의 세력을 막으려
고, 드디어 이처럼 의병을 일으켰으나 동비(東匪)라는 조롱을 면치 못하였네.

- 國事日非 欲拒權奸之勢, 肆此起義 未免東匪之嘲.

〈시안4〉 보성 동학으로 나주에 숨어 살았던 박병국 한(恨)의 소리

보성 농민군으로 나주에 숨어 들어와 살았던 박병국의 손자 용남(73세)의 한의 소리를 채증해 후손의 한(恨)의 목소리를 글로 지었다.

- 동학도 박병국, 본 밀양, - 자 양규, 손자 용남

1894년 농민수탈에 항거하는 우리 할아버지 박병국은 보성에서 농민활동하시다가 일제강점기 때에 보성에서 살 수 없어 나주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 양규(良圭)는 나주역사 공원에 「朴公良圭忠魂碑」가 서 있으니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살다 가신 할아버지께서 우리나라 민주화의 초석을 놓으셨다고 나주시에서 할아버지를 기리는 표석을 나주 동학 공원에 문패처럼 붙였으니 지난날의 恨을 興으로 승화하시어 부디 저 세상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소서.

2022년 0월 0일

- 손자 용남 삼가 할아버지 영전에 글을 올립니다 -

위와 같이 동학농민군에 참여했던 자의 한(恨)의 목소리 1~2만개 편식판을 모아서 위령탑 주변에 비군(碑群)으로 조성해 놓으면 그 목소리가 한국과 일본을 울릴 것이며, 장차는 세계 각국을 울릴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가장 슬픈 한(恨)을 흥(興)으로 승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사람이 곧 하늘이다(人乃天)」라는 세상을 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어갔는가? 그 백성의 한(恨)의 소리를 다 모으니 마침내 대한민국은 백성이 주인 되는 시대를 열고 장차는 세계민주화의 씨앗이 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가장 슬픈 한(恨)을 흥(興)으로 승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동학 구전(口傳) 수집의 이유와 구전 수집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그에 대한 대책으로 동학 후손측은 다만 구전을 구술(口述)하는 정도로만 수집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많은 구술이 답지할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구술 수집 목표를 적어도 1~2만 건으로 하고, 만약에 구술 수집 중에 집안에 비전(秘傳)되는 기록물을 발견하게 되면 마치 일본에서 『진중일지』가 발견된 것처럼 톱 뉴스감 임은 물론 동학 역사를 새롭게 재조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구술 수집과 채증을 나주시가 모두 담당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채증작업은 외부 동학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다만 나주시는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모아 나주를 세계 명소로 만드는 그곳의 명명(命名)을 어떻게 정할지 등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뜻을 수용해 낼 수 있는 장소 선정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2022년~2023년에는 먼저 일본측에서 위령탑을 세울 것이며, 이 위령탑은 가칭 「나주 동학혁명 역사공원」의 심볼 마크가 될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동학이 당시 서성문을 중심으로 4대문과 인연이 있으므로 사적지 나주읍성을 가칭 「나주 동학혁명 역사공원」으로 지정하여 읍성 발굴과 복원과정에서 조성되는 「빈 공간 터」에 위령탑과 1~2만개 편석판 비군(碑群)을 배치하는 것이 나주를 세계명소로 만드는 최선의 방법일 것 같다. 이는 동학 전문가와 시민들의 공감대를 조성하여 시급히 정해야 할 일이다. 다만 1~2만개 편석판(片石板) 수집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는 단기사업으로 완성할 수 없음으로 적어도 중장기 사업으로 전개되기를 희망한다.

또 하나 문제는 앞서 언급하였지만 1894년 가해자 측인 일본군과 우리나라 관군도 어찌 보면 인간의 양심에 반하는 살인을 하게 되었으므로 평생 명에를 지고 살았을 것이다. 『진중일지』를 쓴 일본군 쿠스노키 비요키치(楠美代吉) 상등병도 죽을 때까지 인간적 양심의 가책을 명에로 지고

살았을 것이며, 관군에 소속되었기에 명령에 따라 동학군을 진압한 그들과 후손들도 잘못된 역사의 명예를 벗어나고자 할 것이기에, 이들도 가칭 「나주 동학혁명 역사공원」에 한(恨)의 목소리를 새겨 넣는 기회를 주는 것도 나주가 민주화와 세계화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니, 이 문제도 전문가와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나주의 위령탑은 일본인이 사죄의 의미를 담아 세우니 분명 여타 위령탑과는 다른 점이 있다. 여기에 동학관련 피해자 모두를 발굴하여 그들의 한(恨)의 목소리를 편석판(片石板)의 돌에 새겨 이 모두를 모아 비군(碑群)을 조성해야 한다. 편석판(片石板)의 비군(碑群)은 피해자 가족 후손들이 참여하고, 이러한 뜻에 동참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문학자, 화가, 조각가, 독지가 등]들이 참여하여 그들로부터 모아진 한(恨)이 새겨진 편석판(片石板)을 모아 스토리텔링을 엮어 내면 세계적 명소가 될 것이다.

한(恨)이 새겨진 편석판(片石板)을 제작 목표를 1~2만개 하여도 전체 동학농민 70여만명에 비하면 결코 많은 목표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1만개의 한(恨)의 목소리를 모으면 한국과 일본을 흔들 것이다. 2만개의 한(恨)의 목소리를 모으면 아시아를 흔들 것이고, 2만개 이상의 한(恨)의 목소리를 모으면 세계 각국을 흔들 것이다. 여기에 ‘나주 국제 동학상(Naju International Donghak Prize)’을 정례적으로 수여할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 같다.

일본 측 대표인 이노우에 가츠오(井上勝生)교수의 작은 몸짓, 즉 나주에 동학 위령탑을 세우겠다는 미풍이 점점 강풍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어 장차 전 세계에 태풍으로 몰아치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를 상상하면서 혹여 일본에서 나주 동학 접주 나동환(羅東煥)에 관한 기록이나 아울러 1894년 동학관련 기록물 발견에 도움을 줄 것을 건의 한다.

나주지역 동학농민혁명자료 해제

박 맹 수 · 김 봉 곤 · 야 규 마코토*

1. 개설

나주는 1894년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지역에서 운봉과 함께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다. 나주목사 민종렬(閔種烈)과 나주영장 이원우(李源佑)가 이끄는 나주 수성군에 의해 나주성을 방어한 이후 호남지역 동학농민군의 진압과 회유의 중심지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일본군 정토군 본부가 설치되어 호남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종식시킨 곳이다. 따라서 나주지역의 경우 주로 수성군과 일본군측 자료가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나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자료에 관해서는 박맹수 교수에 의해 2009년 『자료로 보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에서 6건의 국내 자료가 검토되었으며,¹⁾ 박교수는 이밖에도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 문서와 일본군 후비보병 중군일지 등을 소개하였다.²⁾

현재 나주지역 동학농민혁명자료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곳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동학농민혁명종합정보시스템』(<http://www.e-donghak.or.kr>)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1862년 3월부터 1917년 12월까지 생산된 동학농

* 박맹수(원광대 총장), 김봉곤·야규 마코토(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연구교수)

1) 박맹수 교수에 의해 검토된 자료는 1) 『김낙철역사(金洛喆歷史) 나주부문』(『金洛喆歷史』, 김낙철, 1917), 2) 『김낙봉이력(金洛鳳履歷) 나주부문』(『金洛鳳歷史』, 김낙봉, 1913), 3) 『갑오칠월(甲午七月)나주명록(羅州名錄)』(黃土峴記念館所藏), 4) 『갑오구월(甲午九月)나주명록(羅州名錄)』(黃土峴記念館所藏), 5) 『금성정의록(錦城正義錄)』(李炳壽 1855-1941), 6) 난파유고(蘭坡遺稿)(鄭錫珍, 1851-1895) 등이다(박맹수, 「전남지방동학농민혁명 자료해제」, 『자료로 보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모시는 사람들, 2009. 127-131쪽)이다.

2) 박맹수,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기록-‘明治二十七年日清交戰從軍日誌’ 해제」,

민자료에 대해서 주제별로 일반자료(정부자료, 개인자료), 지역사례(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기타지역), 진압기록(1차 진압, 2차진압), 일본자료(외무성자료, 신문, 기타), 중국자료(청정부자료), 동학관련자료(경전, 교단)로 구분하고 있고, 자료마다 해제를 덧붙이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나주시와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에서 개최한 나주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이노우에 가즈오, 나천수, 김희태, 김봉곤 등이 나주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를 검토하기도 했다.³⁾

『동학농민혁명종합정보시스템』(<http://www.e-donghak.or.kr>)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와 문집, 고문서를 중심으로 나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표를 얻을 수 있다.⁴⁾

〈표 1〉 나주관련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료

구분	서명	내용	비고
관찬 (연대 기)	조선왕조실록	목사 민종렬, 영장 이원우 관련.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목사 민종렬 관련	국사편찬위원회
	일성록	목사 민종렬, 영장 이원우 관련.	서울대규장각
관찬 (진압 부대)	『갑오군정실기』 권10	민종렬의 전공자 보고	동학농민혁명정보시스템
	선봉진 정보첩	각 군(郡)에서 선봉장 이규태에게 보낸 첩보	고려대학교 도서관
	순무사각진전령	양호순무사 신정희가 선봉장 이규태에게 보낸 전령	고려대학교 도서관
	순무선봉진등록	선봉장 이규태가 주고 받은 공문	고려대학교 도서관
	고문서	전라도 동학도 체포자 및 획득한 집물, 포상자 명단, 4읍작통 등	서울대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3) 이노우에 가즈오, 「동학농민군 항일봉기와 일본군의 토벌작전의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며 : 장흥 전투를 중심으로」, 『나주동학농민혁명 재조명과 세계시민적 공공성 구축 - 자료구축을 중심으로』, 2020년 나주동학농민혁명 한일학술대회, 나주시,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2020. 10. 28 ; 나천수, 「나주지역 동학관련 구술자료 수집과 그 의의」, 같은 책: 김희태, 「동학농민군의 나주압송과 처형」, 같은 책 : 김봉곤, 「나주 동학농민군 활동 재조명」, 『나주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의의와 시민사회로의 확산』, 2020년 나주동학농민혁명 한일학술대회, 나주시,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2021. 11. 12.

4) 본고 작성시 『동학농민혁명종합정보시스템』의 관련자료를 크게 참조하였다.

구분	서명	내용	비고
개인 기록	동학사 초고본	전봉준과 민종렬 담판, 오권선 활동	오지영(익산)
	김낙철 역사	나주 초토영에 압송, 오권선 관련	부안 동학접주
	김낙봉 이력	나주 초토영에 압송, 오권선 관련	부안 동학접주
	나주명록(7월)	1894.7에 작성한 나주동학교도 명단	나주 북부
	나주명록(9월)	1894.9에 작성한 나주동학교도 명단	나주 북부
	금성정의록	민종렬 등 수성군과 동학농민군의 전투	이병수(나주유생)
	난파유고	정석진 등 수성군의 활약	정석진(도통장)
	겸산유고	『금성정의록』 상,중,하	이병수(나주유생)
	난파유고	초토사가 보고한 군공별단, 토평(討平)일기, 행상(行賞)	정석진(나주유생)
	오하기문	나주목사 민종렬과 이원우의 활동, 일본군의 나주 점령.	황현(구례유생)
	백하유고	나주수성군의 규모와 조직	양상형(나주유생)
	하촌유고	수성군의 활동, 교촌과 경현의 민보군	나동륜(나주유생)
	강재일사	전라병영과 나주관련	박기현(강진유생)
	봉남일기	11월 12월 나주시역 동학관련 기록	변만기(장성유생)
	나동환, 진주정씨 비문	나동환의 접주로서 활동, 진주정씨 효열	나동환(동학접주)
일본	한달문 옥증서신	감옥에 갇힌 동학농민군 한달문의 호소	한달문(동학농민군)
	주한일본공사관 기록,통감부문서	동학당 정토약기(후비보병 19대대의 동학농민군과의 전투)	동학농민혁명명정보시스템
	일본외무성 외교 사료관 소장문서 (1)	동학농민군 이동상황, 전투, 진압방침	"
	일본외무성 외교 사료관 소장문서 (2)	천우협(天佑俠) 등 낭인단이 수집한 정보로서 동학농민군, 일본주둔군의 활동,청일전쟁 자료	"
	일본사관합동	이규태와 마나미 고시로, 모리오 마사이치간의 편지	"
	마나미 고시로(南小四郎)문서	마나미고시로의 이력서 : 동학당 정토경력서, 서남해안 동학농민군 강경진압	"
	진중일지	19세대 1중대 쿠스노키 비요키치 상등병의 종군일지, 1895년 2월 4일 처형된 동학농민군 시신 묘사	"

구분	서명	내용	비고
	일본신문	이륙신보(二六新報), 시사신보(時事新報), 동경조일신문(東京朝日新聞), 만세보(萬歲報), 국민신문(國民新聞), 동경일일신문(東京日日新聞), 대판조일신문(大阪朝日新聞), 대판매일신문(大阪毎日新聞) 등	"

2. 관찬사서

1) 연대기 자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에 나주목사 민종렬과 나주영장 이원우에 대한 관력이 기재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민종렬의 관직 상황만 기록되어 있다. 민종렬은 1893년 10월 18일 나주목사에 제수되었다가 1894년 8월 17일 전라감사 김학진의 장계로 유임되었으며, 1894. 9월 이후 호남소모사, 호남초토사로 임명된 사실을 전하고 있다.

『승정원일기』에서는 민종렬의 관직 사항과 나주영장 이원우의 관직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특히 1894년 민종렬의 관직 사항에서 나주목사 민종렬이 1894년 8월 17일 유임되기 한달 전인 7월 18일 동부승지를 제수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승정원일기』에서는 공조참의 박세병(朴世秉)을 7월 19일 나주목사로 삼았다가 다시 9월 21일 충주목사로 발령을 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원우는 1893년 12월 28일 나주영장에 제수하였다가 1894년 7월 27일 총어영(摠禦營) 좌2번 기사장(騎士將)으로 개차했다가, 9월 17일 다시 그대로 나주영장을 수행할 것을 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민종렬과 이원우가 동학농민군의 반발에 부딪쳐 관직변동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일성록』의 관직사항도 『승정원일기』와 대동소이하다.

2) 관군자료

(1)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

『갑오군정실기』는 1894년 9월 22일 정부에서 호위부장 신정희(申正熙)를 도순무사(都巡撫使)에 임명하고 양호도순무영(兩湖都巡撫營)을 설치한 후, 이해 12월 27일 폐지될 때까지 95일 동안 설치했던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최고 군사 지휘부의 공식 기록이다. 양호도순무영의 활동 기간은 양력으로 1894년 10월 20일부터 1895년 1월 22일까지 해당된다.

도순무사 신정희는 호위청을 비롯한 경군 병영인 통위영·장위영·총어영·용호영·경리청을 망라해서 도순무영을 구성하고, 전국 각 지방에 임명한 소모사·소모관·별군관·조방장 등을 지휘해서 동학농민군 진압을 이끌었다. 강화도의 심영은 물론 지방 요지에 설치된 병영과 수영의 병사와 수사도 도순무사의 명을 받았고, 각 군현의 관아와 밀접하게 협력했던 민보군과 보부상들도 그 지시를 따랐다. 『갑오군정실기』 권10에 호남초토사 민종렬이 양호도순무영에 보고한 군공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2) 『선봉진 정보첩(先鋒陣呈報牒)』

1894년 10월 11일부터 1895년 3월 22일까지 선봉진(先鋒陣) 소속부대장(部隊長)과 각군(各郡)의 수령(守令) 및 공형(公兄)이 동학농민군의 동향과 토벌에 관한 사항을 선봉장(先鋒將) 이규태(李圭泰)에게 보고한 첩보(牒報)를 수록한 것이다. 선봉진의 지시에 따라 보고한 내용이어서 그 대책의 관련성을 알아볼 수 있는 기본 자료이다.

특히 충청, 전라도 일대 각군의 첩보(牒報)는 농민군 토벌을 위한 제반준비, 각 부대의 농민군 진압 전투 및 사후 처리사항을 상세히 담고 있다. 또 공주지역 농민군의 배치도 등을 첨부하고 있다. 제2차 동학농민혁명연구에서 일차적인 자료로 꼽힌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3) 『순무사각진전령(巡撫使各陣傳令)』

1894년 10월 12일부터 12월 26일까지 양호순무사(兩湖巡撫使) 신정희(申正熙)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시기 출진한 선봉장 이규태(李圭泰)에게 보낸 전령을 모은 책이다. 조정에서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시기 서울에 충지휘부인 순무영(巡撫營)을 설치하고 신정희를 순무사로 임명하고 장위영·경리청 등 서울·수원 수비 군사를 총출동시켰다. 그 중심부대는 장위영이었다. 장위영에는 좌선봉 이규태, 우선봉 이두황(李斗璜)을 임명하고 공주를 목표로 출동시켰다. 일본군은 별도로 현지에 내려가면서 관군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다. 순무사는 이들의 보고를 받고 일일이 지시를 내리고 서울의 동정을 알렸다. 여기 내용에는 장위영의 군사가 출동한 시기부터 모든 행군 과정과 물자동원, 전투상황을 보고하고 다음의 지시를 받았다. 순무사의 지시에는 임금의 윤음을 알리기도 하고 다른 지방관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이들 내용에는 세성산전투, 공주전투는 물론 장위영 군사들이 호남의 나주와 해남 장흥 등지로 내려가 토벌한 사실과 전봉준 김개남을 체포한 것과 전봉준을 일본군에 인계한 사건까지 망라되어 있다. 또 조정에서 하사한 물품과 돈의 내력도 병기하였다. 따라서 농민군 토벌과정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자료이다.

원본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4) 『순무선봉진등록(巡撫先鋒陣謄錄)』

본 자료는 양호선봉장(兩湖先鋒將) 이규태(李圭泰)가 2차 동학농민혁명 진압과정에서 1894년 10월 11일부터 1895년 2월 5일까지, 각처와 주고 받은 공문들을 수록한 것이다.

주요한 내용으로, 선봉장 이규태가 순무영에 보고한 것과 그것에 대한 답변, 선봉장 이규태와 각 지역의 수령들이 주고받은 지시와 보고 내용, 그리고 친군경리청부영관(親軍經理廳副領官) 성하영(成夏永)과 장위영부영관(壯衛營副領官) 이두황(李斗璜)이 선봉장에게 보고한 것과 그것에 대

한 선봉장의 지시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공문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공주공방전의 상황과 공주전투 이후 전라도 지방에서의 동학농민군 소탕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본 자료는 2차 동학농민혁명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이며, 다른 순무영 또는 선봉진 관련 자료들과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본 자료의 원본은 고려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5) 고문서류⁵⁾

㉑ 『포살동도수효급소획급물명록성책(砲殺東徒數爰及所獲汁物并錄成冊)』

호남초토사(민종렬)가 중앙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구630)이다. 1894년 4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동학농민군 토벌 과정에서 죽인 동학도의 숫자 및 노획물의 현황, 전투에 참여한 수성군의 명단을 정리해놓았다.

4월 26일에는 나주 서쪽 30리 무안 경계에 나아가 토벌할 때 적당 생금 30명 내에 3명은 우진영에서 효경(梟警)하고 27명은 자읍결과(自邑結果) 하도록 했다. 같은 날에 노획한 것은 염주 5건, 발우(鉢盂) 7개, 통문축 상자 1, 책자 5권 등이다. 7월 5일 나주 서문(西門), 10월 21일 광주 침산(砦山)·사창(社倉), 11월 11일 적량(赤良)·용진산(簞珍山), 11월 17일 수다면(水多面) 호장촌(虎藏村), 고막포 교변(古幕浦橋邊), 11월 24일 금안면(金安面) 남산촌(南山村), 이로면(伊老面) 하촌(下村) 등 나주 관내 7개소의 전투일자, 포살 동학농민혁명군 수효, 소획급물, 출전장령 성명질이 기록되어 있다.

㉒ 『전라도각읍소작동도수효급소획급물명록성책(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爰及所獲汁物并錄成冊)』

1894년 12월에 호남초토사(湖南招討使) 민종렬(閔種烈)이 전라도(全羅道) 각지에서 체포한 동학도(東學徒)들의 성명 및 수효와 그 처리사항,

5) 고문서 해제 가운데 (1)~(3)은 김희태, 앞의 글, 110~115쪽 참조.

노획품의 수량 및 그 노획자 등을 중앙에 보고하기 위하여 기록한 자료이다. 1책 10장으로 되어있다. 문서를 작성한 시기는 12월 15일에 호남초토사 민종렬이 관내 농민군 토벌의 사실을 최고 기관인 의정부에 보고한 내용의 문서⁶⁾가 있는 것으로 보아 12월 15일로 보인다.

동학농민군에 대한 처리사항으로는 동북 225명, 나주 41명, 함평 35명, 무안 26명, 무장 23명, 능주 23명, 영광 23명, 담양 22명, 광주 17명 등 486명이 포착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잡으면 포살하는 232명이 가장 많고, 임전포살이 16명, 착득장살이 3명, 효수 5명, 고문이나 형벌로 죽은 경폐(徑罷)도 15명에 달한다. 경군으로 압송된 동학농민군은 24명, 나주우영으로 압송된 동학농민군은 33명이다. 소획물품(所獲物品)은 대완포(大碗砲), 조총(鳥銃), 화약(火藥), 접주차정(接主差定), 염주(念珠), 위조(偽造)한 홍패(紅牌), 백기(白旗), 전교(傳敎), 각궁(角弓), 죽궁(竹弓), 시(矢), 기독(旗纛) 등이 보이는데 이들은 함평(咸平)에서 노획(虜獲)한 것과 동오면(東五面) 의거통수(義學統首) 유기연(柳紀淵) 휘하(揮下)의 여러 사람이 획득한 것이다. 전라도 각지의 농민군 진압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 『전라도각읍소획동도수효급장령성명병록성책(開國五百四年正月 日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爰及將領姓名竝錄成冊)』

1895년 1월 호남초토사(湖南招討使) 민종렬(閔種烈)이 전라도(全羅道) 각지에서 체포한 동학도(東學徒)들의 성명 및 수효와 그 처리사항, 노획품의 수량 및 그 노획자 이름 등을 중앙에 보고하기 위하여 기록한 자료이다. 1책 5장으로 되어 있다. 체제는 『전라도각읍소획동도수효급소착집물병록성책(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爰及所捉什物并錄成冊)』과 같아 중요인물인 경우에는 성명을 적고 구체적인 처리요지를 적고 있으며 그밖에는 수효와 처리사항을 적고 있다. 벽사역 62명, 광양 49명, 부안 18명, 능주 15명,

6) 호남초토사 민종렬이 작성한 서목(1894년 12월 15일)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1』)

함평 12명 등 16개 관에서 188명이 포착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작성 시기는 보고 내용이 1월 3일부터 1월 22일까지인 것으로 보아 1월 22일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양 전라도 각지의 농민군 진압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㉔ 『전라도각읍매사읍작통규모 관사조약별록성책(全羅道各邑每四邑作統規模關辭條約別錄成冊)』

1895년 전라도 초토영의 초토사 민중렬이 각읍(各邑)을 작통하면서 각 읍에 보낸 관사(關辭), 작통 조약(作統條約), 작통 내용(作統內容)을 수록한 자료이다. 1책(5장)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관사(關辭)와 조약(條約), 작통 질(作統秩)로 나뉘는데, ‘관사(關辭)’에서는 2차 농민봉기로 인하여 각읍의 수비체제가 극도로 문란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작통(作統)을 통하여 동학 잔당의 토벌 및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 ‘작통 조약(作統條約)’은 모두 4조로 되어 있다. 매 4읍(四邑)이 협조하여 작통하고, 각읍간의 긴밀한 연락을 취할 것, 수성군의 상호 협조와 경계를 넘어 민폐를 끼치는 것을 엄금할 것, 토벌 방략을 세울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 각읍의 ‘작통질(作統秩)’은 감영(監營)을 제외한 52읍을 근접한 4읍별(四邑別)로 작통한 총 13통(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이 자료는 농민군 잔당을 소탕하고 지방의 수비태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시 전라도 초토영의 진압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3. 개인기록

1) 『동학사(東學使)』초고본((草稿本)(오지영(吳知泳), 1868~1950)

이 책은 동학의 발생, 즉 1대 교주 최제우(崔濟愚)의 창도(創道)에서

1930년대 천도교 혁신 운동까지 수록하고 있는 동학(東學) 또는 천도교(天道敎)의 역사책이다. 4책으로 되어 있다. 저자가 직접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나름대로 겪은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사실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서술의 중심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오지영(1868~1950)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참여한 인물로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천도교 혁신운동에 종사한 운동가이다. 그는 전북 고창군 무장면 덕림리에서 몰락한 양반인 오재선(吳裁善)의 장자로 태어나서 1891년에 동학에 입교하였다. 이듬해 고창 선운사의 석불비기(石佛祕訣)사건으로 고향을 떠나 익산(益山)에 머물러 활동하면서 1893년 익산 민란에서 도장두(都狀頭)로 활약했으며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익산대접주인 김방서(金方瑞) 휘하에서 참여하였다.

동학사는 오류와 과장, 부정확한 부분이 다소 발견되고 있지만, 1894년 당시 동학농민혁명의 이념과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고 저자의 경험담과 더불어 정확한 사실이해를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다. 따라서 1920년대 동학농민혁명에 관해 쓰여진 어떠한 다른 저서가 뒤따를 수 없을 정도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서술이 이루어져 연구사상 중요한 고전(古典)으로 간주되고 있다. 나주에서 1894년 초에 백산대회에 참여하였음과 전봉준이 8월 나주성에서 나주목사 민종렬과 담판을 지어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을 실시하였으며, 9월 2차 동학동학혁명 때 오권선이 3,000명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거병하였음을 기술하고 있다. 다만, 나주성에 집강소 설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2) 『김낙철역사(金洛喆歷史) 나주부문』(『金洛喆歷史』, 김낙철, 1917)⁷⁾

1890년 동학에 입도한 부안출신 동학대접주 김낙철(1858-1917)이 동학에 입도한 이래 1917년 천도교 성도사(誠道師)를 지내고 죽기까지의 일대기를 기록한 자전적 수기(手記)이다.

7) 『김낙철역사』부터 『난파유고』까지는 박맹수 교수의 글을 전재하였다.

이 글에는 김낙철이 1890년 동학에 입도한 직후부터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사실을 연대기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갑오년 9월 동학농민군이 재기포한 이후 경병 및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체포된 전라도 각지의 동학농민군지도자들의 근황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특히 그가 1894년 12월 11일에 부안에서 체포되어⁸⁾ 12월 23일 나주로 압송된 후, 나주 진영에서 수성군과 관속으로부터 혹독한 구타를 당하는 과정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순창에서 체포된 전봉준 역시 나주 진영에 수감되어 있다가 1895년 1월 5일 서울로 압송되었다는 기록도 들어 있다. 이처럼 김낙철이 기록한 나주 관련 부분은 호남초토영(湖南招討營)이 설치된 나주진영으로 끌려온 농민군 지도자들의 참상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귀중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3) 『김낙봉이력(金洛鳳履歷) 나주부문』(『金洛鳳履歷』, 김낙봉, 1913)

1890년 전북 부안에서 형 낙철과 함께 동학에 입교하여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직접 체험한 김낙봉(1860~1937)이 1913년까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회고 형식으로 남긴 자전적 기록이다. 표지가 없이 본문 첫장에 ‘김낙봉이력’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는 이 자료는 127쪽 분량의 한지에 국한문 혼용체로 쓰여 있다. 1894년 3월 충청도 금산, 진산 일대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이 서장옥의 지휘를 받고 이었다는 사실 등 1차 봉기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문 중에 나오는 대신사는 해월 최시형을, 대교주(大敎主)는 구암(龜庵) 김연국(金演局)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김낙봉이 동학에 입교하는 1890년부터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이 체포되는 1898년까지의 내용을 영인하였다. 원본은 전주에 거주하는 증손자 김문철(金文哲)씨가 소장하고 있다. 이 자료에도 역시 김낙봉의 형 낙철이 나주로 압송되어 수감되었을 당시 목격한 내용이 실려 있다.

8) 김낙철이 나주에 압송된 이유는 나주대접주 오권선의 연원이 김낙철, 김낙봉 형제이었기 때문이다. 「김낙봉이력(金洛鳳履歷)」甲午十月.

4) 『갑오칠월(甲午七月)나주명록(羅州名錄)』 (황토현기념관 소장)

집강소 통치기인 1894년 7월에 작성된 나주지역 동학교도 명단이다. 이 명록에는 당시 나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학교도들의 이름, 자와 본관, 거주지, 나이 따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동학교도들로서 대부분 농민군에 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⁹⁾

5) 『갑오구월(甲午九月)나주명록(羅州名錄)』 (황토현기념관 소장)

갑오 7월에 작성된 명록과 달리 9월에 작성된 이 명록에는 동학교도들의 명단 밑에 동학조직 또는 집강소 내에서의 직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 명록을 통해 갑오년 당시 육임제(六任制)와 같은 조직 제도가 농민군 조직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금성정의록(錦城正義錄)』(李炳壽, 1855~1941)

나주 유생 겸산(謙山)의 문집 『겸산유고(謙山遺稿)』권19·20에 실린 자료로 갑오년 당시의 황룡촌 전투, 나주 공방전투 상황과 나주 공방전 이후 집강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나주에 내려와 목사 민종렬과 담판을 했던 전 봉준의 행적을 담고 있다.¹⁰⁾

9) 『7월 명록』(나주 38명+함평 7명=45명)과 『9월 명록』(75명)에 기록된 나주출신 인물 중 『7월 명록』에 15명, 『9월 명록』에 25명이 수록되어 있다. 『9월 명록』의 25명은 『7월 명록』의 15명 외에 10명이 추가된 인원이다. 『9월 명록』의 경우 본관이나 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관을 추적하기 어려우나, 항렬 등을 기준으로 『扶安金氏直長公派譜』(1993.계유)를 검토해본 결과 10명을 더 찾아낼 수 있었다(김봉곤, 「나주 동학농민군 활동 재조명」, 『나주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의의와 시민사회로의 확산』, 2021년 나주동학농민혁명 한일학술대회, 나주시 및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121.11.12, 67~71쪽). 또한 25명 중 16명이 족보에서 확인되며, 이들은 오늘날 광주시 광산구 본량동 일대에 거주한 인물로 확인되었다. 기타 평산신씨 6인, 밀양박씨, 광산김씨 5명 등도 주로 본량동 일대에 거주한 인물로 추정된다(김봉곤, 「동학농민혁명기 나주동학농민군의 확산과 활동」, 『나주동학농민혁명 재조명』, 나주시, 2022. 12)

10) 『금성정의록(錦城正義錄)』에는 이 밖에도 갑편에 나주목사 민종렬의 향약실시, 나주 대접주 오권선의 가문내력과 활동지역, 대접주 최경선, 순화증의 나주공격, 남평, 장흥, 영암 등지의 농민군 동향도 기록하였다. 읍편에는 농민군 토벌의 군공을 기록한 「초토사보군공별지(招討使報軍功別紙)」와 수성군의 군공을 축하한 「본주인사하군공장(本州人士賀軍功狀)」, 그리고 기우만이 나주 수성군의 도통장 정석진(鄭錫珍)에게 보낸 편지와 나주수성군이 나주동학농

저자 이병수는 유생 신분으로 1893년 목사 민종렬이 부임하여 나주 향촌 사회의 통제를 위한 향약을 시행할 당시 나주목에 설치된 도약소(都約所)의 직월(直月)이라는 직책에 있었으며 갑오년에는 동학농민군과 나주 수성군과의 치열한 공방전을 치를 때 수성군 측에 서서 직접 체험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신빙성이 높은 자료이다. 그러나 시종일관 보수 유림의 시각에서 동학농민군 측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동학농민군과 수성군의 전투 상황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수성군측이 승리한 것으로만 기록하고 있는 점이 흠이라 하겠다.

7) 『난파유고(蘭坡遺稿)』(정석진(鄭錫珍), 1851~1895)

갑오동학농민혁명 당시 나주성 수성 도통장(都統長)을 지낸 정석진의 문집으로서 4권 1책이며 1913년(계축년)에 간행되었다. 정석진의 자는 태완(台完)이며 난파(蘭坡)는 그의 호이다. 1851년 8월 9일 나주 서문 부근의 명당리(明堂里)에서 출생한 그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나주 수성을 위한 도통장에 임명되어 나주 목사 민종렬, 나주 영장 이원우 등과 함께 갑오 4월부터 약 9개월 동안 동학농민군의 공세로부터 나주성을 지켜내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이 문집에는 그가 남긴 몇 편의 글과 그가 도통장으로 있으면서 전후 7회에 걸친 농민군을 격퇴한 공을 기리는 나주 일대 유생들의 글, 그리고 나주 일대 농민군을 토벌했던 내역을 소상히 기록한 「토평일기」 및 그의 행장이 실려 있다. 따라서 이 문집은 갑오년 당시 나주 광주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손화중, 최경선, 오권선(吳權善) 등이 이끌던 동학농민군과 나주목사 민종렬, 영장 이원우, 도통장 정석진이 이끌던 수성군과의 사이에 치열하게 벌어졌던 공방전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 밖에 농민군에 의한 장흥, 강진, 병영의 잇따른 함락 소식, 강진현감 이규하(李奎夏), 전라병사 서광복(徐光福) 등이 피신해 오는 내

민군을 격파한 「토평비명병서(討平碑銘並序)」등을 수록하고 있다.

용, 함락 진전의 영암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주 수성군이 영암까지 진출하는 내용을 추가로 전하고 있다.

8) 『오하기문(梧下記聞)』(황현(黃玹), 1855~1910)

매천(梅泉) 황현(黃玹)이 1864년부터 1907년까지 역사를 월일별로 기록한 책이다. 모두 7筆로 되어 있는데,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부분은 1필에서 3필까지이다. 수필(首筆)에서는 당쟁과 문벌(門閥), 세도정치의 폐해, 호남지역 수탈과 이서의 폐단으로 인한 동학의 전파, 1894년 제1차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과 일본군 출병과 집강소 활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나주에 관해서는 4월 18일 동학농민군이 나주 공형(公兄) 앞으로 글을 보내서 나주목사 민종렬의 항복을 권유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2필에서는 일본의 경복궁강점과 흥선대원군, 개화정권의 등장, 갑오개혁 법령 소개, 각지의 농민군과의 전투를 소개하고 있다. 나주와 관련하여 나주목사 민종렬의 내력과 나주 수성군의 결성, 나주영장 이원우의 활약과 7월초 최경선과 오권선의 나주성 공략 실패, 나주목사 민종렬과 나주영장 이원우의 파직과 복직 등이 기록되어 있다.

3필에서는 2차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전봉준, 김개남의 동학농민군의 재기, 조정에서 순무영(巡撫營)의 설치, 전봉준, 김개남의 패배와 사형, 전라감사 이도재의 오가작통법 실시 등이 기록되어 있다. 나주에 관해서는 일본군이 나주를 점령하여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재물을 약탈하여 나주 전체가 동요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9) 『하촌유고(荷村遺稿)』(나동륜(羅東綸), 1833~1905))

『하촌유고』는 나주 왕곡면 신포리 출신의 하촌 나동륜(羅東綸)이 남긴 1권1책의 필사본이다. 나동륜은 1873년 식년 진사시에서 합격하였으며, 1893년 나주목사 민종렬이 나주향약을 실시했을 때 도약장(都約長)을 맡았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금성산 의거 일기(錦城山義舉日記)」를

남기고 있다. 7월 초 나주성을 쳐들어온 최경선 동학농민군을 수성군이 대완포를 쏘아 격파한 사실과 향약실시, 교촌과 경현 일대의 민보군을 결성한 사실 등을 기록하고 있다.

10) 『일사(日史)(강재(剛齋) 박기현(朴冀鉉), 1864~1913)

강진군 작천면의 유생 강재 박기현이 남긴 일기이다. 1891년부터 1903년에 이르기까지 장흥, 강진 일대의 향촌 사회의 동향과 함께 박기현과 유생들과의 교유관계를 알려주고 있다. 특히 갑오년을 전후한 시기 장흥·강진 일대의 동학농민군측과 관군측의 동향 및 당시 전투상황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서 강진, 장흥 지역 동학농민혁명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자료이다. 나주와 관련하여서는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자 전라병영에서 나주에 군사를 파견하였으며, 이후 4월 30일 전라병영에서 전라병사가 교체되면서 파견된 병사들이 다시 되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 『봉남일기(鳳南日記)』(변만기(邊萬基), 1858~1925)

봉남일기는 장성의 유생 변만기가 썼다. 변만기는 장성 장안리 태생으로 고종 31년(1894)부터 30년간 일기를 썼는데, 1950년 한국전쟁 때 대부분 소실되고 고종 31년(1894)부터 광무 7년(1903)에 이르는 10년간의 일기만이 남아 있다. 장성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과 민비시해사건, 고종의 아관파천, 단발령, 의병봉기, 제주민란, 사환미, 호포전, 결포전에 관한 기록, 극심한 기아 등을 기록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변만기는 36세였는데, 1894년 10월에서 1895년 2월까지 4개월에 걸쳐 농민군의 활동에 관한 내용을 자신이 목격하거나 들은 이야기를 날짜별로 소상히 기록하였다. 군수전(軍需錢), 군수미(軍需米)를 거둔 내용, 나주, 고창, 장성 등지의 동학농민군의 활동상, 장성 월평에 도소를 설치한 사실과 나주전투의 상황, 오권선, 손화중, 전봉준의 움직임, 일본 정토군 치하의 나주성의 모습을 기록하였다. 이 자료의 원본은 장성 변시연(邊時淵)씨 집에 소장되어 있다.

12) 「나주나공 나동환의적비(羅州羅公羅東煥義蹟碑)」와 「효열부 진주정씨 행적비(孝烈婦晉州鄭氏行蹟碑)」¹¹⁾

나주시 남내동의 금호사(錦湖祠) 경내에 있다. 진주정씨 행적비문은 1972년 나평집(羅平集), 나동환 의적비문은 1974년 최남구(崔南九)가 지었다. 나동환(羅東煥, 1849~1937)은 본관이 나주이며, 나주 택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자는 도경(道卿), 호는 일암(日庵)이며, 일찍이 동학에 입도하여 1894년 1월에는 교단으로부터 교수 겸 교장 직책을 받았다. 농민군의 1차 기포 때는 나주의 접주로서 활동하였다. 농민군이 나주성을 공격할 때도 500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싸웠으나 실패했다. 그 후 전봉준의 체포 소식을 듣고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그의 부인 진주정씨와 함께 함평군 월야면 연암리 다라실에 있는 나동환의 처가로 은신했다. 관군이 들이닥쳤으나, 부인 진주정씨(晉州鄭氏, (1848-1913))는 남편과 아들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고, 자신은 관군들에게 잡혀 압슬형(壓膝刑) 등 혹독한 고문을 받았으나, 끝내 남편의 행방에 대해 함구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을 기리기 위해 1974년 의열각(義烈閣)을 짓고 나주나공동환의적비(羅州羅公東煥義蹟碑)와 <효열부진주정씨행적비(孝烈婦晉州鄭氏行蹟碑)>를 함께 세웠다.

13) 한달문(韓達文) 편지

농민군으로 나주감옥에 잡혀 있으면서 모친에게 보낸 편지이다. 한달문은 1894년 12월 민보군에게 잡혀 감옥에 있으면서 돈 3백냥만 있으면 살 방도가 있다고 하여 어머니에게 이를 요청하고 있다. 화순 도장면(道莊面) 동두산(東斗山, 현 화순군 도암면 원천리 동산)에 거주하였던 한치화(韓致和)와 동일인으로 추정되며, 한치화는 농민군 지도자로서 나주감옥에서 나왔으나 장독(杖毒)으로 1895년 4월 1일 죽었다고 전한다. 원본은 손자 한관용(韓寬鏞, 나주 봉황면 용전리 관전마을)이 소장하고 있다. 뒤에 한병만(화순군 도암면 원천리 388-1)이 소장하였고 2007년 1월 5일 화

11) 나천수, 앞의 글, 64~69쪽 참조.

순군 향토문화유산 제31호로 지정되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정읍 소재)에 기증되었고 2022년 2월 10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4. 일본측 자료

1) 『주한일본공사관기록·통감부문서(駐韓日本公使館記錄·統監府文書)』

국사편찬위원회가 유일 소장하고 있는 1894년부터 1910년까지의 주한일본공사관·통감부의 문서이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은 28권, 《통감부 문서》 11권에 달한다. 주한일본공사관·영사관과 일본 외무성, 각국 주재 일본 공사관·영사관과 일본 외무성 등이 주고받은 비밀 전보·공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본 경시청·헌병대의 비밀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명성황후 시해사건, 러일전쟁, 한일의정서·을사조약·한일신협약 체결, 고종의 강제 퇴위 관계, 안중근 의거, 국권 침탈 등에 관한 일본의 정책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내용이 매우 자세할 뿐 아니라 밀답이나 수정되기 이전의 초안들이 많아 정책의 집행 과정은 물론 수립 과정까지도 상세히 살펴 볼 수 있다. 권1과 권6에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권6 〈동학당 정토약기(東學黨 征討略記)〉에는 후비보병 독립제19대대(後備歩兵 獨立第19大隊)의 동학농민군 진압 과정, 특히 장흥, 강진 전투 이후 동학농민군의 재기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죽였다는 것과 나주에 끌려온 동학농민군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서 연구에 크게 참조가 된다.

2) 『일본외무성외교사료관소장문서(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藏文書)』¹⁾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¹²⁾ 권19~20)

12)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는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1996년 총30권으로 간행하였다. 그중 19권부터 25권까지가 일본측 자료이다.

(1) 「동학당에 관한 휘보(彙報)」(東學黨二關スル彙報, 1894.5.27.)

1894년 음력 4월 17일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영광(靈光), 무안(務安), 흥덕(興德)을 공격한 일에 대해서 전라도 감사와 초토사가 올린 전보와 왕의 칙서를 수록하고 있다. 이들 문서는 1894(明治27)년 5월 27일에 일본 임시대리공사 스기무라 후카시(杉村濤)가 하나로 묶어서 외무대신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에게 올렸다. 나주지역과 관련해서는 음력 4월 21일(양력 5월25일) 전라도 감사의 전보를 기록하고 있다. 영광에서 17일 동도(東徒,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군(郡)에 쳐들어와 군기고(軍器庫)를 털고 호적을 불태우며 관문(官門)을 부수고 당일에 돌아갔다는 사실과 무안의 삼내면(三內面)의 동도 7~8000명이 절반은 말을 타고 절반은 도보로 몸에는 갑옷을 입고 각각 장창(長槍)과 대도(大刀)를 들고 있었으며 18일에 하룻밤 머문 후 나주를 향해 떠났다는 사실을 전보로 보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2) 「폭도상황」(暴徒狀況, 1894.5.30.)

이 공문은 1894(明治27)년 재부산 일본 총영사 무라타 요시아야(室田義文)가 외무차관 하야시 타다스(林董)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음력 4월 12일에 파계생(巴溪生)이라는 인물이 쓴 ‘일기’를 무라타 총영사가 얻어서 별지에 베껴서 하야시 외무차관에게 참고로 올렸다고 한다. 이 일기는 정월 10일의 고부관아(古阜官衙) 습격부터 황토현 전투까지 4개월간의 경과를 고부군 근교에서 일본인이 견문해서 남긴 귀중한 증언 기록이다.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동학농민군은 4월 8일에 흥덕(興德)을 지나고 고창(高敞)을 거쳐 나주(羅州)로 들어갔다고 한다.

(3) 「조선 남도 동도 삭멸(削減)의 건에 대해 보고함」(朝鮮南道東徒削減ノ件ニ付報告, 1895.2.26.)

이 문서는 1894년 10월경부터 일어난 제2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일

본군의 토벌 작전에 대한 재부산 일본 총영사대리 가토 마스오(加藤増雄)가 외무차관 하야시 타다스(林董)에게 올린 경과 보고문이다. 조선 관군(韓兵)만으로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할 수 없다고 파악한 일본군은 11월 중순에 인천에서 동로(東路)·중로(中路)·서로(西路)로 분견(分遣)하고 조선군과 협력해서 충청·전라·경상 3도의 동학농민군을 포위하고 격파할 작전을 세웠다는 것을 보고하고, 공주 우금치에서 패배한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서남부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중로·서로군의 진군을 늦추고 동로군이 대구로 도착하면 곧바로 경상도를 가로질러 동학농민군을 전라도 서남부로 몰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4) 「전라·충청 양도 민란에 대한 스기무라 후카시의 의견서」(全·忠兩道民亂ニ付杉村濬意見書)

1894(明治27)년 5월 22일 기밀 제63호본 43보고 (1894년 5월 27일 접수)로 전라도, 충청도 민란(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스기무라 개인의 의견을 올린 비밀 공문이다.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상황과 민심의 동요를 설명한 다음, 조선정부에서 내정개혁 대신 청군을 빌려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공사관 호위의 명분으로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출병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3) 『일본외무성외교사료관소장문서(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藏文書)』2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권24-25)

주로 천우협(天佑俠)이라는 낭인단(浪人團)이 수집하였던 자료이다. 이들은 조선에서 오랫동안 기자, 통역, 사법서사, 행상 등을 하면서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던 전형적인 ‘조선낭인’들로서 신문과 잡지 등 관계기록이 많다.

(1) 「동학당 휘보(東學黨彙報)」

음력 4월 17~24일에 부산(釜山)의 무로타 요시후미가 초토사, 충청감

사, 전라감사가 보낸 동학농민군에 관한 전보를 모은 것이다. 21일 초토사 홍계훈이 좌의정 조병세(趙秉世)에게 보낸 전보에는 자신의 군대가 흥덕(興德)에 머물면서 함평으로 물러간 동학농민군의 후로(後路)를 끊고, 나주목사(羅州牧使)로 하여금 요새지를 지키도록 한 뒤에, 경군이 내려오면 앞 뒤를 공격하는 계책을 세우고 있다.

(2) 「동학당시찰일기(東學黨視察日記)」

대륙낭인(大陸浪人) 우미우라 아츠야(海浦篤彌)가 동학군 지도자 전명숙(全明叔, 전봉준)을 찾아 충청도, 전라도 동학농민군의 동정을 살펴본 일기이다. 서울을 출발하여 과천, 목천, 청주, 보은, 옥천 등지를 거쳐 원평(院坪)의 도소(都所)에서 전봉준을 만난 필담을 전하고 있다. 나주목사가 까닭 없이 동학도인 32명을 살해했으므로 전봉준의 부하가 곧장 그를 죽이려 했으나 전봉준이 그것을 말린 일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3) 『갑오조선내란시말(甲午朝鮮內亂始末)』

〈동학당의 근거(東學黨の根據)〉에서는 동학농민군의 근거지를 백산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동학농민군의 근거지를 소개하고 있다. 〈전라괴수의 명령(全羅魁首の命令)〉에서는 최법헌(崔法軒, 최시형)이 훈령을 내려 나주에서 동학농민군 패배 이후 동학농민군을 3로 나누어 편성하되, 나주땅에는 진격하지 말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목사 일가의 조난(牧使一家の遭難)〉은 나주목사 민종렬(閔種烈)은 외무독판(外務督辦) 민종묵(閔種默)의 친형으로 백성들이 미워하였으므로 목사일가 가족 5명을 모두 죽였다는 것이다. 〈초토사의 급보(招討使の急報)〉는 1804년 5월경 동학농민혁명 1차봉기 당시 초토사 홍계훈(洪啓薰)과 전라감사가 조정에 올린 전보를 모은 것이다. 나주와 관련하여서는 음력 4월 13일 전라감사가 적도(賊徒,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나주를 향하니 목사와 인근고을에게 명하여 단단히 지키라고 명하고 있다.

(4) 내란실기 조선사건(內亂實記 朝鮮事件)

〈戰亂日記(전란일기)〉는 1894(明治27)년 2월 15일(음력 갑오 정월 10일)에 시작한 고부봉기와 제1차 동학농민혁명의 경위와 소문을 적고 있다. 나주목사 민종렬의 조치에 항의하여 향리들이 민종렬의 가족과 노비를 모두 죽였으며 목사가 도망을 쳤다는 것 등은 잘못된 소문을 듣고 기록한 것이다. 〈서한(書翰)〉은 5월 8일 동학농민군이 법성읍(法聖邑)의 향리에게 보낸 통문이 실려 있다. 향리층에게 동참하기를 호소한 글이다.

(5) 일청 전쟁에서의 일본주둔군의 행동(日淸戰役間ニ於ケル帝國駐節部隊ノ行動)

1893~1894년 당시 청일전쟁의 경과에 관한 기록이다. 원세개와 손잡은 민씨의 전횡과 흉년이 민심을 동요시켜 동학난이 일어났다는 것, 전봉준이 전주성(全州城)을 함락시키기에 이르자, 조정에서 청에 지원요청을 하고 이에 따라 일본도 군대를 파견하게 되어 청일 양국이 전쟁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등 주로 청일 전쟁의 경과를 서술하고 있다. 동학농민군에 대해서는 병참선을 위협하고 자주 전선을 절단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후비보병 19대대와 18대대 1중대, 6연대 6중대, 10연대 4중대의 활동을 서술하고 있다.

4) 일본사관함등(日本士官函牒)

이 자료는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고 있는 일본군(日本軍) 대대장(大隊長) 육군소좌(陸軍少佐)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과 육군보병(陸軍歩兵) 대위(大尉) 모리오 마사이치(森尾雅一)가 선봉장(先鋒將) 이규태(李圭泰)에게 보낸 서한(書翰)을 등록(謄錄)한 자료이다. 편지의 형식과 피봉(皮封)의 기재 형식도 첨부되어 있다. 특히 농민군 토벌에 대한 작전사항(作戰事項)과 사후 처리 사항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2차 농민 전쟁시 일본군의 진압 방식 및 작전 개입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자료이며 양측의 이견(異見)을 엿볼 수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나주와 관련하여서는 음력

12월 3일부터 문서가 등록되어 있다. 미나미 고시로가 선봉장 이규태에게 훈령을 내리고 이규태가 다시 미나미 고시로에게 보고하는 문서가 많다.

5)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文書) 문서(南小四郎, 1842~1921)

미나미 고시로 문서는 일본 야마구치현(山口縣) 야마구치시(山口市)에 자리하고 있는 현립(縣立) 문서관(文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동학농민혁명 문서이다. 총 74건 110점의 문서 가운데 동학농민혁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서 35건이다. 이 문서는 박맹수 교수와 홋카이도대 이노우에 가츠오(井上勝生) 교수가 미나미 고시로의 손자 미나미 사부로(南三郎)씨를 설득하여 15년 만에 세상에 공개된 귀중한 문서이기도 하다.¹³⁾ 특히 「이력서: 동학당정토경력서(1895년 8월 작성, 이하 정토경력서)」에는 미나미 고시로 소좌가 지휘하는 후비보병 제19대대가 주한일본공사관의 지시를 받는 것은 물론, 일본 정부(외무성)와 군부(대본영)의 지시를 받아 농민군 진압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 문서는 후비보병 제19대대의 역할이 농민군 진압 외에도 농민군을 지원했거나 방조(傍助)했던 전현직(前現職)의 지방 관리를 비롯한 동조세력에 대해서도 사찰, 정보수집, 첩포 구금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주와 관련하여서는 1월 5일 나주성에 입성한 후 일본군과 장위영, 통위영을 지휘하여 전라도 서남해안 일대를 토벌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정토군 휘하 소속부대에 의해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붙잡혀서 2,000명 이상이 죽어갔으며, 나주에서도 최소한 230명이 학살되었다.¹⁴⁾

6) 「메이지 27년 일청교전 종군일지」(明治二十七年日清交戦從軍日誌, 쿠스노키 비요키치(楠美代吉))

후비보병 제 19대대 제 1중대 소속이었던 쿠스노키 비요키치(楠美代吉)

13) 이 자료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박맹수, 「南小四郎文書[미나미 고시로 문서] 해제」(동학농민혁명종합정보시스템, <http://www.e-donghak.or.kr>)를 참조할 것

14) 신영우, 「1894년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 『역사와 실학』35, 역사실학회, 2007, 130쪽.

상등병이 1894년 7월 23일부터 1895년 12월 9일까지 기록한 종군일지이다. 이노우에 가즈오 홋카이도대학 명예교수가 2012년 3월, 시코쿠의 토쿠시마현 현지에서 향토사연구자 사카모토 켄이치(坂本憲一) 씨의 제보를 받아 쿠스노키 비요키치(楠美代吉) 상등병의 종군일지를 찾아내어 교토 대학 인문학연구소에 전문을 공개하였다.¹⁵⁾ 한국에는 박맹수 교수에 의해 소개되었다. 인천에서 출발하여 이천, 청풍, 문의, 충주, 김천, 안의를 거쳐 남원, 곡성, 동복, 능주, 장흥, 해남, 나주에 이르렀는데, 1,300명 이상이 처형되거나 전사하였으며, 총살은 900여명에 이른다.¹⁶⁾ 1894년 2월 4일 기록에는 나주성 남문에서 436m 떨어진 작은 산에는 동학군의 시체를 버린 것이 680명이나 되는데 악취가 진동하고 땅에는 죽은 사람의 기름에 뒤덮혀 마치 하얀 은(白銀)처럼 얼어붙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7) 일본신문 자료¹⁷⁾

(1) 『이룩신보(二六新報)』明治27(1894)년 11월 9일

- 동학당의 진상 2 ; 동도의 소굴(東學黨の真相(二) : 東徒の巢窟)

이 기사는 ‘천안생(天眼生)’이 쓴 〈동학당의 진상〉이라는 연재의 두 번째 기사다. 동학농민군의 본거지가 공고하고 단결이 잘된 지역은 “조령(鳥嶺) 관남(關南)의 상주(尙州) 지방, 충청도의 보은(報恩) 지방 및 전라도 해안 즉 고부(古阜), 부안(扶安), 나주(羅州), 장성(長城) 등의 지역이며, 기타는 두령(頭嶺)에 인접이 적기 때문인지 별로 이름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15) 이노우에 가즈오[井上勝生], 『東學党討伐隊兵士の從軍日誌』-『日清交戰從軍日誌』德島県阿波郡-, 『人文学報』第111號,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 2018.3, 65~91쪽

16) 김희태, 「동학농민군의 나주압송과 처형」, 『나주동학농민혁명 재조명과 세계시민적 공공성 구축-자료구축을 중심으로』, 2020년 나주동학농민혁명 한.일학술대회, 나주시, 원광대원불교사상연구원, 2020.10.28., 116쪽.

17) 일본측 신문기사는 『동학농민혁명전쟁사료총서』권22~23에 실려 있는 나주관련 기사만 발췌한 것이다.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야규 마코토(柳生眞) 연구교수가 정리한 것을 김봉곤이 편집하였다.

(2) 『이륙신보(二六新報)』, 명치28(1895)년 1월 5일

- 전라도의 동학당(全羅道の東學黨)

1894년 12월 30일 오후 2시 25분 부산발의 전보에 따라 전라도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크고 관민은 적어서 나주(羅州), 운봉(雲峰), 좌수영(左水營)만이 함락되지 않고 있다는 것, 동학농민군이 순천(順天)을 본거지로 삼으면서 좌수영을 공격 중이라는 것, 일본군 수비병 200명이 오늘 아침 전라(도)를 향해 출발한다는 것 등을 전하고 있고, 12월 29일 경성발 비보(飛報)에 따라 전라도 53현이 모두 동학당의 수중에 들어갔으나 좌수영만이 독립되었다는 것과 정토병(征討兵) 1개 중대가 증견(增遣) 될 것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

(3) 『시사신보(時事新報)』 명치27(1894)년 5월 24일

- 조선의 소동(朝鮮の騷動)

충청도 및 전라도 감사, 초토사 등이 경성(서울)으로 올린 전보를 실은 것이다.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당당하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있는 데 대해 관군의 병력은 매우 적고 동학군을 격파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나주와 관련하여서는 나주목사 민종렬(閔種烈, 전 외무독판 민종묵(閔種默)의 형)이 향리들에 의해 쫓겨나고 가족 5명과 노비가 모조리 적도(賊徒)에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4) 『시사신보(時事新報)』 明治27(1894)년 6월 3일

전라도의 여러 항구에 모아진 공미(貢米)를 동학농민군에게 빼앗겼다는 것과 동학농민군 수비병 숫자를 밝히고 있다. 나주(羅州)는 800여명, 광양(光陽)이 1,100여명, 부안(扶安)이 300여명, 흥덕(興德)이 1,040여명, 고창(高敞)이 600여명, 익산(益山)이 800여명인데,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5) 『동경조일신문(東京朝日新聞)』 明治27(1894)년 5월 29일

동학농민군이 이씨(李氏) 500년 천하가 정씨(鄭氏)로 바뀐다는 예언을 하였으며, ‘보국안민창의(輔國安民倡義)’를 깃발로 하고 있다는 등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전라(道) 동학당의 수령 최법헌(崔法軒, 최시형)이 동학농민군이 나주 경내로 진입하다가 오합지졸인 보부상(褓負商)의 군대에 패배하고, 또 20여 명의 아군이 사로잡히게 되었으니, 3로(路)로 진격하되 나주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잠시 기다리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6) 『동경조일신문(東京朝日新聞)』 明治27(1894)년 6월 3일

동학농민군이 전운선(轉運船)을 습격한 사건, 동학농민군 대장(여기서는 이씨(李氏)로 되어 있음)이 선포한 12조의 군호(軍號), 영광 동학군이 갈수록 세력을 확대하는 상황, 금산(錦山)의 동학농민군이 관병(官兵) 200명을 몰살시킨 사건, 동학농민군이 전라도에서 점령한 고을과 그 수비병력을 소개하고 있다.

(7) 『동경조일신문(東京朝日新聞)』 明治27(1894)년 6월 8일

- 동학당의 동정(東學黨の動靜)

5월 26일 초토사가 조선정부에게 보낸 전보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관군이 함평(咸平)에서 적(賊, 동학농민군)과 싸우려 하자 동학농민군이 ‘경군은 국왕 전하께서 보내신 군대이니 그것과 항거하면 역적이 된다. 우리는 탐관오리를 쫓아내고 간활(奸猾)한 무리를 제거하고자 할 뿐, 왕가(王家)에는 하나도 원한이 없다’고 하면서 나주(羅州)로 떠났다고 한다.

(8) 『동경조일신문(東京朝日新聞)』 明治28(1895)년 1월 22일

- 동학당의 형세(東學黨の形勢)

충청, 전라 2도를 맡은 일본군 제19대대를 중심으로 일본군의 동학농민

군 토벌 작전과 전봉준(全琫準), 김개남(金介男) 등의 포박까지를 요약해서 보도한 것이다.

“19대대의 미나미(南) 소좌가 1개 중대를 이끌어서 증전으로 삼고 양도(兩道)에는 각 1개 중대를 분견해서 좌우의 날개로 삼았다. 여기에 조선병교도중대(敎導中隊) 200명, 장영(壯營), 통영(統營), 경리영(經理營)의 병 1,400명을 거느리고 출발하였으며, 충청도의 동도(東徒, 동학농민군)를 일소했다. 그러나 적(賊,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나주(羅州)를 향해 도주하고 지금은 그곳을 근거지로 삼고 있으므로 앞에서 본 3개 중대에서 진공(進攻)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9) 『만조보(萬朝報)』明治27(1894)년 5월 25일

- 조선의 소동(朝鮮の騷動)

이 기사는 당시 충청도 및 전라도의 감사, 초토사 등이 서울로 급보한 전보 중 중요한 것을 모아서 소개한 것이다.

나주(羅州)와 관련된 것으로는 <목사 일가 모조리 살해되다>라는 대목이 있다. 나주목사 민종렬(閔鍾烈, 전 외무독판 민중묵의 형)은 사고(事故)로 속리(屬吏)의 중한 자를 죽였으므로 동료들이 크게 분노하고 때를 지어서 공격했으니 (민종렬은) 도주했다. 그들은 목사가 달아난 후 그 관택(官宅)에 난입하고 가족,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살육하고 여전히 퇴거하지 않고 있다. 부안(扶安) 근방의 13개 마을 수령(守令)은 모두 난을 피해 송감영(松監營)으로 도주하고 군기(軍器)와 전곡(錢穀)은 모두 적도(賊徒, 동학농민군)에 빼앗겼다.

(10) 『만조보(萬朝報)』明治27(1894)년 6월 1일

- 조선전기(朝鮮戰記)

이 기사는 1894년 4~5월 당시 제1차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전보들을 엮은 것이다. 전보를 입수한 대로 나열하였으나,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배치하지는 않았다.

나주와 관련된 부분은 <전라도 감사의 우민(憂悶)>이라는 대목으로 “적도(賊徒,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나주(羅州)로 향했다. 감사(監司)와 목사(牧使)들은 인근 읍(邑)에 관문을 발송하여 수비를 엄중히 하고자 했지만, 제읍(諸邑)에 공관(空官)이 많고 매우 고뇌하고 변민한다.”라는 음력 4월 13일자 감사의 전보를 전하고 있다.

(11) 『만조보(萬朝報)』明治27(1894)년 6월 7일

- 조선전기(朝鮮戰記) ; 5월 26일 인천발 통신 후속(五月廿六日仁川發通信の續き)

이 기사는 1894년 4~5월 당시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학과 관련된 전보와 사건들을 모아서 소개한 것으로 6월 1일 <조선전기>와 연속된 것이다.

<금마목사(金馬木蛇)>는 음력 4월 14일 완영(完營)발 초토사 전보로 전해진 동학농민군 내부의 격문(檄文)으로, 순행때 갇힌 자가 50여 명, 나주(羅州)에 죄수로 갇혀있는 자가 27명으로, 이들을 구하기 위해 각부의 제장들은 각각 1,500명의 병정(兵丁)을 거느리고 금마목사(金馬木蛇)에 와서 모이라라는 내용이다. <전라도의 점령지(全羅道の占領地)>, <무안에 있는 당인(務安に在る黨人)>은 동경조일신문이나 시사신보의 기사와 대동소이하다. <동학군 영광에서 떠나다(東學軍靈光より去る)>는 5월 15일 동학농민군 10,000명이 영광을 떠나 함평으로 향하고 있다는 기사이다.

(12) 『만조보(萬朝報)』明治27(1894)년 6월 12일

6월 2일에 인천에서 보낸 통신의 기사이다. 조선국왕이 동학농민군을 회유하기 위해 전라감사(全羅監司)를 경질하고 양호(兩湖, 충청도와 전라도)의 대소 지방관을 교체시키고 잘못 다스린 자는 엄하게 벌한다고 했다. 또 한 번 동학군에 붙은 자도 귀순하면 죄를 묻지 않기로 하고, 반복해서 효유(曉諭)해도 완고하게 해산하지 않은 연후야아 엄하게 토벌하겠다고 의결되었다. 그래서 초토군도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농민군도 경군과 정

면으로 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5월 22일 강화병이 목포로 상륙하고 초토군이 남하해서 동학농민군을 치려고 하자, 동학농민군이 3곳으로 나뉘서 주둔하던 병을 합하여 일체로 만들고 나주(羅州)를 넘어서 장성(長城)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13) 국민신문(國民新聞) 明治27(1894)년 5월 23일

- 나주의 변란(羅州の變亂)

‘천애생(天涯生)’이라는 기자가 쓴 기사로서 나주목사(羅州牧使) 민종렬(閔種烈, 당시 함경도 감사인 민종묵(閔種默)의 친형임)에 대한 불미스러운 이야기와 그것과 관련된 봉기를 소개하고 있다. 좌수의 딸과 이방의 아들을 민목사가 억지로 혼례시키자 좌수의 딸이 자살하였는데, 민목사가 그 책임을 물어 이방을 감옥에 가두고 옥사시켰고, 이에 이방 아들과 좌수가 결탁하여 민 목사를 죽이기 위해 그 집을 엄습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민목사는 도망치고 목사의 며느리와 손자는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보도이다.

(14) 『동경일일신문(東京日日新聞)』明治27(1894)년 8월 5일

- 부산특보(釜山特報)

1893년 12월에 거류지(居留地)를 떠나서 바다로 무안현(務安縣)으로 오고 가다가 줄포(茁浦) 주변에서 동학농민군에게 붙잡혀 죽을 고비를 넘어 돌아온 일본인의 증언록이다. 1차 봉기가 끝나고 2차 봉기가 시작할 무렵의 현지 모습과 동학군의 주장, 주민들의 동학군에 대한 평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거병의 명의>에서는 초토사와 협의하여 폐정개혁 13조가 받아들여졌으며, 그 실행 여하를 살피기 위해 무기를 내놓고 무안으로 물러갔다는 것, 그러나 일본이 대병(大兵)을 파견하여 우리나라를 삼키고자 하므로 동학농민군이 먼저 일어서서 일본 병사를 방어해야 한다고 2차 봉기의 목적을 서술하고 있다. 그 방략으로는 김제군(金堤郡)에서 대회를 연 후 나주(羅州)를 함락시키고 그 나머지는 남원(南原), 진주(晉州)를 거점으로 삼아 일본군의 북상을 막을 생각이라는 것이다.

(15) 대판조일신문(大阪朝日新聞) 明治27(1894)년 5월 19일

- 조선민란의 일(朝鮮民亂の事)

이 기사는 고부봉기 이후 제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상황과 소문을 소개하고 있다. 고부(古阜) 이하 흥덕(興德), 나주(羅州), 공인(恭仁), 고창(高敞), 부안(扶安) 등에서 민란이 일어났으며, 병사(兵使) 홍계훈(洪啓薰)이 초토사가 되어 친군(親軍)인 장위영(壯衛營) 800명을 이끌고 출동했으며, 충청도에서도 동학당 일파가 청주(淸州)를 포위했으며, 거문도(巨文島) 첨사 조의문(趙義聞)이 명에 따라 출영(出營)하려고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고, 서학당(西學黨)이 일어났다는 것, 김해(金海)의 부민(府民) 8,000여 명이 부성(府城)을 습격했다는 것, 러시아 경계 가까이에는 러시아 둔전병(屯田兵)이 나타났다는 유언비어가 분분하다는 것 등을 전하고 있다.

(16) 대판조일신문(大阪朝日新聞) 明治27(1894)년 5월 24일

- 동학당의 창궐(東學黨の猖獗)

5월 21일 오후 7시 30분 경성에서 온 전보에 의한 것이다. “동학당의 거괴인 최시효(崔時孝, 崔時亨의 잘못)는 나주(羅州), 부안(扶安), 흥덕(興德), 고창(高敞), 흥양(興陽) 등의 인민을 모조리 귀복(歸服)시키고 대략 총 8,000여 명이 익산의 일전(一戰)으로 관군을 격파하고 도망가는 것을 추격하여 경기(京畿)를 공격할 기세가 있다. 관병(官兵)의 일대가 어제(20일) 나주에 도착하였다가 곧장 임피(臨陂) 지방을 향해 출발했다.”고 하였다.

(17) 대판조일신문(大阪朝日新聞) 明治27(1894)년 5월 26일

- 동학당의 요란(東學黨の擾亂)

〈목사합가(牧使闔家) 해를 당하다〉라는 소제목에서 나주목사 민종렬(閔種烈)의 온 가족이 화를 당했다고 적고 있다. 나주의 목사(지방관 민종렬)는 동학당의 난을 피해 도주하였고, 그 가족 5명은 모조리 살해당했다. 민종렬은 전 외무독판(外務督辦) 민종묵(閔種默)의 형이라고 한다.

(18) 대판조일신문(大阪朝日新聞) 明治27(1894)년 5월 31일

〈전라 괴수의 호령〉에서 전라도의 동학당(東學黨, 동학농민군) 수령 최법현(崔法軒, 최시형)이 동학농민군이 나주에서 패배한 것을 질책하고 앞으로 3로로 편성하여 나주로 들어가는 것은 기다리라는 내용으로 다른 신문 기사와 대차가 없다.

(19) 『대판조일신문(大阪朝日新聞)』明治27(1894)년 6월 1일

〈전라도 감사의 우민(憂悶)〉이라는 글에서는 적도(賊徒,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나주(羅州)를 향하고 감사(監司) 및 목사(牧使)들은 인근 마을에 관문을 발송해서 수비를 엄중히 하려 했으나 마을들은 공관(空官)이 많아 매우 고뇌하고 번민했다고 한다.

(20) 『대판조일신문(大阪朝日新聞)』明治27(1894)년 6월 14일

일본공사의 서울 도착부터 청일전쟁의 경과를 보도한 것이다. 〈조선의 요란(擾亂) (승전)〉에서는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함락 이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지역 동학농민군의 동태를 보도하고 있다. 5월 26일 원평에 모였다가 27일에 그곳을 떠났는데 29일 장성에 10곳의 부대가 모였으며, 나주(羅州), 고부(古阜) 역시 동학농민군이 점유(占有)하고 있다고 하였다.

(21) 『대판조일신문(大阪朝日新聞)』明治27(1894)년 6월 27일

- 조선사변(朝鮮事變)(6월 20일 경성발)

이 기사는 아마모토 다다스케(山本忠輔) 특파원이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동학농민군의 목적이 지방관의 학정(虐政)을 바로잡고 기회가 있으면 민씨의 무리(閔族)를 토멸하는 데 있으니 척화배양의 실행은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아마모토는 고부(古阜) 이하 흥덕(興德), 나주(羅州), 공인(恭仁), 고창(高敞), 부안(扶安) 등 각 고을에서 인민들이 일거에 봉기했는데, 최시형(崔時亨) 등 동학도 수백 명이 백성을

조정했다고 하였다.

(22) 『대판조일신문(大阪朝日新聞)』明治27년 7월 25일

경성(서울)의 야마모토 다다스케(山本忠輔)씨가 우송해온 정보를 받아서 7월 24일 오후 1시 52분에 바칸(馬關)의 니시무라(西村時輔) 특파원이 보낸 기사이다. 동학당은 전라도의 나주(羅州)에 집합하고 있다. 나주의 부사가 일찍이 당인(黨人, 동학도인) 수십 명을 참했으므로 먼저 그 부사를 죽이고 그곳을 근거로 다시 거사를 일으키려 하고 있다고 한다.

(23) 『대판조일신문(大阪朝日新聞)』明治27년 7월 27일

이 기사는 언론인 니시무라 텐슈(西村天囚)가 쓴 한국 일기이다. 전라도 나주(羅州)에 동학당(東學黨)이 모여서 다시 거사를 일으킬 조짐이 있다는 서문이 있지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한다. 또 나주의 부사(府使)는 일찍이 동학당(東學黨, 동학도인) 수십 명을 잡아 참살했기 때문에 동도(東徒, 동학도인)는 그를 매우 원망하고 있다. 요즘 그 여당(餘黨)들이 나주에 집합해서 먼저 원수인 부사를 죽이고 다시 그곳을 본거지로 삼아 반기(反旗)를 들고자 하는 형세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4) 『대판조일신문(大阪朝日新聞)』明治27(1894)년 8월 25일

동학당에는 진정한 동당(東黨, 동학농민군)과 이름을 빌린 불량배들의 무리 두 종류가 있는데, 지난달 7월 27일경 나주도(羅州都) 조도(鳥島) 지방에서 일어난 것은 가장 흉폭하여 지방 인민들은 진도에서 피난할 정도였으며, 8월 6일에는 동학당이 다시 진도읍을 짓밟고 집을 부수고 돈을 빼앗았으며, 13일 경에는 60여 명이 금오도(金鰲島)의 이풍영(李豐榮)의 집을 습격하고 매우 도민을 괴롭혔다는 것이다. 이들은 동당이 아니라 위당(僞黨, 가짜 동학군)일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25) 『대판조일신문(大阪朝日新聞)』明治28(1895)년 1월 3일

이 기사는 작년 12월 29일에 아오야마 요시에(青山好恵)가 인천에서 우송한 내용이다. 1894년 말의 조선 조정의 동정과 동학농민군의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전라도의 동학당>을 보면 개남(開南)이라 칭하는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고 김씨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미 대신 이하를 임명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또 <12월 30일 오후 2시 35분 부산 기리하타 마타키치(桐畑又吉) 발>을 보면 당시 전라도는 동도(東徒, 동학농민군)가 창궐하고 나주(羅州), 운봉(雲峯), 좌수영(左水營)만이 여전히 함락되지 않고 있으며, 동도는 순천을 본거지로 삼고 좌수영에게 맹공격을 가하고 있어서 일본군 수비병 200명이 오늘(12월 30일) 전라도를 향해 파견되었다는 것 등을 보도하고 있다.

(26) 『대판조일신문(大阪朝日新聞)』明治28(1895)년 1월 23일

이 기사는 1895년 1월 22일 오후 4시에 히로시마(廣島)에서 가타야마(片山猪三次) 특파원이 쓴 것이다.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토벌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다. 흥양부(興陽府)에서 일본군 300명이 왔다고 연락해온 것은 한병(韓兵)이 잘못 들은 것이며 2, 3일이 더 지나야 순천(順天)으로 올 것이며, 본대(제4중대)는 금일 낙안군(樂安郡)부터의 공보(公報)에 따라 나주부(羅州府)로 출발한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27) 『대판조일신문(大阪朝日新聞)』明治28년 1월 29일

- 동학당의 근황(東學黨の近狀)

이 기사는 이달 19일에 나주(羅州)에서 인천으로 보낸 보고를 이마바시(今橋) 인천병참사령관이 받아서 27일 오후 6시 10분에 대본영으로 전달한 전보의 내용을 28일 오후 2시 21분에 히로시마(廣島)에서 특파원 나가하마(長濱) 기자가 보도한 것이다. 동학당(東學黨, 동학농민군) 2~3000명이 해남(海南) 지방에서 진도(珍島), 제주도(濟州島)에 모여 있다고 한다.

(28) 『대판조일신문(大阪朝日新聞)』明治28년 2월 19일

- 동학군진정(東學軍鎮定)

이 기사는 충청, 전라, 경상 3도의 동학농민군이 대부분 진압되었기 때문에 동학당 정토 총사령관인 이마바시 토모카츠(今橋知勝) 인천병참사령이 대본영의 명에 따라 독립19대대 3개 중대 및 부산에서 파출된 300여명은 1월 24일까지 철수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교통편이 좋지 않아 2월이 되어서야 명령에 접하고 7일에 나주에서 출발하고 서울로 향했다고 한다. 동학당 총거괴(總巨魁)인 최시형(崔時亨)이 잠복한 장소도 대략 알아냈으므로 그를 생포하기 위해 진력하는 중이라고 하였다.

(29) 『대판조일신문(大阪朝日新聞)』明治28(1895)년 4월 7일

- 동학당초토후기(東學黨剿討後記)

‘청산생(靑山生)’ 기자가 미나미(南) 소좌(少佐)의 정토군인 후비보병 19대대 관련 기사를 정리한 것이다. 정토군이 1월 5일에 전라도 나주에 도착하자 강진(康津), 장흥(長興)에 수천 명의 동학군이 집합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수하여 3개 지대(支隊)를 편성해서 진압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30) 『대판조일신문(大阪朝日新聞)』明治28(1895)년 4월 12일

- 동학당초토후기(東學黨剿討後記)

1895년 2월 6일, 나주(羅州)에 주둔하던 미나미(南) 대대장이 이마바시(今橋) 인천병참사령관부터 용산(龍山)으로 귀환하라는 훈령을 받고, 2월 10일에 나주(羅州)를 출발하였는데, 17일 고산현(孤山縣)에 도착해서 동도의 거괴 수십 명이 대둔산(大菴山)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3개 분대와 조선병 30명을 다케우치(武內) 특무조장(特務曹長)에게 지휘케 하여 25명의 동학군 두목을 전멸시켰다는 기사이다. 일본군의 시각으로 대둔산 전투의 경위를 설명한 기사이다.

(31) 『대판매일신문(大阪毎日新聞)』明治28(1895)년 1월 29일

- 전라도의 동도(全羅道の東徒)

1월 27일 인천에서 보낸 이마바시(今橋) 병참사령관의 보고문이다. 이 기사는 28일 오후 2시 17분에 히로시마에서 발신되었다. 일본군 정토군 후비보병 제19대대장으로부터 동도(東徒, 동학농민군) 2,300명이 해남(海南) 지방과 진도, 제주도에 모여 있다고 1월 17일 보고가 들어왔다는 내용이다.

나주동학농민혁명군 관련 연표와 참여 인명록

김 희 태

(전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본 연표와 인명록은 다음 5종의 문서와 자료를 정리하며 일자순으로 재배열한 것이다. 해당 문서의 약호도 함께 표기한다. 당초 연표와 인명의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부분 등 2종으로 작성했으나, 일자순 자료만 제시하고 인명은 색인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자료에서 중복이 된 내용은 한 곳으로 합하여 정리하였다. 같은 인명이나 상황에서 일자 등이 서로 다른 경우는 자료를 서로 대조하여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았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누리집[<http://www.1894.or.kr>]
등재 참여자

◎ 호남초토영문서1(1894.04~11) : 『포살동도수효급소획즙물병록성책(砲殺東徒數爰及所獲汁物并錄成冊)』(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구 630)

◇ 호남초토영 문서2(1894.12) : 『전라도각읍소착동도수효급소획즙물병록성책(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爰及所獲汁物并錄成冊)』(규장각 소장,奎 17189)

□ 호남초토영문서3(1895.01) : 전라도각읍소획동도수효급장령성명병록성책(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爰及將領姓名並錄成冊)』(규장각 소장,奎 17190)

◆ 토벌군 종군일지 : 쿠스노키 비요키치[楠美代吉], 『종군일지[明治二十七年日清交戰從軍日誌]』(박맹수,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기록」, 『한국 독립운동사연구』6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8, 203~228쪽).

1894.04.06. : ◎무안 경계(務安界, 나주목 서쪽 30리)에서 동학농민혁명군 30명 체포되어, 3명은 우진영으로 압송하여 효수당함. 27명은 자읍결과(自邑結果, 해당 고을에서 자체 처리) 조치 당함.

1894.04.00.¹⁾ : ▲강봉희(姜鳳熙)(1863~1894), 1887년 동학에 입도하여 1892년 삼례집회, 1894년 3월 백산봉기, 이후 함평점령과 나주성 공격에 참여한 뒤 순국

1894.07.05. : ◎나주 서문(西門)에서 동학농민혁명군 109명이 포살(砲殺) 당함. 초토군 영장(領將)²⁾은 호장(戶長) 1인, 이방(吏房) 1인, 중군(中軍) 1인, 퇴교(退校) 1인, 천총(千總) 1인, 난후별장(攔後別將) 1인, 수교(首校) 1인, 하리(下吏) 7인, 집사(執事) 1인, 공무군관(公務軍官) 1인, 좌별장(左別將) 1인, 우별장(右別將) 1인, 남문별장(南門別將) 1인, 초관하리(哨官下吏) 17인, 산포수(山砲手) 1인 등 37인임.

1894.07.05.³⁾ : ▲전창섭(全昌燮)(1854~1894), 나주 동학농민군 활동하다 나주성 북문 안에서 일본군과의 전투 중 순국

1894.10.00. : ▲조철태(趙徹泰)(?~1894), 2차 봉기 시 김제에서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나주에서 총살

1894.10.21. : ◎광주 침산(砦山), 사창(社倉)(나주목 동쪽 30리)에서 동학농민혁명군 23명이 포살당함. 초토군 영장(領將)은 호장(戶長) 1인, 이방(吏房) 1인, 중군(中軍) 1인, 퇴교(退校) 1인, 난후별장(攔後別將) 1인, 하리(下吏) 2인 등 7인임.

1894.10.00⁴⁾ : ▲남궁경(南宮慶, 1866~1902), 2차 봉기시 이종훈, 염세환 등과 경기, 호서 동학농민군의 일원으로 공주 우금치, 북실 전투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록에는 1894.00.00.인데 나주성 공격의 내용이 있어 1894.04.00.으로 표기함.

2) ◎ 초토군 영장 인명은 본책 3장 자료편의 〈나주동학농민혁명기 호남초토영군 출전장령성명집〉 참고, 이하 같음.

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록에는 1894.00.00.인데 ◎호남초토영문서1(1894.04~11)의 서문(西門) 전투가 성안 전투와 관련 있을 것 같아 서문 전투일로 표기함.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록에는 2차 봉기로 기록.

등에 참여하였으며, 부상을 입고 처가인 용인군 이동면 화사리로 피신함. 나주, 광주, 능주 참여.

1894.11.11. : ◎적량(赤良) 용진산(簞珍山)(나주목 북쪽 40리)에서 동학농민혁명군 21명이 포살당함. 초토군 영장(領將)은 호장(戶長) 1인, 이방(吏房) 1인, 호방(戶房) 1인, 중군(中軍) 1인, 좌수(座首) 1인, 천총(千總) 1인, 하리(下吏) 7인, 산포수(山砲手) 1인, 천보대장(千步隊長) 2인, 면의거소 영수(面義學所領首) 7인 등 23인임.

1894.11.17. : ◎수다면(水多面) 호암촌(虎藏村)(나주목 서쪽 30리)에서 동학농민혁명군 86명이 포살당하고 43명이 천답사(踐踏死) 당함. 초토군 영장(領將)은 호장(戶長) 1인, 이방(吏房) 1인, 중군(中軍) 1인, 퇴교(退校) 1인, 천총(千總) 1인, 하리(下吏) 4인, 산포수(山砲手) 1인, 면의거소 영수(面義學所領首) 15인 등 25인임.

1894.11.17. : ◎고막포 교변(古幕浦橋邊)에서 동학농민혁명군 수백(數百)명이 낙수사(落水死) 당함.

1894.11.17.5): ▲나치현(羅致炫)(?~1894), 나주 고막원 전투에 참전한 뒤 살해됨

1894.11.17.6): ▲박치상(朴致相, 1869.1.28.~1949.7.1), 무안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나주 고막원전투에서 우측 대퇴부에 총상을 맞고 퇴비창고에 숨었다가 귀가

1894.11.17.7): ▲윤태한(尹泰翰, 1857.8.15.~1932), 접주로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나주 침산전투, 용진산전투, 무안 고막원전투 등에 참전하고 은신하다 귀가함

1894.11.19. : ▲주경노(朱京老)(1830~1894), 동학농민군의 나주성 최후

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록에는 고막원전투 참가로 기록, ◎호남초토영문서1(1894.04~11)에 따라 고막포 전투일로 표기함.

6)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록에는 1894.00.00.인테 ◎호남초토영문서1(1894.04~11)에 따라 고막포 전투일로 표기함.

7)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록에 고막원전투 참전 기록. ◎호남초토영문서1(1894.04~11)에 따라 고막포 전투일로 표기함.

충동원령에 의해 향리인 청림산과 진등참에서 수성군과 전투 중 순국
1894.11.19.8): ▲주영신(朱永信, 1855.8.14.~1913.12.23.), 형 주경노
와 함께 전라도 나주 진등참 전투에 참여함

1894.11.20. : ▲전장하(全章夏)(1860~1894), 군포관 및 군자금 조달을
담당했고 나주 전투에 참여하였다가 순국.

1894.11.24. : ◎금안면 남산촌(金安面 南山村), 이로면 하촌(伊老面 下村)
(나주목 북쪽 10리)에서 동학농민혁명군 353명이 포살당함. 초토군
영장(領將)은 호장(戶長) 5인, 이방(吏房) 5인, 호방(戶房) 1인, 중군(中
軍) 5인, 퇴교(退校) 3인, 좌수(座首) 1인, 천총(千總) 4인, 난후별장(攔
後別將) 3인, 수교(首校) 2인, 토포수교(討捕首校) 1인, 장교(將校)
1인, 하리(下吏) 32인, 집사(執事) 1인, 공무근관(公務軍官) 1인, 좌별
장(左別將) 1인, 우별장(右別將) 1인, 남문별장(南門別將) 1인, 초관하
리(哨官下吏) 17인, 산포수(山砲手) 3인, 천보대장(千步隊長) 4인, 별
군관(別軍官) 1인, 군관(軍官) 1인, 면의거소 영수(面義學所領首) 25인
등 119인임.

1894.12.00. : ◇망운목(望雲牧) 적괴(賊魁) 이익선(李益善)등 4명은 진영
(鎭營)에 압송하여 넘기고 엄중히 조사하여 진상을 파악하게 하였음

1894.12.00. : ▲강도수(姜道守)(?~1894), 나주 동오면에서 전투 중 총에
맞아 순국함

1894.12.00. : ▲고성천(高成天)(?~1894), 사접주(私接主)로서 흥덕·나주
에서 참여하였다가 관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됨

1894.12.00. : ▲김선오(金善五)(?~1894), 나주에서 참여하였다가 체포되
어 화형됨

1894.12.00. : ▲서상옥(徐相玉)(?~1894), 나주·흥덕에서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관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됨

1894.12.00. : ▲이화삼(李化三)(?~1894), 동학농민혁명 참여하였다가

8)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록에 1894.11.00 진등참전투 참전 기록. ◎호남초토영문서
1(1894.04~11)에 따라 진등참 전투일로 표기함.

나주에서 순국함

1894.12.00. : ▲전유창(全有暢)(1859~1894), 백산기포에 참여하여 나주 접주로 활약하였으며, 수성군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후퇴하던 중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 도중 순국함

1894.12.00. : ▲정무경(鄭武京)(?~1894), 나주·흥덕에서 참여하였다가 관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됨

1894.12.00. : ▲주심언(朱心彦)(?~1894), 나주 동오면 의거소에서 체포되어 우진영(右鎭營)으로 압송됨

1894.12.00. : ◇나주(羅州) 동오면 의거소(東五面義學所)에서 잡은 강도수(姜道守)와 정사심(鄭士心) 및 이화삼(李化三) 등 13명은 싸울 때에 쏘아 죽였음. 한달문(韓達文)과 주심언(朱心彦) 등 14명은 전라우영 진영에 압송하여 엄중히 조사해서 실정을 파악하도록 하였음. 두동(豆洞) 통수(統首, 민가 조직인 統의 우두머리)가 잡은 접주 최국서(崔局西) 등 3명은 싸울 때에 쏘아 죽였음. 죽포(竹浦)에서 잡은 2명과 오산(吾山)에서 잡은 1명 및 여황(餘惶)에서 잡은 3명을 잡을 때에 쏘아 죽였음. 삼가(三加)에서 잡은 2명과 도림(道林)에서 잡은 1명 및 용문(用文)에서 잡은 2명은 전라우영 진영에 압송하여 넘기고 죄의 경중을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

1894.12.02. : ◇▲광주(光州) 거괴 전수길(全秀吉, ?~1894, ▲全秀志⁹⁾)을 12월 초2일에 잡아서 전라우영 진영으로 압송하여 효수하였음. 같은 무리[同黨] 3명을 포살함.

1894.12.02. : ◇함평(咸平) 접주 김경오(金京五), 이춘익(李春益), 이재민(李在民), 이곤진(李坤辰), 김성필(金成必), 김인오(金仁五), 김성오(金成五), 김성서(金成西), 노덕팔(盧德八)은 12월 2일에 잡을 때 쏘아 죽였다

1894.12.03. : ◇광주 접주(接主) 허인(許仁), 주윤철(朱允哲), 박원화(朴元

9) 全秀志 : 동학농민혁명명참여자 등재 명부 기록으로 오기임. ◇1894년 12월 호남초토영문서의 全秀吉을 오독함.

化)를 3일에 잡아서 곤장을 때려 죽임

1894.12.03. : ◇동복(同福) 적도(賊徒) 220명을 12월 초3일에 사로잡았는데 그 가운데 157명은 전투중에 포살함 나머지 생포한 63명 가운데 최경선(崔敬善)은 일본군이 잡아 갔고, 이형백(李亨伯)은 경폐(徑斃)하였음 장운학(張雲鶴), 박건양(朴健洋), 김중현(金仲玄), 김병혁(金炳赫)은 신문(訊問)을 겪고 난 뒤에 죽었음 59명은 해당 현(縣)감옥에 엄중히 가두고 죄의 경중을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

1894.12.04. : ◇광주 접주 정수해(鄭水海), 이병조(李秉祚)를 4일에 잡아서 포살함

1894.12.04. : ◇담양(潭陽) 적괴(賊魁) 22명을 초4일에 사로잡아, 그 가운데 이문영(李文永), 채대로미(蔡大老末), 장대진(張大辰), 임송도(林松都)를 포살하였고, 국문보(鞠文甫)와 김희완(金喜完)는 경군(京軍)이 있는 곳에 압송을 하였음. 접주 이장태(李長泰)는 일군소(日軍所, 일본군이 머무는 곳)에서 쏘아 죽였고, 같은 무리 15명은 해당 관아옥에 엄중히 가두었다기에 죄(罪)의 경중을 참작하여 처리하게 하였음

1894.12.05. : ◇영광(靈光) 적괴(賊魁) 송문수(宋文洙)와 오태숙(吳泰淑)은 12월 5일에 목을 베어 경계하였음. 최준숙(崔俊淑) 등 9명은 잡을 때에 쏘아 죽였고, 박인지(朴仁之)등 10명은 압송하여 장위대관(壯衛隊官)에게 넘겼음 거괴 양경수(梁京洙)는 잡을 때에 쏘아 죽였고, 이현숙(李玄淑)은 목을 베었음

1894.12.06. : ◇광주 접주 이규석(李圭錫)를 6일에 잡아서 포살함

1894.12.06. : ◇창평(昌平) 거괴(巨魁) 한충상(韓忠相)은 12월 초6일에 잡은 결과 같은 무리[同黨] 백처사(白處士), 조공서(曹公瑞), 장영옥(張永玉), 하재원(河在元), 김봉철(金奉哲), 백준수(白俊水), 한성옥(韓成玉), 원만석(元萬石), 이석용(李石用), 강판석(姜判石), 정영운(鄭永云) 등은 해당 현의 감옥에 엄중히 가두었다가 죄의 경중을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

1894.12.07. : ◇함평 김치오(金致五), 정원오(鄭元五), 정권서(鄭權西),

- 김경선(金京先)은 초7일에 잡았고 잡을 때에 쏘아 죽였음
- 1894.12.07. : ◇광주 도당(徒黨) 김판권(金判權), 국영신(鞠永信), 김점□(金占□)은 초7일에 잡아 전라우영 진영에 압송하여 죄의 경중을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 광주 접괴(接魁, 접의 우두머리) 전유창(全有昌)의 처(妻) 이소사(李召史, 조이)와 박사집(朴士集)의 아들 문구(文句)는 해당 읍 옥에 가두고 그 아비와 남편이 나타나도록 독촉함
- 1894.12.07. : ◇순창(淳昌) 소모관(召募官)이 잡은 거괴 전봉준(全琫準)과 양해일(梁海一)은 일본군이 압송하였음
- 1894.12.07. : ◇화순(和順) 거괴(巨魁) 왕왈신(王曰臣)과 접주(接主) 김용보(金用甫), 조번개(曹番介), 김자근(金自斤)은 12월 초7일에 잡았는데, 잡을 때에 쏘아 죽였다 거괴 최성칠(崔性七)과 최범구(崔範九)는 초9일에 잡았는데 신문을 하다가 죽였음
- 1894.12.07.¹⁰⁾: ▲최범구(崔範九, 1849~1894), 화순지역에서 최경선 등과 함께 동학농민군을 모아 남평전투 등에 참여하였으며, 화순 벽송마을까지 후퇴하면서 항전하였으나, 피체되어 처형당함
- 1894.12.08. : ▲김덕구(金德九)(1868~1894), 1894년 3월 형제들과 함께 참여, 백산전투와 나주 고막원전투에 참전, 관군에 체포 처형됨
- 1894.12.08. : ◇동북 거괴(巨魁) 최자중(崔自仲)과 노익호(盧益浩) 및 전경선(全敬先)은 초8일에 잡아서 압송하게 하였는데 중도에서 죽였음
- 1894.12.08. : ◇함평 거괴 이화진(李化辰)과 같은무리 조병묵(曹丙默) 등 6명은 초8일에 잡았고 죄의 경중을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
- 1894.12.08. : ◇무안(務安) 접괴 배정규(裴正圭)와 박순서(朴順西)는 12월 8일에 잡을 때 쏘아 죽였음 같은 무리(同黨) 서여칠(徐汝七) 등 6명은 죄의 경중을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
- 1894.12.09. : ◇무안 적당(賊黨) 18명을 9일에 잡았는데 그 가운데 거괴 김응문(金應文), 김자문(金子文), 정여삼(鄭汝三), 김여옥(金汝玉), 장

10)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록에 남평, 화순 전투 기록. ◇호남초토영 문서2(1894.12)에 따라 화순 전투일로 표기함.

- 용진(張用辰), 조덕근(趙德根)은 신문을 겪은 뒤에 죽였음 같은 무리(同黨) 12명은 죄의 경중을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
- 1894.12.09. : ◇함평 동당 이두연(李斗連) 등 5명은 9일에 잡을 때에 쏘아 죽였음
- 1894.12.10. : ◇남평(南平) 적도(賊徒) 10명을 12월 초10일에 잡았는데, 그 가운데 5명은 쏘아 죽였음. 접주 나홍집(羅鴻集), 허재중(許在仲), 박신환(朴信煥), 박덕기(朴德己), 김사현(金士玄)은 전라우영 진영에 압송하여 죄의 경중을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
- 1894.12.10. : ◇함평 동당 정경택(鄭京宅)과 서기현(徐基鉉)은 10일에 잡아서 죄의 경중을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
- 1894.12.10. : ◇화순 도당 서상조(徐尙祚)은 10일에 잡아서 죄의 경중을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
- 1894.12.11. : ◇고창(高敞) 거괴(巨魁) 손화중(孫化中)은 12월 11일에 잡아서 일병소(日兵所, 일본군이 머무는 곳)로 압송하여 갔음. 동당 2명은 잡을 때에 쏘아 죽였음
- 1894.12.11. : ◇능주(綾州) 적괴(賊魁) 13명을 12월 11일에 잡았는데, 그 가운데 7명은 잡을 때에 쏘아 죽였고, 6명은 일군소(日軍所, 일본군이 머무는 곳)에서 목을 베어 경계하였음
- 1894.12.11. : ◇함평 거괴 윤정보(尹正甫), 장경삼(張京三), 박춘서(朴春西), 정평오(鄭平五), 김시환(金時煥), 윤찬진(尹贊辰), 김경문(金京文), 박경중(朴京仲)은 11일에 잡았는데 잡을 때에 쏘아 죽였음. 거괴 이은중(李殷仲)은 전라우영 진영에 보내어 엄중히 조사하여 진상을 파악하게 하였음
- 1894.12.12. : ◇거괴 전재석(全在錫)과 김낙유(金洛有), 황찬묵(黃贊默)은 12월 12일에 잡았는데 잡을 때 쏘아 죽였음
- 1894.12.12. : ◇무장(茂長) 적괴 20명을 12월 12일에 잡았는데, 그 가운데 김병운(金丙云)과 박경석(朴景錫)은 목을 베어 경계하였고, 박경양은 물고 하였음. 송진팔(宋辰八) 등 18명은 겸읍(兼邑)인 영광군(靈光郡)

- 으로 압송하여 죄의 경중을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
- 1894.12.12. : ◇전라 우영 진영에 잡아 가둔 정동관(鄭同寬)은 12월 12일에 잡았는데 죽였음. 이귀표(李貴杓)와 박동만(朴東萬), 박정원(朴正元)은 여황(餘皇), 평리(平里), 복암(伏巖) 등 3개 면에서 잡았다기에 죄의 경중을 참작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음
- 1894.12.12. : ◇함평 같은 무리 이재복(李在卜)과 김원숙(金元淑)은 12월에 잡았는데 잡을 때에 쏘아 죽였음
- 1894.12.13. : ▲고태국(高泰國)(?~1894), 흥덕대접주로 흥덕·나주에서 참여하였다가 관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됨
- 1894.12.16. : ▲황채오(黃彩五)(1854~1894), 1893년 11월 사발통문 서명에 참여하였고, 고부, 백산 봉기 이후 손화중과 함께 행동하였으며, 나주에서 형사함
- 1894.12.22. : □광양(光陽) 동도 박학목(朴鶴目) 등 49명을 갑오년(甲午年, 1894년) 12월 22일에 잡아서 뒤늦게 보고함
- 1894.12.24. : □부안(扶安) 거괴(巨魁) 손순서(孫順西), 손량숙(孫良淑), 배홍렬(裴洪烈)은 갑오년(甲午年, 1894년) 12월 25일에 잡았는데, 일본군이 압송하여 갖고 늦게 보고하였음.
- 1894.12.26. : ◆동학토벌대(일본군, 이하같음), 남원, 인가에 불지름. 밤늦도록 화광 충전.
- 1894.12.27. : ▲손여옥(孫如玉)(1860~1894), 전봉준, 손화중 등과 함께 참여하였으며, 나주전투에서 체포된 뒤 처형 당함
- 1894.12.27. : ▲송경찬(宋敬贊)(1858~1894), 무장접주로 무장기포, 백산 집회, 우금치 전투 등에 참여한 후 피체되어 나주에서 처형됨
- 1894.12.27. : ▲최선현(崔善鉉)(1852~1894), 접주로 무안지역 참여하였다가 나주전투에서 순국함
- 1894.12.27. : ▲최장현(崔璋鉉)(1838~1894), 접주로 무안지역 참여하였다가 나주전투에서 순국함
- 1894.12.28. : ▲최동린(崔東麟)(1881~1894), 1894년 12월 24일 13세의

나이로 장흥 석대들 전투에 참전하였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나주일
본군 진영으로 압송되어 처형당함

1894.12.28. : ◆동학토벌대, 연산, 일본군 상등병 전사

1894.12.29. : □부안(扶安) 노대규(盧大圭)와 노입문(盧入文)은 29일에
경군(京軍)이 쏘아 죽이고 늦게 보고하였음

1894.12.29. : ◆동학토벌대, 남원, 동학대장(전봉준) 순창에 있어 포획위
해 파견(조장1, 병졸 2개 분대, 동경 경시청 순사1)

1894.12.30. : ▲강대진(姜大振)(?~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강판성(姜判成)(?~1894), 지도자로서 참여하였다가 무장
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고휴진(高休鎭)(?~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김경운(金景云)(?~1894), 도집강(都執綱)으로서 참여하
였다가 무장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됨

1894.12.30. : ▲김계룡(金桂龍)(?~1894), 대접주로 참여하였다가 무장에
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김관서(金寬西)(?~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김덕여(金德汝)(?~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무장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김덕홍(金德洪)(?~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김성청(金成靑)(?~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무장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김순경(金順京)(?~1894), 대접주로 참여하였다가 무장에
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됨

1894.12.30. : ▲김영래(金永來)(?~1894), 대접주로 참여하였다가 무장에

- 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김영심(金永心)(?~1894), 대접주로 참여하였다가 무장에
 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김원실(金元實)(?~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김응백(金應伯)(?~1894), 도성찰로서 참여하였다가 무장
 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김일중(金一仲)(?~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무장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김자일(金子一)(?~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무장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김재영(金在英)(?~1894), 참여하였다가 무장에서 체포되
 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김춘경(金春京)(?~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노명언(魯明彦)(?~1894), 대접주로 참여하였다가 영광에
 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노인경(盧仁京)(?~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노홍상(魯洪尙)(?~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문연규(文連奎)(?~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무장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박겸오(朴兼五)(?~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박만종(朴萬宗)(?~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박문팔(朴文八)(?~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함평에서

-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 1894.12.30. : ▲박용무(朴用武)(?~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 1894.12.30. : ▲박인지(朴仁之)(?~1894), 도령기수(都令旗手)로서 참여하였다가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 1894.12.30. : ▲봉윤정(奉允正)(?~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 1894.12.30. : ▲봉유흥(奉允弘)(?~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 1894.12.30. : ▲서치운(徐致雲)(?~1894), 접주로서 참여하였다가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 1894.12.30. : ▲선부길(宣夫吉)(?~1894), 도성찰(都省察)로서 참여하였다가 무장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 1894.12.30. : ▲성두팔(成斗八)(?~1894), 서사(書寫)로 참여하였다가 고창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 1894.12.30. : ▲송경창(宋景昌)(?~1894), 대접주로 참여하였다가 무장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 1894.12.30. : ▲송군화(宋君化)(?~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무장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 1894.12.30. : ▲송영석(宋永石)(?~1894), 무장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 1894.12.30. : ▲송진팔(宋鎭八)(?~1894), 무장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 1894.12.30. : ▲신항용(申恒用)(?~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 1894.12.30. : ▲오양신(吳良臣)(?~1894), 접사(接司)로서 참여하였다가 무장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 1894.12.30. : ▲윤상근(尹相近)(?~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 1894.12.30. : ▲윤상은(尹相殷)(?~1894), 포사대장(砲士大將)으로 참여하였다가 무장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 1894.12.30. : ▲윤영국(尹永菊)(?~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 1894.12.30. : ▲이경식(李京植)(?~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 1894.12.30. : ▲이계성(李季成)(?~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 1894.12.30. : ▲이군서(李君瑞)(?~1894), 대접주로 참여하였다가 무장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 1894.12.30. : ▲이남석(李南石)(?~1894), 도성찰(都省察)로서 참여하였다가 무장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 1894.12.30. : ▲이부겸(李富兼)(?~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무장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 1894.12.30. : ▲이순백(李順伯)(?~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 1894.12.30. : ▲이오서(李五瑞)(?~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 1894.12.30. : ▲이익성(李益成)(?~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 1894.12.30. : ▲이창주(李昌朱)(?~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 1894.12.30. : ▲임명진(林明辰)(?~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 1894.12.30. : ▲장두일(張斗一)(?~1894), 대접주로 1894년 1차, 2차

봉기시 무장에서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됨

1894.12.30. : ▲장소회(張所回)(?~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장현국(張賢局)(?~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전후겸(全厚兼)(?~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정기경(丁基京)(?~1894), 대접주로 참여하였다가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조경순(趙景順)(?~1894), 대접주로 참여하였다가 무장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조명구(曹明九)(?~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최문학(崔文學)(?~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무장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최순칠(崔順七)(?~1894), 대접주로 참여하였다가 무장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최유헌(崔有憲)(?~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최이현(崔二玄)(?~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황상연(黃相連)(?~1894), 접주로 참여하였다가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황정오(黃正五)(?~1894), 서사(書寫)로서 참여하였다가 고창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1894.12.30. : ▲황찬국(黃贊菊)(?~1894), 서사(書寫)로서 참여하였다가 고창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 1894.12.30. : 강기수(姜基秀)(?~1894), 대접주로 참여하였다가 무장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함
- 1894.12.30. : ◆동학토벌대, 남원 고성산(교룡산성) 사원(선국사)과 민가 불태움
- 1894.12.31. : ◆동학토벌대, 곡성, 도중에 농민군 가옥 수십호 불태움, 도착후 수십호 불태움 농민군 10명 燒殺
- 1894.00.00 : ▲한정교(韓貞敎, 1879.10.19.~1929.9.5.), 1894년 부친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선산관아를 공격함. 전라도 백산·나주
- 1895.00.00. : ▲이인환(李仁煥)(?~1895), 접주로 전주점령에 참여하였다가 장흥 남문 밖 석대전투에서 경군(京軍)에게 패하여 나주에서 처형됨
- 1895.01.02. : ◆동학토벌대, 옥과, 체포한 농민군 5명 고문 후 총살 시체는 불태움
- 1895.01.03. : □임자진(荏子鎭) 동도 장찬빈(張贊彬) 등 5명은 1월 3일에 잡아 엄중히 조사하여 실정을 파악한 후에 압송하게 하였음
- 1895.01.03. : ◆동학토벌대, 동북, 현감 민병(민보군) 5백명 모아 습격 방어, 농민군 15명 체포 능주목사 응원 요청
- 1895.01.05. : ◆동학토벌대, 능주, 민보군 위장전술로 농민군 수백명 체포 가벼운자 추방 중한자(수십명) 죽임(총살) -노획총기 75정 능주목 창고 죽창 활 등 불태움
- 1895.01.05. : ◆동학토벌대, 능주, 동도 7~80명 체포 고문 가벼운 자 민병 이송, 중한 자 20명 정도 총살
- 1895.01.06. : ◆동학토벌대, 능주, 민보군 수백명 해산명령
- 1895.01.06. : ▲김여수(金汝受, 汝守)(?~1895), 지도자로서 고부에서 참여하였다가 1895년 1월 6일 나주에서 처형됨
- 1895.01.07. : ◆동학토벌대, 이양원, 농민군 7-80명이 사격해 옴. 농민군 가옥 4-50호 불태움. 농민군 3백명에게 사격 순국 10명, 인가 몇채 불태움
- 1895.01.07. : ◆동학토벌대, 장흥 건산 농민군 2천여명 건산 점령 조준사거

- 리, 총에 착검하고 고성으로 농민군 진영 돌진, 농민군 수십명 순국
- 노획 대포 3문, 고제 소총 수백정, 화약 약간, 칼 수백, 창 수백자루(죽
창이 많음), 활, 큰북, 우마, 목면, 염분(인도제 유향), 감, 군기
- 1895.01.08. : □무주(茂朱) 동도 송석준(宋石俊)과 박덕윤(朴德允) 및 김성
진(金成辰)은 1월 8일에 잡아 압송하여 금산군(錦山郡)에 넘기고 결박
하였음
- 1895.01.08. : □무주(茂朱) 문성술(文成述)과 문영술(文永述)은 같은 날[1
월 8일]에 잡아서 읍에서 결박하였음
- 1895.01.08. : ◆동학토벌대, 장흥, 일제 사격 착검 돌진, 방화, 突殺,
- 노획 깃발 15, 낡은 대포 10문, 화약 약간, 소총과 탄환 다수,
일본도 약간, 활, 목면, 다량의 종이, 조선돈[韓錢] 8백 관목(貫目),
쌀 60석, 소 5두, 말 30두. - 강진 농민군 1천명이 장흥으로 오려다
퇴각. 농민군 수십명 순국, 부상자 다수. - 농민군 순천부에서 보병
제10연대 후비군 공격으로 장흥으로 옴. 부사(박현양)와 양민 살해
50~60명
- 1895.01.09. : ◆동학토벌대, 장흥, 후비대와 韓兵이 농민군과 남문쪽에서
격전, 8명 생포, 3명 타살, 추격 타살 48명, 부상 생포 10명, 생포자
고문 후 소살 - 노획 소총 10정, 창 52자루, 배낭 32개.
- 1895.01.10. : □금구(金溝) 비류(匪類) 김제국(金濟局) 등 5명은 을미년(乙
未年, 1895년) 1월 10일에 순영(巡營)의 감결(甘結)로 결박하였음
- 1895.01.10. : □부안(扶安) 곽덕언(郭德彦)은 소모소(召募所)의 관문(關文)
으로 인해 고부(古阜)에 압송하여 갔음
- 1895.01.10. : □부안(扶安) 송성구(宋成九) 9명은 해당 현에 잡아 가두고
엄중히 조사하여 실상을 파악하도록 하였음
- 1895.01.10. : □부안(扶安) 이기범(李基凡) 등 3명은 을미년(乙未年, 1895
년) 1월 10일에 경군이 압송하여 갔음
- 1895.01.10. : ◆동학토벌대, 장흥, 노획한 무기 훼손 불태움·쌀·돈은
빈민에게 나누어 줌

- 1895.01.11. : □능주(綾州) 비괴(匪魁) 조종순(趙宗榦)은 을미년(乙未年, 1895년) 1월 11일에 잡을 때 쏘아 죽였는데, 순포장(巡砲將) 최주화(崔周華) 등이 잡았음
- 1895.01.11. : □장성(長城) 동도 차석만(車石萬)은 을미년(乙未年, 1895년) 1월 11일에 잡아서 진영에 압송하여 넘기고 엄중히 조사하여 실상을 파악하도록 하였음
- 1895.01.11. : ◆동학토벌대, 장흥, 남면, 통행자 체포 고문, 남자 불을 붙여 달려가자 총살 - 옷지 않은 사람이 없었음 죽청동 4~50명중 농민군 있어 붙잡음 12살 소년 죽청동 동도 16명중 고문 후 8명 석방 8명 총살, 시체는 불태움 죽천, 농민군 300명 흩어짐 최동 다리 관통 낙마 도주 17세 대군 지휘관 농민군 18명 순국 - 노획 말 5
- 1895.01.12. : ◆동학토벌대, 장흥 월림동 이법현(이방언) 집(현 장흥군 용산면 월림리 392) 수색 비밀서류, 가옥 불태움 - 노획 우마 6, 농민군 11명 체포 죽임 3명 불이 붙어 바다 순국 대흥면 호구 680호 인민 부재 양미 부재 현미 징발
- 1895.01.13. : ◆동학토벌대, 장흥 대흥면 농민군 수십명 죽임 고개(자울재) 죽창 승두권 산을 이루고 길은 피로 물듦 시체 수십명 장흥 도착 대괴수 전봉준 순창 포획 소식 들음 경성공사관으로 보냈다 함(나주 압송 후 서울 이송)
- 1895.01.13. : □장흥 벽사역(碧沙驛) 동도 김화삼(金化三) 등 14명은 우선봉(右先鋒)의 지시에 따라 쏘아 죽였고, 문광현(文光玄) 등 10명은 징계하고 풀어주었는데, 이들은 1월 13일에 잡은 자들이었음
- 1895.01.14. : ◆동학토벌대, 장흥, 체포 농민군 17명 죽임 학송에서 관통상 입은 최동 체포 후비보명 대대본부로 보낼 사항
- 1895.01.16. : ▲송두호(宋斗浩)(1828~1895), 1893년 11월 사발통문에 서명하고 고부봉기, 백산봉기 등에 참여한 뒤 피신하던 중 체포되어 나주에서 처형당해 순국함

- 1895.01.16. : □남평(南平) 동도 이학순(李學淳)과 박천수(朴千洙)는 1월 16일에 잡아서 가두고 영(令)을 내려 경중을 가려서 조치하도록 했음
- 1895.01.16. : □무장(茂長) 동도 양상집(梁相集)은 을미년(乙未年, 1895년) 1월 16일에 잡아서 엄중히 조사하여 실상을 파악하도록 하였음
- 1895.01.17. : □능주(綾州) 정이문(鄭已文)은 1월 17일에 잡아 가두고 조치하도록 했음
- 1895.01.17. : □만경(萬頃) 동도 유원숙(柳元淑)은 1월 17일에 체포하고 압송해서 선봉진(先鋒陣, 이규태 좌선봉)에 넘겼음
- 1895.01.17. : □장흥 벽사역(碧沙驛) 박수동(朴水東) 등 25명은 우선봉(右先鋒)의 지시에 따라 쏘아 죽였고, 노양옥(盧良玉) 등 12명은 징계하고 풀어주었는데, 이들은 1월 17일에 체포한 자들이었음
- 1895.01.17. : ◆동학토벌대, 강진, 최동 호송 담당 조선인 3인 도착 촌민들이 한명을 소살 강진 민가에 불지른 자 밭에 시체가 수십구, 개와 새의 먹이
- 1895.01.18. : ◆동학토벌대, 강진 체재, 장흥 농민군 죽인게 300명
- 1895.01.19. : □함평(咸平) 동도 서우순(徐右順) 등 10명은 1월 19일에 경군소(京軍所)에서 체포하여 압송해서 진영(鎭營)에 넘기고 엄중히 조사하여 실상을 파악하도록 하였음
- 1895.01.19. : □함평(咸平) 홍곤삼(洪坤三) 등 11명은 1월 19일에 체포하고, 압송하여 엄중히 조사하도록 하였음
- 1895.01.19. : ◆동학토벌대, 해남, 접주 이동식, 김춘래 형제 도합 3명 체포
- 1895.01.20. : □광주 경양역(景陽驛) 동도 김성보(金成甫)는 1월 20일에 체포하여 압송하는 길에 병으로 죽었음
- 1895.01.20. : □남평(南平) 거괴(巨魁) 백정(白丁) 치성(致成)은 20일에 잡아 진영에 압송하여 넘기고 엄중히 조사하여 실상을 파악하도록 하였음
- 1895.01.20. : □동북(同福) 거괴 박문주(朴文周)와 엄내영(嚴乃英)은 1월

20일에 체포하여 압송해서 진영에 넘기고 엄중히 조사하여 실상을 파악하도록 하였음

1895.01.20. : ▲김풍중(金豊宗)(?~?), 나주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1월 20일 전라도 영광 법성진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음

1895.01.20. : □법성진(法聖鎭) 거괴(巨魁) 오홍순(吳弘順)과 이만순(李萬順) 및 김풍중(金豊宗)은 같은 날[1월 20일]에 잡아서 엄중히 조사하여 실상을 파악하도록 하였음

1895.01.20. : □영광 법성진(法聖鎭) 동도 남궁달(南宮達)과 박복암(朴卜巖)은 1월 20일에 압송하여 진영에 넘겨 엄중히 조사하여 실정을 파악하도록 하였음

1895.01.21. : □장흥 벽사역(碧沙驛) 거괴 이사환(李仕煥)은 1월 21일에 잡아 가두고 엄중히 조사하여 실정을 파악한 후에 바로 압송하게 하였음

1895.01.21. : ◆동학토벌대, 최동, 이동식, 김춘래 형제 노획 깃발 나주 대대대본부 이송

1895.01.22. : □능주(綾州) 권익득(權益得)과 손영기(孫永己)는 1월 22일에 잡혀 죽었는데, 장흥(長興) 김영집(金永集)이 체포를 했음

1895.01.22. : □능주(綾州) 오병채(吳秉采)와 이증백(李仲伯)은 22일에 잡혀 죽었는데, 방수장(防守將) 이지무(李枝茂)가 체포를 하였음

1895.01.22. : □능주(綾州) 이득수(李得洙)는 남평(南平)에서 잡아왔음

1895.01.22. : □능주(綾州) 이학서(李學西)는 방수장 윤자경이, 이춘서(李春西) · 이도춘(李道春) · 박채중(朴采仲)은 방수장 이지무가, 김학준(金學俊)은 방수장 양주묵(梁周默)이 체포하여 읍에서 징계하고 풀어 주었음

1895.01.22. : □능주(綾州) 장강다구(張江多九)는 전 우후(前 虞候) 박종규(朴鐘奎)가, 서민수(徐民洙)는 방수장(防守將) 윤자경(尹滋慶)이 체포하였음

- 1895.01.22. : □능주(綾州) 정치구(鄭致九)와 김기홍(金基弘)은 전 현감(前縣監) 이득수(李得秀)가 체포하여 우선 단단히 가두었음
- 1895.01.22. : □보성(寶城) 동도 임원화(任元化)와 임찬선(林贊善) 및 지만일(池萬日)은 1월 22일에 체포하여 가두고 압송하여 겸읍(兼邑)인 능주목사(綾州牧使)에게 넘겨 엄중히 조사해서 실상을 파악하도록 하였음
- 1895.01.22. : ◆동학토벌대, 해남, 포획한 농민군 16명 성밖에서 총살
- 1895.01.26. : ▲황홍모(黃洪模)(1855~1895), 1893년 사발통문에 서명하고, 1894년 고부, 백산봉기 등에 참여하였으며 11월 체포되어 나주에서 처형됨
- 1895.01.27. : ▲유희원(柳熙源)(1847~1895), 1894년 3월 백산봉기 등 여러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만경으로 피신하였으나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되어 처형됨
- 1895.01.29. : ◆동학토벌대, 해남 도일동 동학 접사 도주 불지름. 서류, 북 노획
- 1895.01.31. : ◆동학토벌대, 해남, 동도 7명 착검 돌격 죽임 - 병사들 경악
- 1895.02.04. : ◆동학토벌대, 나주, 사대문 터널 4만여호 남문 작은 산 시체가 산을 이룸. 장흥 전투(18~10) 중죄인 죽인 것 매일 12명씩 103명을 넘음. 시체를 버린 것이 680명 악취 진동, 땅은 죽은 사람의 기름이 하얀 은(白銀)처럼 개나 새들의 밥
- 1895.02.05. : ◆동학토벌대, 인천 병참감에서 대구 이동 명령 하달 해남 북방 압호랑이 신장 6척 키 3척
- 1895.02.06. : ◆동학토벌대, 나주, 동학농민군 진정 장교 병사 등이 조선군대와 나주목사와 이별회 조선인 경예자(輕藝者) 참여 병참감에서 명령 재하달[동학군 수색 재기 못하도록 하고 용산 집합]
- 1895.03.00. : ▲손화중(孫華仲)(1861~1895), 총관령으로 백산봉기를 주도했으며 나주성 전투에서 농민군을 지휘함

- 1895.04.00. : ▲김방서(金方瑞, 方西, 芳瑞, 邦瑞)(?~1895), 대접주로 1894년 집강소시기, 2차 봉기시 익산에서 활동하였고 동년 12월 장흥에서 활동하다가 관군에게 체포된 뒤 나주의 일본군 진영으로 압송되었고 이후 1895년 3월 무죄로 풀려났으나 1895년 4월 전라감사 이도재에게 체포되어 처형됨
- 1895.04.02. : ▲한달문(韓達文)(1859~1895), 동학접주로 나주지역 대장으로 활동 중 1894년 11월 민보군에게 체포되어 1895년 4월 옥중 순국
- 1895.06.23. : ▲최기현(崔琪鉉)(1873~1895), 동학접주로 무안지역 참여하였다가 나주전투에서 순국함
- 1896.08.00. : ▲김순여(金順汝)(1846~1896), 지도자로서 1894년 금구에서 참여하였다가 피신한 뒤 1896년 봄 나주에서 재봉기를 모의하였다가 체포되어 같은 해 8월 전주에서 처형됨
- 1896.08.00. : ▲백낙중(白樂中)(1859~1896), 지도자로서 1894년 금구에서 참여하였다가 피신한 뒤 1896년 봄 나주에서 재봉기를 모의하였다가 체포되어 같은 해 8월 전주에서 처형됨
- 1896.08.00. : ▲이경태(李敬泰)(1868~1896), 지도자로서 1894년 금구에서 참여하였다가 피신한 뒤 1896년 봄 나주에서 재봉기를 모의하였다가 체포되어 같은 해 8월 전주에서 처형됨
- 1896.08.00. : ▲황준삼(黃俊三)(1851~1896), 지도자로서 1894년 금구에서 참여하였다가 피신한 뒤 1896년 봄 나주에서 재봉기를 모의하였다가 체포되어 같은 해 8월 전주에서 처형됨

나주동학농민혁명기 호남초토영군 출전장령성명질(出戰將領姓名秩)

김 희 태

(전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본 자료는 새로 확인된 『포살동도수효급소획즙물병록성책(砲殺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구630)에 기록된 출전장령성명질(出戰將領姓名秩)을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문서는 호남초토영에서 보고한 문서로 1894년 4월~11월 사이 나주 지역 7개소 전투지역의 일자와 포살 동학농민군 수, 동학농민군으로부터 소획한 즙물 등과 함께 호남초토영의 초토군으로 참여하여 동학농민군을 포살하고 처형을 했던 출전 장령(將領)의 전투지별 직임과 성명을 기록하고 있다. 직임은 23종에 이르고 장령은 71명이다. 중복되어 기록된 경우도 있어 인명별 직임과 일자별 전투지역을 정리하였다.

강춘삼(姜春三) : 산포수(山砲手). 1894년 10월 21일 나주 동 30리 광주 침산(砧山)과 사창(社倉) 접전시 장령(將領). 1894년 11월 17일 나주 서쪽 30리 수다면(水多面) 호장촌등(虎藏村嶺) 출전. 1894년 11월 11일 나주 북쪽 40리 적량면(赤良面) 용진산(聳玠山) 출전.

고덕봉(高德奉[鳳]) : 집사(執事). 1894년 7월 5일 나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將領). 1894년 11월 24일 나주 북쪽 10리 금안면(金安面) 남산촌(南山村)과 이로면(伊老面) 하촌(下村) 등지 출전

구유술(具有述) : 하리(下吏). 1894년 11월 11일 적량면(赤良面) 용진산(聳玠山) 출전. 1894년 11월 17일 수다면(水多面) 호장촌등(虎藏村嶺) 출전. 1894년 11월 24일 금안면(金安面) 남산촌(南山村)과 이로면

(伊老面) 하촌(下村) 등지 출전.

기학연(奇學衍) : 하리(下吏). 1894년 7월 5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將領).

1894년 11월 24일 금안면(金安面) 남산촌(南山村)과 이로면(伊老面)
하촌(下村) 등지 출전

김경환(金京煥) : 관동면 의거 영수 유학(冠洞面義學領首幼學). 1894년 11월
11일 적량면(赤良面) 용진산(聳琺山) 출전.

김근환(金根煥) : 하리(下吏). 1894년 7월 5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將領).
1894년 11월 24일 금안면(金安面) 남산촌(南山村)과 이로면(伊老面)
하촌(下村) 등지 출전.

김기옥(金基玉) : 천보대장(千步隊長). 1894년 11월 11일 적량면(赤良面)
용진산(聳琺山) 출전시 장령(將領). 1894년 11월 24일 금안면(金安
面) 남산촌(南山村)과 이로면(伊老面) 하촌(下村) 등지 출전시.

김대규(金大奎) : 평리면 의거 영수 유학(平里面義學領首幼學). 1894년 11월
11일 적량면(赤良面) 용진산(聳琺山) 출전.

김석균(金錫均) : 초관하리(哨官下吏). 1894년 7월 5일 나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將領).

김성진(金聲振) : 중군 전첩사(中軍前僉使). 1894년 7월 5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 1894년 10월 21일 광주 침산(砧山)과 사창(社倉) 접전
시 장령. 1894년 11월 11일 적량면(赤良面) 용진산(聳琺山) 출전.
1894년 11월 17일 수다면(水多面) 호장촌등(虎藏村嶝) 출전.

김용현(金龍鉉) : 안노면 의거 영수 유학(安老面義學領首幼學). 1894년 11월
17일 수다면(水多面) 호장촌등(虎藏村嶝) 출전.

김윤창(金潤昌) : 별군관(別軍官(後應)). 1894년 11월 24일 금안면(金安面)
남산촌(南山村)과 이로면(伊老面) 하촌(下村) 등지 출전

김재환(金在煥) : 초관하리(哨官下吏), 호방색(戶房色). 1894년 7월 5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將領). 1894년 11월 11일 적량면(赤良面)
용진산(聳琺山) 출전. 1894년 11월 17일 나주 서쪽 30리 수다면(水
多面) 호장촌등(虎藏村嶝) 출전.

- 김창균(金蒼均) : 퇴교(退校). 1894년 7월 5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將領).
1894년 10월 21일 광주 침산(砦山)과 사창(社倉) 접전시 장령. 1894
년 11월 17일 수다면(水多面) 호장촌등(虎藏村嶺) 출전.
- 김학술(金學述) : 하리(下吏). 1894년 7월 5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
1894년 11월 11일 적량면(赤良面) 용진산(聳玠山) 출전. 1894년
11월 24일 금안면(金安面) 남산촌(南山村)과 이로면(伊老面) 하촌(下
村) 등지 출전.
- 나도식(羅燾植) : 금마면 의거 영수 유학(金磨面義學領首幼學), 1894년 11월
17일 수다면(水多面) 호장촌등(虎藏村嶺) 출전.
- 문관후(文寬厚) : 남문별장(南門別將). 장교(將校). 1894년 7월 5일 서문(西
門) 접전시 장령(將領). 1894년 11월 24일 나주 북쪽 10리 금안면(金
安面) 남산촌(南山村)과 이로면(伊老面) 하촌(下村) 등지 출전.
- 문락삼(文洛三) : 좌별장 전오위장(左別將前五衛將). 1894년 7월 5일 서문
(西門) 접전시 장령(將領).
- 문영노(文永老) : 토포수교(討捕首校). 1894년 11월 24일 금안면(金安面)
남산촌(南山村)과 이로면(伊老面) 하촌(下村) 등지 출전.
- 민익화(閔益華) : 동오면 의거 영수 유학(東五面義學領首幼學). 1894년 11월
17일 수다면(水多面) 호장촌등(虎藏村嶺) 출전.
- 박경욱(朴京郁) : 초관하리(哨官下吏). 1894년 7월 5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將領).
- 박관욱(朴寬郁) : 초관하리(哨官下吏). 1894년 7월 5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
- 박근욱(朴根郁) : 초관하리(哨官下吏). 1894년 7월 5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將領). 1894년 11월 11일 적량면(赤良面) 용진산(聳玠山) 출전.
1894년 11월 17일 수다면(水多面) 호장촌등(虎藏村嶺) 출전. 1894
년 11월 24일 금안면(金安面) 남산촌(南山村)과 이로면(伊老面) 하촌
(下村) 등지 출전.
- 박두영(朴斗瑛) : 초관하리(哨官下吏). 1894년 7월 5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將領).

박로환(朴魯煥) : 여황면 의거 영수 유학(餘惶面義學領首幼學). 1894년 11월 11일 나주 북쪽 40리 적량면(赤良面) 용진산(聳珣山) 출전시 장령(將領).

박문양(朴文陽) : 전왕면 의거 영수 유학(田旺面義學領首幼學). 1894년 11월 17일 수다면(水多面) 호장촌등(虎藏村嶺) 출전.

박상수(朴祥壽) : 좌수(座首). 1894년 11월 11일 적량면(赤良面) 용진산(聳珣山) 출전시 장령(將領).

박상욱(朴尙郁) : 초관하리(哨官下吏). 1894년 7월 5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將領).

박성노(朴成老) : 초관하리(哨官下吏), 하리(下吏). 1894년 7월 5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將領). 1894년 11월 24일 금안면(金安面) 남산촌(南山村)과 이로면(伊老面) 하촌(下村) 등지 출전.

박시홍(朴時弘) : 하리(下吏). 1894년 10월 21일 광주 침산(砦山)과 사창(社倉) 두곳 접전시 장령(將領). 1894년 11월 11일 적량면(赤良面) 용진산(聳珣山) 출전. 1894년 11월 24일 금안면(金安面) 남산촌(南山村)과 이로면(伊老面) 하촌(下村) 출전

박연규(朴年珪) : 초관하리(哨官下吏). 1894년 7월 5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將領).

박윤칠(朴允七) : 우별장(右別將). 1894년 7월 5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將領).

박윤홍(朴允弘) : 초관하리(哨官下吏). 1894년 7월 5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將領).

박중양(朴重陽) : 상곡면 의거 영수 유학(上谷面義學領首幼學). 1894년 11월 17일 수다면(水多面) 호장촌등(虎藏村嶺) 출전시 장령(將領).

서연권(徐然權) : 초관하리(哨官下吏). 1894년 7월 5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將領).

손상문(孫商文) : 이방(吏房). 1894년 7월 5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將領). 1894년 10월 21일 광주 침산(砦山)과 사창(社倉) 접전시 장령. 1894년

11월 11일 적량면(赤良面) 용진산(聳玠山) 출전. 1894년 11월 17일
수다면(水多面) 호장촌등(虎藏村嶺) 출전. 1894년 11월 24일 금안면
(金安面) 남산촌(南山村)과 이로면(伊老面) 하촌(下村) 등지 출전
손치홍(孫致弘) : 초관하리(哨官下吏), 수교(首校). 1894년 7월 5일 서문(西
門) 접전시 장령(將領). 1894년 11월 24일 금안면(金安面) 남산촌(南
山村)과 이로면(伊老面) 하촌(下村) 등지 출전,
송덕순(宋德純) : 군관(軍官[後應]). 1894년 11월 24일 금안면(金安面) 남산
촌(南山村)과 이로면(伊老面) 하촌(下村) 등지 출전.
승룡규(昇龍圭) : 수교(首校). 1894년 7월 5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將領).
양남중(梁南中) : 초관하리(哨官下吏). 1894년 7월 5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將領).
양상선(梁相善) : 오산면 의거 영수 유학(烏山面義學領首幼學). 1894년 11월
11일 적량면(赤良面) 용진산(聳玠山) 출전시 장령.
양인환(梁仁煥) : 하리(下吏). 1894년 7월 5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
1894년 11월 11일 적량면(赤良面) 용진산(聳玠山) 출전. 1894년
11월 24일 나주 북쪽 10리 금안면(金安面) 남산촌(南山村)과 이로면
(伊老面) 하촌(下村) 등지 출전.
염유진(廉有鎭) : 신촌면 의거 영수 유학(新村面義學領首幼學). 1894년 11월
17일 수다면(水多面) 호장촌등(虎藏村嶺) 출전시 장령.
염효진(廉孝鎭) : 적량면 의거 영수 유학(赤良面義學領首幼學). 1894년 11월
11일 적량면(赤良面) 용진산(聳玠山) 출전시 장령.
오득제(吳得齊) : 초관하리(哨官下吏), 1894년 7월 5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
오득환(吳得煥) : 초관하리(哨官下吏), 1894년 7월 5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
오화준(吳華準) : 초관하리(哨官下吏). 1894년 7월 5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將領).
유광채(柳光彩) : 동오면 의거 영수 유학(東五面義學領首幼學). 1894년 11월

- 17일 수다면(水多面) 호장촌등(虎藏村燈) 출전시 장령.
- 유기연(柳紀淵) : 동오면 의거 영수 유학(東五面義學領首幼學). 1894년 11월
17일 수다면(水多面) 호장촌등(虎藏村燈) 출전시 장령.
- 유동근(柳東根) : 삼가면 의거 영수 유학(三加面義學領首幼學). 1894년 11월
11일 적량면(赤良面) 용진산(聳玊山) 출전시 장령.
- 유태근(柳澤根) : 옥곡면 의거 영수 유학(郁谷面義學領首幼學). 1894년 11월
17일 수다면(水多面) 호장촌등(虎藏村燈) 출전시 장령.
- 이규인(李奎寅) : 지량면 의거 영수 유학(知良面義學領首幼學). 1894년 11월
17일 수다면(水多面) 호장촌등(虎藏村燈) 출전시 장령.
- 이길노(李佶魯) : 지죽면 의거 영수 유학(枝竹面義學領首幼學). 1894년 11월
17일 수다면(水多面) 호장촌등(虎藏村燈) 출전시 장령.
- 이난헌(李蘭憲) : 수다면 의거 영수 유학(水多面義學領首幼學) 1894년 11월
17일 수다면(水多面) 호장촌등(虎藏村燈) 출전시 장령.
- 이돈기(李敦祺) : 하리(下吏). 1894년 7월 5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
1894년 10월 21일 광주 침산(砧山)과 사창(社倉) 접전시 장령. 1894
년 11월 24일 금안면(金安面) 남산촌(南山村)과 이로면(伊老面) 하촌
(下村) 등지 출전.
- 이민상(李敏尙) : 이로면 의거 영수 유학(伊老面義學領首幼學). 1894년 11월
24일 금안면(金安面) 남산촌(南山村)과 이로면(伊老面) 하촌(下村)
출전시 장령.
- 이병조(李丙祚) : 상곡면 의거 영수 유학(上谷面義學領首幼學). 1894년 11월
17일 수다면(水多面) 호장촌등(虎藏村燈) 출전시 장령.
- 이학헌(李鶴憲) : 금안면 의거 영수 유학(金安面義學領首幼學), 1894년 11월
24일 금안면(金安面) 남산촌(南山村)과 이로면(伊老面) 하촌(下村)
출전시 장령.
- 이희문(李希文) : 시랑면 의거 영수 유학(侍郎面義學領首幼學). 1894년 11월
17일 수다면(水多面) 호장촌등(虎藏村燈) 출전시 장령.
- 임노규(林魯奎) : 상곡면 의거 영수 유학(上谷面義學領首幼學). 1894년 11월

17일 수다면(水多面) 호장촌등(虎藏村燈) 출전시 장령.

장길한(張估翰) : 하리(下吏), 1894년 7월 5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
1894년 11월 24일 금안면(金安面) 남산촌(南山村)과 이로면(伊老面)
하촌(下村) 출전.

전공서(錢公瑞) : 공무군관(公務軍官), 천보대장(千步隊長). 1894년 7월 5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 1894년 11월 11일 적량면(赤良面) 용진산
(簞玠山) 출전. 1894년 11월 24일 금안면(金安面) 남산촌(南山村)과
이로면(伊老面) 하촌(下村) 출전.

전학권(錢鶴權) : 난후천총 별장 전사과(攔後千總別將前司果), 난후별장 전
사과(攔後別將前司果). 1894년 7월 5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將
領). 1894년 10월 21일 광주 침산(砦山)과 사창(社倉) 접전시 장령.
1894년 11월 24일 금안면(金安面) 남산촌(南山村)과 이로면(伊老面)
하촌(下村) 출전.

정태완(鄭台完) : 호장(戶長). 1894년 7월 5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將領).
1894년 10월 21일 광주 침산(砦山)과 사창(社倉) 접전시 장령. 1894
년 11월 11일 적량면(赤良面) 용진산(簞玠山) 출전. 1894년 11월
17일 수다면(水多面) 호장촌등(虎藏村燈) 출전. 1894년 11월 24일
금안면(金安面) 남산촌(南山村)과 이로면(伊老面) 하촌(下村) 출전.

최문섭(崔文燮) : 하리(下吏), 1894년 11월 11일 적량면(赤良面) 용진산(簞
玠山) 출전시 장령. 1894년 11월 17일 수다면(水多面) 호장촌등(虎藏
村燈) 출전. 1894년 11월 24일 금안면(金安面) 남산촌(南山村)과
이로면(伊老面) 하촌(下村) 출전.

최성순(崔聖純) : 천총(千總), 1894년 7월 5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
1894년 11월 11일 적량면(赤良面) 용진산(簞玠山) 출전. 1894년
11월 17일 수다면(水多面) 호장촌등(虎藏村燈) 출전. 1894년 11월
24일 금안면(金安面) 남산촌(南山村)과 이로면(伊老面) 하촌(下村)
출전.

최신환(崔信煥) : 여황면 의거 영수 유학(餘惶面義學領首幼學). 1894년 11월

11일 적량면(赤良面) 용진산(聳玠山) 출전.

최용환(崔鎔煥) : 초관하리(哨官下吏). 1894년 7월 5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

최윤룡(崔允龍) : 초관하리(哨官下吏), 하리(下吏). 1894년 7월 5일 서문(西門) 접전시 장령. 1894년 11월 11일 적량면(赤良面) 용진산(聳玠山) 출전.

최일봉(崔一鳳) : 하리(下吏). 1894년 7월 5일 서문 접전시 장령. 1894년 11월 24일 금안면(金安面) 남산촌(南山村)과 이로면(伊老面) 하촌(下村) 출전.

홍우현(洪佑鉉) : 금안면 의거 영수 유학(金安面義學領首幼學). 1894년 11월 24일 금안면(金安面) 남산촌(南山村)과 이로면(伊老面) 하촌(下村) 출전.

나주 동학농민혁명기 호남초토영군 출전장령성명질(出戰將領姓名秩)¹⁾

1894년 7월 5일. 나주 서문 접전 장령(將領)

고덕봉(高德鳳) : 집사(執事)

기학연(奇學衍) : 하리(下吏)

김근환(金根煥) : 하리(下吏)

김석균(金錫均) : 초관하리(哨官下吏)

김성진(金聲振) : 중군 전첨사(中軍前僉使)

1) 『포살동도수효급소획증물병록성책(砲殺東徒數爻及所獲汁物并錄成冊)』(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구 630)의 출전장령성명질(出戰將領姓名秩)을 출전 일자별로 성명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김재환(金在煥) : 초관하리(哨官下吏)
 김창균(金蒼均) : 퇴교(退校)
 김학술(金鶴述) : 하리(下吏)
 문관후(文寬厚) : 남문별장(南門別將)
 문락삼(文洛三) : 좌별장 전오위장(左別將前五衛將)
 박경옥(朴京郁) : 초관하리(哨官下吏)
 박관옥(朴寬郁) : 초관하리(哨官下吏)
 박근옥(朴根郁) : 초관하리(哨官下吏)
 박두영(朴斗瑛) : 초관하리(哨官下吏)
 박상옥(朴尙郁) : 초관하리(哨官下吏)
 박성노(朴成老) : 초관하리(哨官下吏)
 박연규(朴年珪) : 초관하리(哨官下吏)
 박윤칠(朴允七) : 우별장(右別將)
 박윤희(朴允弘) : 초관하리(哨官下吏)
 서연권(徐然權) : 초관하리(哨官下吏)
 손상문(孫商文) : 이방(吏房)
 손치홍(孫致弘) : 초관하리(哨官下吏)
 승용규(昇龍圭) : 수교(首校)
 양남중(梁南中) : 초관하리(哨官下吏)
 양인환(梁仁煥) : 하리(下吏)
 오득제(吳得齊) : 초관하리(哨官下吏)
 오득환(吳得煥) : 초관하리(哨官下吏)
 오화준(吳華準) : 초관하리(哨官下吏)
 이돈기(李敦棋) : 하리(下吏)
 장길한(張佶翰) : 하리(下吏)
 전공서(錢公瑞) : 공무군관(公務軍官)
 전학권(錢鶴權) : 난후천총 별장 전사과(攔後千總別將前司果)
 정태완(鄭台完) : 호장(戶長)

최성순(崔聖純) : 천총(千摠)
최용환(崔鎔煥) : 초관하리(哨官下吏)
최윤룡(崔允龍) : 초관하리(哨官下吏)
최일봉(崔一鳳) : 하리(下吏)

1894년 10월 21일. 광주 침산(砦山), 사창(社倉) 출전 장령(將領)

강춘삼(姜春三) : 산포수(山砲手)
김성진(金聲振) : 중군 전첩사(中軍前僉使)
김창균(金蒼均) : 퇴교(退校)
박시홍(朴時弘) : 하리(下吏)
손상문(孫商文) : 이방(吏房)
이돈기(李敦祺) : 하리(下吏)
전학권(錢鶴權) : 난후별장 전사과(攔後別將前司果)
정태완(鄭台完) : 호장(戶長)

1894년 11월 11일. 나주 적량면 용진산 출전 장령(將領)

강춘삼(姜春三) : 산포수(山砲手)
구유술(具有述) : 하리(下吏)
김경환(金京煥) : 관동면 의거 영수 유학(冠洞面義學領首幼學)
김기옥(金基玉) : 천보대장(千步隊長)
김대규(金大奎) : 평리면 의거 영수 유학(平里面義學領首幼學)
김성진(金聲振) : 중군 전첩사(中軍前僉使)
김재환(金在煥) : 호방색(戶房色)
김학술(金學述) : 하리(下吏)
박근옥(朴根郁) : 하리(下吏)
박로환(朴魯煥) : 여항면 의거 영수 유학(餘皇面義學領首幼學)

박상수(朴祥壽) : 좌수(座首)
 박시홍(朴時弘) : 하리(下吏)
 손상문(孫商文) : 이방(吏房)
 양상선(梁相善) : 오산면 의거 영수 유학(烏山面義學領首幼學)
 양인환(梁仁煥) : 하리(下吏)
 염효진(廉孝鎭) : 적량면 의거 영수 유학(赤良面義學領首幼學)
 유동근(柳東根) : 삼가면 의거 영수 유학(三加面義學領首幼學)
 전공서(錢公瑞) : 천보대장(千步隊長)
 정태완(鄭台完) : 호장(戶長)
 최문섭(崔文燮) : 하리(下吏)
 최성순(崔聖純) : 천총(千摠)
 최신환(崔信煥) : 여황면 의거 영수 유학(餘皇面義學領首幼學)
 최윤룡(崔允龍) : 하리(下吏)

1894년 11월 17일. 나주 수다면 호장촌등(虎藏村嶝) 출전 장령(將領)

강춘삼(姜春三) : 산포수(山砲手)
 구유술(具有述) : 하리(下吏)
 김성진(金聲振) : 중군 전첨사(中軍前僉使)
 김용현(金龍鉉) : 안노면 의거 영수 유학(安老面義學領首幼學)
 김재환(金在煥) : 호방색(戶房色)
 김창균(金蒼均) : 퇴교(退校)
 나도식(羅燾植) : 금마면 의거 영수 유학(金磨面義學領首幼學)
 민익화(閔益華) : 동오면 의거 영수 유학(東五面義學領首幼學)
 박근욱(朴根郁) : 하리(下吏)
 박문양(朴文陽) : 전왕면 의거 영수 유학(田旺面義學領首幼學)
 박중양(朴重陽) : 상곡면 의거 영수 유학(上谷面義學領首幼學)
 손상문(孫商文) : 이방(吏房)

염유진(廉有鎭) : 신촌면 의거 영수 유학(新村面義學領首幼學)
유광채(柳光彩) : 동오면 의거 영수 유학(東五面義學領首幼學)
유기연(柳紀淵) : 동오면 의거 영수 유학(東五面義學領首幼學)
유태근(柳澤根) : 옥곡면 의거 영수 유학(郁谷面義學領首幼學)
이규인(李奎寅) : 지량면 의거 영수 유학(知良面義學領首幼學)
이길노(李佶魯) : 지죽면 의거 영수 유학(枝竹面義學領首幼學)
이난헌(李蘭憲) : 수다면 의거 영수 유학(水多面義學領首幼學)
이병조(李丙祚) : 상곡면 의거 영수 유학(上谷面義學領首幼學)
이희문(李希文) : 시랑면 의거 영수 유학(侍郎面義學領首幼學)
임노규(林魯奎) : 상곡면 의거 영수 유학(上谷面義學領首幼學)
정태완(鄭台完) : 호장(戶長)
최문섭(崔文燮) : 하리(下吏)
최성순(崔聖純) : 천충(千攄)

1894년 11월 24일. 나주 금안면 남산촌(南山村)과 이로면 하촌(下村) 출전
장령(將領령)

고덕봉(高德奉) : 집사(執事)
구유술(具有述) : 하리(下吏)
기학연(奇學衍) : 하리(下吏)
김근환(金根煥) : 하리(下吏)
김기옥(金基玉) : 천보대장(千步隊長)
김윤창(金潤昌) : 별군관(別軍官[後應])
김학술(金學述) : 하리(下吏)
문관후(文寬厚) : 장교(將校)
문영노(文永老) : 토포수교(討捕首校)
박근욱(朴根郁) : 하리(下吏)

박성노(朴成老) : 하리(下吏)
박시홍(朴時弘) : 하리(下吏)
손상문(孫商文) : 이방(吏房)
손치홍(孫致弘) : 수교(首校)
송덕순(宋德純) : 군관(軍官[後應])
양인환(梁仁煥) : 하리(下吏)
이돈기(李敦祺) : 하리(下吏)
이민상(李敏尙) : 이로면 의거 영수 유학(伊老面義學領首幼學)
이학헌(李鶴憲) : 금안면 의거 영수 유학(金安面義學領首幼學)
장길한(張佶翰) : 하리(下吏)
전공서(錢公瑞) : 천보대장(千步隊長)
전학권(錢鶴權) : 난후별장 전사과(攔後別將前司果)
정태완(鄭台完) : 호장(戶長)
최문섭(崔文燮) : 하리(下吏)
최성순(崔聖純) : 천총(千摠)
최일봉(崔一鳳) : 하리(下吏)
홍우현(洪佑鉉) : 금안면 의거 영수 유학(金安面義學領首幼學)

인 명 색 인

- 강경중(姜敬重) 53
 강기수(姜基秀) 134, 361
 강대열(姜大說) 31, 46
 강대진(姜大振) 134, 356
 강도수(姜道守) 145, 350, 351
 강봉희(姜鳳熙) 348
 강춘삼(姜春三) 369, 378, 379
 강판석(姜判石) 352
 강판성(姜判成) 356
 강해원(姜海遠) 31
 고기학(高起學) 44
 고덕봉(高德鳳) 107, 376
 고덕봉(高德奉) 369, 380
 고성천(高成天) 350
 고영숙(高永叔) 53
 고제운(高濟雲) 104
 고태국(高泰國) 355
 고희진(高休鎭) 134, 356
 곽덕언(郭德彦) 362
 구교철(具敎轍) 304
 구유술(具有述) 106, 107, 369, 378, 379, 380
 국문보(鞠文甫) 352
 국영신(鞠永信) 353
 권익득(權益得) 365
 기동관(奇東觀) 54, 114
 기우만(奇宇萬) 77, 95, 291
 기우선(奇宇善) 52
 기학연(奇學衍;鶴衍) 106, 107, 370, 376, 380
 김갑수(金甲秀) 44
 김개남(金開南;介男) 38, 117, 338
 김경문(金京文) 354
 김경선(金京先) 353
 김경오(金京五) 55, 351
 김경운(金景云) 134, 356
 김경환(金景煥) 107, 112
 김경환(金京煥) 54, 370, 378
 김계룡(金桂龍) 134, 356
 김관서(金寬西) 134, 356
 김광윤(金光允) 56
 김근환(金根煥) 106, 107, 370, 376, 380
 김기옥(金基玉) 107, 370, 378, 380
 김기홍(金基弘) 366
 김낙교(金洛敎) 41
 김낙봉(金洛鳳) 46, 285, 315, 323
 김낙운(金洛雲) 41
 김낙유(金洛有) 354
 김낙윤(金洛允) 41
 김낙종(金洛種) 41
 김낙중(金洛仲) 41
 김낙철(金洛喆) 46, 285, 315, 322
 김낙현(金洛現) 41
 김낙환(金洛煥) 41
 김남서(金南書) 45

김대규(金大奎) 54, 112, 370, 378
 김덕구(金德九) 353
 김덕명(金德明) 53, 186
 김덕여(金德汝) 134, 356
 김덕홍(金德洪) 134, 356
 김막동(金幕洞) 44
 김만순(金萬順) 44
 김만엽(金萬葉) 44
 김맹종(金孟宗) 40, 41
 김명국(金明國) 43
 김문일(金文日) 55
 김방서(金方瑞, 方西, 芳瑞, 邦瑞)
 321, 367
 김병운(金丙云) 354
 김병태 52
 김병혁(金炳赫) 352
 김봉서(金逢書) 45
 김봉철(金奉哲) 352
 김사현(金士玄) 144, 354
 김상수(金相秀) 44
 김상업(金相業) 43
 김상열(金相悅) 43
 김석균(金錫均) 370, 376
 김석윤(金錫允) 46
 김선오(金善五) 350
 김성보(金成甫) 364
 김성서(金成西) 351
 김성오(金成五) 351
 김성진(金成辰) 362
 김성진(金聲振) 82, 105, 108, 370,
 376, 378, 379

김성청(金成靑) 134, 356
 김성필(金成必) 351
 김세복(金世福) 45
 김세표(金世表) 41
 김세현(金世顯) 45
 김순경(金順京) 134, 356
 김순여(金順汝) 133, 367
 김시환(金時煥) 354
 김여수(金汝受, 汝守) 361
 김여옥(金汝玉) 55, 353
 김연국(金演局) 323
 김영대(金永大) 34
 김영래(金永來) 134, 356
 김영심(金永心) 134, 357
 김영집(金永集) 365
 김용보(金用甫) 353
 김용현(金龍鉉) 370, 379
 김원숙(金元淑) 355
 김원실(金元實) 134, 357
 김유창(金有昌) 46
 김윤창(金潤昌) 370, 380
 김응문(金應文) 55, 353
 김응백(金應伯) 134, 357
 김인오(金仁五) 351
 김일중(金一仲) 134, 357
 김자갈(金茲碭) 45
 김자근(金自斤) 353
 김자문(金子文) 55, 353
 김자일(金子一) 134, 357
 김재영(金在英) 134, 357
 김재현(金才鉉) 43

- 김재환(金在煥) 45, 82, 105, 107,
 109, 370, 377, 378, 379
 김제국(金濟局) 362
 김종선(金宗善) 45
 김중혁(金重革) 53
 김중현(金仲玄) 352
 김진곤(金鎭坤) 41
 김진구(金鎭龜) 41
 김진대(金鎭大) 41
 김진명(金鎭明) 41
 김진묵(金鎭默) 40, 41
 김진방(金鎭邦) 41
 김진상(金鎭相) 41
 김진석(金鎭錫) 41
 김진선(金鎭善) 32, 40, 41
 김진우(金鎭佑) 41
 김진욱(金鎭郁) 32, 40, 41
 김진필(金鎭必) 41
 김진학(金鎭學) 41
 김진한(金鎭漢) 41
 김진환(金鎭煥) 41
 김진효(金鎭孝) 41
 김창균(金蒼均) 53, 105, 108, 371,
 377, 378, 379
 김창룡(金倉龍) 43
 김춘경(金春京) 134, 357
 김춘래 364, 365
 김치오(金致五) 352
 김판권(金判權) 353
 김풍종(金豐宗) 365
 김학성(金學成) 44
 김학술(金學述) 371, 378, 380
 김학술(金鶴述) 377
 김학준(金學俊) 365
 김학진 29, 97, 316
 김화삼(金化三) 363
 김화조(金華祚) 45
 김효문(金孝文) 55
 김 훈 95
 김희완(金喜完) 352
 나경빈(羅敬賓) 120
 나경집(羅景集) 54, 114
 나관규(羅瓘奎) 300
 나도식(羅燾植) 371, 379
 나동륜(羅東綸) 54, 67, 95, 114, 300,
 315, 326
 나동환(羅東煥) 50, 220, 225, 291,
 315, 328
 나봉익(羅奉益) 55
 나사집(羅史集) 56
 나치현(羅致炫) 349
 나평집(羅平集) 294, 300
 나홍집(羅鴻集) 131, 144, 354
 남궁경(南宮敬) 348
 남궁달(南宮達) 365
 남석린(南錫麟) 104
 노대규(盧大圭) 356
 노덕팔(盧德八) 351
 노덕휘(魯德輝) 55
 노명언(魯明彦) 134, 357
 노양옥(盧良玉) 364
 노익호(盧益浩) 353

노인경(盧仁京) 134, 357
 노입문(盧入文) 356
 노홍상(魯洪尙) 134, 357
 문관후(文寬厚) 106, 107, 371, 377, 380
 문광현(文光玄) 363
 문락삼(文洛三) 106, 371, 377
 문성술(文成述) 362
 문연규(文連奎) 134, 357
 문영노(文永老) 371, 380
 문영도(文永道) 45
 문영술(文永述) 362
 민익화(閔益華) 371, 379
 민종렬(宗烈; 閔種烈) 29, 53, 66, 94, 110, 135, 145, 217, 313, 315, 332
 박건양(朴健洋) 352
 박겸오(朴兼五) 134, 357
 박경석(朴景錫) 354
 박경양 354
 박경욱(朴京郁) 106, 371, 377
 박경중(朴京仲) 354
 박경지(朴京之) 55
 박관욱(朴寬郁) 371, 377
 박근욱(朴根郁) 105, 371, 378, 379, 380
 박기연(朴淇年) 55
 박기운(朴沂雲) 55
 박기현(朴冀鉉) 94, 315, 327
 박덕기(朴德己) 131, 144, 354
 박덕윤(朴德允) 362

박동만(朴東萬) 144, 355
 박두영(朴斗瑛) 371, 377
 박로환(朴魯煥) 372, 378
 박만종(朴萬宗) 134, 357
 박몽국(朴夢國) 42
 박몽실(朴夢實) 42
 박문구(朴文句) 143, 353
 박문양(朴文陽) 372, 379
 박문주(朴文周) 364
 박문팔(朴文八) 134, 357
 박병국(朴炳國) 304
 박복암(朴卜巖) 365
 박봉옥(朴鳳玉) 42
 박사집(朴士集) 143, 353
 박상수(朴祥壽) 107, 372, 379
 박상욱(朴尙郁) 372, 377
 박성로(朴成老) 57, 84, 110, 372, 377, 381
 박세병(朴世秉) 36, 99, 316
 박수동(朴水東) 364
 박순서(朴順西) 55, 353
 박시홍(朴時弘) 372, 378, 379, 381
 박신환(朴信煥) 131, 144, 354
 박양규(朴良圭) 304
 박연규(朴年珪) 372, 377
 박용무(朴用武) 134, 358
 박원화(朴元化) 351
 박윤칠(朴允七) 106, 372, 377
 박윤홍(朴允弘) 372, 377
 박인지(朴仁之) 134, 143, 352, 358
 박장룡(朴長龍) 42

- 박정원(朴正元) 144, 355
 박종규(朴鐘奎) 365
 박종택(朴宗擇) 42
 박주대 191
 박중양(朴重陽) 372, 379
 박채증(朴采仲) 365
 박채현(朴采玄) 55
 박천수(朴千洙) 131, 147, 364
 박춘서(朴春西) 354
 박치경(朴致京) 55
 박치상(朴致相) 349
 박태길(朴泰吉) 304
 박태로(朴泰潞) 304
 박학목(朴鶴目) 355
 박현양 362
 박훈양(朴薰陽) 56
 배규인(裴圭仁;奎仁) 52, 55
 배규찬(裴奎璨) 55
 배정규(裴正圭) 55, 353
 배홍렬(裴洪烈) 355
 백낙중(白樂中) 133, 367
 백종삼(白宗三) 45
 백준수(白俊水) 352
 백처사(白處士) 352
 변만기(邊萬基) 94, 291, 315, 327
 봉윤정(奉允正) 134, 358
 봉윤홍(奉允弘) 134, 358
 서광복(徐光福) 325
 서기현(徐基鉉) 354
 서민수(徐民洙) 365
 서병무(徐丙懋) 101
 서상옥(徐相玉) 350
 서상조(徐尙祚) 354
 서여칠(徐汝七) 55, 353
 서연권(徐然權) 372, 377
 서우순(徐右順) 364
 서치운(徐致雲) 134, 358
 선부길(宣夫吉) 134, 358
 성두팔(成斗八) 134, 358
 성하영(成夏永) 318
 손랑숙(孫良淑) 355
 손상문(孫商文) 54, 56, 84, 105, 107,
 110, 372, 377, 378, 379, 381
 손순서(孫順西) 355
 손여옥(孫如玉) 355
 손영기(孫永己) 365
 손치홍(孫致洪) 107, 373, 377, 381
 손화중(孫化中;華仲) 53, 96, 116,
 354, 366
 송경찬(宋敬贊) 355
 송경창(宋景昌) 134, 358
 송군화(宋君化) 134, 358
 송덕순(宋德純) 373, 381
 송두호(宋斗浩) 131, 363
 송문수(宋文洙) 352
 송석준(宋石俊) 362
 송성구(宋成九) 362
 송영석(宋永石) 134, 358
 송재옥(宋在玉) 44
 송정권(宋正勸) 45
 송진팔(宋鎭八) 134, 358
 송진팔(宋辰八) 354

- 승용규(昇龍圭) 373, 377
 신석규(申錫圭) 42
 신석봉(申碩逢) 42
 신석필(申錫必) 42
 신영모(申永謀) 42
 신옥량(申玉郎) 42, 44
 신정희(申正熙) 317
 신항용(申恒用) 134, 358
 신흥열(辛洪烈) 304
 신희재(申孝才) 42, 132
 안종수(安宗洙) 67, 70
 양경수(梁京洙) 352
 양남중(梁南中) 373, 377
 양대숙(梁大淑) 55
 양상선(梁相善) 112, 373, 379
 양상집(梁相集) 364
 양상형(梁相衡) 94, 104, 106, 110, 315
 양순달(梁順達) 55
 양인환(梁仁煥) 106, 107, 373, 377, 379, 381
 양주묵(梁周默) 365
 양해일(梁海日) 133, 143
 양해일(梁海一) 353
 엄내영(嚴乃英) 364
 여 춘(汝 春) 110
 염세환 348
 염유진(廉有鎭) 107, 373, 380
 염효진(廉孝鎭) 112, 373, 379
 오계수(吳繼洙) 76, 95, 291
 오권선(吳權善, 勸善, 權先; 吳仲文, 重文) 30, 32, 45, 52, 111, 116, 291, 315
 오덕민(吳德敏) 55
 오득제(吳得齊) 373, 377
 오득환(吳得煥) 373, 377
 오병채(吳秉采) 365
 오석규(吳碩圭) 111
 오양신(吳良臣) 134, 358
 오지영(吳知泳) 36, 191, 242, 315, 322
 오태숙(吳泰淑) 352
 오홍순(吳弘順) 365
 오화준(吳華準) 373, 377
 왕왈신(王曰臣) 353
 원만석(元萬石) 352
 유광채(柳光彩) 373, 380
 유광화(劉光華) 223, 225
 유기연(柳紀淵) 86, 107, 320, 374, 380
 유동근(柳東根) 112, 374, 379
 유영관(柳永觀) 54
 유원숙(柳元淑) 364
 유제관(柳濟寬) 111
 유택근(柳澤根) 374, 380
 유희원(柳熙源) 366
 윤상근(尹相近) 134, 359
 윤상은(尹相殷) 134, 359
 윤세현 133
 윤시영 46
 윤영국(尹永菊) 134, 359
 윤자경(尹滋慶) 365

- 윤정보(尹正甫) 354
 윤찬진(尹贊辰) 354
 윤태한(尹泰翰) 349
 이경식(李京植) 359
 이경태(李敬泰) 133, 367
 이계성(李季成) 134, 359
 이곤진(李坤辰) 351
 이군서(李君瑞) 134, 359
 이귀표(李貴杓) 144, 355
 이규석(李圭錫) 352
 이규인(李奎寅) 374, 380
 이규태(李圭泰) 57, 95, 117, 315, 317, 333
 이규하(李奎夏) 86, 325
 이기범(李基凡) 362
 이길노(李佶魯) 374, 380
 이난현(李蘭憲) 374, 380
 이남석(李南石) 134, 359
 이도승(李道承) 79
 이도재 114
 이도춘(李道春) 365
 이돈기(李敦祺) 106, 374, 377, 381
 이동식 364, 365
 이두성(李斗星) 45
 이두연(李斗連) 354
 이두황(李斗璜) 95, 117, 318
 이득수(李得洙) 365
 이득수(李得秀) 366
 이만순(李萬順) 365
 이명진(李明辰) 55
 이문영(李文永) 101, 352
 이민상(李敏尙) 374, 381
 이민상(李敏相) 54
 이방언(李芳彦) 175, 363
 이병수(李炳壽) 54, 66, 95, 114, 223, 225, 287, 291, 315, 325
 이병조(李丙祚) 374, 380
 이병조(李秉祚) 352
 이부겸(李富兼) 134, 359
 이사환(李仕煥) 365
 이상영(李相永) 45
 이석용(李石用) 352
 이소사(李召史, 조이) 143, 353
 이순백(李順伯) 134, 359
 이신수(李信守) 43
 이영규(李永奎) 45
 이영근(李永根) 43
 이오서(李五瑞) 134, 359
 이원서(李源緒) 34
 이원우 29, 95, 110, 313, 316
 이은중(李殷仲) 55, 354
 이익선(李益善) 350
 이익성(李益成) 134, 359
 이인환(李仁煥) 361
 이자면(李滋面) 55
 이장태(李長泰) 352
 이재민(李在民) 351
 이재복(李在卜) 355
 이정현(李正憲) 31
 이종훈 348
 이중백(李仲伯) 365

- 이지무(李枝茂) 365
이창주(李昌朱) 134, 359
이춘서(李春西) 365
이춘익(李春益) 55, 351
이풍영(李豐榮) 343
이학서(李學西) 365
이학순(李學淳) 131, 147, 364
이학헌(李鶴憲) 374, 381
이현숙(李玄淑) 352
이형백(李亨伯) 352
이화삼(李化三) 145, 350, 351
이화진(李化辰) 53, 55, 353
이희문(李希文) 374, 380
이희하(李熙夏) 57
임노규(林魯奎·魯圭) 56, 374, 380
임노원(林魯源) 112
임명진(林明辰) 134, 359
임송도(林松都) 352
임양서(林良書) 44
임원화(任元化) 366
임찬선(林贊善) 366
임 학(林 鶴) 55
장강다구(張江多九) 365
장경삼(張京三) 354
장길한(張佶翰) 106, 107, 375, 377, 381
장대진(張大辰) 352
장두일(張斗一) 134, 359
장소회(張所回) 134, 360
장양윤(張良允) 45
장영옥(張永玉) 352
장용진(張用辰) 55, 354
장운학(張雲鶴) 352
장정영(張丁永) 45
장찬모(張贊謀) 45
장찬빈(張贊彬) 361
장현국(張賢局) 134, 360
전경선(全敬先) 353
전공서(錢公瑞) 107, 375, 377, 379, 381
전봉준(全琿準) 53, 66, 117, 143, 185, 217, 285, 315, 338, 353, 356, 363
전성창(全聖暢) 105
전수길(全秀吉) 351
전수지(全秀志) 351
전유창(全有昌) 32, 143, 353
전유창(全有暢) 351
전장하(全章夏) 132, 350
전재석(全在錫) 354
전창섭(全昌燮) 348
전천옥(全天玉) 32, 46
전학권(錢鶴權) 57, 84, 105, 107, 110, 375, 377, 378, 381
전후겸(全厚兼) 134, 360
정경택(鄭京宅) 354
정권서(鄭權西) 352
정기경(丁基京) 134, 360
정동관(鄭同寬) 144, 355
정동현(鄭東顯) 104
정무경(鄭武京) 351
정사심(鄭士心) 145, 351

- 정석진(鄭錫珍) 56, 66, 76, 82, 84,
 95, 108, 242, 315, 325
 정수해(鄭水海) 352
 정여삼(鄭汝三) 55, 353
 정영운(鄭永云) 352
 정원오(鄭元五) 352
 정이문(鄭已文) 364
 정정식(鄭正植) 31
 정치구(鄭致九) 366
 정태완(鄭台完;泰完) 53, 105, 107,
 375, 377, 378, 379, 380, 381
 정평오(鄭平五) 354
 진주정씨(晉州鄭氏) 50, 220, 225,
 291, 328
 조경순(趙景順) 134, 360
 조공서(曹公瑞) 352
 조광오(趙光五) 55
 조덕근(趙德根) 55, 354
 조덕승 50
 조맹균(曹孟均) 56
 조명구(曹明九) 134, 360
 조번개(曹番介) 353
 조병갑 189
 조병규(曹秉圭) 45
 조병묵(曹丙默) 353
 조병세(趙秉世) 332
 조석계(趙錫溪) 49
 조의문(趙義聞) 341
 조종순(趙宗楫) 363
 조철태(趙徹泰) 348
 주경노(朱京老) 131, 132, 349
 주기달(朱奇達) 49
 주성달(朱聖達) 49
 주심언(朱心彦) 145, 351
 주영신(朱永信) 350
 주윤철(朱允哲) 351
 지만일(池萬日) 366
 차석만(車石萬) 363
 채규상(蔡奎常) 97
 채대로미(蔡大老末) 352
 최경선(崔敬善;景先) 35, 79, 85, 95,
 110, 116, 352
 최국서(崔局西) 145, 351
 최기현(崔琪鉉) 367
 최남구(崔南九) 294
 최 등 363, 364, 365
 최동린(崔東麟) 132, 355
 최문빈(崔文彬) 55
 최문섭(崔文燮) 106, 375, 379, 380,
 381
 최문학(崔文學) 134, 360
 최문협 82
 최범구(崔範九) 131, 353
 최선현(崔善鉉) 355
 최성순(崔成純) 54, 106, 375, 378,
 379, 380, 381
 최성칠(崔性七) 353
 최순칠(崔順七) 134, 360
 최시형(崔時亨) 45, 322, 332, 345
 최신환(崔信煥) 112, 375, 379
 최용환(崔鎔煥) 376, 378
 최유헌(崔有憲) 134, 360

최윤룡(崔允龍) 105, 107, 376, 378, 379
최이현(崔二玄) 134, 360
최일봉(崔一鳳) 107, 376, 378, 381
최자중(崔自仲) 353
최장현(崔璋鉉) 355
최제우(崔濟愚) 194, 321
최주화(崔周華) 363
최준숙(崔俊淑) 352
치 성(致 成) 147, 364
표영삼 46
하계현(河啓獻) 44
하재원(河在元) 352
한기동(韓耆東) 97
한달문(韓達文) 145, 225, 315, 328, 351, 367
한성옥(韓成玉) 352
한정교(韓貞敎) 361
한충상(韓忠相) 352
한치화(韓致和) 328
허영재(許英才) 55
허 인(許 仁) 351
허재중(許在仲) 131, 144, 354
홍계훈(洪啓薰) 200, 332, 341
홍곤삼(洪坤三) 364
홍낙관(洪洛觀) 116
홍봉현(洪鳳鉉) 54
홍우현(洪佑鉉) 107, 376, 381
홍재희 79
황상연(黃相連) 43, 134, 360
황정오(黃正五) 134, 360

황정옥(黃丁郁) 43
황준삼(黃俊三) 133, 367
황찬국(黃贊菊) 134, 360
황찬묵(黃贊默) 354
황채오(黃彩五) 355
황 현(黃 玪) 95, 113, 191, 195, 315, 326
황홍모(黃洪模) 366

가토 마스오(加藤增雄) 331
다케우치 신타로 117
모로타 요시후미 331
모리오 마사이치(森尾雅一) 315, 333
무라타 요시아야(室田義文) 330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 330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 95, 117, 174, 176, 178, 315, 334
스기무라 후카시(杉村濤) 330, 331
우미우라 아츠야(海浦篤彌) 332
천우협(天佑俠) 315, 331
쿠스노키 비요키치(楠美代吉) 12, 282, 315, 347
파계생(巴溪生) 192
하야시 타다스(林董) 330, 331

나주학 총서 2집

나주동학농민혁명의 재조명

발행일 2022년 12월 23일

발행인 나주시장 윤병태

발행처 나주시

58263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전화 061)339-4605 팩스 061)339-2922

인쇄처 내일미디어

58254 전남 나주시 중앙로 20

전화 061)333-4656 팩스 061)334-4656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사진의 저작권은 나주시에 있습니다.
무단 게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나주동학농민혁명의 재조명